



센(SEN)진학

교	과	연	계	대	입
논	술	가	이	드	북

- 인문·상경계열, 약술형 논술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 발간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서술형·논술형 평가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서술 및 논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논술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이 집중되어 있어, 서울 관내 학교 현장에서는 논술 지도 지원 자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서술형·논술형 평가에서 요구하는 논리적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과 수업 운영과 대입 논술 지도를 계획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 논술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교과 연계 대입 논술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2026 대입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art 1. 논술전형 바로 알기】에서는 2026 대입 수시 모집 요강에 따른 논술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Part 2. 대학별 논술 고사 바로 알기】에서는 각 대학별 논술 문제 유형과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대학별 논술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별 문제 유형을 반영한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선생님은 수업에, 학생은 자기주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논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부록에 포함하였으며, 가이드북이 현장에서 보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서책뿐만 아니라 파일 형태로도 제공합니다.

이 안내서가 논리적인 글쓰기를 원하는 학생들과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싶은 모든 선생님들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개발하여 더욱 충실히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임 유 원 

# 목 차

Part

I

## 논술전형 바로 알기

- 1. 2026 대입 논술로 바라본 논술전형의 이해 ..... 10
- 2. 인문 논술 논제 유형 및 유형별 대학 목록 ..... 23
- 3. 인문 논술 준비 전략 ..... 25

Part

II

##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 1. 인문계열-비문학 중심 ..... 29
  - 1) 홍익대학교 ..... 30
- 2. 인문계열-문학 제시문 포함 ..... 53
  - 2) 경희대학교 ..... 54
  - 3) 광운대학교 ..... 78
  - 4) 동국대학교 ..... 96
- 3. 인문계열-영어 제시문 포함 ..... 115
  - 5) 이화여자대학교 ..... 116
  - 6) 한국외국어대학교 ..... 151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b>4. 인문계열-통계자료 포함</b> .....	175
7) 건국대학교 .....	176
8) 인하대학교 .....	197
<b>5. 상경계열-수학 포함</b> .....	223
9) 숭실대학교 .....	224
10) 중앙대학교 .....	248
<b>6. 약술형 논술</b> .....	267
11-1) 가천대학교(국어) .....	268
11-2) 가천대학교(수학) .....	290

Part

III

**부 록**

<b>1. 논술에 도움이 되는 작문 지침</b> .....	314
<b>2. 텍스트를 반성적으로 읽기 위한 평가 요소</b> .....	316

## • 이 책의 구성 및 활용 가이드 •



이 자료집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8 대입을 대비하여 교과연계 서술 및 논술 역량을 신장하고,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로 논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제작된 인문 논술 지원 자료입니다.

주요 대학의 인문 논술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응 전략, 기출 문제 해설 및 연습문제를 제시하여 대입 논술 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의 논술전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대학별로 분책할 수 있게 편집되어 있으며, 유형별 연습문제만 따로 모은 파일을 제공하여 자료집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별 논술전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제시하였습니다.

### 구성

- 인문·사회·상경 계열의 논술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대학별 2026 논술전형 정보(2025. 5. 31. 기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논술 준비’는 최근 3년간 대학별 논술 문항 출제 자료를 바탕으로, 1.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 문항 유형 특성, 3. 출제 자료 및 도서 출처로 유목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기출문제’에서는 해당 유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항을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기출문제 분석’에서는 각 대학 입학처에서 매년 공개하는 ‘선행학습 영향 평가 자체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1. 문항해설, 2. 채점 기준, 3. 예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논술 준비 팁’에서는 최근 3~5년간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각 대학 출제 경향 및 문제 유형에 따른 논술 대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각 대학별 논술 준비 팁을 반드시 확인하여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연습문제’는 해당 유형의 문제를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학생의 예시 답안 및 첨삭을 제시하여 논술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예시 답안’은 답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학생 지도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준비하는 대학의 논술전형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 자료집에 사용된 용어 및 표현들은 가급적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의 표현 및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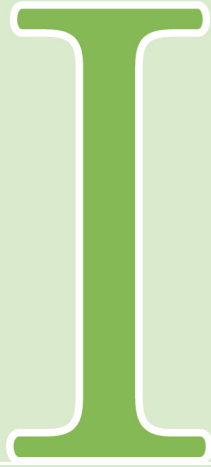
#### 활용

- 논술대비반 지도계획 수립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문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대상 학년은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도 교과 연계 서술 및 논술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예시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 학생 혼자서도 논술을 대비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쓰려고 했으며, 연습문제에 대한 학생 예시 정답 및 교사의 첨삭을 제공하여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이 자료집의 정보는 2025년 5월 31일 기준이므로, 수시전형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반드시 각 대학 입학처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집에서 제시하는 논술의 유형은 오랜 현장 지도 경험을 토대로 분류한 것이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집의 내용은 대학별 논술전형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나, 각 대학의 2026학년도 논술전형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art



# 논술전형 바로 알기





## 교과 연계 대입 논술 가이드북

- 인문·상경 계열, 약술형 논술 중심으로 -

**01** 2026 대입 논술로 바라본 논술전형의 이해

**02** 인문 논술 논제 유형 및 유형별 대학 목록

**03** 인문 논술 준비 전략

# 01 2026 대입 논술로 바라본 논술전형의 이해

## 1 인문계열 논술전형 실시 대학 및 모집 인원



### 가. 인문계열 논술전형 실시 대학

- 2026 대입 인문계열(약술형 논술 포함) 논술전형 실시 대학은 총 41개교이다. 서울시립대와 서울과기대, 중앙대(다빈치), 홍익대(세종) 등은 수리 논술 기반의 자연 계열만 논술전형을 실시한다.
- 강남대(인문사회계 231명, 공학계 95명, 자유전공학부 33명, 총 359명), 국민대(인문 73명, 자연 153명, 총 226명)가 논술전형을 신설하였다.

#### 지역별 인문계열(국어 문제가 출제되는 약술형 포함) 논술전형 모집 대학

지역	대학 수	대학명
서울	24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경기	12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단국대, 수원대, 신한대, 아주대, 을지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신대
인천	1	인하대
강원	1	연세대(미래)
충남	1	한국기술교육대
대구	1	경북대
부산	1	부산대
세종	1	고려대(세종)

※ 한국외대는 지역을 구분함

### 나. 인문계열 논술전형 모집 인원

- 2026 대입 인문계열(국어 문제가 출제되는 약술형 포함) 논술전형 모집 인원은 7,227명으로, 2025학년도 6,458명에 비해 769명 증가하였다.
- 논술전형 신설 학교를 제외하면 모집 인원의 큰 변화는 없으나 가천대 자연계열, 고려대(세종), 동덕여대, 을지대 등의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하였고, 세종대는 자유전공학부의 논술전형을 신설하였다.

2025, 2026 인문계열(국어 문제가 출제되는 약술형 포함) 논술전형 모집 인원 변화

지역	대학명	응시계열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전년 대비
			인문	자연	통합	예체능	합계	인문	자연	통합	예체능	합계	
서울	건국대	인문	45				45	43				43	-2
서울	건국대	통합	79		69		148	58		65		123	-25
서울	경희대	인문·체육계	63			10	73	63			10	73	0
서울	경희대	사회계	91		8		99	90		8		98	-1
서울	고려대	인문	155		15		170	148		15		163	-7
서울	광운대	인문	72				72	70				70	-2
서울	국민대	약술형(인문)					0	73				73	73
서울	국민대	약술형(자연)							153			153	153
서울	덕성여대	인문·사회계열	60				60	70				70	10
서울	동국대	인문계열	150				150	143				143	-7
서울	동덕여대	인문사회 I, II	136				136	157				157	21
서울	삼육대	약술형(인문계열)	40				40	49				49	9
서울	삼육대	약술형(자연계열)		87			87		105			105	18
서울	상명대	약술형(인문)	43		11		54	43		11		54	0
서울	상명대	약술형(자연)		45		2	47		47		2	49	2
서울	서강대	인문계열	109				109	108				108	-1
서울	서경대	약술형(통합)			216		216			204		204	-12
서울	서울여대	인문사회	82		12		94			80		80	-14
서울	성균관대	언어형	155				155	133	34	15		182	27
서울	성신여대	인문계	84				84	84				84	0
서울	세종대	인문계열	65				65	66				66	1
서울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0			40		40	40
서울	숙명여대	인문	145				145	142				142	-3
서울	송실대	인문	65				65	62				62	-3
서울	송실대	경상	44				44	42				42	-2
서울	연세대	인문	94				94	89		12		101	7
서울	이화여대	인문 I	68					63					
서울	이화여대	인문 II	91		13		172	91		13		167	-5
서울	중앙대	인문사회	148				148	149				149	1
서울	중앙대	경영경제	89				89	89				89	0
서울	한국외대(서울)	인문계	171		16		187	166		23		189	2
서울	한국외대(서울)	사회계	119				119	110				110	-9

I 논술전형 바로 알기

II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III 부록

지역	대학명	응시계열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전년 대비
			인문	자연	통합	예체능	합계	인문	자연	통합	예체능	합계	
서울	한양대	인문	32			4	36	32			4	36	0
서울	한양대	상경	29		15		44	29		15		44	0
서울	홍익대(서울)	인문계열, 예술학과, 서울캠퍼스자율전공(서울, 인문예능)	117		38	4	159	117		38	4	159	0
경기	가천대	예술형(인문)	286				286	288				288	2
경기	가천대	예술형(자연, 의예과 제외)		686			686		715			715	29
경기	가톨릭대	인문사회계열	76				76	68				68	-8
경기	강남대	예술형(인문사회계)					0	231				231	231
경기	강남대	예술형(자유전공학부)					0			33		33	33
경기	강남대	예술형(공학계)					0		95			95	95
경기	경기대	언어·사회			134		134			134		134	0
경기	단국대	인문	121				121	127				127	6
경기	수원대	예술형(인문)	135			10	145	138			10	148	3
경기	수원대	예술형(자연)		305			305		293			293	-12
경기	신한대	예술형(인문사회계열)	50				50	83				83	33
경기	신한대	예술형(자연과사회계열공학계열)		74			74		83			83	9
경기	아주대	인문	26		5		31	31				31	0
경기	을지대	예술형(인문, 자연)	27	105	16		148	46	139	29		214	66
경기	한국외대(글로벌)	인문계	54		28		82	49	32			81	-1
경기	한국외대(글로벌)	사회계	12				12	12				12	0
경기	한국항공대	사회적성	21		3		24	19		7		26	2
경기	한신대	예술형(인문)	132		25		157	134		30		164	7
경기	한신대	예술형(자연)		108			108		97			97	-11
인천	인하대	인문계열	149				149	141				141	-8
강원	연세대(미래)	미래인재		6	75		81		6	87		93	12
충남	한국기술교대	예술형(공학·ICT 계열)		147			147		122			122	-25
충남	한국기술교대	예술형(사회계열)	26				26	28				28	2
대구	경북대	인문	114	21	82		217	124	25	42		191	-26
부산	부산대	인문·사회	110				110	95		15		110	0
세종	고려대(세종)	인문	76			7	83	133			9	142	59

## 2 인문계열 논술전형 논술 고사 일정



- 가톨릭대, 단국대, 상명대, 서경대, 연세대, 성신여대, 을지대, 홍익대는 전년과 같이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 수능일 이후 주말에(11/15(토), 11/16(일), 11/22(토), 11/23(일)) 논술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많다. 모집요강을 통해 모집 단위별 논술 고사 일시를 미리 공지한 학교가 있고, 논술 고사일 직전에 공지하는 학교도 있다. 따라서 지원 시 고사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사전에 각 대학 모집요강 및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고사일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 숙명여대와 을지대는 고사 기간(2일)만 안내하였으며, 모집단위별 논술고사일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논술고사일	대학명(계열)
9.27.(토)	성신여대(인문계), 연세대
9.28.(일)	서경대, 가톨릭대(인문사회계열)
10.18.(토)	단국대(인문), 을지대(*)
10.19.(일)	홍익대(인문, 예술, 자율전공), 을지대(*)
10.31.(금)	상명대
11.13.(목)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15.(토)	건국대, 경희대(인문·체육계),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송실대, 수원대(자연), 한국항공대
11.16.(일)	경희대(사회계), 고려대(인문), 동국대, 삼육대, 서강대(인문계열), 숙명여대(*), 수원대(인문)
11.17.(월)	삼육대
11.19.(수)	한국기술교대
11.21.(금)	경기대, 연세대(미래-미래인재)
11.22.(토)	동덕여대(인문사회 I, II), 세종대(인문, 자율전공), 이화여대(인문 I, II), 한국외대(T1, T2), 한양대(인문, 상경), 강남대,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11.23.(일)	광운대(인문), 덕성여대, 신한대, 중앙대(인문사회, 경영경제), 한국외대(T3, T4)
11.24.(월)	가천대(인문계열, 간호학과, 클라우드공학과, 바이오로직스학과)
11.25.(화)	가천대(자연계열(간호학과, 바이오로직스학과, 의예과, 클라우드공학과 제외))
11.29.(토)	국민대(인문), 인하대(인문계열)
11.30.(일)	한신대, 국민대(자연), 아주대(인문)

※ 계열 표시가 없는 대학은 해당 날짜에 모든 계열에 대한 논술고사를 실시함.

3

전형 방법 및 주요 변경 사항



- 논술전형은 큰 틀에서 논술고사로만 선발하는 전형과 논술고사 성적과 교과 성적을 일부 반영하여 선발하는 전형으로 나뉜다. 예외적으로 한양대는 논술고사 성적에 종합 평가(출결, 봉사활동 등을 참고하여 학교생활 성실도 중심 평가)를 10% 반영한다. 동국대, 중앙대 등은 교과 성적 일부에 출결을 추가적으로 반영한다.
- 삼육대, 한신대, 을지대 등은 전형 방법을 변경하였고, 단국대는 논술고사 문제 구성이 변경(대문항 3개에서 2개로 변경, 문제별 소논제 있음)되었다.
- 대학별 수시 모집요강을 통해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6 인문계열(국어 문제가 출제되는 약술형 포함) 논술전형 전형 방법

지역	대학명	전형명	응시 계열	전형 방법	2025 대입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서울	건국대	KU논술우수자	인문, 통합	논술100	응시 유형 변경 (인문사회 I → 인문 / 인문사회 II, 자유전공 → 통합)
서울	경희대	논술우수자	인문·체육계, 사회계	논술100	체육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 과목 축소 (국수영탐(1) 1개 3, 한 5 → 국수영탐(1) 1개 3)
서울	고려대	논술	인문	논술100	경영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국수영탐(1) 4개 합 5 → 4개 합 8)
서울	광운대	논술우수자	인문	논술80+교과20	전형방법 변경 (논술70+교과30 → 논술80+교과20)
서울	국민대	논술우수자	약술형(인문, 자연)	논술100(약술형)	전형 신설
서울	덕성여대	논술	인문·사회계열	논술100	
서울	동국대	논술	인문계열	논술70+교과20+출결10	
서울	동덕여대	논술우수자	인문사회 I·II	논술100	
서울	삼육대	논술우수자	약술형(인문, 자연)	논술100	전형방법 변경 (논술70+교과30 → 논술100)
서울	상명대	논술	약술형(인문, 자연)	논술90+교과10	
서울	서강대	논술(일반)	인문계열	논술100	전형방법 변경 (논술80+교과10+출결10 → 논술100)
서울	서경대	논술우수자	약술형(통합)	논술90+교과10	
서울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인문사회	논술80+교과20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1개 3→폐지)
서울	성균관대	논술위주-언어형	언어형	논술100	언어형/수리형으로 분리 모집
서울	성신여대	논술우수자	인문계	논술100	전형방법 변경 (논술90+교과9+출결1 → 논술100)
서울	세종대	논술우수자	인문계열	논술70+교과30	

지역	대학명	전형명	응시 계열	전형 방법	2025 대입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서울	세종대	논술우수자	자유전공학부	논술70+교과30	자유전공학부 논술 신설
서울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인문	논술90+교과10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 변경
서울	송실대	논술우수자	인문, 경상	논술80+교과20	경상계열 교과별 가중치 변경
서울	연세대	논술	인문	논술100	
서울	이화여대	논술	인문 I·II	논술100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국수영탐(1) 3개 합 6 → 2개 합 5)
서울	중앙대	논술	인문사회, 경영경제	논술70+교과20+출결10	
서울	한국외대	논술	인문계, 사회계	논술100	
서울	한국외대 (글로벌)	논술	인문계, 사회계	논술100	
서울	한양대	논술	인문, 상경	논술90+종합평가10	수능최저학력기준 신설 (국수영탐(1) 3개 합 7)
서울	홍익대(서울)	논술	인문계열, 예술학과, 서울캠퍼스자율전공 (서울, 인문·예능)	논술90+교과10	
경기	가천대	논술	약술형(인문, 자연-의예과 제외)	논술100	
경기	가톨릭대	논술	인문사회계열	논술80+교과20	
경기	강남대	논술위주	약술형(전 모집단위)	논술80+교과20	전형 신설
경기	경기대	논술우수자	언어·사회	논술90+교과10	
경기	단국대	논술우수자	인문	논술80+교과20	반영 교과 및 교과 반영 방법 변경, 논술고사 문제 구성 변경
경기	수원대	교과논술	약술형(전 모집단위)	논술75+교과25	
경기	신한대	논술	약술형(전 모집단위)	논술90+교과10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1개 5 → 폐지)
경기	아주대	논술우수자	인문	논술80+교과20	
경기	을지대	논술우수자	약술형(전 모집단위)	논술80+교과20	전형방법 변경 (논술70+교과30 → 논술80+교과20)
경기	한국항공대	논술우수자	사회적성	논술100	
경기	한신대	논술	약술형(전 모집단위)	논술80+교과20	전형방법 변경 (논술60+교과40 → 논술80+교과20)
인천	인하대	논술우수자	인문계열	논술70+교과30	
강원	연세대(미래)	논술우수자 (미래인재)	미래인재	논술100	
충남	한국기술교대	논술	약술형(전 모집단위)	논술100	
대구	경북대	논술(AAT)	인문	논술70+교과30	
부산	부산대	논술	인문·사회	논술70+교과30	
세종	고려대(세종)	일반	인문	논술100	고사시간 변경(90분 → 120분)

4

수능최저학력기준



- 인문계열(국어 문제가 출제되는 약술형 포함)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41개 대학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25개교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학별로 기준이 다른 만큼,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026학년도에 논술전형이 신설된 국민대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국수영탐(1) 2개 합 6으로 설정하였고, 강남대는 적용하지 않았다.
- 고려대(경영대학), 서울여대, 신한대, 이화여대 등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되었거나 폐지되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의 변화가 예상된다.

2026 인문계열(국어 문제가 출제되는 약술형 포함)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지역	대학명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2025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
서울	건국대	KU논술우수자	국,수,영,탐(1) 2개 합 5, 한 5	60.4
서울	경희대	논술우수자	인문: 국,수,영,탐(2) 2개 합 5, 한 5 체육: 국,수,영,탐(2) 1개 3	
서울	고려대	논술	국,수,영,탐(1) 4개 합 8, 한 4	51.7
서울	국민대	논술우수자	국,수,영,탐(1) 2개 합 6	2026 신설
서울	덕성여대	논술	국,수,영,탐(1) 2개 합 7	58.6
서울	동국대	논술	인문: 국,수,영,탐/직(1) 2개 합 5, 한 4 컴퓨터·AI(인문): 국,수,영,탐/직(1) 수 포함 2개 합 5, 한 4 경찰행정학부: 국,수,영,탐/직(1) 2개 합 4, 한 4	29.2
서울	동덕여대	논술우수자	국,수,영,탐(1) 2개 합 7	
서울	삼육대	논술우수자	국,수,영,탐/직(1) 1개 3	
서울	서강대	논술(일반)	국,수,영,탐/직(1) 3개 합 7, 한 4	인문: 57.8 자연: 64.8
서울	성균관대	논술위주-언어형	인문: 국,수,영,탐,탐 3개 합 6 글로벌리더·경영·경제, 자유전공: 국,수,영,탐,탐 3개 합 5	35.7
서울	성신여대	논술우수자	국,수,영,탐/직(1) 2개 합 7	61.1
서울	세종대	논술우수자	국,수,영,탐(1) 2개 합 5	인문: 35.5 자연: 35.7
서울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국,수,영,탐(1) 2개 합 5	

지역	대학명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2025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
서울	송실대	논술우수자	국,수,영,탐(1) 2개 합 5	인문: 51.1 경상: 50.7 자연: 51.2
서울	이화여대	논술	인문: 국,수,영,탐(1) 국 포함 2개 합 5 스크랜트학부: 국,수,영,탐(1) 3개 합 5	
서울	중앙대	논술	국,수,영,탐(1) 3개 합 6, 한 4, (단, 영어 1, 2등급을 통합하여 1등급으로 간주)	22.3
서울	한국외대	논술	인문: 국,수,영,탐(1) 2개 합 4, 한 4 LD, LT학부: 국수영탐(1) 2개 합 3, 한 4	인문: 32
서울	한국외대(글로벌)	논술	국,수,영,탐(1개) 3, 한 4	인문: 47.9
서울	한양대	논술	국,수,영,탐(1) 3개 합 7	
서울	홍익대	논술	국,수,영,탐(1) 3개 합 8, 한 4	
경기	가천대	논술	인문, 자연: 국,수,영,탐(1) 1개 3 바이오로직스공학과: 국,수,영,탐(1) 2개 합 5 클라우드공학과: 국,미/기,영,과(2) 2개 합 4	
경기	한국항공대	논술우수자	국,수,영,탐/직(1) 2개 합 6	30.7
대구	경북대	논술(AAT)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수,영,탐(1) 2개 합 6 경상,사범대학,행정학부,자율전공학부: 국,수,영,탐(1) 2개 합 5	31.8
부산	부산대	논술	국,수,영,탐(1) 2개 합 4 경영학과: 국,수,영,탐(1) 3개 합 7	
강원	연세대(미래)	논술우수자	자율융합계열: 국,수,영,탐(1) 2개 합 7 또는 국,수,탐(1) 1개 2 간호학과: 국,수,영,탐(1) 2개 합 5 또는 국,수 중 1개 1	
세종	고려대(세종)	일반	국,수,영,탐(1) 2개 합 6	

※ 2025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은 대학에서 공개한 실질 경쟁률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계열 구분이 없는 경우 논술전형 내 전체 모집단위의 평균 충족률을 의미함.

**2026 인문계열(국어 문제가 출제되는 약술형 포함)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대학**

가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여대, 수원대, 신한대, 아주대, 을지대, 연세대, 인하대, 한국기술교대, 한신대  
\* 서울여대, 신한대는 2026학년도에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5

학생부 반영교과 및 등급별 환산점수



- 논술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총 22개교이다. 논술전형에서 교과 성적의 영향력은 다른 전형(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해 낮지만, 대학별로 특정 등급부터 감점 폭이 큰 만큼 지원하기 전에 유불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같더라도 대학별로 점수 부여 방법이 달라 교과 성적의 실질 반영 비율이 다르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교과 성적 실질 반영 비율을 사전에 확인해 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2026 대입 논술전형 교과 성적 등급별 환산 점수표

대학명	반영교과		등급별 환산점수								
	반영 교과	진로선택과목반영방법	1	2	3	4	5	6	7	8	9
가톨릭대	국수영사과한	반영교과 전과목	100 (A)	99.5	99 (B)	98.5	98 (C)	97.5	97	90	70
강남대	국수영사과한 상위 20과목		100	99 (A)	98 (B)	97	96 (C)	95	94	91	87.5
경기대	국수영사과한	반영교과 전과목	100 (A)	99 (B)	97	95 (C)	90	85	60	20	0
경북대	국수영사과한	미반영	150	145	140	135	130	120	100	50	0
광운대	국영수사과한	반영교과 전과목	100 (A)	98 (B)	96	94 (C)	92	88	80	70	0
단국대	국수영사과한	반영교과 전과목	100 (A)	99	98 (B)	97	96 (C)	95	70	40	0
동국대	국수영사과한 상위 10과목	미반영	10	9.97	9.93	9.9	9.8	8.7	7.0	6.0	5.0
부산대	국수영사과한	미반영	100	99	98	97	96	95	90	60	0
상명대	전 교과	상위 3과목	100 (A)	98	96 (B)	94	90 (C)	80	60	40	0
서경대	국수영탐(한 포함) 각 교과 상위 3과목	미반영	100	99	98	97	96	95	90	80	60
서울여대	국수영사과	미반영	20	19	18	17	16	14	11	8	5
세종대	국수영사	반영교과 전과목	1000 (A)	990	980 (B)	950	900 (C)	800	700	500	0
수원대	국수영사 각 교과 상위 5과목	미반영	100	98.25	96.50	94.75	93	91.25	83.75	80	75

대학명	반영교과		등급별 환산점수								
	반영 교과	진로선택과목 반영방법	1	2	3	4	5	6	7	8	9
송실대	국수영사한	상위 3과목	2.0 (A)	1.9 (B)	1.8 (C)	1.7	1.6	1.4	1.0	0.6	0
신한대	국수영사과한 상위 10과목	석차등급 기재 1과목 대체 가능	100	99 (A)	97.5	96 (B)	94.5	91.5	88.5	82 (C)	68
아주대	국수영사과	상위 5과목	100 (A)	99	98 (B)	95	90 (C)	85	75	65	0
을지대	국수영사과한	미반영	100	98	96	94	92	90	70	40	10
인하대	국수영사한	상위 3과목	10 (A)	9.6 (B)	9.5	9.5 (C)	9.4	9.4	7.2	3.6	0
중앙대	국수영사과한 상위 5과목	미반영	10.00	9.96	9.92	9.88	9.84	9.80	9.60	8.00	4.00
한신대	국수영사과한 상위 12과목	미반영	100	99	98	97	96	95	94	90	85
홍익대	국수영 + 새(한 포함)/과 중 택 1	미반영	100	99	97	94	90	85	60	30	0

\* 숙명여대는 반영교과의 환산석차등급으로 점수를 부여함

대학명	반영교과		환산석차등급별 성적 배점표								
	반영 교과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	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6미만	6이상 7미만	7이상 8미만	8이상 9미만	9
숙명여대	국수영사과한	반영교과 전과목	100	98.9	97.8	96.6	95.4	90.4	85.9	81.9	75

6

경쟁률



- 서강대, 서경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의 2025학년도 인문 계열 논술전형 평균 경쟁률은 2024학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경쟁률이 상승하였다. 특히 2025학년도 건국대 인문사회 I (2026학년도부터 인문으로 명칭 변경)과 경희대 사회계열, 한양대 인문계열은 2024학년도에 비해 경쟁률이 대폭 상승하였다.
- 인문 계열 논술전형에서 경쟁률이 높은 모집 단위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경영학, 자유전공으로 인문 계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위의 합격자 논술고사 평균 점수는 대체로 높은 경향성을 보이지만, 경쟁률과 평균 점수가 반드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5학년도 성신여대 인문계열 논술전형의 경쟁률 Top 3 모집단위는 간호학과(인문, 69.60:1), 법학부(44.13:1), 문화예술경영학과(44.00:1)였으나, 해당 모집단위의 논술 고사 평균 점수 순위는 각각 4위, 18위, 9위였다. 특히 사학과의 경쟁률은 인문계열 모집단위 중 하위권이었으나, 논술고사 평균 점수는 85.67점으로 3번째로 높았다.

2024, 2025 대학별 논술전형 경쟁률

대학명	응시 계열	응시 계열 평균 경쟁률		2025 최상위 경쟁률 모집단위 (N:1)	2025 최하위 경쟁률 모집단위 (N:1)
		2025 (N:1)	2024 (N:1)		
가천대	인문	38.68	30.97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62.42	법과대학 32.84
가천대	자연 (의예과 제외)	36.11	37.38	클라우드공학과 86.00	금융·빅데이터학부 27.50
가톨릭대	인문사회	36.63	30.19	심리학과 44.00	국어국문학과 30.50
건국대	인문 I (인문)	144.15	83.2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66.00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121.00
	인문 II (통합)	33.97	47.33	경영학과 43.69	기술경영학과 29.50
	KU자유전공학부(통합)	58.17	2025 신설	단일 모집단위	단일 모집단위
경기대	언어·사회	35.13	20.86	자유전공학부(수원) 36.28	자유전공학부(서울) 32.33
경북대	인문	17.96	21.5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5.00	자유전공학부 12.63
경희대	인문·체육계	108.98	88.10	철학과 155.29	한국어학과 43.00
경희대	사회계	95.55	65.72	한의예과(인문) 434.80	조리&푸드디자인학과 46.50
광운대	인문	48.56	44.9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55.5	국어국문학과 38.8
고려대	인문	68.29	2025 신설	자유전공학부 91.00	국어교육과 37.20
고려대(세종)	인문	9.34	5.55	국제스포츠학부 12.14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7.00
단국대	인문	38.50	35.02	철학과 45.67	한문교육과 25.75

대학명	응시 계열	응시 계열 평균 경쟁률		2025 최상위 경쟁률 모집단위 (N:1)	2025 최하위 경쟁률 모집단위 (N:1)
		2025 (N:1)	2024 (N:1)		
덕성여대	인문·사회	65.88	61.85	글로벌융합대학(인문사회) 68.13	유아교육과 41.20
동국대	인문	63.06	66.58	법학과 75.87	경찰행정학부(인문) 48.80
동덕여대	인문사회 I	29.33	25.82	영어전공, 문헌정보학전공 30.8	큐레이터학전공 25.5
동덕여대	인문사회 II	32.75	31.62	커뮤니케이션콘텐츠전공 34.9	앙트러프러너십전공 29.0
부산대	인문	20.88	19.76	경영학과 31.80	유아교육과 13.60
삼육대	인문	37.15	33.98	경영학과 54.67	유아교육과 28.60
서강대	인문	82.01	97.92	지식융합미디어학부 100.80	경제학과 67.29
서경대	통합	14.90	20.00	자유전공학부 17.36	미래융합학부2 14.48
서울여대	인문사회	24.30	21.90	언론영상학부 32.60	사회복지학과 21.20
성균관대	인문(언어형)	97.61	82.05	사회과학계열 114.58	글로벌경제학과 74.00
성신여대	인문계	42.68	31.74	간호학과(인문) 69.60	국어국문학과 34.00
세종대	인문	71.43	70.3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84.00	역사학과 51.00
수원대	인문	14.06	14.06	인문사회융합대학 14.91	디지털콘텐츠학과 11.20
수원대	자연	12.81	13.70	간호학과 48.50	건축도시부동산학부 8.60
숙명여대	인문	37.80	39.31	사회심리학과 43.67	소비자경제학과 31.33
송실대	인문	36.98	17.17	언론홍보학과 47.75	평생교육학과 28.75
송실대	경상	23.84	12.93	경영학부 28.00	금융학부 19.00
신한대	인문사회	13.28	2025 신설	경영대학 13.72	사회과학대학 12.84
신한대	자연과학	23.14	2025 신설	간호학과 36.53	전자공학과 14.33
아주대	인문	93.41	87.58	자유전공학부(인문) 103.8	국어국문학과 83.8
을지대	인문, 자연	15.85	2025 신설	간호학과 49.58	인문사회계열학부 6.83
연세대	인문	77.81	76.47	경영학과 105.73	중어중문학과 59.25
연세대(미래)	미래인재	10.11	10.59	간호학과 43.83	자율융합계열 7.41
이화여대	인문 I	32.55	33.29	영어영문학부 38.44	기독교학과 20.33
이화여대	인문 II	27.88	27.84	경영학부 32.84	국제사무학과 21.20

대학명	응시 계열	응시 계열 평균 경쟁률		2025 최상위 경쟁률 모집단위 (N:1)	2025 최하위 경쟁률 모집단위 (N:1)
		2025 (N:1)	2024 (N:1)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자유전공	65.46	67.53	단일 모집단위	단일 모집단위
인하대	인문	36.88	32.67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6.50	한국어문학과 31.00
중앙대	인문사회	72.14	84.07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22.30	중국어문학과 51.67
중앙대	경영경제	52.33	59.94	경영학과 55.57	국제물류학과 45.33
한국기술교대	인문	9.73	10.48	산업경영학부 10.14	고용서비스정책학과 8.00
한국기술교대	자연	12.66	13.31	컴퓨터공학부 14.24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11.11
한국항공대	사회적성	48.58	35.62	항공·경영대학 49.14	자유전공학부 44.67
한국외대	인문계	37.95	32.90	자유전공학부(서울) 56.60	태국학과 27.00
한국외대	사회계	62.52	53.15	경영학부 74.60	독일어교육전공 24.50
한국외대 (글로벌)	인문계	30.00	23.10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52.00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17.50
한국외대 (글로벌)	사회계	44.58	29.20	GBT학부 48.00	Finance & AI융합학부 39.70
한신대	인문	4.32	6.46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과 6.40	중국어문화콘텐츠학과 2.71
한신대	자연	4.81	3.72	AI 시스템반도체학과 5.63	빅데이터융합학과 3.90
한양대	인문	227.28	195.1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91.80	정책학과 62.50
한양대	상경	93.57	76.37	한양인터칼리지(인문) 141.13	경제금융학부 61.22
홍익대	인문, 예술, 자율	49.78	50.88	서울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 57.58	역사교육과 39.75

## 02 인문 논술 논제 유형 및 유형별 대학 목록

### 1 인문 논술 논제 유형 이해하기



대학별 인문 논술은 출제 방식과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논제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문사회 계열 논술은 전공 계열, 제시문의 성격, 자료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가. 인문사회계열 - 비문학 제시문 중심

이 유형은 철학, 사회학, 역사, 언어학 등 인문사회 분야의 비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출제된다. 제시문 간의 논지 비교, 관점 대립 분석, 개념 적용 등의 사고력을 평가하며, 독해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평가의 핵심이다. 따라서 글의 논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제시문을 주고, 각 제시문을 연결하거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도록 요구한다.

#### 나. 인문사회계열 - 문학 제시문 포함

이 유형은 소설, 시, 희곡 등 문학 제시문과 비문학 제시문을 함께 주는 경우가 많다. 문학 작품의 인물, 사건, 주제 등을 해석하면서 그것이 비문학 제시문의 핵심 개념이나 사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문학 감상 능력뿐 아니라, 이를 인문학적 사고와 연결하여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 중요하다.

#### 다. 인문사회계열 - 영어 제시문 포함

이 유형은 제시문 중 일부가 영어로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영어 독해 능력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분석하고, 한글 제시문과 비교·융합하여 사고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영어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국제 이슈나 인문사회적 개념을 다룬 영어 제시문이 자주 등장한다.

#### 라. 인문사회계열 - 통계자료 포함

이 유형은 도표, 그래프, 수치 등 통계자료가 제시문과 함께 제공된다. 수험생은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 의미를 다른 제시문 내용과 연결하여 분석해야 한다. 논리적 사고력과 수치 정보 해석 능력이 요구되며, 자료의 흐름을 서술형으로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의 함의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 마. 상경계열 논술

경제·경영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유형은 인문사회적 사고력뿐 아니라, 경제 개념과 시사 이슈에 대한 이해도 함께 평가한다. 때로는 수리적 자료나 경제 상황을 분석해야 하는 문제도 출제된다.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현상을 해석하거나 정책적 제언을 서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경영 교과와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유리하다.

## 바. 약술형 논술

약술형 논술은 한 문항당 답안 분량이 짧고, 복수의 문항에 응답해야 하는 형식이다. 핵심 개념이나 사상, 사례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논술형 서술과 달리 긴 논리를 전개하기보다는 핵심 정보를 정확히 요약하여 표현해야 한다. 개념 정리, 요약, 정확한 문장 구성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이처럼 인문 논술은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독해력과 사고력, 표현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 유형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준비 전략을 세워야 한다.

## 2

## 유형별 대학 목록



유형		대학
인문 사회 계열	비문학 제시문 중심	덕성여대, 동덕여대, 동국대, 서강대, 세종대, 중앙대(인문사회), 홍익대(인문_오전), 한양대(인문), 가톨릭대, 경기대, 아주대, 부산대
	문학 제시문 포함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세종대, 건국대, 가톨릭대
	영어 제시문 포함	연세대, 이화여대(인문 I), 한국외대(인문계열)
	통계자료 포함	건국대, 고려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송실대(인문), 한국외대(사회계열), 홍익대(인문), 단국대, 한국항공대(경영, 항공경영), 인하대, 연세대(미래), 경북대
상경계열 논술 (수리형포함)		건국대(인문사회II), 경희대(사회), 송실대(경상), 이화여대(인문II), 중앙대(경영경제), 한양대(상경), 한국공학대(경영)
약술형 논술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가천대,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 한신대 한국기술교대(수학 미포함), 한국공학대(수학만 출제)

## 03 인문 논술 준비 전략

대입 논술전형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글을 쓰는 연습 이상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한 연습과 기본적인 교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며, 다양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는 논술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요 전략들이다.

### 1 EBSi 1:1 논술첨삭 서비스 활용하기



EBSi에서 제공하는 1:1 논술첨삭 서비스는 실전 논술을 연습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회원 가입 후 '고3/N수 - 입시 정보 - 1:1 논술첨삭' 메뉴로 접속하면 논술 첨삭 경력이 3년 이상인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개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매년 4~5월경 오픈되며, 이후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새로운 논제가 올라온다.

- 신청 요령: 인문계 기초는 선착순 55명, 인문계 기출은 선착순 100명으로 조기 마감되므로, 문제 업데이트 직후 빠르게 답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추가 혜택: 첨삭 받은 내용에 대해 1회 추가 질문이 가능하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 기출 강좌 수강: 같은 메뉴 내에서 각 대학별 기출문제 강좌도 무료로 제공되며, 희망 대학의 출제 유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 2 대학 자료 및 모의논술 활용하기



- 논술 가이드북 활용: 대학에서 제공하는 논술 가이드북에는 출제 방향, 예시 문항, 채점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실제 논술고사와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다.
- 기출문제 반복 연습: 목표 대학의 과거 논술 문제를 분석하고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이 실전 대비에 효과적이다. 제시문 구성 방식, 도표 해석 방식 등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파악해 두면 논술의 기본 구조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대학 자료 분석: 논술 문제는 대학마다 출제 방식, 제시문 유형, 문항 수, 채점 기준 등이 상이하다. 지원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 기출문제, 출제 근거, 문항 해설, 예시 답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대학의 출제 경향과 선호 주제를 파악해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한다.
- 대학별 모의논술 응시: 수능에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치르듯이 대학별 모의논술을 응시해 보는 것은 논술고사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대학별 모의논술 일정은 매년 비슷하니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모의논술을 준비해 보도록 한다.

2025 대학별 모의논술 일정

지역	대학명	일정
서울	건국대	7. 15.(화)
서울	경기대	7월 시행 예정
서울	경희대	6. 20.(금) ~ 6. 23.(월)
서울	광운대	6. 4.(수) ~ 6. 13.(금)
서울	덕성여대	6. 5.(목) ~ 6. 9.(월)
서울	동국대	6. 9.(월) ~ 6. 15.(일)
서울	동덕여대	6. 5.(목) ~ 6. 15.(일)
서울	서울여대	6. 4.(수) ~ 6. 16.(월)
서울	성균관대	6~7월 시행 예정
서울	성신여대	6. 4.(수) ~ 6. 13.(금)
서울	세종대	6. 13.(금) ~ 6. 19.(목)
서울	숙명여대	7월 중 시행 예정
서울	송실대	7~8월 시행 예정
서울	중앙대	5. 21.(수) ~ 5. 27.(화)
서울	한양대	7월 공지 예정
경기	가천대	3. 24.(월) ~ 7. 5.(토)
경기	가톨릭대	5. 30.(금) ~ 8. 1.(목)
경기	단국대(죽전)	7. 1.(화) ~ 7. 14.(월)
경기	수원대	6. 28.(토)
경기	한국공학대	7월 공지 예정
인천	인하대	7~8월 공지 예정
경기	신한대	6월 공지 예정
경기	을지대	8~10월 시행 예정

※ 2025. 6. 15.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정확한 내용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할 것

※ 모의논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항 예시 및 논술 가이드북을 참고할 수 있음

### 3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대비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논술 성적이 우수해도 불합격 처리된다. 실제로 최저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실질 경쟁률이 대폭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논술 준비와 함께 수능 공부에도 꾸준히 힘써야 한다.

### 4 교과 수업에 충실하기



대학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고교 국어·사회 교과서에 실린 개념과 주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개념과 용어에 친숙해지는 것이 기본이다. 수업 시간에 제시문 독해, 주장 파악, 논리 전개 등을 연습해 두면 논술에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다.

### 5 글씨는 정확하고 크게 쓰기



채점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씨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필보다는 볼펜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0.5~0.7mm 굵기의 볼펜을 추천한다. 글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ㄱ’과 ‘ㅇ’, ‘ㄷ’과 ‘ㄹ’ 등 유사한 글자의 구분에 유의하고, 글씨는 너무 작게 쓰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통해 논술전형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꾸준한 연습과 전략적인 접근이 곧 합격의 열쇠가 된다.

Part

# II



##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 1. 인문계열-비문학 중심



교과 연계 대입 논술 가이드북

- 인문·상경 계열, 약술형 논술 중심으로 -

01 홍익대학교

# 01 홍익대학교

2026 논술 고사 일정	전형 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시험 시간	문항 수	글자 수, 배점	주 출제 교과 및 과목 (출제 범위)
2025. 10. 19. (일)	논술 90 교과 10	국수영탐(1과목) 중 3개 합 8 이내 한국사 4 이내	120분	2문항	총 1,600자 내외 1번: 800자 내외 2번: 800자 내외 총 900점	국어교과군/ 사회교과군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 동일 계열을 오전/오후로 분산하여 고사를 실시함.

※ 문과대학, 사범대학, 예술학과 지원자: 문항 1번(600점)에 문항 2번(300점)의 2배를 배점함.

경영대학, 경제학부, 법학부 지원자: 문항 2번(600점)에 문항 1번(300점)의 2배를 배점함.

## 1 홍익대학교 논술 준비



### 가.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연도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025	오전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사회·문화, 경제, 정치와 법	범주, 고정관념, 차별, 다양성, 기술혁신, 자연과 인간
	오후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통합사회, 도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경제	문화 변동, 발명, 집단 간 갈등, 정체성 혼란, 아노미, 문화 지체, 조화와 공존, 성찰, 국제무역, 특허, 무역 확대
2024	오전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고전 읽기,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한국사	역사 서술, 취사선택, 해석, 균형, 시장경제, 시장실패, 사회적 자본, 시장 안정화
	오후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통합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정치와 법	윤리적 접근법, 의무론, 결과론,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기업가 정신, 사회 정의, 분배
2023	오전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통합사회,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도시화, 인간 소외, 공간 불평등, 젠트리피케이션, 상호 연결
	오후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비유, 정보의 비대칭, 도덕적 해이, 역선택

## 나. 문항 유형 특성

- 홍익대학교 인문 논술 문항은 총 2문항으로 구성됨. 한 문항당 글자 수 분량은  $800 \pm 100$ 자이며, 한 문항당 제시되는 제시문은 2~4개임. 국어교과군과 사회교과군의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주요 인문·사회 분야의 지문이 출제되며, 서로 다른 제재의 글들이 공통 화제와 관점을 가짐.

### 문항 1

- ▶ 문과대학, 사범대학, 예술학과의 경우, 1번 문항의 배점이 2번 문항의 2배수 배점임. 주로 윤리와 사회 및 문화 분야에 관한 주제가 제시문으로 출제됨.
- ▶ 첫 번째 제시문에 나타난 관점이나 기준을 바탕으로 나머지 제시문을 분석하는 유형의 문제가 주로 출제됨. 첫 번째 제시문에 나타난 관점이나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제시문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함. 또한 나머지 제시문 가운데 비판할 점이나 문제에 대한 대안 등을 서술하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주어지기도 함.

예 2025학년도 오전【문제 1】: 제시문 (가)의 범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나), (다), (라)의 필자가 서술하는 현상이 어떤 관점으로 설명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되, (다), (라)는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단, (다)는 '정상 가족' 범주에 주목하여 서술하시오.

예 2024학년도 오전【문제 1】: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할 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평가하시오. 이때 제시문 (다)는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분석하시오.

### 문항 2

- ▶ 경영대학, 경제학부, 법학부의 경우, 2번 문항의 배점이 1번 문항의 2배수 배점임. 주로 경영, 경제, 기술에 대한 주제가 제시문으로 출제됨.
- ▶ 1번 문항과 유사하게 첫 번째 제시문을 바탕으로 나머지 제시문을 분석하는 유형의 문제가 주로 출제됨. 첫 번째 제시문에 나타난 공통된 화제의 분류 기준에 따라 나머지 제시문들의 관점과 근거 등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또한 긍정·부정 입장이나 찬반을 선택한 후 부정적인 측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조건이 추가적으로 주어지기도 함.

예 2025학년도 오전【문제 2】: 제시문 (마)와 이에 관한 (바)와 (사)를 바탕으로, (아)의 기술혁신 활용(유전자 가위)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결론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그 결론에 입각할 때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자)를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예 2025학년도 오후【문제 2】: 제시문 (마)의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아)에 나타난 무역 확대의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을 서술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을 비교·분석하시오.

### 다. 출제 자료 및 도서 출처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5	오전	문항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와 매체: 비상(이관규), 미래엔(방민호), 창비(최형용), 지학사(이삼형)</li> <li>통합사회: 미래엔(정창우), 천재(구정화), 사회·문화: 천재(구정화), 미래엔(손영찬)</li> <li>정치와 법: 지학사(서범석), 비상(정필운), 생활과 윤리: 비상(김국현)</li> </ul> 『언어·마음·문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졸탄 커버체쉬), 『인지심리학』(존 폴 민다), 『정리하는 뇌』(대니얼 J. 레비틴), 『이상한 정상가족』(김희경), 「국어의 한자어 관형명사에 대하여」(이선웅), 「한국언론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김양균), 「격리·강박 고통 받아온 정신장애인, 편견이 더 무서워요」(고경태)
		문항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서: 지학사(이삼형), 미래엔(방민호), 통합사회: 지학사(이진석)</li> <li>생활과 윤리: 미래엔(정창우), 천재(변순용), 경제: 미래엔(김진영)</li> </ul> 『물질의 세계』(에드 콘웨이)
	오후	문항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사회: 비상(박병기), 천재(구정화), 사회·문화: 비상(신형민), 천재(구정화)</li> </ul> 『파랑의 역사』(미셸 파스투로), 『언어의 무지개』(고종석), 『영어의 역사』(김혜리), 『불안 세대』(조너선 하이트), 「노르만 정복이 영국과 유럽에 끼친 언어와 문화적 영향」(박기태)
		문항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사회: 천재(구정화), 지학사(이진석), 동아(육근록)</li> <li>사회·문화: 천재(구정화), 지학사(서범석)</li> <li>경제: 비상(유종열), 미래엔(김진영), 생활과 윤리: 비상(김국현)</li> </ul> 「4개의 차트로 보는 호주 유학산업」(김기환), 「The biggest winners and losers from international education」(Brenden Coates), 「International education a focal point of debate in Australia as the prospect of further regulation looms」(ICEF Academy), 「Australia's approach to international student caps is even more radical than in the UK and Canada」(Gwilym Croucher), 「Australia limits foreign students in migration crackdown」(Renju Jose), 「The cost of caring」(Rachel Aviv), 「They treated me like an animal」(Margaret Simons), 「Filipino domestic workers: The invisible workforce product of globalization」(Mihiri Wijetunge), 「The rights movement for domestic workers in the Philippines」(Chiho Ogaya), 「이차전지 수출 변동 요인과 향후 전개방향」(도원빈), 「중국 흑연 수출통제의 영향 및 대응방안」(도원빈), 「산업장관 “이차전지는 수출 핵심 성장동력…경쟁력 확보 지원”」(김동규), 「중국 환경오염 주범은 친환경 車?」(배준호), 「4대 국가첨단산업 ‘550조+α’ 투자 촉진 제조역량·기술과 인재·공급망 3대축 강화」(김혜준), 「‘냄비 속 개구리’ 배터리 업계, 흑연 수입 탈중국 박차」(김소미), 「정부, 7개 첨단전략특화단지에 전력 등 인프라 구축 본격화」(김부미)
2024	오전	문항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사: 금성(김형중)</li> </ul> 『역사란 무엇인가』(E.H.카), 『역사의 역사』(유시민), 『원호대사 I』(이광수)
		문항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 비상(유종열), 교학사(오영수), 고전: 교학사(한철우)</li> </ul> 『국부론』(아담 스미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읽기』(김영웅), 『사회적 자본』(로버트 퍼트남)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오후	문항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사회: 미래엔(정창우), 비상(박병기), 동아(육근록)</li> <li>• 생활과 윤리: 천재(변순용)</li> <li>• 윤리와 사상: 씨마스(박찬구), 미래엔(정창우)</li> </ul> 『산업혁명 1760-1830』(T.S. 애슈턴), 『인간 너머의 인간』(포스트휴먼연구단), 『프랑켄슈타인』(메리 셸리), 『인공지능의 윤리학』(이중원)
	오후	문항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사회: 미래엔(정창우), 천재(구정화), 동아(육근록), 지학사(이진석)</li> <li>• 실용 경제: 교학사(오영수), 경제: 비상(유종열), 씨마스(김종호)</li> <li>• 정치와 법: 천재(김왕근), 비상(정필운), 미래엔(이경호)</li> <li>• 기업과 경영: 씨마스(조경희)</li> </ul> 『정리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Ten years without the swedish Inheritance tax』(Anders Ydstedt and Amanda Wollstad),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른다」(서정보), 「사람·환경이 최우선... '착한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든다」(태현지)
2023	오전	문항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미래엔(방민호), 통합사회: 동아(육근록), 지학사(이진석)</li> <li>• 한국지리: 비상(유성종)</li> </ul> 『젠트리피케이션』(김현아),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리처드 플로리다), 『도시의 승리』(에드워드 글레이저)
		문항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사회: 동아(육근록)</li> <li>• 생활과 윤리: 미래엔(정창우), 비상(김국현), 천재(변순용)</li> <li>• 정치와 법: 금성(모경환), 경제: 천재(박형준), 미래엔(김진영), 지학사(허수미)</li> <li>• 사회·문화: 천재(구정화), 미래엔(손영찬)</li> </ul> 『열린사회와 적들』(칼 포퍼), 『새뮤얼슨 vs. 프리드먼』(니컬러스 왓슨), 「LG Business Insight」(이병주), 「세상을 바꾼 발명품: 실패한 접착제가 혁신을 낳다」(이성규), 「실패한 제품에서 세계적 아이디어 기업으로 성장」(신혜영), 「2022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집: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전과 성과」(기획재정부)
	오후	문항1 <p>『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최인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이어령), 『프네상스 미술가 평전 5』(조르조 바사리), 『교사여, 배움에 게으르지 말라』(한준상)</p>
		문항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사회: 비상(박병기), 미래엔(정창우), 천재(구정화), 지학사(이진석), 동아(육근록)</li> <li>• 경제: 천재(박형준), 지학사(허수미), 미래엔(김진영), 비상(유종열)</li> <li>• 사회·문화: 비상(신형민), 미래엔(손영찬), 천재(구정화), 지학사(서범석)</li> <li>• 정치와 법: 금성(모경환), 미래엔(이경호), 비상(정필운)</li> </ul> 『맨큐의 경제학』(김경환), 『Rosen의 재정학』(이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국회), 『범죄백서』(법무연수원), 『현대재무관리』(박정식), 「일명 '민식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재준)

## 2

## 홍익대학교 기출문제 (2024.10.06.(일) 오전 시행)



## 문항 1

(가)의 범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나), (다), (라)의 필자가 서술하는 현상이 어떤 관점으로 설명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되, (다), (라)는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단, (다)는 ‘정상 가족’ 범주에 주목하여 서술하시오. (800±100자)

## 제시문 (가)

인간은 세계의 온갖 대상들을 특정 범주(category)에 속한 것으로 인식한다. 어떤 대상을 범주화하려는 이러한 성향은 진화의 산물이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흔히 마주치는 동물들에 대해 ‘천적’, ‘먹이’ 등으로 범주화하는 능력은 인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세계를 범주화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데 비해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선 몇 가지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그중 고전적인 서양철학의 전통에서는, 범주란 엄밀하게 정의되고 상호 구분됨을 강조한다. 이러한 고전적 관점에서는 범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하나의 범주는 그 범주 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하는 본질적 자질(속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둘째, 본질적 자질 집합을 모두 소유한 구성원만이 해당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셋째, 범주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본질적 자질을 공유하므로 모든 범주 구성원의 위상은 동등하다. 넷째, 따라서 본질적 자질의 유무를 통해 한 범주의 경계를 분명하고 엄격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정사각형’이라는 범주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직각인 형태’라는 본질적 자질로 정의된다. 이 자질을 소유한 것만이 정사각형 범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정사각형 범주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정사각형 범주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정사각형의 지위는 동등하다. 끝으로, 정사각형이라는 범주의 경계는 뚜렷하다. 즉 정사각형 범주의 구성원인 것과 아닌 것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하나는 어떤 범주를 더 전형적으로 대변하는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구성원도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참새와 비둘기, 펭귄과 타조는 모두 새 범주에 속하지만 참새와 비둘기는 새 범주의 더 전형적인 구성원인 데 비해 펭귄과 타조는 몸집이 크고 날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새 범주의 전형적인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범주 구성원이 모두 공유하는 본질적 자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게임’이라는 범주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게임에는 보통 경쟁이 있고, 전략이 존재하며, 육체적 기술이 필요하고,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경쟁이 없는 게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 육체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도 분명히 존재한다. 즉 한 범주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어떤 공통 자질이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의 범주로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범주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이 등장했다. 첫째, 범주의 구성원들을 함께 묶는 주요 자질들의 집합이 존재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주요 자질 모두를 갖출 필요는 없다. 둘째, 범주의 구성원들은 모든 구성원이 아니라 몇몇 구성원과만 어떤 자질을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범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셋째, 범주의 어떤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보다 해당 범주의 더 전형적인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넷째, 범주의 구성원

자격을 갖는 항목들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범주들이 있다.

이때 어떤 범주의 전형적 구성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범주와 관련하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즉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휴식할 때 마시는 음료’에 대해 생각할 때 미국에서는 커피가 매우 전형적인 음료 중 하나지만, 영국에서는 차가 더 전형적인 음료에 해당한다. 하지만 영국인이라도 휴식 시간에 매번 커피를 마셨다면 그는 ‘휴식할 때 마시는 음료’로 커피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컨대 A라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이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는 A라는 국가의 국민이 모두 게으르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그 범주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람들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범주의 성격이 어느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태도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 제시문 (나)

한국어의 단어들은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품사로 분류된다.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어미(‘-으니까’, ‘-다’ 등)와 결합하여 형태가 변하는가 아닌가,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또 단어가 다른 말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쓰이는가 등이 품사 분류에서 주요 기준이 된다. 예컨대 ‘명사’라는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예: 사람이 많다),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예: 사람이, 사람들), ‘앞에는 관형어가 올 수 있다’(예: 훌륭한 사람), ‘다른 명사 앞에 놓여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다’(예: 사람 노릇)와 같은 주요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명사로 분류된다. 한편 ‘관형사’라는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명사 앞에 놓여서 명사를 꾸며 준다’(예: 흰 신발),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예: 현이X, 현을X), ‘자립적으로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다’(예: 현이 많다X)와 같은 주요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관형사로 분류된다. 예로 든 ‘사람’과 ‘흰’은 위에서 언급한 각 품사의 주요 속성들을 잘 보여 준다.

그렇다면 ‘간이 화장실’의 ‘간이’(뜻: 간단하고 편리함)는 어떤 품사에 속할까? 먼저 이 단어는 많은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 관형사의 특성을 보인다(예: 간이의X, 간이에X). 아울러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주어 기능을 하지 않는 점에서도 관형사의 특성을 보인다(예: 간이가 필요하다X). 한편 ‘간이’에 특정 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 명사의 특성을 보인다(예: 간이로 설치한 문). 또한 ‘-성, -용’ 등과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데(예: 간이성, 간이용), 이는 명사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인 데 비해 관형사는 가지기 어려운 속성이다.

! 제시문 (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미혼모 자녀들의 해외 입양이 진행되어 왔다. 흔히 해외 입양이 한국전쟁 직후 오갈 곳 없던 전쟁고아들을 대거 선진국으로 보낸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외 입양은 한국의 경제가 초고속으로 발전하던 1980년대에 가장 많았다. 그 대다수는 미혼모의 자녀들이다.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늘어난 요즘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0년에도 국내와 해외를 모두 포함해 입양된 아이들의 90.9%가 미혼모의 자녀들이었으며, 이 중 해외 입양의 경우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미혼모의 자녀들이었다.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고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로, 출산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정상이라고 규정하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언급되기도 한다. 결혼을 매개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정상 가족’ 범주의 표본으로 여겨지면서 그 밖의 형태는 ‘정상 가족’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고, ‘결혼=출산’이라는 등식이 지나치게 확고한 탓에 결혼 제도 바깥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로 미혼모와 그 자녀들은 제도적, 사회적 차별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 ! 제시문 (라)

한국의 언론 매체는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범죄·자살·가정파괴 등 사회적 부작용이나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길 좋아한다. 악의적 의도가 있다기보다 선정적인 뉴스가 속칭 ‘잘 팔리는’ 언론의 속성에 부합한 선택인 셈이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자.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화를 의심한다. 용의선상에 거론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 과정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정신병력 여부다. 용의자로 확인할 증거가 수집돼 특정되면 수사 브리핑에서 그간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그때 브리핑에 참석한 한 기자가 묻는다.

“피의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나요?”

“예.”

이때 ‘조현병<sup>1)</sup>’, ‘정신병력’ 여부를 기사 제목에 굳이 집어넣으면 방화 범죄는 정신질환자 범죄로 뒤바뀐다. 곧 기사는 포털사이트 메인에 소개된다.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치솟는다. 이런 뉴스가 반복되는 것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부 사람들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이러한 생각이 소수의 사례를 전체에 적용한 고정관념임을 보여 준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인구 중 범죄자는 3.1% 수준인 반면,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자 비중은 0.2% 수준에 불과하다.

1) 조현병: 망상, 환각, 사교와 행동의 혼란 따위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적 질환

**문항 2**

제시문 (마)와 이에 관한 (바)와 (사)를 바탕으로, (아)의 기술혁신 활용(유전자 가위)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결론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그 결론에 입각할 때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자)를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마)**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동시에 이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는 주체이다. 인간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을 변경한다. 인간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자연을 이용해서 욕구를 충족하고 편익을 누리는 동시에 타인과 상호 작용을 통해 윤리적인 사회를 형성하여 그 속에서 안녕을 추구한다. 이 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행위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간이 사회 속에서 하는 사회적 행위 및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시문 (바)**

석탄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다. 나무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석탄은 단순히 화학물질이나 철을 만드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증기기관 등의 기계에 연료로 제공됐다. 이는 인류가 주된 에너지원을 나무와 목탄<sup>1)</sup>에서 화석 연료로 전환하는 최초의 대규모 에너지 혁명이었다. 그 결과, 19세기 초 영국은 목탄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어 벌목이 감소하면서 숲의 파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현재는 세계 각국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 연료에서 전기 기반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친환경 방식<sup>2)</sup>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이전보다 많은 구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에는 전통적인 발전소보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일곱 배나 많은 구리가 쓰인다. 일반적으로 구리 채굴은 암석을 폭발한 후 구리를 포함한 광석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때 수백 톤의 암석을 처리해야 겨우 소량의 구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구리 가공 과정에서 대량의 에너지와 물이 소모되고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폐기물이 발생한다.

1) 목탄: 나무를 불완전 연소시키거나 가열하여 만든 연료를 말한다.  
 2) 친환경 방식: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있다.

**제시문 (사)**

서양의 과학이 소개되기 전 우리나라에서 우산을 쓰는 행위는 당시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금기시되어, 개화기 선교사들도 우산을 쓰고 나갔다가 못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에 삼갔다고 한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자연의 이해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와 윤리적인 사회의 질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여기서 잘 드러난다. 나아가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윤리적인 사회의 질서를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윈(Darwin, C)의 진화론은 원래 다양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인데도 이로부터 영감을 받은 스펜서(Spencer, H.)가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빈부의 격차 등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사회상을 설명하려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적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 ! 제시문 (아)

생명과학의 대표적 기술혁신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가위는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교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희귀성 난치병 치료가 가능해지고, 다른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온도 변화, 가뭄, 병충해 등에 강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작물을 개발함으로써 식량문제도 줄이고, 이미 멸종된 생물을 복원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 가위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현재 우리는 기술적으로 맞춤형 아기의 출산까지 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맞춤형 아기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유전자 구성이 선택되거나 변경된 아기이다. 현재까지는 치명적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 맞춤형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몇몇 국가에서 허용되었으나, 외모나 지능과 같이 개인이 선호하는 특정 유전 형질이 나타나도록 유전적 조작을 하는 적극적인 맞춤형 아기의 탄생도 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 ! 제시문 (자)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려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up>1)</sup>에 대해 투자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나 완화를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국가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보장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1) 사회간접자본: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통신, 기술인프라 등도 포함된다.

3

홍익대학교 기출문제 분석



가. 문항 해설

문항 1

(가)의 범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나), (다), (라)의 필자가 서술하는 현상이 어떤 관점으로 설명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되, (다), (라)는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단, (다)는 '정상 가족' 범주에 주목하여 서술하시오. (800±100자)

- 문항 1은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이에 대한 대안적 관점이 갖는 특징들을 숙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제시문들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가)에 설명된 고전적 관점과 대안적 관점을 이해하고 이 두 관점이 네 개의 지점, 즉 범주가 본질적 자질(속성)로 정의되는지의 여부, 본질적 자질을 소유했는가로 구성원 자격이 결정되는지의 여부, 범주 구성원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구성원의 유무, 범주 경계가 항상 분명하다고 보는지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대안적 관점에서 설정하고 있는 전형이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 관점의 특징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제시문들에 서술된 현상들이 각 범주에 대한 어떠한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제시문 (가)는 졸탄 커베체쉬의 『언어·마음 문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에서 소개된 범주에 대한 내용과 편견에 대해 다른 교과서 텍스트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것이다. 먼저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을 다룬 문단에서는 고전적 관점의 범주가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속성)이 존재함', '본질적 자질의 유무로 구성원 자격이 결정됨', '범주 구성원이 동등한 위상을 지님', '범주의 경계가 분명함'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뒤 따르는 문단에서는 대안적 관점이 고전적 관점과 대비되는 네 가지 특징, 즉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속성)이 없을 수 있음', '몇몇 구성원과만 어떤 자질을 공유해도 구성원이 될 수 있음', '범주 구성원의 위상이 다를 수 있고, 범주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구성원이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범주 경계는 불분명할 수 있음'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서 두 관점의 각 특징이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는 하나의 전형을 한 범주 구성원 전체에 적용하는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이것이 '차별'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 하면서, 집단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대안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분석하여야 한다.
-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나온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단어 분류의 방법을 설명하고, 이선웅의 논문 「국어의 한자어 '관형명사'에 대하여」에 제시된 예를 들어 품사 분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즉 본문에서는 '간이'라는 단어의 예를 통해 '명사'와 '관형사'라는 품사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러한 '간이'가 명사인 '사람'이나 관형사인 '헌'과 비교해 각 품사의 범주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구성원이 된다는 점까지 파악해서, 품사가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 (다)는 김희경의 책 『이상한 정상가족(개정증보판)』에서 발췌·편집한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만 ‘정상 가족’ 범주의 표본으로 보고, 그 외의 형태는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범주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즉, ‘정상 가족’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로 ‘결혼’이 존재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결혼’이 ‘정상 가족’의 범주 경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범주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제시문에서는 이러한 고전적 관점에 입각한 사고가 미혼모 가정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혼’이라는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인정하는 대안적 사고가 필요함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 (라)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우선 범죄 사건을 ‘정신질환자’와 관련지어 보도하는 뉴스가 정신질환자 범주의 전형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미디어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구성원의 속성이 전체 범주의 속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이 각각 제시문 (가)가 설명하고 있는 두 관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즉, 전자의 경우는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에서 말하는 ‘경험에 의한 전형적인 구성원의 형성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 후자는 고전적 관점에서 말하는 ‘한 범주의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전제한다는 점을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디어가 만든 ‘정신질환자=범죄자’라는 공식의 고정관념이 정신질환자 전체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범주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고정관념을 생산하는 미디어 또한 윤리적 태도를 지녀야 함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 문항 2

제시문 (마)와 이에 관한 (바)와 (사)를 바탕으로, (아)의 기술혁신 활용(유전자 가위)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결론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그 결론에 입각할 때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자)를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800±100자)

- 제시문 (마)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시문 (바), (사)를 통해서 다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① 과학기술이 자연의 인과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의 윤리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 ② 자연의 인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화석연료는 악하다’거나 ‘친환경 방식은 선하다’는 윤리적인 선입관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 요청된다.
  - ③ 과학기술을 사회의 윤리적 측면에서 분석할 때 자연의 인과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그에 대한 분석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 결과 자연의 인과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분석은 부정적일 수 있다. 과학기술을 평가할 때는 자연의 인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와 사회의 윤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할 것이 요구되는 바, 어느 하나의 결과가 긍정적이고 다른 하나의 결과가 부정적이어서 상반되는 경우라면 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제시문 (아)는 유전자 가위라는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이 어느 범위(식물, 동물, 인간)에 걸쳐서 어느 수준(필요성, 유용성, 선호도)에 이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제시문 (마)는 경제적 활동, 시민의 안전, 인간의 존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는 바, 양자를 종합하면 다음의 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① 유전자 가위가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국가로서는 이를 진흥하기 위해서 개입할 동기가 있다. ② 유전자 가위가 자연의 인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할 의무가 있다. ③ 유전자 가위가 사회의 윤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할 의무가 있다.
- 수험생은 제시문 (마), (바), (사)에서 추론한 바를 바탕으로, 제시문 (아)의 유전자 가위라는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정하여 논거를 제시하고, (자)를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연적 인과의 측면(유전자 가위로 개량을 하는 경우)에서 전면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분석이 합리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윤리의 측면(유전자 가위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서 전면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분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적 인과의 측면과 사회적 윤리의 측면 양쪽에서 모두 원칙적 긍정(예외적 부정)이나 원칙적 부정(예외적 긍정)을 분석해 내고 이를 근거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이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라는 결론을 선택함과 아울러 그에 합당한 국가의 역할(원칙적 허용 이라면 필요한 규제를 하되 진흥을 우선하고, 원칙적 금지라면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흥)을 제시하는 답안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시문 (마)는 자연의 일부인 동시에 그로부터 자율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칸트(Kant)의 입장에서, 자연의 이해와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이 인과적 자연의 이용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윤리의 형성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과학기술이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윤리적인 사회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윤리적 관점에서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를 분석하려고 해서 안 되고, 인과적 관점에서 윤리적인 사회의 질서를 분석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 제시문 (바)는 과학기술이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회의 윤리적 관점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탄소배출의 저감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현재의 친환경에너지 운동이 그 선명성을 위해서 화석에너지로 전환을 가져온 산업혁명을 악(惡)으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산업혁명이 당시 산림보전에 도움이 된 측면과 친환경에너지에 필요한 구리의 채굴이 자연의 파괴를 초래하는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 제시문 (사)는 과학기술이 윤리적인 사회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자연의 인과적 관점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우산을 금기시했던 사례는 자연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적 윤리의 형성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동시에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를 윤리적인 사회의 질서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윤리적인 사회의 질서에 대한 정당화의 목적에서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를 끌어오게 되면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윤리적인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다윈의 영향을 받은 스펜서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제시문 (아)는 찬성 또는 반대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 가위라는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이 어느 범위(식물, 동물, 인간)에 걸쳐서 어느 수준(필요성, 유용성, 선호도)에 이르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로부터 유전자 가위가 인간의 유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의 생산이나 동물의 이용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점과 그 결과 사회적인 윤리를 이유로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가위가 치명적 유전병의 치료와 같이 인류애에 호소할 수 있는 사례도 있지만 단순한 취향과 같은 보편성이 없는 이유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시문 (자)는 경제적 활동, 시민의 안전,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중 경제적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국가의 진흥 정책을 의미하고, 시민의 안전과 인간의 존엄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국가의 규제 정책을 의미한다.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찬성(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의 결론은 규제도 필요하나 그보다 진흥이 중요하다는 귀결에 이르고, 그 반대(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결론은 어디까지나 규제가 기본이고 예외적으로만 진흥이 필요하다는 귀결에 이른다. 특히 시민의 안전에 관한 설명은 유전자 가위라는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이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바, 이로부터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유전자 가위의 전면적인 허용을 주장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나. 채점 기준

### 문항 1

채점 기준		배점
<p>제시문 (나)에서는 한국어의 품사 중 명사와 관형사라는 두 가지 범주를 제시하면서, 먼저 각각의 전형적인 구성원으로 ‘사람’과 ‘헌’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뒤 두 범주 모두의 특징을 갖고 있는 단어의 예시로 ‘간이’를 들고 있다. 이 ‘간이’는 명사와 관형사라는 두 품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이면서, 동시에 명사의 범주에서는 ‘사람’, 관형사의 범주에서는 ‘헌’과 비교하여 보다 전형적이지 않은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명사와 관형사가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설명됨을 보여준다.</p> <p>따라서 제시문 (나)에 대한 분석에서는 우선 명사와 관형사 범주가 대안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범주에 부합하는 성격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속성으로 ‘범주 경계의 불분명함’ 및 ‘구성원 간에 보다 더 전형적인 것과 덜 전형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전자(관련 관점 포착)에는 5%, 후자 중 두 가지 논점(범주 경계의 불분명성, 전형적 범주 구성원의 존재)에 각기 10%씩 배정한다.</p>		25%
제시문 (나)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		각 항목별 배점
관련 관점	‘명사’와 ‘관형사’는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설명되는 범주임	5%
근거	‘간이’가 두 품사 범주(명사와 관형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보여줌(범주 경계의 불분명성)	10%
	‘간이’가 명사의 범주에서는 ‘사람’, 관형사의 범주에서는 ‘헌’과 비교하여 보다 전형적이지 않은 구성원이 됨(전형적 범주 구성원의 존재)	10%

채점 기준	배점														
<p>제시문 (다)에서는 미혼모 자녀들의 입양이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원인으로 한국의 가족주의에서 기인하는 정상 가족에 대한 인식을 들고 있다. 즉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정상 가족’의 표본이 되고 그 밖의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결혼’을 ‘정상 가족’의 범주로 본다면,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즉 ‘결혼’)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과 더불어, 이 ‘결혼’을 기준으로 ‘정상 가족’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의 하나로 분명히 정해지기에 범주 경계가 분명하다고 보는 고전적 관점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p> <p>그런데 (가)에 따르면, 이러한 시각에 따라 가족을 바라보는 것은 범주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고정관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미혼모 가족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비판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p> <p>따라서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에서는 먼저 제시문의 ‘정상 가족’ 개념이 범주의 고전적 관점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의 파악 여부와 함께, 그 근거가 되는 속성으로서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의 존재 및 범주 경계의 분명함’에 대한 지적 여부, 그리고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의 제시가 채점 기준이 된다. 관련 관점 포착에는 5%, 그 근거가 되는 두 가지 논점(본질적 자질의 존재, 범주 경계의 분명함)에 각기 10%씩,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에 5%를 배점한다.</p>	3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e0e0e0;">제시문 (다)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각 항목별 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관련 관점</td> <td>‘정상 가족’이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을 보여줌</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e0e0e0;">근거</td> <td>‘정상 가족’이라는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로 ‘결혼’이 설정됨 (본질적 자질의 존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결혼’을 기준으로 ‘정상 가족’의 범주에 소속되거나 제외되거나 둘 중의 하나로 분명하게 나뉨 (범주 경계의 분명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비판적 접근</td> <td>‘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혼모 가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주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body> </table>	제시문 (다)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		각 항목별 배점	관련 관점	‘정상 가족’이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을 보여줌	5%	근거	‘정상 가족’이라는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로 ‘결혼’이 설정됨 (본질적 자질의 존재)	10%	‘결혼’을 기준으로 ‘정상 가족’의 범주에 소속되거나 제외되거나 둘 중의 하나로 분명하게 나뉨 (범주 경계의 분명함)	10%	비판적 접근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혼모 가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주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	5%	
제시문 (다)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		각 항목별 배점													
관련 관점	‘정상 가족’이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을 보여줌	5%													
근거	‘정상 가족’이라는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로 ‘결혼’이 설정됨 (본질적 자질의 존재)	10%													
	‘결혼’을 기준으로 ‘정상 가족’의 범주에 소속되거나 제외되거나 둘 중의 하나로 분명하게 나뉨 (범주 경계의 분명함)	10%													
비판적 접근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혼모 가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주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	5%													
<p>제시문 (라)에는 범주에 대한 두 가지 관점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나타나 있다. 우선 미디어에서 선정적인 뉴스를 통한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짓는 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사람들이 빈번하게 접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자’라고 할 때 범죄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디어 뉴스를 접하는 반복적인 경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라는 범주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범죄자를 연상하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이는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에서 말하는 더 전형적인 구성원이 경험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는 현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p> <p>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범죄자’라는 이미지를 정신질 환자 범주 전체로 확장하여 이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고정관념을 보여준다. 이는 한 범주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연결될 수 있다.</p>	35%														

채점 기준		배점																
<p>따라서 제시문 (라)에 대한 분석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뉴스를 접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범주를 생각할 때 범죄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현상이 대안적 관점에서 말하는 '경험에 의한 전형적인 구성원의 형성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했는지의 여부가 채점 기준이 된다. 이 현상을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과 관련짓는 것에 5%, 경험에 의한 전형적인 구성원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에 10%를 배정한다.</p> <p>뒷부분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범주 전체로 확장하여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관련짓는지의 여부에 5%, 그 근거로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한 범주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소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포착했는지의 여부에 10%를 배정한다.</p> <p>아울러 이것이 정신질환자 전체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부 경험으로 전체를 속단하지 않고 범주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미디어에도 뉴스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윤리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판했는지의 여부에 5%를 배점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제시문 (다)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th> <th>각 항목별 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현상1</td> <td>관련 관점: 반복적으로 뉴스를 접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범주를 생각할 때 범죄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현상을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과 관련지을 수 있음</td> <td>5%</td> </tr> <tr> <td>근거: 한 범주의 더 전형적인 구성원이 경험에 따라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td> <td>10%</td> </tr> <tr> <td rowspan="2">현상2</td> <td>관련 관점: 일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범주 전체로 확장하여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관련지을 수 있음</td> <td>5%</td> </tr> <tr> <td>근거: 한 범주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임</td> <td>10%</td> </tr> <tr> <td>비판적 접근</td> <td>일부 경험으로 속단하지 않고 범주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함을 생각해야 함. 미디어에도 뉴스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윤리적 태도가 필요함</td> <td>5%</td> </tr> </tbody> </table>		제시문 (다)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		각 항목별 배점	현상1	관련 관점: 반복적으로 뉴스를 접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범주를 생각할 때 범죄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현상을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과 관련지을 수 있음	5%	근거: 한 범주의 더 전형적인 구성원이 경험에 따라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	10%	현상2	관련 관점: 일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범주 전체로 확장하여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관련지을 수 있음	5%	근거: 한 범주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임	10%	비판적 접근	일부 경험으로 속단하지 않고 범주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함을 생각해야 함. 미디어에도 뉴스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윤리적 태도가 필요함	5%	
제시문 (다)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		각 항목별 배점																
현상1	관련 관점: 반복적으로 뉴스를 접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범주를 생각할 때 범죄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현상을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과 관련지을 수 있음	5%																
	근거: 한 범주의 더 전형적인 구성원이 경험에 따라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	10%																
현상2	관련 관점: 일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범주 전체로 확장하여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관련지을 수 있음	5%																
	근거: 한 범주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임	10%																
비판적 접근	일부 경험으로 속단하지 않고 범주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함을 생각해야 함. 미디어에도 뉴스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윤리적 태도가 필요함	5%																
<p>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 또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나 본문의 문장을 재구성 없이 그대로 옮겨 쓴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벗어난 표현이 다수 나타난 글도 감점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 외적인 부분 전반에 대하여 10%를 배점한다.</p>		10%																

문항 2

채점 기준			배점	
결론의 선택	입장의 선택	찬성과 반대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함	5%	10%
	원칙과 예외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거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결론이 바람직함	5%	
논거의 제시	자연과 사회의 구분	과학기술이 인과적 자연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사회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되어야 함	10%	50%
	인과적 자연의 측면	인과적 자연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 요구됨 (항목당 5점, 3개 이상 15점)	15%	
	윤리적 사회의 측면	윤리적 사회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 요구됨 (항목당 5점, 3개 이상 15점)	15%	
	자연과 사회의 종합적 판단	인과적 자연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와 윤리적 사회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 요구됨	10%	
국가의 역할	경제적 효과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10%	30%
	안전에 관한 의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규제 정책을 할 것인지	10%	
	존엄에 관한 의무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어떤) 규제 정책을 할 것인지	10%	
전체적 판단	논리적 완성도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 평가	10%	10%

채점 시 채점기준 표를 참고할 것

-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 \*\* 인과적 자연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내용에 <통합사회> 과목에서 나오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대립에 관한 서술이 포함될 수 있는 바, 이는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점에서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논리성이 제고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되 결론의 도출에 도움이 안 되는 일반론만 제시하거나 일반론에서 추가적인 논증 없이 곧바로 결론을 도출한다면 가점을 부여하지 말 것
- \*\*\* 윤리적 사회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내용에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나오는 '의무론적 접근', '공리주의적 접근'과 '도덕윤리적 관점'의 대립에 관한 서술이 포함될 수 있는 바, 이는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점에서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논리성이 제고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되 결론의 도출에 도움이 안 되는 일반론만 제시하거나 일반론에서 추가적인 논증 없이 곧바로 결론을 도출한다면 가점을 부여하지 말 것

## 다. 예시 답안

### ! 문항 1

제시문 (나)는 ‘간이’와 같은 단어가 명사와 관형사의 특징을 모두 지닌다는 점에서 두 품사의 경계가 불분명함을 보여준다. 또한 ‘사람’과 ‘헌’처럼 명사와 관형사 범주의 전형적 구성원인 단어가 있는가 하면 ‘간이’처럼 그렇지 않은 단어가 있다. 이는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잘 설명된다.

제시문 (다)는 ‘결혼’ 자질을 갖춘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그 외는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현상을 언급하는데, 이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이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정 자질을 갖춘 조건에서만 범주에 속한다는 생각, 곧 범주의 자질이 고정적이고 경계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나타난 예인 것이다. 이는 미혼모 가정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결혼’ 자질을 갖추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가족 범주에 포함하는 대안적 사고가 필요하다.

제시문 (라)는 ‘정신질환자’ 범주의 전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뉴스 보도가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짓는 일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그런 경험에 입각하여 정신질환자 범주를 생각할 때 범죄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경험에 따라 범주의 전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의 설명과 관련된다. 그런데 일부는 그런 이미지를 정신질환자 범주 전체에 일반화해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고정 관념을 갖기도 한다. 이런 사고는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갖는다는 생각이 전제되는 점에서 범주에 대한 고전적 인식과 관련된다. 이는 정신질환자 전체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일부 경험으로 속단하지 않고 범주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에게는 뉴스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윤리적 태도가 요구된다.

### ! 문항 2 - (1) 찬성 의견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인 유전자 가위의 제한적 사용에 대하여 찬성한다. 아직 유전자 가위의 사용이 자연의 질서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으나, 유전자 가위는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난치병이나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자 가위의 무분별한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잘 통제하면 유전자 가위로만 가능한 각종 치료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술은 분명 사회적 질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전자 가위의 사용이 자연적 질서 및 사회적 질서에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술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유전자 가위와 같은 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적절한 경제적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국가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기업가정신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기술혁신이 자연적 환경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 유전자 가위의 사용이 현재에는 난치병 치료나 장기이식과 같은 특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훗날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연의 질서와 사회적 질서의 구분을 바탕으로, 국가는 기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면서 예기치 못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

**문항 2 - (2) 반대 의견**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인 유전자 가위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하여 반대한다. 우선, 유전자 가위가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장기 부족 및 식량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이 기술은 생태계를 교란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등 자연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유전자 가위가 기존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질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맞춤형 아기와 같이 원하는 유전 형질을 기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전자 가위가 제공하는 혜택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을 무조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만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그 이용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기업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규제나 관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는 기술의 제한적 사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적 환경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희귀성 난치병 치료를 위해 맞춤형 아기를 허용할 경우, 이러한 유전자 조작이 치료받은 인간의 또 다른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나 치료된 난치병의 유전 여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맞춤형 아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되는 유전 형질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 것인지, 미래 세대의 유전 형질을 과연 현세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4

## 홍익대학교 논술 준비 팁



## 가.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하기

-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설정된 대학의 경우, 최저 미충족으로 인해 실질경쟁률은 최초경쟁률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홍익대학교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국, 수, 영, 탐(1) 중 3개 합 8로 다른 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수능 공부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 나. 대학 제공 자료 활용하기

- 논술전형은 대학에 따라 제시문 유형부터 문제 유형, 채점 기준, 선발 인원, 경쟁률, 최저학력기준 등이 모두 다르다. 홍익대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몇 개년 분량의 논술 기출 문제, 출제 근거, 자료 출처,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논술전형 안내 등을 확인하고 주요 패턴을 이해한 후에 논술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 특히 홍익대 논술 평가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요구된 글자 수 준수 여부와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도 유념해야 한다.

## 다. 교과 수업에 충실하기

- 홍익대 논술 출제진은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준수하여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또한 현직 교사들이 고교 교육을 이수한 지원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고교 수준에 맞게 용어와 표현을 다듬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있고 중요 개념, 용어 및 주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원자들은 고등학교 국어, 사회 수업 등에 충실하게 참여해 다양한 용어와 개념, 주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 라. 실전 연습하기

- 논술은 배경지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제시문과 조건에서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글쓰기 시험이다. 120분의 제한 시간이 정해진 만큼 빠르게 제시문을 읽어내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문제의 조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답안에 작성해야 하므로 답안 작성 전 개요를 작성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답안 내용의 근거는 반드시 제시문에 있어야 하며, 제시문에 언급되지 않은 배경지식은 서술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동어 반복이나 상투적인 문구는 피하고, 제시문 그대로를 베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려한 수사보다 알맹이가 있는 논리적 전개가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 EBSi 1:1 논술탐색 서비스 등을 활용해 자신의 글을 첨삭하고 수정해보는 훈련을 많이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5

연습문제



문항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역사 서술의 속성을 바탕으로, 역사가의 바람직한 역사 서술 태도를 2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흔히 사실은 스스로 이야기한다고들 말하지만 이것은 물론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역사가가 허락할 때만 이야기한다. 어떤 사실에 발언권을 줄 것이며 그 순서나 선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역사가이다. 카이사르가 루비콘이라는 저 작은 강을 건넌 것이 역사적 사실이 된 것은 역사가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결정한 일이지만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루비콘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역사적 사실들은 이와 더불어 굴절 또한 경험한다. 역사가도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인간이므로 개인적인 기호와 가치관뿐만 아니라 시대와 민족의 편견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오로지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조망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은 불가피하게 역사가의 눈, 곧 현재의 관점에 의한 해석을 통해 굴절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 그 당시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생긴다.

하지만 역사가는 사실의 비천한 노예도 난폭한 지배자도 아니다. 역사가와 사실은 평등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이며, 둘 중 어느 한쪽을 우위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실의 잠정적인 선택에서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을 이끌어 준 잠정적인 해석에서 출발한다. 그가 연구하는 동안 사실의 해석과 사실의 선택 및 정돈 이 두 가지는 미묘하고도 얼마간 무의식적일 수 있는 변화들을 겪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현재와 과거의 상호 관계이다.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사실은 과거에 속하기 때문이다.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사실을 가지지 못하면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존재가 되며 역사가를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생명도 의미도 없다. 따라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 2024학년도 홍익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오전) 문제를 변형함.

###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역사 서술은**

역사적	사실을	서술할	때	역사가의	관
절	평	받	사	그	서
술	향	는	실	대	로
되	을	다	.	관	점
는	것	이	아	역	사
와	그	시	대	의	관
그	시	대	의	편	견
에	영	향	을	받	는
등	100				
역사가의	는	에	의	하	며
그	당	시	의	맥	락
과	현	재	의	해	석
에	는	결	절	과	일
정	한	거			
리	가	생	겨	난	다
.	하	지	만	역	사
적	사	실	은		
역사가	에	의	해	존	재
할	수	있	으며	역	사
가	들	의	해	석	은
자	신	의	관	점	으
르	사	실	에		
다	가	가	는	지	속
적	인	상	호	작	용
이	다				
200					

문장 나누기

좀 더 명확하게 '태도' 기술

전반적으로 잘 쓴 답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첫 번째 문장은 이 글의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문항에서 묻고 있는 핵심인 '역사 서술은'을 주어로 하여 명확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두 번째 문장의 경우 문장이 길기 때문에, 문장 나누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역사가의 관점과 기호, 그 시대의 편견 등에 영향을 받는다. ~)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의 경우 좀 더 명확하게 바람직한 역사 서술의 태도를 기술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예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에 의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과거와 상호작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 예시 답안

역사 서술은 역사가의 관점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중 일부가 역사가에 의해 취사 선택되며, 역사적 사실이 역사가의 현재 입장에 따라 해석됨으로써 과거 당시의 맥락과 분리되어 굴절되기도 한다. 현재를 사는 역사가의 가치관, 편견 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사실과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 특히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현재와 과거의 상호작용 속에서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243자)

**문항 2**

제시문 (가)의 윤리적 접근법 중 하나를 골라, 제시문 (나)의 입장을 200자 내외로 분석하시오.

**(가)**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윤리관이다. 의무론의 대표 학자인 칸트는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욕구를 극복하고 스스로 정립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는 인간 의지는 고귀하며, 이 의지의 자율성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 칸트의 윤리 사상은 도덕적 행위를 인간다움의 핵심적 요소가 되게 하였다.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그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윤리관이다. 결과론은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한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핵심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문제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무론적 윤리와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 중심 이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현대 윤리학에서는 행위를 둘러싼 맥락을 보다 다양하게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담론 윤리적 접근과 책임 윤리적 접근이다. 담론 윤리적 접근에 따르면, 도덕은 이성적인 존재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규범 체계이며, 이성적 존재들 간에 합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책임 윤리적 접근은 보다 확대되고 심화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역할에 따른 책임과 보편적 책임 그리고 하지 않은 행위와 해야 할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책임의 범위와 대상도 개인을 넘어 집단, 미래 세대, 동물, 생태계 등 시공간적으로 확장한다. 이 접근은 당면한 윤리 문제를 책임의 관점에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왜,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명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나)**

우리는 앞으로 AI 로봇을 두고 ‘인간이 아닌 기계’라는 속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AI 로봇을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일하거나 생활하는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AI 로봇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인간 지능을 모방하고 인간 역할을 대신할 AI 로봇은 곧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윤리적 행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들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AI 로봇이 자유 의지 또는 도덕감을 가진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AI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I 로봇을 도덕 행위자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AI 로봇을 ‘준-도덕 행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는 전통적 윤리 규범을 알고리즘화하여 입력하는 하향식 이고, 다른 하나는 AI 로봇이 다양한 현실 상황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에 보상을 받거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별 행위 지침을 학습해 나가는 상향식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은 인간처럼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 행위를 하는 AI 로봇의 개발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 제한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AI 로봇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AI 로봇의 목적과 활동 맥락에 따라 윤리 규범을 구체화하고 행위 지침을 선별하는 과제도 필요하다. 가령, 환자를 돌보는 AI 로봇을 가족과 같은 특수한 이타주의 관계로 설정할지 또는 보조 간호사로서 보편적 이타주의 관계로 설정할지를 고민해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가 빅데이터에만 의지하여 윤리적 행동을 학습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정보의 왜곡이나 비윤리적 정보의 수용으로 인해 AI 로봇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 2024학년도 홍익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오후) 문제를 변형함.

###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나)에	서	AI	로	봇	을	도	덕	행	위	자	치	형	반
들	기	위	하	며	두	가	지	의	윤	리	적	접	근
강	조	하	였	다	하	나	는	전	통	적	윤	리	규
알	고	리	증	화	하	여	하	나	의	도	덕	법	칙
만	드	수	것	의	고	나	머	지	하	나	는	상	호
을	동	한	규	범	체	계	의	구	성	에	대	한	윤
적	접	근	법	을	강	조	하	였	다	일	정	한	도
규	범	이	존	재	하	는	것	과	상	호	작	용	을
체	계	를	반	들	어	나	가	는	것	은	각	각	(가)
서	의	무	론	적	과	답	클	적	윤	리	와	관	련
													다

첨삭: 주술호응 X (주술어 '만드'와 호응어 '것'이 연결되지 않음)

중복: '상호작용'과 '동해'가 중복 사용됨

다소 아쉬움이 남는 답안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띄어쓰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문장의 주술 호응이 맞지 않는다. 한글맞춤법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이 다수 있는 경우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항에서 (가)에 제시된 윤리적 접근법 중 하나를 골라 서술하라 했으므로, (나)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윤리적 접근법인 ‘담론 윤리적 접근’에만 초점을 맞춰 제시문 (나)의 입장을 밝혀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예시 답안

(나)는 인간이 AI 로봇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이상, AI 로봇을 도덕 행위자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AI 로봇이 빅데이터에만 의지하여 윤리적 행동을 학습하는 경우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AI 로봇의 목적과 행동 맥락에 따라 윤리 규범과 행위 지침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의 담론 중심적 접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212자)

## 2. 인문계열-문학 제시문 포함



교과 연계 대입 논술 가이드북

- 인문·상경 계열, 약술형 논술 중심으로 -

02 경희대학교

03 광운대학교

04 동국대학교

# 02 경희대학교

2026 논술 고사 일정	전형 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시험 시간	문항 수	글자 수, 배점	주 출제 교과 및 과목 (출제 범위)
2025. 11. 15. (토)	논술 100	국수영탐(2과목 평균) 중 2개 합 5 이내 한국사 5 이내	120분	2문항 내외	2,000자 내외 1,000점	국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통합사회

※ 기출 문제 채점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1,000점으로 사정함.

## 1 경희대학교 논술 준비



### 가.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연도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025	[논제1]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생활과 윤리	두보의 시, 도(道), 문학의 기능과 역할
	[논제2]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예술가, 인공지능, 미적 가치, 감정, 알고리즘, 생화학 체계, 생체측정 데이터, 정서, 독창성, 가치 평가
2024	[논제1]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이성, 상상, 감각, 진실, 감정, 법
	[논제2]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공감
2023	[논제1]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대중문화
	[논제2] 국어,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소셜 미디어

### 나. 문항 유형 특성

- 경희대의 인문·체육 계열 언어 논술은 7개의 지문과 2개의 논제가 제시되며, (가)~(다)는 [논제1], (라)~(사)는 [논제2]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됨.  
※ 경희대 기출문제에서는 문항, 문제 대신 '논제'라는 용어를 사용함.
- 통합교과형 논술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지식을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지문이 제시되며, 아래와 같은 능력을 요구함.
  -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보다 쟁점에 담긴 인간·사회의 문제를 통찰하는 성찰적 사고력
  - 특정 주제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다면적 사고력
  - 텍스트 해석 능력 및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통합적 사고력

- 국어 관련 교과(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및 사회 교과(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의 교육 과정 내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시문의 자료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되며 고등학생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인문, 사회 관련 도서 및 문학 작품 범위에서 선정됨.

 **논제 1**

- ▶ 지난 3년간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801자~900자 이하)’라는 논제가 제시됨.
- ▶ 제시된 세 개의 제시문 중 한 지문의 내용과 관점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른 두 개의 제시문이 제시한 입장 또는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을 살펴보는 문제임.
- ▶ 각 지문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요약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되, 단편적인 요약에서 그치지 않고 유기적 연관성 아래에서 비판하고 성찰해야 함.
- ▶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하여 서술하기’ → ‘다른 제시문과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차이를 서술하기’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는 기반임.

 **논제 2**

- ▶ 지난 3년간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1,001자~1,100자)’라는 논제가 제시됨.
- ▶ 네 개의 제시문을 입장이 같은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한 입장을 채택하여 그 입장을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유형의 문제임.
- ▶ 다양한 제시문들을 쟁점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분류하는 능력을 평가함. 나아가 이 중 한 가지 입장을 취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고 반대 입장을 얼마나 조리 있게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 ‘제시문 분류 기준 제시하기’ →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들을 두 부류로 묶기’ →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기’ → ‘다른 입장을 비판하기’ 순서대로 서술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는 기반임.

- 두 논제는 모두 각 텍스트를 서로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입체적으로 해석하기를 요구함. 특히 성격이 다른 텍스트 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며, 학생이 가진 사전 지식이 아닌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함.
-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한 후, 관계와 맥락 속에서 의미를 밝혀야 함. 이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함.
-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옮겨 적는 것을 지양하고, 자신의 언어로 조리있게 요약하고 서술해야 함. 단순 요약을 떠나 중심이 되는 지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문 간의 관계성을 논리적으로 밝혀야 함.

## 다. 출제 자료 및 도서 출처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5	[논제1]	『지구 끝의 온실』(김초엽), 『정처가 없다』(『자유가 시인더러』(조태일)),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정약용)
	[논제2]	『AI 빅뱅』(김재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유발 하라리), 『AI가 쓴 소설』(박금산), 『예술철학』(노엘 캐럴)
2024	[논제1]	『방법서설-성찰, 세계론』(데카르트), 『무례한 시대를 품위있게 건너는 법』(악셀 하케), 『혐오와 수치심』(마사 누스바움)
	[논제2]	『공감의 시대』(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배신』(폴 블룸), 『공감은 지능이다』(자밀 자키), "The Limits of Empathy"(Adam Waytz)
2023	[논제1]	『대중문화의 이해』(김창남/언어와 매체 교과서 수록), 『소년을 위로해줘』(은희경/문학 교과서 수록), 『BTS와 아미는 세상을 어떻게 바꿨나』(『시사위크』, 조유빈), 『전 세계 풀뿌리 운동 에너지원 BTS 팬덤 '아미 액티비즘』(『시사IN』, 김영화)
	[논제2]	『생활과 윤리』(지학사), 『고립의 시대』(노리나 허츠), 『페이스북은 어떻게 우리를 단절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시바 바이디야 나단), 트위터 "케이크 디아망" 관련 트윗, 『SNS와 도둑맞은 자아』(『레디앙』(여미애))

2

경희대학교 기출문제 (2024. 11. 16(토) 시행)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정말 레이첼은 흥미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뿐일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단지 놀이에 불과한 걸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프림 빌리지를 위해서도 아닌, 단지 자연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까. 지수는 여전히 레이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냥 만들 수 있어서. 흥미로운 특성을 발견해서.”

레이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수 네가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했어. 하지만 숲에 심는 건 안 돼. 프림 빌리지는 이게 없어도, 지금도 괜찮잖아. 이런 식물이 있다고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레이첼을 보니, 지수는 뭐라고 더 불만을 표하려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예전에 레이첼의 식물들이 생각만큼 잘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에, 지수는 일단 기대를 잠재웠다. 인류가 간절히 찾고 있는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기에는 상자 속 식물들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

그 손바닥만 한 잎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레이첼이 갑자기 실험실의 불을 켜다.

“갑자기 불은 왜?”

지수는 레이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가 모스바나가 담긴 상자 하나를 가리켰다. 지수는 상자를 다시 보았고, 눈앞의 장면을 보고 입을 벌렸다.

푸른빛이 상자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먼지처럼 흩날리기도 하고, 토양이 빛을 머금은 것처럼 빛나기도 했다. 어떤 상자에서는 아주 색이 짙었고, 또 어떤 상자에서는 색이 거의 없거나 옅었다. 지수가 그것을 보며 가장 먼저 한 생각은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지수는 그 푸른빛이 뜻하는 의미를 생각했다.

“더스트를 제거할 때 생기는 빛이겠지?”

레이첼은 상자를 보더니 말했다.

“아니, 그 빛에는 아무 기능이 없어.”

뜻밖의 대답이었다.

“여러 번 시험해 봤지만 응집이나 제거 현상과는 무관하게 나타나. 개량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었어. 독립적인, 불필요한 돌연변이. 아마도 비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와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기 중의 특정 분자와 반응해서 발광성 부산물이 생성돼. 그게 흙이나 먼지 입자에 달라붙지. 간단한 유전자 조작으로 특성을 없앨 수 있어. 쓸데없이 시선을 끄는 특성이니까 제거할 생각이야.”

“그렇구나. 불필요한 돌연변이라니…….”

불을 켤 생각도 않고, 지수는 한참이나 상자 속의 푸른빛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아름답네.”

그렇게 말하는 지수를 레이첼이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모스바나를 당장 심게 해 달라는 지수의 부탁을 레이첼은 거절했다. 그것이 숲을 일단 잠식하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수는 레이첼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진짜 이유는, 레이첼이 숲을 실험실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레이첼이 원하는 건 어디까지나 더 많은 식물들을 실험해 보는 것이고, 그러니 자신의 실험실이기도 한 프림 빌리지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중략)

지수는 밤새도록 바위에 앉아서, 숲을 가득 채운 푸른 먼지들을 보았다. 아름다움 외에는 아무 기능이 없는, 그러나 결국 제거되지 않은 푸른빛들을.



### 제시문 (나)

절망을 노래하고파서  
오늘 버림을 당하고파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파서  
떠나자, 미련없이 떠나자.

폭력으로부터 떠나자  
말의 횡포로부터 떠나자  
약속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가풍(家風)으로부터 떠나자  
거짓 경제로부터, 거짓 학문으로부터  
거짓 기교로부터  
거짓 문학으로부터 떠나자.

떠나서 소곤거리자  
소리가 모여 소리를 날고  
절망이 모여 절망을 날고  
버림이 모여 버림을 날으면서  
빈몸으로 덩굴자

알몸끼리만 어울리자.  
소리가 모여 정치를 날고  
절망이 모여 사랑을 날고  
버림이 모여 만남을 날을 때까지.

! 제시문 (다)

지난번에 이학규(李學逵)의 시를 읽어 보았다. 그가 너의 시를 논평한 것은 잘못을 잘 지적하였으니 너는 당연히 수긍해야 한다. 그가 지은 시 중에 좋은 것이 더러 있기는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바는 아니었다. 오늘날 시는 마땅히 두보(杜甫)의 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든 시인들의 시 중에서 두보의 시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경(詩經)』에 있는 삼백편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경』에 있는 모든 시는 충신, 효자, 열녀 그리고 진실한 벗들의 간절한 마음의 발로이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 시는 시가 아니고,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분개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 시는 시가 될 수 없으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하고 미운 것을 밉다 하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뜻이 담기지 않은 시는 시라고 할 수 없다. 부자(父子)나 군신(君臣), 부부의 떳떳한 도리를 밝히려는 마음과, 세상을 걱정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겨 항상 힘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고 재산 없는 사람을 구제해 주고자, 마음이 흔들리고 가슴 아파서 차마 그냥 두지 못하는 그런 간절한 뜻을 가져야 비야흐로 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음풍농월하면서 술 먹는 이야기나 율조리거나 자기 자신의 이해에만 연연하는 시라면 그것을 어찌 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뜻이 세워져 있지 않고 학문은 설익었으며 삶의 큰 도를 아직 배우지 못하고 위정자를 도와 민중에게 혜택을 주려는 마음가짐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시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니, 너도 그 점에 힘쓰기를 바란다.

! 제시문 (라)

십분 양보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 즉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미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은 예술 작품의 중요한 의미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보고 감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도 예술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창의적이라고 평가해 준 건 결국 사람이다. 인공지능 스스로는 그게 새로운지 모른다. 인간만이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보며 “와, 이거 새롭다!”라고 한다.

인공지능은 미적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 자신이 탄생시킨 작품이나 화풍에 대해 생각을 품지도 못하고 자기 작품을 감상하지도 못한다. 인간 예술가는 다르다. 자신이 그린 작품 중 전시회에 걸고 싶은 작품 10개를 고르라고 하면 잘 골라낸다. 이건 좋다, 이건 별로다, 이건 왜 그랬다 등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 평가한다. 인공지능은 자기 작품은 물론 다른 작품도 평가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에게 미술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작품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며, 왜 좋은지 10개만 꼽아 설명하라고 하면 어떨까? 미술사 속 작품뿐 아니라 동시대에 창작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 작업은 불가능하다. 원리상 인공지능은 평가 기준을 자기 바깥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인간이 준 것이다.

인공지능은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작품은 작가가 그 안에서 자기 의도에 도달할 때 만족된다.”라는 램브란트의 말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어떤 작가라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말이다. 미술사가 고프리치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다고 판단할 권리는 화가에게 있다.”라고 적절하게 해석한다. 작품에 서명하기 전에 작가는 충분히 숙고한다. 서명의 순간은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 즉 작품이 완성됐다고 작가가 승인하는 순간이다. 이순간에 주목하면 그 어떤 예술 작품이건 작가의 평가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작품을 완성하는 건 작가의 권리다.

## ! 제시문 (마)

현대 세계에서 예술은 보통 인간의 감정과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예술가의 역할이 우리 내부의 정신적 힘들을 연결하는 것이고, 예술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서로 간의 감정으로 연결하거나 우리 내면에 어떤 새로운 느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다 보니 예술을 평가할 때도 그것이 청중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예술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 규정된다고 했을 때, 외부 알고리즘이 인간의 감정을 셰익스피어나 프리다 칼로\*, 혹은 비운세\*\*보다 더 잘 이해하고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국 감정이란 것도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다. 생화학적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따라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우리 몸의 겉과 내부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 전달되는 생체 측정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별 성격 유형과 바뀌는 기분을 알아낸 후 특정한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 영향을 미칠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형식의 예술 중에서도 특히 음악이 빅데이터 분석에 가장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입력과 산출을 정확히 수학적으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력은 음파의 수학적 패턴이고 산출은 신경에서 일어나는 폭풍의 전기화학적 패턴이다. 수십 년 내에 기계 알고리즘이 수백만 가지 음악을 섭렵하고 나면, 어떤 노래를 입력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예측하는 법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맞춤 예술은 결코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공통의 히트곡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당신밖에 모르는 곡에 맞춰 함께 춤추고 노래할 수 있겠는가? 사실 알고리즘은 맞춤 제작한 희귀 곡보다 세계적인 히트곡을 만드는 데 적응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막대한 생체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무도장에서 모두가 미친 듯 몸을 흔들게 하는 글로벌 히트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의 본질이 정말 인간의 감정을 고양하거나 조작하는 것이라면, 그런 능력을 가진 알고리즘과 인간 뮤지션이 경쟁할 가능성은 없거나 희박할 것이다. 인간의 생화학 체계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인간은 알고리즘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아름다움이 실제로는 청중의 귀에 있다면, 그리고 고객이 언제나 옳다면, 생체 측정 알고리즘은 빼어난 예술 작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단지 예술 시장에 진입해서 많은 인간 작곡가와 연주자를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면, 알고리즘은 곧장 차이코프스키를 추월할 필요는 없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능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 프리다 칼로: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

\*\* 비운세, 브리트니 스피어스: 미국 출신의 대중가수.

## ! 제시문 (바)

“부탁이 있습니다. 작가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창작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짜낼 것이 없는데 짜내려고 하면 힘만 들죠.” (중략)

“그런가요?”

“모래를 생각해도 좋아요. 모래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래를 찼을 때 액이 나온다면 그것은 모래 자체에 들어있던 물이 아니라 모래 사이에 끼어 있던 이물질입니다. 어제 내린 빗물이거나 밤 사이에 밀려왔다가 바다로 다시 돌아가지 못해서 남은 바닷물인 거죠. 모래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그래서요?”

“작가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적당하게 볶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오일을 짜기 위해서.”

“저는 차라리 모래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모래라는 말을 꺼냈다고 해서 모래라는 말에 너무 자괴감을 받지 마세요. 모래는 거르는 존재입니다. 잔모래는 작은 찌꺼기까지 거르고 굵은 모래는 빠른 시간 안에 큰 찌꺼기만 거르죠. 짜낼 게 없을 때는 걸러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하고 하신 일이 그런 종류 아니었습니까? 화산 지형을 통과한 빗물이 해안에 모이면 얼마나 맑은 물로 변해 있습니까. 모래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은 모두 시가 썼다는 거죠?”

“시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을 내리면 결과가 오니 참 신기하고 미칠 일이죠.”

“제가 계속 일을 한다면 시가 뱉어 내는 찌꺼기를 걸러 내는 것이죠? 창의력 없이?”

“작가님을 실망시키려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수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작가님은.”

“그게 제 역할의 최대치라는 거죠? 모래 같은 인간, 정수기 같은 인간.”

“작가들은 시와 독자를 연결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죠. 시에게는 변별 능력이 없으니까, 당분간 수많은 것 중에서 나쁜 것을 걸러 내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고,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래를 짜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자신을 좀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주어진 일을 능력 안에서 해내는 거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요.”

! 제시문 (사)

연하장은 어떤가? 통상적인 조의문은 어떤가? 그런 인사장들도 정서를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정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제작되고 팔릴 수 있는 것이다. 인사장과 같은 것에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고 또 받은 사람들도 슬픔을 느낀다 해도, 우리는 대부분 그것들을 예술 작품이라고 부르기를 망설일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들이 전달하는 정서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낭만주의자들은 개인적 경험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데 높은 가치를 둔다. 그러나 인사장이 전달하는 정서적 경험은 개별화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우리는 예술가에게 판에 박히지 않은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말할 것을 기대한다.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개별화된 정서를 관객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예술가는 그냥 정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서를 스스로 검사한다. 예술가의 감정 상태는 초상화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과 같다. 예술가는 그것의 질감과 윤곽을 찾아내려고 고심한다. 예술가가 자기의 감정

상태를 반영할 때 그의 활동은 통제된다. 그는 그 감정 상태를 신중하게 탐색하고 그것을 표현할 적합한 언어, 색, 소리를 찾아내려고 한다. 만일 예술가가 시인이라면 그는 먼저 한 단어를 고른 후에도 그가 느끼는 바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단어가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 할 것이다.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분출이나 표출, 소리 지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명료화 과정이다. 무용가는 여러 동작들을 결합할 것이고 화가는 가장 어울리는 붓놀림으로 도화지를 물들일 것이다. 작곡가는 여러 가지 선율을 결합한 후 뒤로 물러서서 그것들이 적절한지를 물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예술가의 정서를 명료하게 하는 동시에, 그 정서는 예술가의 선택에 영감을 주고 또 정보를 제공한다.

### 논제 1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900자 이하: 배점 40점]

### 논제 2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배점 60점]

3

경희대학교 기출문제 분석



가. 문항 해설

논제 1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900자 이하: 배점 40점]

- [논제 I]은 제시문 [다]의 내용이 제시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에서 제시한 입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 문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제시문 [가]는 아름다움의 것 외에는 아무런 기능 없이 푸른빛을 통해 오직 아름다움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를 보여 준다. '푸른빛의 기능 없는 아름다움'은 예술이나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윤리적, 도덕적 기능에서 찾는 태도와 반대된다.
- 제시문 [나]의 화자는 자유를 위해 모든 억압적인 것으로부터 떠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인은 부조리와 억압에서 벗어나 진솔한 소리들의 모임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사랑의 세계가 도래하기를 노래한다.
- 제시문 [다]는 바람직한 문학의 모습을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글이다. 모름지기 시는 시대의 현실을 근심하고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발로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다. 그렇지 않은 시는 진정한 의미의 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문학의 가치와 기능을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서술하는 [다]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움의 그 자체를 강조하는 [가]는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부정한 현실을 비판하는 현실 참여적인 태도의 [나]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논제 2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배점 60점]

- [논제 II]는 네 개의 제시문을 입장이 같은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한 입장을 선택하여 그 입장을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 다양한 제시문들을 동일한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한 입장을 취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고 반대 입장을 얼마나 조리 있게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예술 분야에서 예술가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는 [라], [사]를 한 부류로 묶고,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는 [마], [바]를 또 한 부류로 묶어 상호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라]는 예술에서 평가가 갖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 인간 예술가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한다.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창의성이 있거나 감동을 주는 예술을 창작할 수 있지만 결국 작품의 완성도 등 예술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인간의 몫이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 [마]는 만일 예술의 본질이 인간의 감정을 고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 예술가보다 알고리즘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알고리즘이 인간 음악가보다 청중이나 고객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하므로 인간 예술가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청중의 평균화된 요구가 갖는 대중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독창성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
- [바]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 예술가의 지위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이 쓴 소설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냄으로써 작가는 시와 독자를 연결해 주는 메신저나 파수꾼 역할 정도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생각은 인공지능의 등장이라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예술이 예술가의 개별화된 정서와 독창성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사]는 예술의 본질을 예술가의 고유한 정서에서 찾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예술가가 경험한 고유한 정서를 판에 박히지 않은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 곧 예술 작품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의해 생산되는 정서는 고유한 것이 아니며, 독창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 나. 채점 기준

### 문항 공통

등급	기준 점수	기본 점수
상	100점~90점	□ 기본 점수: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중	89점~70점	
하	69점~0점	

정량 평가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

**논제 1 배점: 100점**

원고 분량	700자 미만	감점 10점	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② 제시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700자 이상~750자 미만	감점 5점	
	801 이상~900자 이하	-	
	950자 이상~1,000자 미만	감점 5점	
	1,000자 이상	감점 10점	
내용 평가	□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함		10점 가점
	□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가], [나]의 요지와 한계를 정확히 지적함		10점 가점
	□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함(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20점 가점

**논제 2 배점: 100점**

원고 분량	900자 미만	감점 10점	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② 제시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900자 이상~950자 미만	감점 5점	
	1,001 이상~1,100자 이하	-	
	1,150자 이상~1,200자 미만	감점 5점	
	1,200자 이상	감점 10점	
내용 평가	□ 제시문을 예술에서 예술가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는 [라]와 [사],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한 [마]와 [바]로 분류함		10점 가점
	□ 제시문을 [라]와 [사] 또는 [마]와 [바]의 입장으로 묶어 그 핵심 내용을 제대로 요약함		10점 가점
	□ 제시문을 예술가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는 [라]와 [사]의 입장에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마]와 [바]의 시각을 비판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마]와 [바]의 입장에서 예술가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는 [라]와 [사]의 시각을 비판할 때 논거에 따라 비판함		10점 가점
	□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10점 가점

## 다. 예시 답안

### 논제 1

[다]는 『시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문학)의 가치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시는 시대의 현실을 근심하고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발로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는 바람직한 시(문학)의 모습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글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가]는 아름다움 외에는 아무 기능이 없는 푸른빛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소설의 한 장면이다. 이 푸른빛은 개인의 호기심, 즉 자기 만족적인 차원의 실험에서 발견한 우연한 부산물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인류가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어떤 해결책도 투영되어 있지 않다. 아무 기능이 없는 불필요한 돌연변이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의 사회적 효용과 교훈적 기능을 중시하는 [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에 드러난 아름다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에서 경계하고 있는 음풍농월하는 이야기나 자기 자신의 이해에만 연연하는 시의 이미지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의 입장에서 [가]의 푸른빛과 같은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상황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는 부정한 시대 현실을 비판하면서 더 나은 삶을 염원하고 있는 현실 참여적인 작품이다. 거짓으로 가득 찬 부조리한 현실을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글쓴이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시이다. 시인은 세상의 절망을 넘어서는 진솔한 소리들의 모임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사랑의 세계가 도래하기를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세상을 걱정하고 민중의 삶을 중시하는 [다]의 관점과 유사하다. 따라서 시(문학)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을 중시하는 [다]의 입장에서 [나]의 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851자)

### 논제 2 - (1) [라], [사]의 입장에서 [마], [바]를 비판하는 경우

[라], [사]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에서 인간 예술가의 위상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라]는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창의성이 있거나 감동을 주는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적 요소나 작품의 완성도 등 예술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인간 예술가의 몫이라고 본다. [사]는 예술가가 경험한 개별화된 정서를 판에 박히지 않은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을 예술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라], [사]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인간 예술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마], [바]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에서 인간 예술가보다 알고리즘이 더 큰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고 말한다. [마]는 예술의 본질이 인간의 감정을 고양하는 것이라면, 그런 예술은 인간 예술가보다 알고리즘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알고리즘이 인간 음악가보다 청중이나 고객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하여 인간 예술가보다 더 빼어난 작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라], [사]의 입장에서 볼 때, [마]는 알고리즘은 청중이나 고객의 수용에 예술을 창작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창의적이거나 미적 수준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작품의 가치 평가는 오직 인간 예술가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바]는 작가를 찌꺼기를 걸러내는 모래나 정수기와 같은 존재로 표현한 소설의 한 부분이다. [바]의 화자는 작품 속 '작가'에게 소설은 시가 쓰기 때문에 소설을 창작하기 위해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작가는 시와 독자를 연결해 주는 메신저이자 파수꾼 역할을 하거나, 좋은 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라],

[사]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은 예술가의 개별화된 정서와 독창성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바]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바]는 예술가를 메신저로 봄으로써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에 종속적이며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040자)

**논제 2 - (2) [마], [바]의 입장에서 [라], [사]를 비판하는 경우**

[마], [바]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에서 인간 예술가보다 알고리즘이 더 큰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고 본다. [마]는 예술의 본질이 인간의 감정을 고양하는 것이라면, 그런 예술은 인간 예술가보다 알고리즘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알고리즘이 인간 음악가보다 청중이나 고객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하여 인간 예술가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바]는 작가를 찌꺼기를 걸러내는 모래나 정수기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시와 독자를 연결해 주는 메신저이자 파수꾼 역할을 하거나, 좋은 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라], [사]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에서 인간 예술가의 위상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다. [라]는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창의성이 있거나 감동을 주는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고 본다. 인공지능은 예술의 미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작품이 완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적 요소나 작품의 완성도 등 예술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인간 예술가의 몫이라고 본다. 그러나 [마], [바]의 입장에서 볼 때, [라]는 작품의 미적 가치나 예술가의 창조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알고리즘이 다양한 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현실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 받을 수 있다. 예술가 개인의 선택만을 강조하면 예술의 다양성과 수용의 범위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 또한 간과하고 있다.

[사]에서는 예술가가 경험한 개별화된 정서를 판에 박히지 않은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을 예술 작품으로 보고 있다. [사]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예술가 자신의 정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 [바]의 입장에서 볼 때, [사]는 예술가의 개별화된 정서를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대중들의 보편적 정서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인간 예술가의 노력 없이도 알고리즘이 많은 작품을 생산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사]는 예술을 인간만의 전유물로 간주함으로써 예술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036자)

## 4

## 경희대학교 논술 준비 팁



## 가. 다양한 주제의 제시문에 대비하기

- 국어 및 사회 교과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시문이 출제되므로, 교과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읽기와 글쓰기, 토론 등을 통해 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출제 기반이 되는 과목이며, 사회 교과에서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정치와 법’이 자주 출제되는 과목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제시문의 출처는 교과서 수록 문학 및 비문학 제재, 인문 사회 관련 교양서적, 각 분야의 잘 알려진 권위 있는 저서, 신문기사, 학술잡지 등 다양하므로, 평소 교과와 관련된 폭넓은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문·체육계열 논술의 경우 교과서와 고전, 시사 관련 문헌 및 자료의 다독을 권한다.
- 환경, 식량, 에너지, 신기술, 생명과학 등 현대사회의 현안 등 현재 시사에 관한 글을 다양하게 읽고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 나. 패턴화된 논제에 대한 적응 훈련하기

- 논제의 패턴이 다년 간 동일했으므로,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지문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 [논제 I]은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하여 서술하기’ → ‘다른 제시문과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차이를 서술하기’의 순서대로, [논제 II]는 ‘두 부류로 묶기’ →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기’ → ‘다른 입장을 비판하기’의 순서대로 답안을 적는 연습을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해야 한다.
- 기출 문제가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여러 번 읽고 풀어 보아야 한다.
- 언제든지 논제의 패턴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6~7월 경에 경희대 입학처가 공개한 모의논술 및 논술 가이드북을 반드시 체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 다. 논술 문항 작성 시 유의점 숙지하기

- 출제 의도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창의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 논제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서술하기보다는, 제시문의 내용과 관점을 근거로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별성 있는 논거와 참신한 사례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분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독창적인 내용을 중시한 채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두 글자에 연연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 띄어쓰기,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교정부호 사용법, 단락 쓰는 법, 바르고 가독성 있는 글씨로 답안 적는 법 등 문항 작성의 기초를 충분히 익히고 연습하여야 한다.
- 특히 연필 및 샤프 사용이 불가하므로 지우지 않고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충분히 연습하여야 한다.

###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대비하기

- 국, 수, 영, 탐(2과목 평균) 중 2개 합이 5 이내이며, 한국사는 5등급 이내를 수능 최저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조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 2025학년도부터 최저에 탐구가 2개 평균으로 반영되면서 실질적인 수능 최저가 소폭 올라갔다고 할 수 있다.
- 논술 100% 전형이므로 내신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학 측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원 경쟁률에 비해 실질 경쟁률(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평균 35~50% 정도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면 예측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마. 논술 시행 시기 살펴보기

- 수능 시험이 시행된 바로 그 주의 토요일에 논술 시험이 시행되므로, 수능 전에 꾸준히 논술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
- 논술 시행 날짜가 건국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과 겹치므로 시험 일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인문계열 논술 기준)

### 바. 기타

- 동점자 발생 시 고배점 논제의 성적 순위자가 선발되므로, 시간 분배를 잘 하여 후속 문제의 완결성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고배점 논제의 성적 순위자 (논제 II > 논제 I)  
 ② 논제별 채점자 점수 중 높은 점수의 합산 성적 순위자  
 ③ 고배점 논제의 채점자별 점수 중 성적 순위자

## 5

## 연습문제



## 문제 1

[가]와 [나]의 공통 소재가 무엇인지 밝히고, 두 글의 입장 차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가) 태어나자마자 각각 미국과 프랑스로 입양되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았던 쌍둥이 자매 ‘사만다’와 ‘아나이스’는 우연히 누리 소통망(SNS)과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25년 만에 재회했다. 이들의 만남은 아나이스가 동영상에서 우연히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만다를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온라인을 통해 사만다가 아나이스가 보낸 친구 신청을 확인하면서 두 사람의 본격적인 이야기다 전개된다. LA와 런던, 지구 반대편에 사는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 채팅,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갔고, 자신들이 쌍둥이 자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만다는 확신을 하고 아나이스의 동의하에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고, 「트윈스터즈」라는 자전적 다큐멘터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 다큐멘터리 영화 「트윈스터즈」 제작노트에서

(나) ‘사이버 불링(Cyber Bulling)’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단어로, 대상이 누군지를 떠나 악성 댓글을 비롯한 ‘언어 폭력’, ‘개인정보 유포’, ‘악성 소문 생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략]

온라인 커뮤니티가 거대해지고, 누리 소통망(SNS)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반인들도 사이버 불링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별 뜻 없이 올린 자신의 누리 소통망(SNS) 글이 논란이 되는 일도, 거짓 글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도 적잖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중략] 물론 정당한 비판이 필요한 순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비판도 도를 지나치고, 과열되는 양상을 띠게 되면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할 것이다.

- 『공감신문』 2018.4.25.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개념이 너무 넓으므로 두 글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누리소통망(SNS)'으로 특정하기

	[가]	와		[나]	의		공	통		소	재	는		온	리			
인	공	간	의	영	향	이	다	,										
	[가]	는		온	라	인		공	간	을		통	해		쌍	둥	이	
자	매	를		찾	게		되	는		내	용	으	로		온	리	인	공
간	의		공	정	적	영	향	이		대	해		인	급	한	다		
	[나]	는		사	이	버		블	링	이		대	한		내	용	으	
로		온	라	인		공	간	이	수		일	의	나	고	있	는		복
정	적		영	향	이		대	해		인	급	하	고		있	다		

'익명성, 정보 확장성' 등의 SNS의 특성을 원인으로 언급하기

'시공간의 제한을 벗어난 소통' 등 구체적인 장점을 언급하기

100

논제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 소재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두 글의 입장 차이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다. 단, 이때 첫 번째에서 찾은 '공통 소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학생의 예시 답안은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과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다. 다만 내용적 차원에서 첨삭하자면, 두 제시문의 공통 소재를 '온라인 공간의 영향'이라고 언급한 것은 지나치게 넓은 개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제시문 모두에 등장하는 '누리소통망(SNS)'로 구체화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각각 '시공간의 제한 극복', '익명성이나 정보 확장성'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면 답변이 한층 더 풍부해질 것이다.

 예시 답안

(가)와 (나)의 공통 소재는 누리 소통망(SNS)이며, 각각 SNS의 장점과 단점을 밝히고 있다. (가)는 입양된 쌍둥이 자매의 사례를 들어 SNS가 가진 탈공간적 속성과 편리한 소통의 장점을 부각하지만, (나)는 SNS가 가진 익명성과 통제 불능의 속성으로 인한 사이버 불링이라는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 SNS의 단점을 경계해야 함을 주장한다. (199자)

I 논술전형 바로 알기

II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III 부록



## 문제 2

다음을 읽고 글쓴이의 시각에서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리더십에 대해 평가하시오.  
(500자 내외)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에 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따라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 관계를 팽개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써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비록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군주가 시민과 신민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면 항상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처형이 필요하다더라도,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로 국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을 몰수할 명분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약탈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군주는 항상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핑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숨을 앗을 이유나 핑계는 훨씬 더 드물고, 또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란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군대의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 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활약에 관한 설명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이역에서 싸웠지만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그의 부하들이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잔인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별없는 저술가들은 이러한 성공적인 행동을 찬양하면서도 그 성공의 주된 이유를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한니발의 다른 역량들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사태에서 입증됩니다. 그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군대는 스페인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그가 너무나 자비로워서 적절한 군사적 기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로크리 지방이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방 장관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을 때,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구제해 주지 않았으며, 또한 그 지방 장관은 자신의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키피오가 너무 자비로웠기 때문입니다. 실은 원로원에서 그를 사면하고자 발언한 인물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피오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이 견제받지 않고 방임되었더라면, 그 자신의 성격 때문에 스키피오의 명성과 영광은 빛이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유해한 성품이 적절히 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의 명성에 이바지했습니다.

-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글	쓴	이	에	게	있	어	한	니	발	은	비	록	몇	몇	저	술	갖	들
이	그	의	능	력	를	꼭	차	했	지	만	크	추	코	서	두	려	올	을	
통	한	통	제	예	심	즈	하	였	기	에	배	우	이	상	적	이	고	출	공
한	코	극	원	것	입	니	다		그	는	잔	인	한	오	크	부	차	들	도
부	터	공	포	를	발	안	냈	으며	이	것	이	군	대	위	만	즐	취		
자	와	만	발	의	태	세	를	갖	춤	에	기	여	했	기	에	결	과	로	
반	관	한	반	없	는	성	공	적	인	군	내	부	심	태	를	반	들		
어	별	수	있	었	기	때	분	입	니	다	더	해	서	그	는	큰	경		
을	받	아	미	요	을	피	했	기	에	더	더	두	현	명	한	큰	극	로	
시	의	면	호	를	곳	을	평가할	수	있	습	니	다		지	나	치	게	재	비
반	면	에	스	키	피	오	는	그	외	자	비	로	조	이	치	는	에	대	
한	공	조	와	두	려	조	은	약	화	했	고	이	것	이	병	사	들	에	기
감	사	의	상	호	관	계	를	평	개	치	기	막	중	는	심	태	로		
만	들	었	으며	그	결	과	로	스	레	인	에	서	외	반	조	이	번	어	
났	기	에	두	려	조	은	통	한	나는	등	제	에	실	래	했	다	했	습	니
그	는	코	크	리	주	민	들	이	자	신	이	있	명	큰	중	관	에	외	
채	클	저	르	웃	지	북	찬	재	산	외	심	실	을	겪	을	때	에		
도	장	관	을	켜	벌	찬	기	는	커	녕	감	사	머	구	제	를	회	피	타
었	기	에	두	려	조	은	큰	재	가	되	는	것	에	이	이	비	로	논	지
않	기	조	차	실	패	했	기	때	순	이	코	극	로	서	부	족	했	다	고
불	수	있	습	니	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십을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기준으로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리더십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다.

학생의 답안을 내용적 측면에서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 밝힌 뒤, 이를 기준으로 두 인물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제시하여야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 측면에서 평가할 때,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두괄식으로 제시하고 근거를 기술한 점이 가독성을 높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표현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때, 글에 부사어 등 수식어의 사용이 많고 문장이 지나치게 길거나 불필요한 문장이 많아 전체적으로 간결성과 명료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답안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I 논술전형 바로 알기  
II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III 부록

**예시 답안**

글쓴이의 입장에서 한니발의 리더십은 긍정적으로, 스키피오의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글쓴이는 인간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통치할 때에는 적절한 명분과 이유를 갖추어 미움받는 일을 피하되, 잔인하다는 평판에는 개의치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한니발은 비인간적으로 잔인한 리더십으로 부하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이끌어 내었고, 아무 분란 없이 군을 통솔하였으며 나아가 그의 다른 역량까지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으므로 훌륭한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스키피오는 지나친 자비를 베풀어 병사들에게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로마 군대를 부패시켰으며, 주민들을 약탈하는 관료를 방관하여 원성을 샀다. 스키피오의 자비로운 리더십은 불안정하여 원로원의 견제가 아니었다면 그의 명성과 평판에 조차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69자)

**문제 3**

(나)의 입장에서 (가)의 화자의 태도를 평가하여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가)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네 운명이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눈물을 흘리게 될지,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져 이제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당신, 가끔 당신을 느낀 적이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될까.

당신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과 언제나 함께였다는 것을 알겠어,

라고.

아니, 말은 필요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후회했는지  
무엇을 돌이키려 헛되이 애쓰고  
끝없이 집착했는지  
매달리며  
눈먼 걸인처럼 어루만지며  
때로는 당신을 등지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날 찾아와  
마침내 얼굴을 보여줄 때  
그 윤곽의 사이 사이.

움푹 파인 눈두덩과 콧날의 능선을 따라  
어리고  
지워진 그늘과 빛을  
오래 바라볼 거야.  
떨리는 두 손을 엮을 거야.  
거기,  
당신의 뺨에,  
얼룩진.

- 「서시」(『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한강, 문학과 지성사

(나) 사람들은 종종 악성 종양을 시한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이며, 환자와 그 가족이 그 중대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크게 호전되거나 완치되는 사례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치병이다. 나는 누구나 실제로 죽음과 맞닥뜨리기 전에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받는 암 선고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냉혹하게 일깨워줄 것이다. 따라서 병을 앓는 시간 동안 자신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면, 실제로 죽음과 조우하게 되건 혹은 삶이 연장되건, 그 시간이 축복일 수도 있다.

- 『죽음과 죽어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청미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운명'이 '죽음'으로 해석되는 근거 필요

	(가)	의	화	자	는	죽	음	이	찾	아	오	기	전
에	죽	음	을	느	끼	고	생	각	하	며	사	광	했
것	,	후	회	했	던	것	,	집	착	했	던	것	이
때	을	렸	다.	이	후	에	죽	음	이	신	명	해	지
간	에	는	죽	음	을	비	교	죽	담	담	히	마	죽
다	.	이	는	이	진	에	죽	음	에	대	해	생	각
기	때	분	에	담	담	히	죽	음	을	마	죽	하	수
있	는	것	이	다.									
	(나)	는	죽	음	리	적	견	맞	딱	뜨	리	기	전
에	평	소	에	죽	음	리	죽	어	감	에	대	해	생
해	보	아	야	한	다	고	죽	장	한	다.	(나)	는	시
한	복	선	고	를	받	더	라	도	그	시	간	중	안
신	의	죽	음	리	죽	어	감	에	대	해	사	유	하
있	다	면	후	복	이	리	고	한	다.				
	이	리	한	(나)	의	입	장	에	서	분	다	면	(
가	)	의	화	자	의	죽	기	전	복	터	죽	음	을
끼	고	생	각	하	는	행	동	은	공	경	적	으로	평
될	수	있	다.										

반복되는 구절은 지양

근거를 (나)에서 찾아 적어야 함

논제는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나)의 입장에 대해 밝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의 화자의 태도를 밝히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가)의 태도를 평가하되 (나)의 입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생의 예시 답안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다만 내용적 차원에서 첨삭하자면, 첫째로 첫 문단에서 밝힌 (가)의 화자의 태도에서 '운명'이 '죽음'임을 밝혀 주어야 한다. 둘째로 (가)의 화자가 떠올린 '사랑했던 것, 후회했던 것, 집착했던 것'의 모든 순간에 '당신(죽음)'이 언제나 함께였음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을 함께 서술하는 것이 좋다. 생의 모든 순간에 죽음이 함께 했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밝혀 담담히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화자의 태도에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나)의 화자의 태도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들어 주어야 한다.

표현적 차원에서 첨삭하자면 첫 번째 문단에서 '담담히 마주하'고 있다는 중복된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경희대 논술은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감점 요인으로 삼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시 답안**

(나)의 입장에서 (가)의 화자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는 누구나 평상시에도 습관적으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삶의 연장도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가)의 화자는 '운명', 곧 '죽음'을 가끔 느꼈을 때나, 느끼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함께했음을 알고 있다. 화자는 때로 '죽음'을 등지려 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죽음'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두 손을 그 얼굴에 얹으며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인다. (가)의 화자는 죽음이 평생 자신과 함께 했음을 알고, 때로는 부정하고 때로는 수용하며 깊이 있게 성찰하여 왔으므로 평소에도 죽음을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나)의 입장과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1자)

# 03 광운대학교

2026 논술 고사 일정	전형 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시험 시간	문항 수	글자 수, 배점	주 출제 교과 및 과목 (출제 범위)
2025. 11. 23. (일)	논술 80 학생부 20	X	120분	2문항	총 1,500자 내외, 각 문제 당 750자 내외 100점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1 광운대학교 논술 준비



### 가.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연도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024	국어, 독서, 문학,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동물, 생명, 생태, 윤리, 자연관, 다수결, 독재, 사회문제해결
2023	국어,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통합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환경, 동서양 세계관, 자연친화, 인공 광합성 등
2022	독서, 문학, 통합사회,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경제	권력, 통제와 감시, 사이버폭력, 산업화, 기능론, 상호작용론

### 나. 문항 유형 특성

● 광운대학교 논술의 경우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최근 2개년, 1,2교시 8개 문항 기준)

유형 분류	설명	해당 문항
① 원인/이유 서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상이나 문제의 원인·이유를 제시문에 근거해 설명</li> <li>원인과 결과 등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li> </ul>	2023 1교시 1 2023 1교시 2 2023 2교시 1
② 개념 적용/설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 속 개념을 실제 현상이나 다른 지문에 적용·설명</li> <li>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현상에 적용하는 사고가 필요</li> </ul>	2024 1교시 2 2024 2교시 1 2024 2교시 2
③ 관점 비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반된 관점을 정리하거나 특정 관점에서 현상 평가</li> <li>특정 기준을 제시한 뒤, 기준에 따른 분류가 필요</li> </ul>	2024 1교시 1 2023 2교시 2
④ 종합·통합 제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요소를 한 문장에서 종합 정리하거나 결론 도출</li> <li>요약적 사고와 논리적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이해 필요</li> </ul>	2024 2교시 1 2023 2교시 2

## 다. 공통적 문항 구조

- 4가지 유형의 문항들은 모두 제시문과 함께 제시문 속에 ‘㉠, ㉡, ㉢’으로 지칭된 조건/키워드 등의 소항목을 활용하는 구조로 구성됨.
- 각 항목은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특정 관점·사례·개념을 비교, 분석, 적용하도록 요구함.
- 제시문 연결 방식이 광운대 논술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음.
  - (나)와 (다)를 비교하기
  - (라)를 바탕으로 ‘㉠’ 평가
  - (마)의 관점에서의 새로운 해석 등

## 라. 출제 자료 및 도서 출처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4	국어(비상교육, 미래엔), 독서(지학사, 동아), 문학(천재, 해냄), 통합사회(동아, 비상, 지학사, 천재), 생활과 윤리(비상, 금성, 지학사), 윤리와 사상(천재, 비상, 교학사), 정치와 법(금성, 미래엔, 비상, 천재), 사회·문화(미래엔, 비상, 교학사), 화법과 작문(비상, 지학사)
2023	국어(천재, 비상, 지학사), 독서(동아, 지학사, 천재), 문학(비상), 언어와 매체(미래엔, 비상, 창비), 통합사회(비상, 동아), 사회·문화(교학사), 생활과 윤리(천재, 미래엔, 지학사, 비상), 정치와 법(천재, 비상, 미래엔, 금성)
2022	문학(천재), 독서(지학사, 비상교육), 통합사회(비상, 미래엔), 통합사회(지학사), 사회·문화(비상, 지학사, 미래엔), 경제(미래엔, 비상, 지학사)

※ 광운대학교 논술의 출제 자료는 모두 교과서에서 제시됨.

## 2

## 광운대학교 기출문제 (2024. 11. 24.(일) 시행)



## 문제 1

(나)를 참고하여 ㉠을 서술하고, ㉡으로 (라)의 두 입장을 설명한 뒤, (마)의 관점을 (다)에서 찾아 서술 하시오. (50점, 750±50자)

## 제시문 (가)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간다.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다.

그럼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 동물인가 아니면 동물을 기르는 인간인가? 이를 테면 개를 기르는 어떤 사람이 ‘내 개는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어. 나도 내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기르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물원의 사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우리에 누운 채 지내는 것을 보고 활동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위의 세 경우 모두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사람이 짐작하는 것이 개의 진정한 욕구와 다를 수 있고, 사람에게 적당한 음식이 동물인 고양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포획 동물의 처지를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보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 제시문 (나)

맨 처음 다람쥐가 나타난 것은 1994년 3월이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씨 고구마를 고르고 있었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내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발등을 타고 넘어갔다. 눈을 떠 보니 아주 귀여운 다람쥐다. 사람이 나이 들면 동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자연과 가깝다는 말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도 된다. 아무튼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동물이지만 어머니는 다람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다람쥐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했고 과연 다람쥐도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었다.

어머니는 다람쥐를 정성스럽게 보살폈다. 보고 들은 경험으로 다람쥐의 먹이를 구하고, 밥도 주었다. 묵은 밤도 구해다 주었다. 열매처럼 생겼으면 무엇이든지 따다 주었다. 사실 지난봄부터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았다. 애써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가 다 구해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람쥐는 더욱 먹이를 어머니에게 의존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다람쥐가 얼마만큼 게을러져 있는지 몰랐다. 다람쥐는 먹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야생 동물이 먹이 구하는 본능을 잃어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어머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다람쥐도 마찬가지였다. 다람쥐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구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다.

야생의 세계에서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도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건 시간 문제였으리라. 어머니는 감나무 밑에 한 무더기 떨어진 부엉이 똥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커다란 다람쥐 머리뼈가 들어 있었다.

**제시문 (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세상에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 유일한 존재이며,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다. 곧 동물이나 식물, 무생물 등 인간이 아닌 종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생존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인간 중심의 ‘종 차별주의’나, 동물을 위계적 개념인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로 분류하는 ‘종 우월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도덕적 배려의 범위를 확장한 ㉠**개체론적 관점**으로는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가 있다. 동물 중심주의는 편협한 인간 중심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도덕적 권리와 고려 대상을 동물에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공리주의자 싱어는 ‘종 차별주의’를 비판하면서, 동물도 인간처럼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처럼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레건은 동물도 하나의 ‘삶의 주체’라 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생명 중심주의는 생명 그 자체로서 신성한 것이라는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畏敬) 사상에 연원을 두고 있다.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명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나는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들 가운데에서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슈바이처의 영향을 받은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상호 의존적 체계의 일부이고, 생존·성장·발전·번식을 추구하는 목표 지향적 존재이므로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생명을 가진 존재만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동물·생명 중심주의를 개체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생태계와 같은 전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생태 중심주의이다. 이 관점은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확장한다.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해 그 속에 토양·물·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 대지까지 포함하였고, 네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관점을 거부하고 전체 관계를 중요시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큰 자아 실현’이다.

**제시문 (라)**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蠶]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나그네는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蠶]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것은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말·돼지·양·벌레·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 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지절(支節)\*과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 지절 : 팔다리의 뼈마디.

### ! 제시문 (마)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짚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 사위어지는 : 불이 사그라져서 재가 되는

**문제 2**

㉠의 문제 해결 방식에 해당하는 용어를 (나)에서 찾아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기능을 설명하고, ㉠방식의 문제점을 (다), (라), (마)에서 각각 찾아 서술하시오. (50점, 750±50자)

**제시문 (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국군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좌익 반군들은 순천까지 그 세력을 확대한다. 20일에는 남로당 조직에 연결되어 있던 벌교 지역 좌익 세력들까지 반군에 합세하여 벌교를 장악한다. 빨치산인 염상진은 부하들을 이끌고 경찰서를 습격한다. 그리고 그날 학병으로 참전했다 돌아온 김범우를 찾아와 피신을 권한다. 김범우가 피신해 있는 동안, 지주인 아버지 김사용은 인민재판을 받았다.

“작은서방님, 작은서방님, 어르신네가, 어르신네가 살아나셨구만요, 살아나셨다니께요.” 문 서방이 사립문을 차고 들며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무슨 소리요, 문 서방!”

“궁께 머시냐, 이, 이, 인민재판에서…”

김범우는 전신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허탈에 빠져 비칠비칠 주저앉으며 말했다.

“자세히 얘기해 보시오.”

“궁께, 어르신 차례가 되었는디, 위메 참말로 환장하겼등거. 어르신네는 두 눈 딱 감고 단상에 꼳꼳하게 스셨는디, 누가 벌떡 일어남스로 소리 질르기를, 김사용은 지주지만 인민의 적은 아니다. 큰아들 범준은 독립투사고 김사용은 독립 자금을 댔다. 인민의 피를 제대로 쓴 것이다. 고것만이 아니라 큰아들 김범준은 해방되고 3년이 지난 지금꺼정 소식이 읊다. 못힐 말로 죽은 것이라면 조국 독립을 위해 하나뿐인 목심을 바친 것이다. 그라고 지주 김사용은 (소) 작인들헌테 질로 후허게 헨 사람이다. 고건 시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렇게 김사용은 숙청에서 빼야 헨다, 고 허드랑 께요. 그 말을 위원장이 접수헌다고 발표허고는 또 ㉠모인 사람들헌테 위뵘게 힐랑가 문드만요. 위메, 고때 사람 미치겼등거. 곤디 여그저그서 **울소, 울소, 하는 소리가 터짐스로 박수를 안 치것소.** 위메 나는 이때다 **싫어 목구녕이 찢어져라 울소, 울소, 소리 질르고 손바닥이 떨어져 나가그라 박수를 쳤구만요. 그래서 어르신이 화를 면허시고 단상을 내려오시는디...** 지가 쫓아가 어르신을 부축험시로 올매나 죄시럽고 눈물이 나는 자...”

**제시문 (나)**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가진 개인과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다른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는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대립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가치관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곧 정치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고대부터 한 사람이 지배하는 독재나 전체 정치, 소수의 사람이 지배하는 과두 정치, 특정 계급이 지배하는 귀족 정치,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있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나 정치적 지배 원리를 말한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시민 개개인이나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이 정부에 정책이나 해결 방안을 요구하거나 정부의 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정책 결정 기구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이뤄진다. 그리고 결정 주체 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설득과 토론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다수결 방식을 택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결과, 다수결이 유일한 민주주의 의사 결정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 ! 제시문 (다)

플라톤은 현명한 사람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철인정치’를 주장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는 절제의 미덕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생산에 힘쓸 수 있는 일자리를 배분하고, 용기의 미덕을 가진 사람에게서 국가를 수호할 일자리를 배분하며, 지혜의 미덕을 갖춘 합리적인 사람에게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배분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플라톤은 지혜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맡으면 사회적 갈등의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에, 민주주의를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치 즉 ‘중우정치’라고 비판했다. 시민권을 지닌 아테네인 모두가 참여하여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플라톤 이래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민주주의가 평등과 자유에 대해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통치에 필요한 지식을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보통 사람은 정치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가 많고, 설령 갖추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꺼리므로 정치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과정만 보면 합리적일지라도 결과의 합리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히틀러의 통치를 들 수 있다. 히틀러는 민주적 선거에서 독일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총통이 되었지만, 세계 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유대인을 학살했다. 다수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판단한 사람이 실상은 최악의 독재자가 되었다.

### ! 제시문 (라)

공리주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는 사상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큰 행복을 얻느냐로 결정한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리라고도 한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도덕적 상식이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가령,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명목 아래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다수에 의한 통치가 실제로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결코 민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의 독재는 다수의 유권자가 소수의 희생으로 자신의 목표를 독점적으로 추구하는 다수결의 본질적인 약점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제임스 매디슨도 51퍼센트가 강요하는 다수의 독재는 미국인이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리며 저항했던 왕정 독재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자유론』을 쓴 미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다수가 폭군이나 독재자에 필적할 만큼 소수 집단을 억압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영화 「딩케르크」는 어떻게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인권이 침해되고 정의가 훼손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 독일군에 패배한 연합군은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탈출하려 한다. 덩케르크 항구에서 연합군 중 한 무리가 버려진 선박에 올라타 영국으로 탈출하려 하지만, 출발하려는 배에 구멍이 나 물이 들어온다. 그러자 배 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영국군이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프랑스 군인 깃스를 쫓아내자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에 영국 군인 토미는 프랑스 군인이라고 쫓아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반대하지만, 이는 무시된다.

! 제시문 (마)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는 않았다.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 민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 평등의 원리를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기준에서 보면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제한적이었다. 시민 혁명 이후의 근대 민주주의하에서도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 여성 등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아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성 시민의 의사만 반영되었다.

사회적 소수자는 시대, 장소, 소속 집단의 범주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가면 그 나라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수가 적다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인 것은 아니다.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흑인 및 유색 인종이 소수인 백인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때 소수인 백인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치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면 실제로는 소수인 권력 집단이 다수 구성원을 다수결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은 공동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따라서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정치적 참여의 의무를 진다. 모든 선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시민 중 일부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회피한다면 실제로는 소수가 다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그러한 소수가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침묵하는 다수의 이익이 침해된다.

## 3

## 광운대학교 기출문제 분석



## 가. 문항 해설

## 문제 1

(나)를 참고하여 ㉠을 서술하고, ㉡으로 (라)의 두 입장을 설명한 뒤, (마)의 관점을 (다)에서 찾아 서술 하시오. (50점, 750±50자)

-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 발전과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도덕·사회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현대 사회 문제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주체적인 사고와 비판 의식에 근거하여 현실 문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문제로 볼 수 있다.
- 제시문에 나타난 특정 개념을 이해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정리하거나, 특정 관점에서 주어진 현상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일에 관해, (나)에 제시된 다람쥐 문제의 내용을 참고하여 서술해야 하며, ㉡개체론적 관점(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에 관한 내용을 (다)에서 찾아 (라)의 '나그네'와 '나'의 입장에 적절히 반영해 서술해야 한다. 또한, (마)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다)의 생태 중심주의나 전체론적 관점과 연결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 문제 2

㉠의 문제 해결 방식에 해당하는 용어를 (나)에서 찾아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기능을 설명하고, ㉠방식의 문제점을 (다), (라), (마)에서 각각 찾아 서술하시오. (50점, 750±50자)

- 민주주의는 현재까지 알려진 최선의 정치 체계이기에 많은 경우 다수결 제도가 무조건적으로 최선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다수결 제도 이전에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정보 공개와 설득, 토론 과정을 거친 뒤 최후의 결정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함에 대하여 국어·도덕·사회 교과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수결 원칙이 지닌 세 가지 문제점을 찾아 기술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 제시문에 나타난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현상이나 다른 지문에 적용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 ㉠에서 묘사하는 인민재판을 사례로 들어 (나)의 다수결 원칙이 최선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닐 수 있음을 제시하고, (다)~(마) 각각에서 다수결 원칙이 올바른 결정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소수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절대적 다수가 항상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 나. 채점 기준

### 문제 1 배점: 50점

- ①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일에 관해,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서술했을 경우 최대 15점
  - 동물 복지에서 동물의 관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최대 5점
  - 동물의 요구나 관점을 어머니와 다람쥐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경우 최대 5점
  -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나 인간의 관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최대 5점
  - 예시 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동물 복지, 동물의 관점, 인간의 관점, 어머니, 다람쥐, 야생, 생존, 본능
- ② ㉡개체론적 관점(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에 관한 내용을 (다)에서 찾아 (라)의 '나그네'와 '나'의 입장에 적절히 반영해 서술했을 경우 최대 20점
  - (라)의 '나그네'와 (다)의 동물 중심주의 관점을 연결해 서술했을 경우 최대 7점
  - (라)의 '나'를 (다)의 생명 중심주의 관점으로 연결해 서술했을 경우 최대 7점
  - '나그네'와 관련하여 종 우월주의나 동물의 위계를 언급하고(3점), '나그네'와 '나'가 가진 개체론적 관점의 공통점을 서술했을(3점) 경우 최대 6점
  - 예시 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동물 중심, 생명 중심, 종 우월, 위계, 개체론적, 생명체 존중 관련 단어
- ③ (마)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다)의 생태 중심주의나 전체론적 관점과 연결하여 서술한 경우 최대 10점
  - 자연 친화적, 혹은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태도를 서술한 경우 최대 5점
  - 작품에서 구체적인 무생물 소재(산, 그믐달 등)를 예로 들어, 생태중심주의나 전체론적 관점으로 설명한 경우 최대 5점
  - 예시 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자연 관련 단어, 무생물, 생태 중심주의, 전체론적, 대지, 큰 자아실현
- ④ 비문이 없고 맞춤법에 맞으며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부드러울 경우 최대 5점

####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I 논술전형 바로 알기

II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III 부록


**문제 2 배점: 50점**

- ① 아래 키워드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단어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최대 10점
- 인민재판은 다수결 원칙을 따른다는 내용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수결 원칙을 설명하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집단 갈등 혹은 사회적 갈등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임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수결은 절대다수가 아니라 참여자 중 다수가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결정 과정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추가 점수 최대 3점
  - 다수결과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면 최대 10점 감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문단 참조
  - Key Words: 인민재판, 정치(과정), 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갈등, 다수결
- ② 아래 키워드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단어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최대 10점
- 다수결이 올바른 결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수결의 합리성을 과정과 결과로 나눠서 서술하면 최대 5점. 예를 들어 과정은 합리적이지만 결과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서술.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도입 부분 참조
  - Key Words: 과정, 결과, 결과의 합리성 또는 옳은 결정
- ③ 아래 키워드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단어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최대 10점
-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소수의 이익(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수의 독재 혹은 다수의 횡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수결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서술하면 추가 점수 최대 3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중간 부분 참조
  - Key Words: 다수 이익 추구, 소수 이익(권익) 침해, 다수의 독재(또는 횡포)
- ④ 아래 키워드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단어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최대 15점
-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일부 집단이 배제되면 다수와 소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최대 5점
  - 다수의 침묵 혹은 다수의 (참여) 회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수결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서술하면 추가 점수 최대 5점
  - 다수와 소수의 지위 역전이 실제 다수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 참조
  - Key Words: 다수와 소수의 지위, (참정권) 배제, 다수의 침묵 또는 참여 회피, (실제) 다수의 피해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10점 감점, 500~599자는 20점 감점, 500자 미만은 3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 다. 예시 답안

### 문제 1

동물 복지의 기준은 인간이 아닌 동물의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나)에서 다람쥐를 보살핀 어머니는 인간의 관점에서 각종 먹이를 제공하였다. 이 행위는 다람쥐가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본능을 망각하게 하였고, 다람쥐가 부엉이에게 잡아먹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물의 요구를 인간의 관점에서 짐작하여 야생을 유지해야 할 다람쥐나 동물의 처지를 쉽게 간과하기 때문에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것이다.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개체론적 관점으로는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가 있다. (라)의 ‘나그네’는 동물의 고통을 이해하므로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동물 중심주의 입장을 견지했으나, 크기에 따라 생물의 위계를 구분하여 ‘중 우월주의’적 입장을 일부 드러내었다. ‘나’는 피와 기운이 있는 모든 생물은 똑같이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한다는 관점을 가졌다. 생물의 위계를 구분한 ‘나그네’에 비해, ‘나’는 크고 작은 생명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므로 생명은 그 자체로서 신성하다는 생명 중심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지닌다. 다만 ‘나그네’와 ‘나’는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만 도덕적으로 배려하는 개체론적 관점을 벗어나지 않았다.

(마)에서는 자연을 동경하고 조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작자는 인간과 식물을 비롯하여 무생물인 산과 그믐달을 소재로 삼아 순리에 따르는 자연 친화적인 자세를 보였다. 곧,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확장하고 자연과의 연관 속에서 자기 존재를 이해한 ‘큰 자아실현’으로서, 생태 중심주의에 입각한 전체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789자)

### 문제 2

㉠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민재판의 문제 해결 방식은 (나)의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다수결은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다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다), (라), (마)는 다수결 방식이 가진 세 가지 문제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다수결은 시민 각자에게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정만 보면 합리적이지만 올바른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즉, 다수결이라는 합리적 과정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영화 ‘덩케르크’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소수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집단 간 갈등이 생길 때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 처지에서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다수결 방식을 채택하면 다수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절대적 다수가 항상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고대 그리스에서와 20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일부 집단의 참정권을 제한하였는데 이러한 제도적 배제를 통해 소수가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가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사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참여를 회피하게 될 때도 소수가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참정권의 배제 혹은 무관심과 침묵으로 다수와 소수의 지위가 역전되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제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된다. (762자)

## 4

## 광운대학교 논술 준비 팁



### 가. 통합교과형 언어 논술 유형 대비하기

광운대학교 인문논술은 '통합교과형 언어논술' 유형으로, 고등학교 국어 교과(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와 사회 교과(통합사회,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 생활과 윤리 등)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복수 제시문 형태로 출제한다. 문제 수는 2문항이며, 각 문항당 750자 내외로 서술해야 한다.

#### 1) 제시문 통합적 독해 및 관계 설정

- 광운대는 매 문제마다 3~5개의 제시문을 제공하며, 이들 사이의 연관성과 대립관계를 분석하고, 요구사항에 맞춰 구조화된 답안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한 제시문은 개념이나 관점을 제시하고, 또 다른 제시문은 사례·비판·보완의 역할을 하므로, 제시문을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중요하다.

#### 2) 논리적 구조화와 요소별 응답

- 각 문항은 보통 (1) 용어·개념 설명, (2) 관점 정리 및 비교, (3) 주제 통합 및 비판적 논술의 흐름을 따른다. 예를 들어, '㉠을 서술하십시오.', '㉡을 바탕으로 입장을 비교하십시오.', '(다)의 관점을 활용하십시오.'와 같이 명확히 구조화된 문항으로 출제된다.

#### 3) 제시문 내 문학 또는 사례 활용

- 일부 문항에서는 문학 텍스트(수필, 고전 등)를 포함해 사고의 폭을 확장해야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 제시되기도 한다. 특히 고등 교과에서 익숙한 작품이나 인물, 윤리적·철학적 논제를 제시문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과 기반 사고력이 요구된다.

#### 4) 개념·사고의 응용력 측정

- 단순한 요약이나 비교를 넘어, 제시문 속 관점을 응용하여 특정 조건에 맞춰 비판하거나,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하는 응용형 문항이 출제된다. 특히 최근 문제에서는 '기술 발전'이나 '정보 불균형', '미래 사회'와 같은 담론적 주제가 자주 등장하였다.

이처럼 광운대 논술은 단순한 암기나 요약보다도 '관계 설정', '통합적 사고', '비판적 응용'의 역량을 측정하며, 교과 내용의 폭넓은 이해와 제시문 내부 및 외부 맥락을 아우르는 능력이 핵심이다.

## 나. 답안 작성을 위한 전략 세우기

- 소항목 단위로 사고 구분 연습하기: 문제에 ㉠, ㉡, ㉢이 있으면 단락도 3개로 나누어 훈련해야 한다.
- 각 제시문을 정의, 사례, 비판 등 역할을 구분하여 파악한다.
- ‘적용하시오.’와 같은 서술어에 주의하도록 한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단순 요약이 아니라 개념을 현실이나 다른 제시문에 ‘변형 활용’하는 것이다.
- 관점 비교 문항의 경우 ‘중립 설명 및 정리 관점’이 필요하다. ‘A는 이렇고, B는 저렇다.’로 끝나지 않고 ‘학생의 정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도록 한다.

## 다. 기본기인 요약과 분류 훈련하기

- 많은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준비 전략은 ‘요약과 분류 훈련’이다. 제시문의 논지(핵심 주장)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제시문 간의 관계(찬성, 반대, 사례, 개념 등)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논술을 처음 시작할 때는 특정 대학을 겨냥하기보다는, 이런 기본기를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 라. 지속적인 쓰기 연습하기

- ‘논술은 글이 잘 써지는 날만 쓰는 것’이라는 생각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 30분~1시간이라도 꾸준히 글을 쓰고, 작성한 글을 스스로 고쳐보는 자기 첨삭을 해 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친구나 선생님 혹은 AI에게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재작성 과정을 반복하면, 사고력과 문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다.

## 마. 개요 짜는 연습하기

- 논제를 보자마자 바로 답을 작성하지 말고, 먼저 개요를 작성하도록 한다. 개요를 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각 단락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 어떤 제시문을 근거로 활용할 것인지
  - 문단과 문단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것인지
- 특히 제시문을 읽을 때는 전체를 외우려 하지 말고, 중심 키워드만 추출하고, 그 단어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바. 교과 수업 속에 있는 개념과 연결하기

- 광운대는 다양한 과목(통합사회, 사회·문화,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독서 등)에서 개념과 사례를 뽑아낸다. 평소 수업에서 배운 개념어(공정성, 사회계약, 시민, 기술, 소비 등)를 정리해두고, 그 개념을 사회 문제나 다른 제시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큰 도움이 된다.

## 사. 실전 훈련을 통해 실력 쌓기

- 문항 유형 파악: ㉠, ㉡, ㉢으로 구성된 문항은 ‘단락 구성’의 힌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항목마다 구분해서 사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과거 기출 문제 풀어보기: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 답안을 써보고, 예시 답안과 비교 분석하며 재작성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 시간 안배 훈련: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45분 내외 1문제 훈련 루틴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5

연습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탈 행동은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일탈 행동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벼운 행동부터 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까지 다양하다.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일탈 행동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탈 행동을 지속하면 사회 부적응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는 개인 및 집단의 일탈 행동이 증가하면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범죄에 해당하는 일탈 행위가 자주 발생하면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일탈 행동이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일탈 행동은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또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심리적 긴장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도 개인과 집단의 일탈 행동이 기존 사회 질서나 규범의 모순과 문제점을 표면에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나 집단의 일탈적 사고와 행동이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사회 질서나 규범을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나)

신 새벽 뒷골목에 /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 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 발자욱소리 호르락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벼들의 피물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 타는 목마름으로 / 민주주의여 만세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문제 1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시오. (40점, 200자 내외)



문제 2

(가)의 ㉠의 관점에서 (나)의 화자가 보이는 행위 및 태도에 대해 평가하시오. (60점, 200자 내외)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문제 1

문	제	시	문	(가)	는	일	탈	행	동	이	개	인	적	차		
원	과	사	회	적	차	원	에	서	미	치	는	영	향	을		
제	시	하	머	두	차	원	에	서	나	타	나	는	일	탈		
행	동	의	부	정	적	영	향	분	민	아	이	라	긍	정	적	
영	향	도	나	타	내	고	있	다	.	제	시	문	(나)	는		
민	주	주	의	가	존	제	하	지	않	는	사	회	의	오	습	과
사	람	들	의	고	통	받	고	있	는	모	습	을	제	시	하	고
민	주	주	의	가	존	제	하	던	사	회	의	자	유	로	운	
모	습	을	여	을	리	며	나	름	대	로	의	저	항	을		하
고	있	는	모	습	을	나	타	내	고	있	다	.				

사회규범에 어긋난 행위 정도의 구체적 설명 필요

사회변화 촉진 기능 설명 필요

자유와 정의를 갈망한다는 서술이 제시되면 더욱 좋음

전반적으로 잘 쓰인 답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시문 [가]에 대한 내용 중, 일탈 행동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 서술의 경우, 내용을 지나치게 요약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일탈 행위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긍정적 영향’에 대해선 일탈 행위가 사회 변화를 촉진하기도 한다는 정도를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제시문 [나]에 대한 서술 내용 중, ‘저항’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것은 좋아 보이나, 화자의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면 더욱 좋은 서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시 답안

(가)는 개인의 일탈 행위가 사회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때로는 창의성 발현이나 사회 규범의 문제를 드러내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등 긍정적 역할도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민주주의의 부재 속에서 화자가 탄압과 고통을 감내하며 그 이름을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 자유에 대한 갈망과 억압된 시대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9자)



# 04 동국대학교

2026 논술 고사 일정	전형 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시험 시간	문항 수	글자 수, 배점	주 출제 교과 및 과목 (출제 범위)
2025. 11. 16. (일)	논술 70 교과 20 출결 10	국수영탐(1과목) 중 2개 합 5 이내 한국사 4 이내	100분	3문항	총 1,500자 내외 1,2번: 300~400자 3번: 600~700자 총 100점	국어교과, 사회교과(역사/도덕포함)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한국사

※ 동국대 논술 3개 문항 배점의 합은 100점 만점이며, 문항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 총점(700점)으로 환산함.

※ 모집단위별로 과목 및 등급 기준이 상이하니 세부 내용은 p.16 참고

## 1 동국대학교 논술 준비



### 가.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연도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024	문학, 독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공감, 연민, 일탈, 아노미, 대동사회, 공산사회
2023	국어, 문학,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평등, 타인 존중, 개인의 자유, 공존, 정보 비대칭성, 예금자 보험, 도덕적 해이, 문화적 폭력
2022	국어, 언어와 매체, 통합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사, 세계지리, 경제	언어규범, 문화, 의사소통, 매체, 기업과 사회적 책임, 윤리적 공백, 세계시민, 복지국가

### 나. 문항 유형 특성

- 동국대학교 논술의 경우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최근 2개년 인문계열 I / II 12개 문항 기준, 유형별 중복 분류 있음).

유형 분류	설명	해당 문항
① 원인 분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발생 원인, 배경 진단 중심</li> <li>• 인과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li> </ul>	2025 인문1-1, 2025 인문1-2, 2024 인문1-2, 2024 인문1-3
② 관점 비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학·사회 관점 간 차이 정리 중심(문학 제시문이 주로 이 유형에서 활용됨.)</li> <li>• 특정 기준을 제시한 뒤, 기준에 따른 분류가 필요</li> </ul>	2025 인문1-3, 2025 인문2-3, 2024 인문1-1, 2024 인문2-2, 2024 인문2-3

유형 분류	설명	해당 문항
③ 개념 적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이해 → 사례 적용, 해결 방식 도출</li> <li>•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및 현상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li> </ul>	2025 인문2-2, 2024 인문1-2, 2024 인문2-1
④ 통합 사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 다수 통합, 종합 판단/대안 제시</li> <li>• 요약적 사고를 바탕으로 논리적 글쓰기 능력 필요</li> </ul>	2025 인문2-1, 2025 인문2-3, 2024 인문2-3
⑤ 윤리 판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 정의, 책임 등 윤리적 판단 요구(문학 제시문이 주로 이 유형에서 활용됨.)</li> <li>• 키워드를 바탕으로 현상을 해석하려는 노력 필요</li> </ul>	2025 인문2-2, 2024 인문1-3, 2024 인문2-2

### 다. 공통적 문항 구조

- 문제는 단문형이지만, 단계형 사고를 요구하고 있음. 동국대학교 논술 문제는 하나의 완결된 발문 안에 보통 2~3개의 사고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학생들은 이를 A, B, C 수준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음.
- 제시문 간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핵심임. 한 문항은 보통 3~5개 정도의 제시문으로 구성되는데, 각 제시문들은 개념, 사례, 대립 관점, 철학적 주장 등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학생들은 제시문 사이의 관계(예: 적용, 대립, 보완)를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글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함.
- 글자 수에 따라 사고 단계의 확장을 요구함. 보통 1번, 2번 문항은 답안으로 300~400자를 요구하며, 3번 문항은 500~700자를 요구함. 전자의 경우에는 '개념 설명 + 적용 또는 비교'와 같은 2단 구성으로 분석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비교 → 평가 → 해결 또는 비판'과 같은 3단 구성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교과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고,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제시문에서는 보통 국어, 사회, 역사 교과의 개념(공정성, 정의, 시민, 책임 등)을 다루고 있음. 이러한 개념들을 '사회 문제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가?'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으므로 평소 교과서 개념들을 학습할 때 사회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함.

### 라. 출제 자료 및 도서 출처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4	국어(동아), 독서(신사고, 천재, 동아, 비상), 문학(창비), 언어와 매체(미래엔, 천재), 통합사회(비상, 동아) 생활과 윤리(미래엔), 윤리와 사상(미래엔, 천재, 비상, 씨마스), 사회·문화(미래엔, 천재, 지학사, 비상), 정치와 법(천재)
2023	국어(천재), 독서(천재, 비상), 문학(금성, 천재), 통합사회(천재, 미래엔), 윤리와 사상(미래엔, 천재, 교학사, 비상, 씨마스), 경제(천재, 지학사, 미래엔, 비상), 사회·문화(지학사), 세계지리(천재), 정치와 법(천재, 비상), 생활과 윤리(비상)
2022	국어(금성), 독서(지학사, 미래엔), 언어와 매체(지학사, 미래엔, 창비), 통합사회(미래엔, 천재, 비상, 동아), 윤리와 사상(미래엔, 교학사), 생활과 윤리(천재, 미래엔), 세계사(금성), 세계지리(미래엔), 사회·문화(미래엔, 교학사, 지학사), 경제(씨마스, 미래엔, 천재)

※ 동국대학교 논술의 출제 자료는 모두 교과서에서 제시됨.

## 2

## 동국대학교 기출문제 (2024. 11. 17.(일) 시행)



\* 동국대학교 논술은 지원 인원을 고려해 인문1과 인문2로 모집단위를 구분함. 인문1과 인문2 기출 방향의 차이는 없음. 책자 분량을 고려해 인문1만 수록함.

## 문제 1

제시문 (가)의 결말에서 부부가 처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나)와 (다)에 나타난 관점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점, 300~400자)

## 제시문 (가)

지난봄,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 영우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치어 그 자리서 숨졌다. 오십이 개월. 봄이랄까 여름이란 걸, 가을 또는 겨울이란 걸 다섯 번도 채 보지 못하고서였다. (……) 어린이집 원장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가해 차량 역시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 우리는 보험 회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았다. 많거나 적다거나 하는 세상의 잣대나 단위로 쟁 수 없는 대가가 지급됐고, 어린이집에서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됐다 여기는 듯했다. 운전사를 바꾸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보육 교사까지 잘랐는데 무얼 더 바라느냐 묻는 듯했다.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대하는 표정이나 태도가 그랬다. 내가 보험 회사 직원이란 근거로 동네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문이 돈 것도 그 즈음이었다. 처음에는 듣고도 믿을 수 없어서 온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끔찍한 건 몇몇 이들이 그 말을 정말로 믿는다는 거였다. (……) 아내는 연주를 끝낸 뒤 수천 명의 기립 박수를 받은 피아니스트처럼 울었다. 사람들이 던진 꽃에 싸인 채. 꽃에 파묻힌 채. 차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선 벽지 아래서 흐느꼈다. 미색 바탕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흰 꽃이 촘촘하게 박힌 벽지를 이고서였다. 그러자 그 꽃이 마치 아내 머리 위에 함부로 던져진 조화처럼 보였다. 누군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악의로 던져 놓은 국화 같았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탄식과 안타까움을 표한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는지. 그들은 마치 거대한 불행에 감염 되기라도 할 듯 우리를 피하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흰 꽃이 무더기로 그려진 벽지 아래 쪼그려 앉은 아내를 보고 있자니, 아내가 동네 사람들로 부터 ‘꽃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이들이 ‘내가 이만큼 울어줬으니 너는 이제 그만 울라’며 줄기 긴 꽃으로 아내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도 멍하니 아내 말을 따라 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곤 내가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내가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봤다. 텅 빈 눈동자가 불 꺼진 형광등처럼 어두웠다. 아내는 한 손으로 영우가 직접 쓴, 아니 쓰다만 이름을 어루만졌다. 순간 어디선가 영우가 다다다다 뛰어와 두 팔로 내 다리를 감싸 안을 것 같았다. ‘토닥토닥’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제 엄마의 등을 말없이 두드려 줄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터였다. 그 단순한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후벼팠다. 나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부엌 바닥으로 굶은 눈물방울이 툭 흘러

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손에서 벽지를 놓을 수 없어, 그렇다고 놓지 않을 수도 없어 두 팔을 든 채 벌서듯 서 있었다. 물먹은 풀이 내 몸에서 나오는 고름처럼 아래로 후드득 떨어졌다. 한파가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두 팔이 바들바들 떨렸다.

- 김애란, 「입동」 『고등학교 문학』

! 제시문 (나)

먼저 개인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 뉴미디어를 통한 개인 정보의 공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알 권리란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사적 권리로 인격적 이익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람들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은 둘 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뉴미디어는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뉴미디어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 및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 제시문 (다)

흠에 따르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도우려는 도덕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그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이며, 이성(是性)은 실천의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성(是性)은 단지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쳐 줄 뿐이다. 또한 흠은 어떤 행동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시인(是認)의 즐거운 감정을 가져다준다면 좋은 것[善]으로, 부인(否認)의 불쾌한 감정을 가져다준다면 나쁜 것[惡]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란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유용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일 유용성이 도덕 감정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곧바로 우리의 시인과 호감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 흠,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

이처럼 흠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은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고 보았다. 흠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행동을 실천해야만 한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 문제 2

제시문 (가)의 일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나)와 (다)를 통해 설명하고 (라)와 (마)에 근거하여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30점, 300~400자)

### 제시문 (가)

모든 사회에서는 규범 체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한편, 개인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규범과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내면화한다. 그런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에서 기대하는 행동 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즉, 일탈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일탈 행동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동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서 비난이나 처벌 등 사회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일탈 행동은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나 거짓말을 하는 것부터 절도나 살인 등과 같은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 제시문 (나)

뒤르켐(Durkheim, E.)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하지 않은 혼란한 ‘무규범 상태’를 아노미(anomie)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규범이 급격히 변화하거나 보편적인 규범의 통제력이 약해질 때 규범적 혼란을 겪기 쉽고, 이에 따라 정서적 불안정에 빠지거나 규범적 일관성을 가지기 어려워져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 제시문 (다)

차별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을 하는 집단이나 개인과 접촉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워 일탈자가 된다는 이론이다. 개인이 우범자들과 지속해서 교류함으로써 일탈자가 되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 제시문 (라)

한국은 아파트 왕국이다.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로, 도입된 지 40년도 되지 않아 사람들의 주거지가 온통 아파트로 변했다. 그런데 주거 환경은 급격히 변동했지만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 태도는 단독 주거 시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취침 시간에 쿵쿵대며 걷기도 하고 심야 세탁을 하기도 한다. 그사이 이웃은 점점 야수로 변한다. 빠른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거주 문화가 따라잡지 못해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쓰레기 배출, 공동 시설 사용, 애완동물 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나타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제시문 (마)

공자가 말한 ‘지란지교’는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향기가 그윽한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그와 함께 오래 지내면 비록 그 향기는 맡을 수 없게 되지만, 자연히 그에게 동화되어 착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악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치 악취가 풍기는 절인 어물을 파는 가게에 들어간 것과도 같아서, 그와 함께 오래 지내면 비록 그 악취는 맡지 못하더라도, 그에게 동화되어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이다. 우범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쉽게 일탈 행동을 배우게 되는 것은 불량한 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고, 일탈 문화가 지배적인 우범지역에서는 일탈 행동에 대한 도덕적 저항감이 적어져서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기준이 쉽게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목자흑 근주자적(近墨者黑 近朱者赤)”, 즉 “먹을 가까이 한 자는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한 자는 붉어진다.”는 말은 이를 표현한 것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 3

제시문 (가)와 (나)에서 말하는 통치자와 이상 사회의 상을 요약하고, 그를 통해 (다)와 (라)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후, (가)와 (다)의 관점에서 (마)에 담긴 군주에 대한 생각을 비판하시오.  
(40점, 500~700자)

제시문 (가)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천하가 모두의 것이 된다.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신의가 존중되고 화목이 두터워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은 안락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고, 장년에게는 일할 자리가 있다. 어린이는 안전하게 자랄 수 있고, 배우자를 잃은 사람, 부모가 없는 아이, 자식이 없는 노인, 병든 사람도 모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 재화가 헛되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결코 자기 것으로 숨겨 두지 않으며,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생기지 않고, 흠치거나 해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마다 문이 있어도 잠그지 않는다. 이를 대동이라고 한다.

- 예기,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제시문 (나)

정의로운 인간과 국가에 관한 플라톤의 주장은 그의 이데아론과 관련이 있다. 그는 세계를 인간의 영혼이 지향해야 할 이데아 세계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로 구분한다. 이데아 세계는 참된 실재가 존재하는 관념의 세계이고, 감각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 탐구되고 파악된다[가지계(可知界)]. 반면에 현실 세계는 생성과 소멸을 끊임 없이 반복하는 불완전한 세계로 감각 경험을 통해 파악된다[가시계(可視界)]. 이데아란 어떤 것의 본질, 즉 완전

하고 이상적인 원형을 뜻한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는 수많은 다른 꽃이 있는데, 그것들이 꽃일 수 있는 이유는 꽃의 본질인 꽃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통해 참된 실재인 이데아에 접근함으로써 참된 앎에 이를 수 있다. (……)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이데아론을 설명하였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동굴 안 그림자의 세계에 불과하다. 참된 세계는 동굴 밖의 세계이며, 이 세계를 비추는 태양은 선의 이데아를 가리킨다. 플라톤에 따르면, 동굴 밖으로 나가 선의 이데아를 본 사람들이 철학자이다. 그는 선의 이데아에 관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은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정의가 실현된 국가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그가 주장한 이상 사회는 오랜 교육과 훈련을 거친 선의 이데아에 관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이다. 플라톤은 통치자가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국가를 다스리고, 군인이 용기의 덕을 발휘하여 국가를 방위하고, 생산자가 절제의 덕을 발휘하여 생산 활동에 종사하며, 이들이 각자의 역할과 덕목을 다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 ! 제시문 (다)

뛰어난 덕(德)은 덕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덕이 있고, 하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니 이 때문에 덕이 없다. 뛰어난 덕은 무위(無爲)하며 또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 뛰어난 인(仁)은 사랑하지만 또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뛰어난 의(義)는 행하면서 또 그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 뛰어난 예(禮)는 예를 따르면서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하게 한다. 그러므로 도(道)를 잃게 된다. 도를 잃은 후에 덕이 나오고, 덕을 잃은 후에 인이 나오고, 인을 잃은 후에 의가 나오고, 의를 잃은 후에 예가 나온다. 무릇 예는 진실함과 믿음이 열은 것이니 어지러움의 짝이다.

또한, 노자는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보다 가치 있다고 보았다. 물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항상 낮은 곳에 처하면서 다른 사물과 다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고 하였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道)에 가깝다.

- 노자, '도덕경'

노자는 자연의 질서를 따르면서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고, 전쟁을 반대하면서 무위(無爲)의 정치, 검소하고 소박한 삶, 겸손의 덕을 강조하였다. 사람들이 교활하게 이익을 밝히고 욕심을 부리게 하는 정치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욕심이 없게 하는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무위자연의 삶이 실현되는 이상 사회의 모습으로 소국과민\*을 제시하였다.

\* 소국과민(小國寡民):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을 뜻하는 말이다. 노자는 자연에 순응하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촌락공동체로서 전쟁과 굶주림, 군주의 가혹한 통치가 없는 이상 사회를 지향하였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제시문 (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모든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사적 소유를 철폐하면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Marx, K. H., 1818~1883))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패를 비판하면서 공산 사회를 이상 사회로 주장한다. 공산 사회는 생산 수단이 공유되어 계급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그 결과로 구성원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평등한 사회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제시문 (마)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거칠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 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활약에 대한 설명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들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이역<sup>1)</sup>에서 싸웠지만, 강력한 군대 통솔의 결과로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부하들로 하여금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인정 없고 모진 성격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모질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니발의 다른 역량들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사태에서 입증됩니다. 그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 습니다. 이는 바로 그가 지나치게 자비로워서 적절한 군사적 기율<sup>2)</sup>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비우스는 원로원<sup>3)</sup>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 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방 장관이 로크리<sup>4)</sup> 지방을 약탈했을 때,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또한 오만한 성품을 가진 그 지방 장관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키피오의 과도한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실로 원로원에서 그를 사면<sup>5)</sup>하자고 발언한 인물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데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피오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이 견제받지 않고 방임되었더라면, 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서 스키피오의 명성은 빛이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유해한 성품이 적절히 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의 명성에 기여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되돌아가서,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 1) 이역: 다른 나라의 땅.
- 2) 기율: 도덕상으로 여러 사람에게 행위의 표준이 될 만한 질서.
- 3) 원로원: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의 입법·자문 기관. 실질적인 지배 기관으로 내정과 외교를 지도함.
- 4) 로크리: 고대 그리스의 도시.
- 5) 사면: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 고등학교 『독서』

3

동국대학교 기출문제 분석



가. 문항 해설

문제 1

제시문 (가)의 결말에서 부부가 처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나)와 (다)에 나타난 관점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점, 300~400자)

- 이 문제는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반응의 윤리성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문항이다. 학생은 (가)에 제시된 부분의 문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인격권과 공적 관심 사이의 충돌 개념과, (다)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흙)을 적용하여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사회적 이슈로 전환되는지, 또한 그 속에서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공감의 결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성찰하는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제시문 (가)를 읽고 문제 상황을 분석한 뒤, 제시문 (나)의 인격권과 알 권리의 충돌 개념을 활용하여 권리 침해 관점을 적용하고, 제시문 (다)의 공감 결여 → 도덕적 외면 → 고통 심화의 구조를 분석해야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 (가)에는 서사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부부는 자녀를 잃은 뒤 주변의 얽은 동정과 소문에 시달리며 고립된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통이 사회적 시선에 의해 증폭되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인격권 침해의 철학적 맥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왜곡된 소문으로 인해 공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사적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는 과정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에는 흙의 공감 이론이 제시돼 있는데, 도덕적 책임의 결여 상황 속 개인의 고통이 윤리적 무관심 속에서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문제 2

제시문 (가)의 일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나)와 (다)를 통해 설명하고 (라)와 (마)에 근거하여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30점, 300~400자)

- 이 문항은 개인과 사회 구조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을 거시적/미시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각 이론에 근거하여 일탈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학생은 ‘아노미 이론(구조적 관점)’과 차별 교제 이론(상호작용적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라, 마)에 적용하여 일탈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 (가)에서 문제 상황을 추출한 뒤, 그 원인을 (나)와 (다)의 관점을 적용해 설명하고, (라)와 (마)의 상황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기술해내는 문제로 볼 수 있다.

- (가)에서 제시한 일탈 행위의 개념을 문제 상황으로 정의하고, (나)의 아노미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일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다)의 차별 교제 이론을 활용해 일탈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될 수 있음을 각각 제시해야 한다. 또한 (라)는 아노미 상황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하고, (마)는 일탈 행동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화적 예시로 제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규범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개선이 필요함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문제 3**

제시문 (가)와 (나)에서 말하는 통치자와 이상 사회의 상을 요약하고, 그를 통해 (다)와 (라)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후, (가)와 (다)의 관점에서 (마)에 담긴 군주에 대한 생각을 비판하시오. (40점, 500~700자)

- 이 문항은 공자의 대동 사회, 플라톤의 철인정치, 노자의 소국과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각 사상가가 제시한 이상 사회의 본질과 통치자 상을 비교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학생은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인간의 도덕성과 철학적 통치를 강조한 동서양 고전의 관점을 정리하고, (다)와 (라)를 통해 공동체 중심과 구조 개혁 중심의 이상 사회 모델의 차이를 도출한 후, (마)에 제시된 마키아벨리의 군주관을 앞선 제시문들의 이상 사회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 발문에 제시된 것처럼 (가)와 (나)에 대해 요약적 글쓰기를 진행하고 (다)와 (라)의 관점 차이를 비교 정리한 뒤, (가)와 (다)의 관점을 통해 (마)에 나타나는 군주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기술해내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각각의 통치자와 이상 사회에 대한 상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와 (라)의 이상 사회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의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에 제시된 마키아벨리의 군주관이 (가)와 (다)의 통치자 상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관점에 대한 비판을 (가)와 (다)의 기준에 따라 서술할 필요가 있다.

**나.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30점**

평가 기준	배점
1. (가)의 소설 속 인물들의 문제적 상황을 잘 파악하여 서술한 경우(10점)	30
2. (나)를 통해 (가)에 나타난 표현의 자유/알 권리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 양상을 잘 설명한 경우(10점)	
3. (다)를 통해 (가)에 나타난 '공감과 연민의 결여'를 잘 논술한 경우(10점)	
이 세 가지 경우에 맞추어서 평가하되, 각 항목별 최고점에서 답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부분 감점을 통해, A, B, C, D를 줄 수 있음(최고점은 S)	

상	S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그 설명의 과정과 구성 또한 잘 갖춘 경우
	A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따르고 있지만 글 전개와 논리적 순서나 구성 등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경우
중	B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글의 논리적 연결이 미숙하여 작품에 대한 독해에 잘 적용시키지 못한 경우
	C	세 가지 평가 기준에 대한 성취가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지만 비교적 적절한 논리적 구성을 갖추었거나 작품의 독해 결과를 비교적 잘 서술한 한 경우
	D	세 가지 평가 기준 중 1개 이상이 부족하고 글 전개가 미숙한 경우
하	E	세 가지 달성 기준이 모두 부족한 경우
	F	백지 답안

**문제 2** 배점: 30점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에 대한 (나)의 이론적 관점을 설명함		5
2. 제시문 (가)에 대한 (다)의 이론적 관점을 설명함		5
3. 제시문 (나)의 이론적 관점으로 (라)를 통해 문제 해결을 제시함		10
4. 제시문 (다)의 이론적 관점으로 (마)를 통해 문제 해결을 제시함		10
상	S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문제 3** 배점: 40점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통치자와 이상 사회의 상을 설명함.		5
2.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통치자와 이상 사회의 상을 설명함.		5
3. 제시문 (다)의 주장을 설명함.		5
4. 제시문 (라)의 주장을 설명함.		5
5. 제시문 (다)와 (라)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함.		10
6. 제시문 (가)와 (다)를 기반으로 [마]에 들어 있는 군주에 대한 생각을 비판함.		10

상	S	1, 2, 3, 4, 5, 6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 5, 6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5, 6 중 5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5, 6 중 5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5, 6 중 4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5, 6 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5, 6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다. 예시 답안

####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부부의 문제적 상황은 영우의 죽음과 그로 인한 고통이 사회와의 갈등 속에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얽은 감정으로 그들을 대한다. 이 상황은 (나)에서 말하는 인격권과 알 권리의 충돌과 관련이 있다. 부부의 고통이 공공의 영역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의 사적 감정과 권리는 타인의 호기심과 잘못된 소문에 의해 침해받는다. 부부의 슬픔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다)의 관점에 따르면 부부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행동이 부족했던 사회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 표면적인 동정이나 거리를 두는 행동을 보인다. 이는 부부가 겪는 심리적 고립과 상처를 깊게 만든다. 부부는 서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고통을 겪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어 버린 것이다.

#### 문제 2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나)는 거시적 관점으로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의 사회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하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과 기준이 없는 '무규범 상태'를 말한다. (다)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행위 동기,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된다는 이론이다.

(라)를 통해 변화한 환경에 적절한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며, 약화된 사회 통제력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한 환경에 적절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는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하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등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제 3

제시문 (가)는 큰 도(道)가 행해진 세상의 현명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다스릴 때 신의와 화목, 상호 존중과 협력적인 삶이 구현되는 대동사회의 상을 제시한다. (나)는 인간의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통해 참된 실재인 이데아에 관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 사회를 제시한다. (다)와 (라)도 이상 사회를 주장하지만, (다)는 자연의 질서가 도에 가까우며, 그 질서에 따르면서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이라 하고, 이상 사회를 위해서 지도자보다 이상적인 인간을 우선시한다. 반면, (라)는 경제적 구조와 계급 해소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 평등을 통한 평등한 이상 사회를 주장한다. (다)는 갈등이 아닌 반면, (라)에는 갈등적인 요소가 있다. (마)는 (가)의 ‘대동사회’에서 강조하는 상호 신뢰와 협력의 정신과 상반되는 접근이다. (가)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억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이므로, 군주의 강압적인 성향은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또한, (다)의 무위자연의 철학에서도 군주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은 비판받을 것이다. 노자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질서를 이루는 방식을 추구하며, 군주의 ‘두려움’을 강조하는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무위와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이상 사회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 4

## 동국대학교 논술 준비 팁



## 가. 동국대학교 논술의 개괄적 특징 알기

- 동국대학교 인문 논술은 교과서 기반 제시문을 바탕으로, 여러 관점과 개념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서술하는 평가이다. 총 3문항(100분)으로 구성되며, '단계적 사고 흐름'을 요구하는 복합 발문이 특징이다.
- 제시문은 주로 국어(문학, 독서), 사회(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등) 교과에서 발췌되며, 문학 제시문도 감상 중심이 아닌 사회 문제 인식과 연결된 서사 해석으로 활용된다. 글자 수는 문항에 따라 300~400자 혹은 500~700자로 구성되며, '개념 이해 → 관점 비교 → 비판 및 해결'과 같은 전개 구조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을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 간의 관계 구조를 해석하고 자기 관점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고득점의 핵심이다.

## 나. 출제 유형과 사고 흐름 파악하기

- 동국대 논술은 단순한 독해력이 아닌, 제시문 간의 관계 이해와 다단계 사고 흐름이 요구된다. 특히 A → B → C 식의 복합 발문 구조가 자주 사용되며, 이를 단계별로 정확히 분리하여 논리적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한다.

## 다. 교과 기반 개념 학습 및 현실 적용 훈련하기

-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통합사회, 문학 등 다양한 교과의 개념을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수능 개념어 학습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념 간 연계성 및 응용력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하다.

## 라. 문제 요구사항을 명확히 분석하기

- 논제에 사용된 서술어(예: 설명하시오, 비교하시오, 비판하시오 등)를 분석하여 답안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제시문의 정보가 어느 사고 단계에 대응하는지도 사전에 매칭해 두는 훈련이 중요하다.

## 마. 기출문제 반복 풀이 및 구조 분석 훈련하기

- 문항의 사고 구조는 문제 해결 흐름과 직결된다. 각 문항에서 제시문 역할과 논제 요구를 구조화해 보는 연습을 통해 '답안 설계력'을 키워야 한다.

## 바. 문학 제시문 해결 방법

### 1) 표현 기법 등에 집중하기보다 ‘내용 핵심’을 추출하기

- 동국대 문학 제시문은 감상 중심이 아니라 문학을 사회적 관점과 연결하는 역할로 활용된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 사건의 핵심, 사회적 의미를 추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 2) 제시문 간의 관계를 이정표 삼아 읽기

- 문학 제시문은 대체로 갈등, 폭력, 소외 등의 사회문제를 문학적 방식으로 보여주며, 이를 윤리, 사회, 정치적 제시문들과 연결해 해결 방안 도출까지 유도하곤 한다. 논제에 제시되는 사고 흐름에 맞춰 문학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는 방식의 글쓰기가 필요하다.

### 3) 인물과 서사 구조를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 예컨대 소설 속 인물의 갈등이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면, 이를 ‘구조적 폭력’이라는 사회 개념으로 바꿔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문학 제시문이 감정적 촉매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이론적 설명으로 이어져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 4) 문학은 언어가 아닌 ‘맥락’이라는 생각 갖기

- 해당 내용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읽어내야 한다. 문학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인간에 대한 통찰을 묻는 것이 동국대학교 문학 논술의 핵심이다.

## 5

## 연습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인간을 자연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로 여기고 인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과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한에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강이 지닌 가치는 강을 통해 인간이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강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 이처럼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자연을 인간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도구적 자연관’을 지닌다.

인간 중심주의 윤리를 강조한 사상가로는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등이 있다. 베이컨은 자연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의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을 구분하여 인식 주체인 인간이 인식 대상인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인간의 정신이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단순한 물질이므로 기계와 같다고 여겼다.

한편 ㉡칸트는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연이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폭력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의무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요청되는 간접적 의무이며, 이성적 존재인 인간 상호 간의 의무만이 직접적 의무라고 보았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천재교육)

(나)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 가슴에 금이 갔다. /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짙어 먹을 / 널찍한 마당은 커녕 가는 데마다 /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 금방 떠난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 사람 가까이 /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날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문제 1

(가)와 (나)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시오. (40점, 300자 내외)



문제 2

(가)의 ㉠과 ㉡의 관점에서 (나)의 ‘비둘기’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시오. (60점, 250자 내외)

문제 1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가)	에	서	는	도	덕	적	가	치	를	자	신	인	간	이	
	자	연	과	구	별	되	는	유	인	한	존	재	라	고	보	는
키워드!	인	간	중	심	주	의	윤	리	에	대	해	설	명	하	고	
	있	다	·	즉	도	구	적	자	연	관	을	설	명	하	고	있
	다	·	베	이	컨	은	과	학	지	식	으	로	자	연	을	정
	복	하	여	인	간	의	이	익	을	위	해	사	용	해	야	
	한	라	고	보	여	,	칸	트	는	인	식	주	체	인	인	간
	이	자	연	을	정	복	하	여	바	꾸	기	사	용	하	는	것
	을	당	화	하	고	,	데	카	르	트	는	무	자	비	한	자
	괴	를	부	경	적	으	로	보	고	,	자	연	을	폭	적	적
	로	대	하	지	않	는	것	을	의	무	리	고	보	지	만	
	이	는	간	접	적	의	무	에	불	과	한	라	고	본	다	
	(나)	에	서	비	를	기	는	과	거	성	북	동	신	에	살	
	던	존	재	였	으나	성	북	동	산	이	개	발	되	면	서	
	이	를	상	실	하	여	하	는	을	위	를	거	나	피	나	
	듯	지	봉	에	맞	는	모	습	을	보	인	라	·	즉	과	
	거	에	사	감	가	까	이	서	사	람	취	럼	·	평	화	
	·	사	감	을	즐	기	라	현	재	모	두	상	실	한	상	
	가	·	존	것	이	·										

요약적 서술이 필요함

300 300자 내외, 250~350자 수준 준수 필요

개발로 인한 터전 상실 서술 필요

키워드!

Good!

바꾸기

전반적으로 서술 내용들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지 못해 글자 수를 초과해 작성한 답안이다. 제시문 [가]의 사상가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선 요약적 제시가 필요하며, 제시문 [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베이컨, 칸트, 데카르트에 대한 서술이 다소 섞여있는데,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구상지 등을 활용하여 서술할 내용의 핵심을 적어놓은 뒤, 옮겨 적는 방식을 추천한다.

예시 답안

(가)는 인간 중심주의 윤리가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입장임을 설명하고, 이를 주장한 사상가들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베이컨은 자연을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의 도구로, 데카르트는 자연을 인간이 정복해야 할 기계적 대상으로, 칸트는 자연을 인간 도덕성을 위한 간접적 의무의 대상으로 보았다.

(나)는 도시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성북동 비둘기를 통해, 자연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그려낸다. 비둘기는 과거 인간과 조화를 이루던 존재였으나, 이제는 인간에 의해 삶의 터전을 뺏기고 쫓기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313자)

문제 2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가)의	㉠은	물	질	로		
확	원	될	수	없	는	존	엄	한	정	신
인	간	이	자	연	을	이	용	하	는	것
스	로	인	간	의	개	발	로	인	해	산
사	상	, 평	화	를	상	실	하	고	방	황
비	둘	기	의	상	황	에	대	해	별	문
고	분	것	이	라	.	(가)의	㉡은	가	면	을
하	게	파	괴	하	는	것	이	부	적	절
폭	력	적	으	로	대	하	여	서	는	안
에	(나)의	비	둘	기	가	처	한	상	황	을
으	로	바	라	분	것	이	라	.	그	러
가	지	나	간	접	적	의	무	에	불	과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도로 서술

'인간 도덕성 훼손', '상호 감수성 약화' 서술이 필요

key word!

~고 평가할 수 있다.

문항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들을 잘 담아낸 답안으로 보인다. 다만, 문항 발문의 서술어가 '평가하십시오'이기 때문에 ㉠과 ㉡의 관점에서 '~고 평가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의 서술이 필요하다.

예시 답안

데카르트의 관점에서는 자연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므로, 성북동 비둘기의 삶이 파괴된 것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칸트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인간의 도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둘기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쫓아낸 행위는 부도덕한 처사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인간 중심주의 내에서도 자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27자)

# 3. 인문계열-영어 제시문 포함



교과 연계 대입 논술 가이드북

- 인문·상경 계열, 약술형 논술 중심으로 -

05 이화여자대학교

06 한국외국어대학교



# 05 이화여자대학교

2026 논술 고사 일정	전형 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시험 시간	문항 수	글자 수, 배점	주 출제 교과 및 과목 (출제 범위)
2025. 11.22. (토)	논술 100	국수영탐(1과목) 중 2개 합 5 이내(국어 포함) (스크랜튼 학부) 3개 합 5 이내	100분	3문항	글자 수 제한 없음 1000점	국어, 문학, 독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경제,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 스크랜튼 학부는 자유전공 학부를 지칭하며, 스크랜튼 학부 입학생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 제외), 스크랜튼 대학(국제학부, 뇌·인지 과학부), 인공지능대학의 각 학부/학과(전공) 중 선택 가능  
※ 기출 문제 채점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1,000점으로 사정함.

## 1 이화여자대학교 논술 준비



### 가.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연도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024	국어, 독서,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경제, 심리학,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문1: 자아(경험/해석), 비현실적 형상화(데페이즈망), 감각의 왜곡과 현실 인식, 대상의 실재</li> <li>인문2: 법률(주체/목적), 합리적 행위론과 사회 분석, 통계 분석(인과관계), 대리인 문제(역선택/도덕적 해이)와 기업 평가</li> </ul>
2023	국어, 독서, 문학, 동아시아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경제,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문1: 세계시민주의, 인간의 인지 과정(들뢰즈), 자아 인식(마르틴 부버/사르트르)</li> <li>인문2: 지불 용의 가격, 합리주의적 태도, 통계 분석(집단/개인 수준, 생태학적 오류), 소비자 물가 지수/물가상승률 산출, 화폐의 구매력 비교, 명목/실질 이자율 계산</li> </ul>
2022	국어, 독서,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경제,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문1: 확실성(예술/신학/윤리), 개인과 전체의 경쟁적인 속도감(개인과 전체의 관계), 인간의 존엄 찾기(노인·아우슈비츠 경험)</li> <li>인문2: 인간본성론과 국제평화(맹자/순자, 현실주의/자유주의), 통계 분석(심슨의 역설, 군집 분석),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계산, 소비자·생산자 잉여(자유 무역/폐쇄 경제) 산출 및 평가</li> </ul>

## 나. 문항 유형 특성

- 인문과학대학, 사범대학 중심인 인문1과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 중심인 인문2의 유형 모두 3개의 대문항이 제시되며, 그 중에 한 개 문항은 2~3개의 세부 문제들로 구성됨.
- 인문1과 인문2의 유형은 각각 7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고, 2개 문항은 2개의 제시문을 읽고 푸는 문제이고, 나머지 1개의 문항은 3개의 제시문을 읽고 푸는 문제임.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제시문의 숫자는 바뀔 수 있음.
- 유형별로 3개의 대문항이 출제되기에 각각의 대문항을 해결하는 데 30분~40분이 소요됨.
- 모든 유형에서 언어 논술은 다양한 주제의 여러 지문에 대한 종합적 논술 형태로 출제됨.
- 인문1은 영어 지문이 제시되는데, 대부분 EBS 영어/영어 독해와 작문 관련 교재에서 나옴.
- 인문2는 통계자료, 표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됨.
- 인문2 유형에서 일부 문항은 수리적 계산이 가미된 형태로 출제되는데, 경제 교과와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임.
- 제시문은 동서고금의 명작, 명문뿐 아니라 통계·그림·사진 등의 자료, 일상생활·사회현상·자연과학 소재 속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옴.
- 대학교에서 소개하는 문제 유형은 크게 5가지임.
  - ① 주어진 상황이 가지는 특징을 분석하여 표현하는 분석 논술형
  - ② 핵심 개념, 문장, 지문 내용(요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설명 논술형
  - ③ 제시된 주장의 반론 제시, 타당성 검토 등 비판 논술형
  - ④ 주어진 자료나 지문의 논리적 연관성을 찾는 논리 진술형
  - ⑤ 지문들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서술하는 종합 논술형

### 인문 1 (인문과학대학, 사범대학)

#### 문항 1

- ▶ 2개의 제시문을 읽고, 특정 개념을 토대로 2개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비교하는 유형임.
- ▶ 2개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먼저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함. 비교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서술해야 함.
- ▶ 상황에 따라 1개 제시문은 영어로 제시되는데, 모의고사 3등급 이상인 학생이면 무난히 해석할 수 있는 수준임.
- ▶ 3개의 문항 중 가장 쉬운 문항으로 중급 난도이고, 풀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임.
- ▶ 글자 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시 답안을 보면 600자~800자 정도면 무난함.

**문항 2**

- ▶ 2개의 제시문을 읽고, 어느 한 제시문에 소개된 특정 관점으로 또 다른 제시문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문항임.
- ▶ 1개의 제시문은 인문·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이고, 또 다른 제시문은 인문·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이거나 문학 작품인 경우가 많은데, 장르는 소설이 제일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필이나 기행문 등이 제시됨.
- ▶ 1개 제시문에 나타난 특정 개념이나 관점을 정리한 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하여 또 다른 제시문의 상황이나 작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글을 작성해야 함.
- ▶ 중상급 난도이고, 풀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임.
- ▶ 글자 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시 답안을 보면 600자~800자 정도면 무난함.

**문항 3**

- ▶ 보통 3개의 제시문을 읽고, 세부 문항 2개를 해결하는 문항임.
- ▶ 3개의 제시문은 전부 인문·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인 경우가 많음.
- ▶ 세부 문항 2개가 전부 [문항1]의 문제 유형처럼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2개의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비교하는 문항일 수도 있고, 1개는 [문항1]의 문제 유형, 또 1개는 [문항2]의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기도 함.
- ▶ [문항1]과 [문항2]의 문제 해결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작성하면 됨.
- ▶ 중상급 난도이거나 더 높은 수준인 경우가 있음. 풀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40분 정도임.
- ▶ 글자 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시 답안을 보면 각각 600자~800자 정도면 무난함.

**인문 2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

**문항 1**

- ▶ 3개의 제시문을 읽고, 2개의 세부 문항을 해결하는 문항임.
- ▶ 세부 문항 중 1개는 2개의 제시문을 읽고 특정 개념이나 원리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는 유형이거나, 또 다른 1개의 세부 문항은 1개 제시문에 나오는 특정 개념이나 원리를 적용하여 또 다른 제시문의 입장이나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임.
- ▶ 인문학 관련 제시문이 많이 나오는 인문1 유형의 제시문과 달리, 법이나 경제, 정치, 국제 문제 등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이 많이 나옴.
- ▶ 보통 중급 난도이고, 풀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임.
- ▶ 글자 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시 답안을 보면 각각 500~600자 정도면 무난함.

**문항 2**

- ▶ 2개의 제시문을 읽고, 어느 한 제시문에 소개된 도표나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항임.
- ▶ 2개의 제시문은 보통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설명임. 이 개념이 비록 생소할 지라도 제시문만 정확히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음. 국어의 비문학 지문을 해독하는 것과 유사함.
- ▶ 문항은 통계자료를 분석할 때 필요한 개념의 중요성이나 의의 및 가치를 정리하거나, 통계 분석 관련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제시문에 함께 제시된 도표나 통계자료를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이 많음.
- ▶ 중상급 난도이고, 풀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임.
- ▶ 글자 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시 답안을 보면 600자~800자 정도면 무난함.

**문항 3**

- ▶ 보통 2~3개의 제시문을 읽고, 세부 문항 2~3개를 해결하는 문항임.
- ▶ 3개의 제시문은 전부 경제 관련 제시문인 경우가 대부분임.
- ▶ 세부 문항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시문에 나온 경제 관련 개념이나 원리를 요약하거나, 해당 개념이나 원리를 경제 현상에 적용하여 설명해 보거나, 관련 개념이나 원리를 적용하여 실제 경제 현상을 분석하여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문항임.
- ▶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문항은 경제 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음.
- ▶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중급 난도인데,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중상급 난도 이상으로 체감되는 문항임. 풀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40분 정도임.
- ▶ 글자 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시 답안을 보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각각 100자~300자 정도이고, 경제학적 개념을 통해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항은 600자~800자 정도면 무난함.

**다. 출제 자료 및 도서 출처**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 『국어』(동아출판/지학사), 『문학』(천재교육), 『경제』(씨마스/미래엔/천재교육/비상/지학사),</li> <li>• 단행본: 『아들러 심리학 해설』(아들러 외), 『타인의 방』(최인호), 『원인과 결과의 경제학』(나카무라 마키고 외), 『심리학 연구방법』(Elmes 외)</li> <li>• EBS교재: 『EBS 수능완성 영어』(2025 수능대비), 『EBS 수능완성 독서·문학·언어와매체』(2023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독서』(2023 수능대비)</li> <li>• 모의고사: 2018학년도 6월, 2022학년도 6월/9월, 2023학년도 6월</li> </ul>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 『독서』(비상교육/신사고), 『문학』(미래엔), 『생활과윤리』(미래엔), 『동아시아사』(금성/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경제』(씨마스/미래엔/천재교육/비상/지학사)</li> <li>• 단행본: 『대의각미록』(이형준 외 역), 『스노우맨』(서유미),</li> <li>• 사전: 『사회학사전』(고영복)</li> <li>• 잡지: 『주간경향』(김재연)</li> <li>• 통계자료: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보도자료』(통계청)</li> <li>• EBS교재: 『EBS 수능특강 독서』(2024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2021 수능대비)</li> <li>• 모의고사: 2020학년도 6월</li> </u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 『독서』(동아출판/신사고/천재교육), 『국어』(금성출판사/천재교육), 『문학』(천재교과서), 『정치와법』(지학사), 『실용국어』(미래엔/창비), 『경제』(씨마스/미래엔/천재교육/비상/지학사)</li> <li>• 단행본: 『엇박자D』(김중혁)</li> <li>• EBS교재: 『EBS 수능특강 독서』(2021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영어』(2023 수능대비), 『EBS 올림포스 독서』(2022 수능대비)</li> <li>• 모의고사: 2020학년도 6월</li> </ul>

2

이화여자대학교 기출문제 (2024. 11. 24.(일) 시행)



인문 1 (인문과학대학, 사범대학)

문항 1

제시문 [나]를 한국어로 요약하고,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자아에 대한 이해’를 대비하시오. [30점]

제시문 (가)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들에게 “나도 역시 어렸을 때는 너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곤경을 타개해 왔다. 너희들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모두 용서되어야만 한다.” 위의 두 사람의 말에서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해석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들의 행동이 바뀌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어떤 경험이건 그것 자체가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될 수 없다. 우리는 자신들의 충격적인 경험, 이른바 외상(外傷)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부터 꼭 자신의 목적에 합치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만들어 낸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며,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는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는 과거에 겪은 일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제시문 (나)

The self is defined in important respects through one’s relationships with others. That is, the self is linked in memory with other individuals whom we view as significant in our lives. We have strong links between our self-concept and our representations of parents, siblings, children, or good friends. Not all aspects of the self will be consistently represented in these self-other associations. For example, there might be a strong emphasis on pursuing enjoyable activities in my link with my best friend, but my link with my parents might focus on our shared heritage or our duties to one another.

These differing associations will serve to activate different aspects of an individual’s self-concept. Moreover, these significant persons need not be physically present to influence the activated self-concept. Instead, one needs only to think about or be reminded of a significant other to activate the subset of beliefs about the self that are relevant to one’s experiences in that relationship. Thus, the varieties of relationships we have with other people can also contribute to dynamic variability in the nature of the self-structure that is accessible at the moment.

## 문항 2

제시문 [다]의 관점으로, 제시문 [라]에서 ‘그’가 처한 상황과 심리 상태를 비현실적으로 형상화한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 제시문 (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轉置)’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데페이즈망의 표현 법이다.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 르네 마그리트의 「골콘다」를 통해 데페이즈망의 맛을 깊이 음미해 보자. 「골콘다」는 푸른 하늘과 집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단 화가는 이 그림에서 중력을 제거해 버렸다. 거리를 걷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다. 기계적인 배치이다. 빗방울이 떨어져도 이렇듯 기하학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이처럼 현실의 법칙을 벗어나 있지만, 그 비상식의 조합이 볼수록 매력이 있다. 기이하고 낯선 느낌이 보는 이에게 추리의 욕구와 신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동했다는 뜻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이상이 허구의 이미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되어 버린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쉽게 이탈해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한다. 그런 점에서 데페이즈망은 현실에 대한 일종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법칙과 논리를 간단히 무장 해제해 버리는 파괴의 형식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데페이즈망 형식의 다양성이다. 파괴라는 말은 그 말의 강한 인상 때문에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창조의 형식만큼 파괴의 형식도 다양하다. 흔히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한다. 이때 파괴는 단순히 창조를 위한 전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파괴의 형식이 창조의 형식을 규정하고, 파괴의 결이 창조의 결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파괴는 무차별적인 그 무엇이 아니며, 창조가 파괴로부터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니다. 파괴되는 순간, 창조의 방향은 이미 결정이 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시문 (라)

“우리는 이 아파트에 거의 삼 년 동안 살아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소.”

“아니 뭐라구요?” 그는 튀어오를 듯한 분노 속에서 신음 소리를 발했다.

“당신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 이 집주인을 당신 멋대로 도둑놈이나 강도로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나두 이 집에서 삼 년을 살아왔소. 그런데도 당신 얼굴은 오늘 처음 보오. 그렇다면 당신도 마땅히 의심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겠소?” 그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어쨌든.” 사내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당신을 의심하는 것은 안됐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시오.”

“그건 나도 마찬가지로니깐.”

그는 화가 나서 투덜거리면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들이밀었다. 문은 소리없이 열렸다.

“정 못 믿겠으면 따라 들어오시오. 증거를 뵈 주겠소.”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컴컴하였다.

“여보!”

그는 구두를 벗고, 스위치를 찾으려고 벽을 더듬거리면서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집 안은 어두웠고 아무도 대답하질 않았다.

(중략)

그는 별거벗은 채 온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이 일상사인 것처럼 걷고, 그리고 뛰었다. 그는 부엌을 답사하였고 그럴 때엔 욕실 쪽이 의심스러웠다. 욕실 쪽을 보고 있노라면 그는 거실 쪽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활차처럼 뛰고 또 뛰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아무런 낌새도 발견해 낼 수 없었다. 무생물에 놀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거만스럽게 걸어가서 스위치를 내렸다. 그는 소파에 앉아 남은 설탕물을 찰금찰금 들이켜기 시작했다. 그가 스위치를 내리자, 벽에 도료처럼 붙었던 어둠이 차곡 차곡 잠겨서 덤벼들고 그들은 이윽고 조심스럽게 수군거리더니 마침내 배짱 좋게 깔깔거리고 있었다. 말리운 휴지 조각이 베포처럼 늘어져 허공을 난다. 달힌 서랍 속에서 내의가 펄펄 뛰고 있다. 책상을 받친 네 개의 다리가 흔들거리기 시작한다. 찬장 속에서 그릇들이 어깨를 이고 달그럭거리며 쟁그렁거리면서 모반을 시작한다. 그것은 그래도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상이 무방비인 것을 알자, 일제히 한꺼번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기 시작했다. 크레용들이 허공을 난다. 옷장 속의 옷들이 펄럭이면서 춤을 춘다. 책대가 물뱀처럼 꿈틀거리다. 용감한 녀석들은 감히 다가와 그의 얼굴을 슬쩍슬쩍 건드려 보기도 하였다. 조심해, 조심해. 성냥갑 속에서 성냥개비가 중얼거리다. 꽃병에 꽂힌 마른 꽃송이가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면서 춤을 춘다. 내의가 들여다보인다. 벽이 서서히 다가와서 눈을 두어 번 꿈쩍거리다가는 천천히 물러서곤 하였다. 트랜지스터가 안테나를 세우고 도립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재떨이가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소켓 부분에선 노래가 흘러나온다. 낙숫물이 신기해서 신을 받쳐 들던 어릴 때의 기억처럼 그는 자그마한 우산을 펴고 화환처럼 황홀한 그의 우주 속으로 뛰어든 셈이었다. 그는 공범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그때였다.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우연히 느낀 것이었다. 처음에 그는 이 방에서 도망가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소리를 내지 않고 살금살금 움직이리라고 마음먹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 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내려 다리를 만져 보았는데 다리는 이미 굳어 석고처럼 딱딱하고 감촉이 없었으므로 별수 없이 손에 힘을 주어 기어서라도 스위치 있는 쪽으로 가리라고 결심했다. 그는 손을 뻗쳐 무거워진 다리, 그리고 더욱더 굳어져 오는 다리를 끌고 스위치 있는 곳까지 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는 채 못 미쳐 이미 온몸이 굳어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숫제 체념해 버렸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다리를 모으고 직립하였다.

### 문항 3

(1) 감각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이해를 대비하시오. [20점]

(2)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에서 말하는 ‘대상의 실재(實在)’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0점]

### 제시문 (마)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형태의 광고물을 접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광고물을 접하면서도 서로 똑같이 지각하지는 않는다. 지각이란 ‘우리가 주위의 세계를 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자극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직하고 인식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필요와 가치, 기대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지각은 ‘개인이 자극을 의미 있고 일관된 세계의 상으로 선택·조직·인식·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감각은 상품의 광고나 포장, 상표명 등과 같이 단순한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감각 기관의 반응이다. 감각은 오감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지각은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개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어떤 자극물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먼저 그것이 감각 기관을 통해 우리의 정신적 경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각을 통해 개인에게 편견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각의 심리적 편견은 감각을 지배한다. 즉, 심리적 편견이 있을 경우 감각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

### 제시문 (바)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하였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솨음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었다.

(중략)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요동 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遼河)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리어,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데로 쏠리어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중략)

소리와 빛같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

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됨에라!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련다.

**제시문 (사)**

일반적으로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감각의 한도 내에서만 외부 세계의 대상을 지각할 수 있을 뿐, 대상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조지 버클리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 기관의 지각을 통해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관념뿐이라고 보았다. 어둠 속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갖게 된 관념만으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제한된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관념 중 어떤 것이 대상의 실재와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중략)

실재론에 비판적인 버클리의 입장에서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우리 마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단지 우리 마음속 '관념들의 집합'일 뿐이다. 그는 '존재하는 것'이란 곧 '지각되는 것'이며,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대상을 지각하는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상식적 실재론자들의 입장을 비판했다. 버클리는 지각의 조건 또는 지각하는 주체의 유무와 무관하게 대상이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부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의 주장처럼 외부 세계의 대상이 관념의 묶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이 환각일 수 있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버클리는 지각된 어떤 것이 환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각 경험들이 반복되는 유형인 족(族)을 이루는지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가령 '나무'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감각 경험들의 한 유형을 지닌다. 우리는 나무를 보는 각도나 거리에 따라 그 형태나 크기를 달리 지각할 수 있으나, 나무에 대한 시각적 경험과 촉각적 경험은 일련의 체계성을 갖는다. 나무에 대한 우리의 감각 경험들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감각 경험의 조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 이에 반해 감각 경험이 질서 있게 연속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각은 감각 경험들이 족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본다면 대상의 존재가 입증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감각 경험과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감각 경험들 간의 관계인 것이다.

## 인문 2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

### 문항 1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법의 성격을 제정 주체와 목적을 중심으로 대비하시오. [20점]

(2)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여 제시문 [나]에서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의도를 설명하시오. [20점]

### 제시문 (가)

유학에서 ‘수기(修己)’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治人)’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율곡 이이는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면서,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다.

(중략)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어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 되면, 국왕이 하명하는 형식의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향구히 시행하는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를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왕도(王道)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율곡은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두고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理)’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 공방을 펼쳤다.

### 제시문 (나)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

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제시문 (다)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효용을 최대화 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허버트 사이먼은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관점을 제시했다. 그중,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한다.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이 모델에서는 단일한 의사결정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 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한다. 그 결과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 선택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행위자가 처리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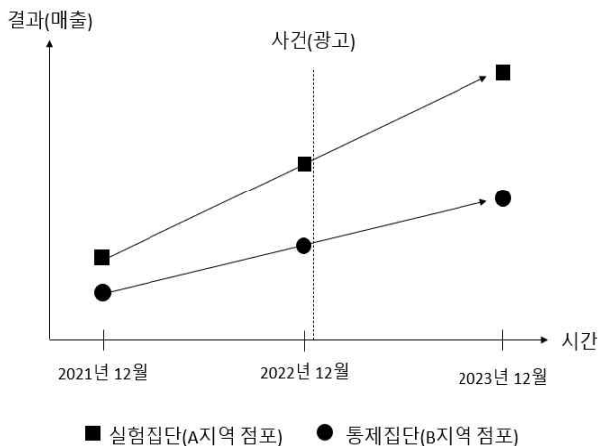
문항 2

제시문 [라]에서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와, 제시문 [마]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두 방법의 공통된 목적을 서술하시오.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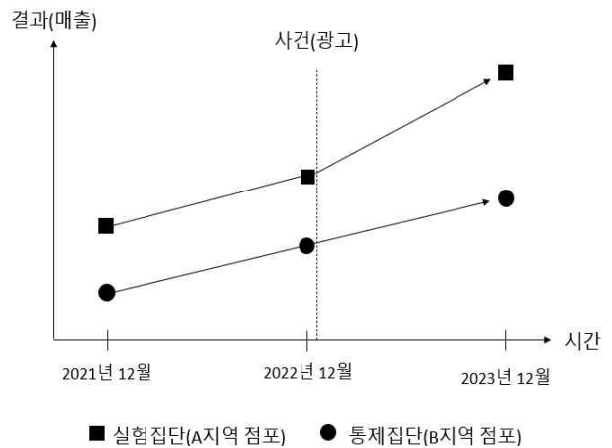
제시문 (라)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즉, 사건을 경험한 표본으로 구성된 실험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으로 구성된 통제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 차이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 방법은 사건이 없었더라도 통제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실험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가령 광고(사건)가 점포의 매출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평행추세 가정이란 광고를 실시한 실험집단(A지역 점포)과 광고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B지역 점포)에서 광고를 내기 전 매출의 증감 추이가 평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을 보면, 광고를 내기 전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지역과 B지역 점포의 매출 증감 추이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광고를 내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이미 광고 이외에도 다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고 이후에 생기는 매출의 차이가 과연 광고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 <그림 2>를 보면, A지역과 B지역 점포에서 광고를 내기 전 매출의 증감 추이가 같다. 이는 광고를 내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광고 이외의 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고 이후에 생기는 매출의 차이가 광고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확률을 높이게 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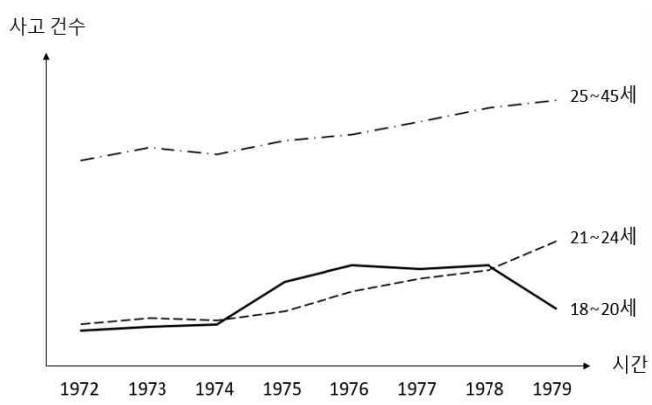
<그림 2>



제시문 (마)

미시간주에서는 1979년 음주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것이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림 3>의 실선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18~20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time-series) 통계를 보여 주는데, 1979년 교통사고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는 음주 연령 상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해 휘발윳값이 인상되었거나 평소보다 많은 눈이 내렸다면, 운전량이 감소하여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비교를 위한 21~24세 및 25~45세의 시계열 통계는 1979년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적인 설명을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음주 연령 상향이 사고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된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통제집단(비교집단)을 설정할 때, 좋은 설계 방법은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역 통제집단이란 실험집단(18~20세)과 동일한 지역에 속한 집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운전 예시에서 두 통제집단은 모두 같은 주에서 추출되었으므로 지역 통제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초점 통제집단이란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운전 예시에서 두 통제집단은 실험집단보다 나이가 많고 운전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초점 통제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림 3>



### 문항 3

#### 제시문 (I)

경제학에서는 의사결정권을 지닌 주인과 주인을 대리하여 직접 행위를 수행하는 대리인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통칭하여 '대리인 문제'라고 부른다. 대리인 문제는 크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역선택'은 계약 전 숨겨진 정보를 지닌 대리인이 주인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하는 사전적 정보 비대칭에 의한 대리인 문제를 일컫는다. 이러한 역선택의 예로는 보험계약자(주인)가 보험회사(대리인)의 허위·과장광고(사전 정보)로 부적절한 보험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추후 보험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기대했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 대리인이 자신의 행위가 주인에 의해 완벽하게 관측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주인의 부를 자신에게 재분배하는 부당행위를 저지르는 사후적 정보 비대칭에 의한 대리인 문제를 지칭한다. 보험계약자(주인)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회사(대리인)가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절히 운용·관리하지 않고 임직원에게 과도한 보상을 지급하며 부적절하게 사외유출(사후 정보)하는 경우가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예라 할 수 있다.

#### 제시문 (II)

자본시장에서 가장 보편적 기업 형태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회사의 주인은 회사의 주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에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자가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를 경영함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 제시문 (III)

'재무제표'는 가정의 가계부나 학생의 성적표와 같이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를 정해진 기준과 양식에 따라 외부 정보이용자에 전달하는 일련의 보고 체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는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부의 크기를 나타내는 재무성과 정보를 영업활동 등에서 발생한 경제적 효익을 의미하는 '수익'과 그러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경제적 자원을 의미하는 '비용'을 통해 집약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외부 정보이용자는 수익의 크기를 통해 기업의 영업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으로 창출된 부의 절대 규모를 측정한다. 또한 이익과 수익의 상대적 비율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을 과거 혹은 동종업계의 타 기업과 비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재무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재무제표는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외부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잠재적 주주의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기존 주주의 경영진 교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를 포함한 외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핵심 정보 체계로 기능한다.

(1) 제시문 [ I ]을 참조하여, 제시문 [ II ]의 주식회사 제도에서 발생가능한 다음의 두 사례가 각각 어떠한 유형의 대리인 문제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5점]

- 사례 1: 사기, 횡령 등 과거 범죄 이력을 숨긴 경영진 선임
- 사례 2: 경영자의 과도한 성과보수 수령 및 불필요한 고급 차량 사용

(2) 제시문 [ I ]과 제시문 [ III ]을 참조하여, 제시문 [ II ]의 주식회사 제도에서 재무제표가 주주와 경영자 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3) 제시문 [ III ]과 아래 설명을 참조하여, A기업의 금년도 이익을 계산하고 재무성과를 평가하시오. [15점]

광고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금년 중 고객에게 105원의 광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사무실 여유 공간을 임대하여 임대수익 15원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 및 사무실임대 서비스와 관련하여 임직원 급여 50원, 모델료 등 광고제작비 30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0원, 수도광열비 등 기타 비용으로 6원이 발생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없다. A기업의 전년도 재무성과와 동종업계에 있는 B기업의 전년도 및 금년도 재무성과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수익	비용
A기업	전년도	80원	60원
B기업	전년도	88원	66원
	금년도	100원	85원

## 3

## 이화여자대학교 기출문제 분석



## 가. 문항 해설

## 인문 1

## 문제 1

제시문 [나]를 한국어로 요약하고,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자아에 대한 이해’를 대비하시오. [30점]

- 이 문항은 인간의 자아에 대해 대비되는 주장을 하는 두 글을 읽고 두 글에 제시된 주장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 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의된다는 제시문 [나]의 영어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험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해석이 자아를 결정한다는 제시문 [가]와 타인과의 경험이 자아를 결정한다는 제시문 [나]의 견해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 제시문 [가]는 인간이 충격적인 경험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경험에 부여할 의미를 스스로 결정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제시문 [나]는 인간의 경험이 인간의 자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 자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 영어 제시문 (나)의 한국어 번역 내용

자아는 중요한 측면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된다. 즉, 자아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타인들과 기억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자아 개념과 부모, 형제자매, 자녀, 혹은 친한 친구들에 대한 심상 사이에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타인과 연결된 자아 개념이 자아의 모든 측면을 항상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즐거운 활동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공동의 유산이나 서로에 대한 책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이처럼 관계마다 다른 연관성은 자아 개념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곁에 있어야 자아 개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해당 관계 속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믿음의 일부가 활성화된다. 결국, 우리가 타인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은 자아 구조의 유동성과 순간적인 변화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

**문제 2**

제시문 [다]의 관점으로, 제시문 [라]에서 ‘그’가 처한 상황과 심리 상태를 비현실적으로 형상화한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 제시문 [다]는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가 즐겨 사용한 데페이즈망 기법의 개념과 형식, 현대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최인호의 「타인의 방」의 발췌문으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고 부재하는 아내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 소외가 심화된 상황을 환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 제시문 [다]에 제시된 데페이즈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창조적 파괴” 형식이 보여주는 예술적 가치를 정리한 후, 이를 소설 작품에 적용하여 작품 속 데페이즈망 상황이 표현된 내용을 찾고, 그러한 상상력이 소통 단절 및 인간 소외, 고독을 보다 심화시켜 보여주는 의의를 분석해야 한다.

**문제 3**

(1) 감각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이해를 대비하시오. [20점]

- 제시문 [마]는 동일한 광고를 접하고도 소비자들이 똑같이 지각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감각과 지각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각을 통해 개인에게 편견이 형성되며, 그 심리적 편견이 감각을 지배하여 감각하는 과정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설명한 글이다.
- 제시문 [바]는 박지원의 한문수필 「일야구도하기」의 일부분이다. 강물의 거센 물살을 눈으로 감각하는 낮에는 강물의 소리를 듣지 못한 반면, 캄캄한 밤에는 오로지 소리에 귀가 쏠리어 불안해한 글쓴이의 경험을 토대로, 외부의 강렬한 자극에 휘둘리거나 방해받기 쉬운 우리의 감각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담고 있다.

(2)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에서 말하는 ‘대상의 실재(實在)’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0점]

- 제시문 [바]는 작자가 하룻밤에 강을 아홉 번 건넜던 체험을 서술하면서 강물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깊이 있게 사유하여야 한다는 깨달음과 경계를 표출하고 있다.
- 제시문 [사]는 대상의 실재(實在)에 대한 조지 버클리의 철학적 사유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감각 기관의 지각을 통해 마음속에 형성되는 관념뿐이므로 감각 기관들 간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지를 담고 있다.

## 인문 2

## 문제 1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법의 성격을 제정 주체와 목적을 중심으로 대비하시오. [20점]

- 제시문 [가]에서는 국왕의 통치 수단으로서 법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자유로운 인간의 합의를 기초로 공리를 추구하는 법을 논의하고 있다.
- 법의 성문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시문 [가]는 고착화를 통한 권위의 부여이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범죄의 예방을 위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대비를 이룬다.

(2)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여 제시문 [나]에서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의도를 설명하시오. [20점]

-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고,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 제시문 [나]의 형벌은 재범과 모방범죄를 지속적으로 예방하는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다. 반면 ‘잔혹한 형벌’은 이러한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 아니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의 입장과 사회 계약론자의 입장에서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 문제 2

제시문 [라]에서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와, 제시문 [마]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두 방법의 공통된 목적을 서술하시오. [30점]

- 제시문 [라]는 사건(광고) 발생 이전에 집단 간 매출 증감의 추세가 비슷해야만 사건 발생 이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를 설명한다.
- 제시문 [마]는 음주 연령 상향 예시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음주 연령이 상향된 실험집단과 지역적으로도 특성적으로도 비슷한 통제집단을 확보해야만 집단 비교를 통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를 설명한다.

**문제 3**

(1) 제시문 [ I ]을 참조하여, 제시문 [ II ]의 주식회사 제도에서 발생가능한 다음의 두 사례가 각각 어떠한 유형의 대리인 문제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5점]

- 대리인 문제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사례에 대해 대리인 문제의 유형을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2) 제시문 [ I ]과 제시문 [ III ]을 참조하여, 제시문 [ II ]의 주식회사 제도에서 재무제표가 주주와 경영자 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 주식회사의 구조적 특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제도에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주주와 경영자 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추론하는 문항이다.

(3) 제시문 [ III ]과 아래 설명을 참조하여, A기업의 금년도 이익을 계산하고 재무성과를 평가하시오. [15점]

- 수익과 비용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고, 해당 기업의 재무성과를 주어진 지문에 따라 직접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나. 채점 기준**

**인문 1**

**문항 1 배점: 30점**

내용 요소	배점
1) 제시문 [나]의 요약	8
2) 제시문 [가] 요지 파악	7
3)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핵심 요지 대비	10
4) 형식의 완결성	5

**문항 2 배점: 30점**

내용 요소	배점
1) 제시문 [다]에 나타난 데페이즈망 개념과 내용 정리	10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데페이즈망 상황과 작품 내용 이해	15
3) 형식의 완결성	5

**문항 3 배점: 40점**

내용 요소	배점	
3-(1)	1) 감각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제시문 [마]의 이해	4
	2) 감각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제시문 [가]의 이해	6
	3)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감각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의 차이 파악	5
	4) 형식의 완결성	5
3-(2)	1) 대상의 실재(實在)에 대한 제시문 [바]의 견해 서술	5
	2) 대상의 실재(實在)에 대한 제시문 [사]의 견해 서술	5
	3)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 견해차를 파악	5
	4) 형식의 완결성	5

**인문 2**

**문항 1 배점: 40점**

내용 요소	배점	
1-(1)	1) 제정 주체에 대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 대비	7
	2) 목적에 대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 대비	8
	3) 형식의 완결성	5
1-(2)	1) 제시문 [나]의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이유를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설명	10
	2)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명	5
	3) 형식의 완결성	5

**문항 2 배점: 30점**

내용 요소	배점
1) 제시문 [라]의 광고 예시에서 평행추세 가정의 의미와 이유 설명	7
2) 제시문 [마]의 미시간주 음주 연령 상향 예시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의 의미와 이유 설명	7
3) 평행추세 가정의 확인과 지역·초점 통제집단의 설정이 모두 사건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설명	11
4) 형식의 완결성	5

**문항 3 배점: 30점**

내용 요소	배점
3-(1) 사례 1과 사례 2 모두 대리인 유형 정답 및 적절한 근거 제시	5
3-(2) 재무제표가 주주와 경영자 간의 도덕적 해이 문제 완화시킬 수 있을지 추론	10
3-(3) 해당 기업의 재무성과 분석 및 평가	15

**다. 예시 답안**

**인문 1**

**문항 1**

제시문 [나]는 자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고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자아는 기억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과 연결되며, 이런 기억의 연결 고리가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인물에 따라 특별히 기억되는 부분이 다르므로, 각 관계는 자아의 서로 다른 부분을 활성화한다. 물리적으로 타인이 옆에 존재하지 않아도, 그들과의 기억만으로도 자아는 활성화될 수 있으며 사람에 따라 자아의 다른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아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제시문 [가]는 개인이 자기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자아를 결정한다고 본다. 충격적인 경험을 했더라도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아가 다르게 정의된다고 본다. 따라서 경험 자체가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은 아니며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인간은 과거 경험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목표에 합치되는 의미를 경험에 부여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정의해나가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제시문 [나]는 자아가 타인과의 관계와 그 경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보는 반면에, 제시문 [가]는 자아가 경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자아 형성은 타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과정이라면 제시문 [가]에서의 자아 형성은 자기 스스로 정의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 ! 문항 2

제시문 [다]는 특정한 대상을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데페이즈망’을 로트레아몽의 시와 마그리트의 「골콘다」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데페이즈망은 비현실적 기이함이 만들어내는 시적·예술적 상상을 통해 논리와 합의의 세계 너머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우고,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나아가게 만들면서, 현실에 대한 일종의 파괴를 통해 다양한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파괴의 성격을 띤다. 제시문 [라]의 ‘그’는 삼 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 주민들과 단절되어 있으며,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분노와 외로움을 느낀다. 방 안에 들어가 스위치를 내리자, 방 안에 휴지 조각, 내의, 책상 다리, 그릇, 크레용, 책대 등 ‘무생물’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고 날뛰며 살아 움직이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그는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그 방 안에서 무생물들과 공범자가 되는 ‘황홀한 우주’를 느낀다. 그러나 그가 소리내지 않고 방안을 벗어나려 하자 서서히 다리와 손, 온몸이 굳어 버려 체념하고 만다. 이렇게 등장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비현실적 장면(데페이즈망)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주변 사람과 일상 공간으로부터 고립된 도시인의 소외(고독, 관계 단절 등)를 보다 기이하고 낯선 세계로 강렬하게 경험하도록 만들면서 창조적 파괴의 의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

## ! 문항 3

(1) 제시문 [마]는 소비자들이 동일한 광고물을 접하고서도 똑같이 지각하지 않는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은 오감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이 자극을 각 개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인 지각을 통해 개인에게 심리적 편견이 형성되면서, 그 편견으로 인해 감각하는 과정에서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바]의 글쓴이는 낮에 강을 건널 때 시각 자극에 압도당하여 강물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가 밤에 시각 자극이 사라지자 그때야 비로소 벌벌 떨면서 강물의 소리를 들었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까닭은 외부의 사물들이 주는 여러 자극들 가운데 특정 자극에 대해 우리의 감각이 과도하게 활성화할 경우, 다른 감각을 통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감각을 무디게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극으로 인해 놀람이나 공포 같은 감정 상태에 빠질 경우, 이 감정으로 인해 여러 감각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충분히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이 글은 인간의 감각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병폐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시문 [마]와 [바]는 감각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의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마]에서는 지각을 통해 형성되어 온 각 개인의 심리적 편견에 의해 감각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반면, 제시문 [바]에서는 동시에 여러 자극이 주어질 때 우리의 감각이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한계나, 여러 감각을 통해 전달되는 자극들을 감정으로 인해 동시에 지각하지 못하는 감각-지각 체계의 불완전함 때문에 감각하는 과정의 왜곡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2) 제시문 [바]에서 ‘나’는 대상의 ‘실재’를 명확히 전제하였다.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도 ‘요하’는 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나 ‘소리와 빛깔’이 나의 외부에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서 이 점이 드러난다. 때문에 ‘나’는 것처럼 실재하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파악해 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낮에는 시각이, 밤에는 청각이 강의 위태로움을 감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듯이, 실재가 감각되는 양상은 매우 불완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건이 달라지면 대상이 감각되는 내역과 수위도 크게 달라져서 대상을 그릇된 면모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사]에서 버클리는 대상이 독립적으로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실재론자들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우리는 감각 기관의 지각을 통해 형성된 관념만으로 대상을 파악하기에, 관념과 실재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초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버클리는 독립적 실재 자체에 천착하지 않고 '지각된 것'이 환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문제에 유의하였다. 그는 감각 경험의 조건이 달라져도 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으므로, 대상에 대한 감각 경험들이 일련의 체계성을 갖는지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제시문 [바]에서는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은 언제나 외부에 실재하므로 대상이 지닌 본연적 성질을 탐구하되,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큰 감각에 대한 과신을 경계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제시문 [사]에서는 독립된 실재를 부인하였으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관념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감각 경험이 조건의 변화에도 질서 있는 연속을 이루게 되므로 감각 경험과 대상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감각 경험들 간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출하였다.

## 인문 2

### ! 문항 1

(1) 제시문 [가]에서는 조선시대의 율곡 이이의 법제 개혁론이 제시되어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공리주의와 사회 계약설에 입각한 형벌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이 언급되고 있다. 두 제시문은 상이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법의 제정 주체와 관련하여, 제시문 [가]에서는 국왕의 하명 형식에서 비롯되어 수교와 록, 대전을 거쳐 성문화되는 데서 드러나듯이, 전근대 왕정사회의 통치자인 국왕이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 법은 사회의 구성원인 자유로운 인간들이 합의를 통해 안정된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의 자유를 양보하면서 제정된 것이다. 다음으로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시문 [가]에서는 백성들에게 시행됨으로써 왕도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의 수단이라는 성격을 띤다. 그러나 제시문 [나]에서 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의 예방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법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집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문법의 형태로 공포되었다.

(2)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하고, 정책 행위가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는 것으로 선택의 의도를 설명한다. 제시문 [나]의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은 형벌의 강도에 집중한 것이며, 계속해서 시행될 경우 사람들이 그에 무디어져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잔혹한 형벌'은 인간을 괴롭히는 목적에서는 높은 효용을 가질 수 있지만, 재범과 모방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에서는 낮은 효용을 갖는다. 휴머니스트, 공리주의자, 사회 계약론자인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만 하면 형벌의 효과가 있으며, 형벌은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잔혹한 형벌'은 과도한 처벌이며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형벌의 목적에서 가장 큰 효용을 갖지 않는다.

## ! 문항 2

제시문 [라]의 광고 예시에서 평행추세 가정을 만족하게 되면, 광고(사건)를 실시하기 전 A점포와 B점포의 매출 증감 추이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두 점포의 여러 가지 영업 상황이나 조건이 사건 전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약 실험집단(A점포)에 대한 광고 실시 이후에 A점포와 B점포의 매출 증감 추이가 달라지게 되면,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광고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확률을 높이게 된다. 제시문 [마]의 미시간주 음주 연령 상향 예시에서는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함으로써 음주 연령이 상향된 실험집단과 지역적으로도 특성적으로도 비슷한 통제집단(비교 대상)을 확보하게 된다. 실험집단과 가장 비슷한 통제집단을 설정함으로써 만약 실험집단에 대한 음주 연령 상향 이후에 사고의 횟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음주연령 상향 조정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확률을 높이게 된다.

제시문 [라]의 광고 예시에서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제시문 [마]의 음주 연령 상향 예시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목적은 사건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과관계를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이 연구자가 생각하는 실험 조건(또는 사건)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그 확신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즉, 사건의 발생 이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최대한 모든 측면에서 서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상태라는 확신이 들 때, 만약 사건 발생 이후 두 집단 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건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확률을 높이게 된다.

## ! 문항 3

(1) '사례 1'은 주주가 경영자의 과거 범죄 이력(사전 정보)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경영자를 잘못 선임한 상황하므로 '역선택'에 해당한다. '사례 2'는 경영자가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이 외부에서 완벽하게 관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주 이익에 반해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사후 정보)을 내리는 상황하므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2) 주주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현(신임) 경영진을 해임(선임)하는 경영진 교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주가 자신의 행위를 직접 관측할 수 없더라도 재무제표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경영활동 결과를 인정받고자 주주를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혹은 재무제표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경영활동 결과를 인정받아 주주에 의해 교체되지 않기 위한) 유인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3) A기업의 금년도 이익은 수익 120원(①)에서 비용 96원(②)을 차감한 24원이다. 이는 전년도 이익 20원(③)보다 4원 증가한 수치다. 수익 규모도 120원으로 전년도 80원 대비 50% 증가하였다. 그러나 A기업의 금년도 수익성은 20%(④)로 전년도 25%(⑤) 대비 5%p 감소하였다. 이를 동종업계에 있는 B기업과 비교하면, 전년도는 A기업의 수익과 이익 규모가 B기업보다 작았으나 금년도는 B기업보다 커졌다. A기업의 금년도 수익성도 전년도 대비 5%p 감소하긴 했으나, 10%p(⑥)가 감소한 B기업에 비해서는 그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A기업의

경우 금년도에 수익과 이익 규모가 모두 증가하며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일부 악화되었으나 그 정도가 동종업계의 타 기업에 비해 작다는 점에서 재무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120\text{원} = 105\text{원} + 15\text{원}$

②:  $96\text{원} = 50\text{원} + 30\text{원} + 10\text{원} + 6\text{원}$

③:  $20\text{원} = 80\text{원} - 60\text{원}$

④:  $20\% = 24\text{원} \div 120\text{원}$

⑤:  $25\% = 20\text{원} \div 80\text{원}$

⑥:  $10\%p = 25\% [= \{88\text{원} - 66\text{원}\} \div 88\text{원}] - 15\% [= \{100\text{원} - 85\text{원}\} \div 100\text{원}]$

## 4

## 이화여자대학교 논술 준비 팁

**가. 요약하기만 잘해도 절반의 점수는 딛 것**

- 이화여대 논술 준비의 출발은 요약하기이고, 마지막도 요약하기이다.
- 요약을 할 때는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작성하지 말고, 핵심어나 중심 내용을 가려 뽑은 후에 적절하게 다른 용어로 바꾸어 쓰는 훈련을 실시한다.

**나. 영어 제시문을 대비하여 직독직해 능력 키우기**

- 영어 제시문을 독해할 때는 우리나라 어순 구조로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 단지 핵심 내용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직독직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이화여대 논술 영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3등급 이상의 실력이 필요하다.
- 영어 제시문이 지금까지 대부분 EBS 영어 관련 교재에서 출제되고 있으니,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다. 인문1 유형 준비 ①: 문학 작품을 비판적으로 읽기**

- 평소 기출 문제를 통해 문학 작품을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 특정 개념이나 원리를 통해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문항이 중상급 난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평소에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술 관련 개념, 윤리나 사회과목 관련 교과에 나오는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여 소설이나 수필, 기행문 같은 작품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라. 인문1 유형 준비 ②: 관련 교과서 공부하기**

- 제시문들은 대부분 국어 관련 수업에서 배웠던 비문학 텍스트에서 많이 출제된다. 특히 EBS 국어 관련 교재와 모의고사의 비문학 텍스트를 독해하는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해야 한다.
- 제시문의 심층적 독해를 위해서는 '윤리와 사상' 교과가 도움이 되는데, 서양의 윤리 사상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자,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동양의 고대 윤리 사상에서는 춘추전국시대 때 활약한 유가, 도가, 법가, 묵가 사상은 반드시 기초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추가로, 연역법, 귀납법 등의 사유 방법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과정에 이성과 감각적 사유의 가치 및 한계에 대해서도 공부해 두면 좋다. 개인과 집단(사회/전체)의 관계를 통해 자아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도 단골로 출제되는 분야이다.
- '생활과 윤리' 교과에 나오는 흠스·로크·루소의 사회계약론, 국제 평화 개념, 롤스·노직의 절차적 정의론, 윤리적 소비, 인간·동물·생태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다양한 관점, 자유의 한계 등도 공부해야 한다.

### 마. 인문2 유형 준비 ①: 통계자료 분석하는 방법 터득하기

- 인문1과 달리 인문2에는 제시문의 내용으로 도표나 다양한 통계자료가 제시되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통계는 거짓말이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통계자료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해석하면 전혀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통계자료를 잘못 해석하는 사례들을 자세히 탐구할 필요가 있다.
- 통계자료를 분석할 때 제목, x축과 y축의 변수, 급격히 변화하는 지점과 그 이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 평균값, 최빈값, 중앙값 등 대푯값의 가치 및 한계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 심리학 관련 다양한 실험의 사례들을 찾아보고, 해당 실험에서 통계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

### 바. 인문2 유형 준비 ②: 관련 교과서 공부하기

- 인문1과 마찬가지로 인문2의 제시문도 대부분 국어 관련 비문학 텍스트에서 많이 출제된다. 텍스트는 대부분 국어 교과서, EBS 국어 관련 교재, 모의고사 국어 비문학 텍스트에서 많이 출제된다. 따라서 평소에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독해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 인문2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교과를 선택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데, 만약에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제 교과서나 EBS 경제 교재를 활용해서 경제 관련 기초 개념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소비의 과정과 한계, 정부와 시장의 관계, 수요와 공급의 변화, 자산 관리의 방법, 외환 시장과 환율, 실업과 인플레이션, 비교우위와 절대우위 등의 국제무역, 보호 무역과 자유 무역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초적인 수준의 공부는 해두어야 한다.
- 인문2 유형은 '사회·문화' 교과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기본 개념을 철저히 공부해야 한다. 특히 양적 연구에서 가설을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의 실제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사. 글씨는 정확하고 크게 쓰기

- 글씨는 채점자가 자연스러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써야 한다. 이화여대는 연필과 볼펜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연필보다는 볼펜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필은 수정이 편리하지만 글씨의 선명도가 볼펜보다 약하므로 실제 채점에서는 불리하다. 볼펜은 0.5에서 0.7 정도의 굵기로 찌꺼기가 잘 나오지 않는 좋은 볼펜으로 구매해서 연습해야 한다. 만약에 연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진하고 선명하게 나오는 연필을 골라야 한다.
- '모'와 '오', '디'와 '리'가 구분되도록 명료하게 쓰고, 글씨를 너무 작게 쓰는 학생들은 글씨를 크게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 5

## 연습문제



※ 이화여대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0분 동안 크게 3개 문항이 제시되기 때문에 1개 문항을 해결하는 데 30~40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글자 수는 예시 답안과 실제 대학교에서 공개한 예시 답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문항 1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가]와 [나]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가]** 바야흐로 키오스크 세상이다. 어디를 가나 마주친다. 간단히 점심을 때우기 위해 샐러드를 사러 들른 식당에서도, 친구와 수다나 떨 요량으로 들른 카페에서도 만났다. 특히 대규모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이고 작은 개인 카페에서도 매번 마주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먼저 키오스크가 있을 자리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며 가게에 들어선다. 뺨치 손님이 나밖에 없는 가게에서도 기계로 음료를 주문하곤 하니,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과 대화 한마디 없이도 하루를 너끈히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편하다. 말 한마디 없이 길쭉한 기계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모두 얻어낼 수 있으니까. 입도 뻥긋하기 싫을 만큼 피곤했던 날은 그의 존재가 반갑기까지 했다. 간단히 장을 보러 들른 마트에서는 굳이 긴 줄을 서 가면서까지 계산원에게 직접 계산하는 일 없이, 줄이 짧은 셀프 계산대에서 직접 계산해 버리고 나서면 그만이었고, 심지어 해외여행을 가셔도 키오스크가 있는 매장이라면 굳이 통하지 않는 말로 소통을 시도하기보다는 기계를 통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정말로 좋은 세상이다 싶었다.

- 『조선일보』, 2023. 10. 5.

**[나]** 대학 병원에서 진료 한번 받기란 정말이지 모든 과정이 기계와의 동행이었다. 접수 등록부터 진료실 도착 알림, 경우에 따라 채혈이나 온갖 검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비 납부까지 모두 각기 다른 기계에서 때마다 필요한 번호표를 뽑아야 했다. 내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기계에 환자 번호나 주민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당일 바코드가 프린트되어 나오니 태그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다. 내 손에 기계가 너무나 익숙했던 나머지 다른 이에게도 이 정도 일은 거뜬할 것으로 생각했다, 기계 앞에서 바코드가 없는 진료 안내문을 연신 가져다 대며 당황하고 계신 할머니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접수를 도와드리려 여쭙 주민 등록 번호가 ‘40’으로 시작했을 때,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1940년대라, 국사책에서나 봤던 숫자였다. 가만히 그가 맞닥뜨리게 된 2023년을 상상해 본다. 말 한마디 없는 길쭉한 고철 덩어리가 얼마나 막막할까.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그 공간에서 부유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보이지 않던 존재가 그제야 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슬프게도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기계들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 『조선일보』, 2023. 10. 5.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가)와 (나)는 기계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	는		일	상	생	활		곳	곳	에	서		키	오	스	크	를	
이	용	한		경	황	을		바	탕	으	로	↓	기	계	가		인	간	의
살	을		윤	택	하	게	↖	편	리	하	게		↓	(가)는		말	하	고	
있	다		[나]	는		병	원	에	서		할	어	니	가		기	계	를	
이	용	하	기		어	려	워	하	는		것	을		발	편	한		경	황
을		바	탕	으	로			기	계	가		노	인	에	게		어	려	움
가	져	다		줄	다	고		말	한	다		중	합	하	면	↖	기	계	가
인	간	의		편	의	를		가	져	다	주	는		존	재	라	고		말
하	는		[가]	과		달	리		[나]	는		기	계	가		인	간	의	
접	르	을		막	는		장	벽	이		될		수		있	다	고		말
한	다																		

100 불편함

200

논제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을 비교하는 것이고, 둘째는 비교를 하되 '인간과 기계의 관계'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선 비교를 할 때는 두 개의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밝혀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학생의 글쓰기는 두 개 제시문의 공통점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단편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내용적 차원에서 첨삭하자면, 첫 번째 문장은 제시문(가)의 내용을 요약하였는데, 이를 공통점을 서술하는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학생은 제시문 (가)는 기계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한다는 것으로, 제시문 (나)는 기계가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두 제시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를 통한 차이점을 언급하지 못했다. 제시문 (가)는 기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반면, 제시문 (나)는 기계가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근원적으로 막아버리는 장벽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표현론적 차원에서 첨삭하자면, 첫 번째 문장의 '윤택하게'는 '살림이 풍부한'이라는 의미로, 주로 '경제적 삶이 윤택한 사람은~'과 같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래서 이를 '편리하게'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어려움을'을 '불편함'으로 고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예시 답안**

(가)와 (나)는 일상생활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계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시문 (가)는 기계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고 보고 있다. 제시문 (나)는 병원에서 할머니가 기계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계가 노인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준다고 말한다. 또한, 기계가 인간 간 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제시문 (가)와 달리, 제시문 (나)는 기계가 인간 간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84자)

**문항 2**

인간의 존재에 관한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의 아돌프 아이히만의 발언을 평가하십시오.

**[가]**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연필은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무엇인가 쓴다는 것은 연필의 본질이므로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 즉 사물은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면서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 202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국어영역),  
〈2024학년도 이화여대 수시논술 제시문(바)〉

**[나]**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 즉 홀로코스트 실행을 위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동유럽의 게토와 학살 수용소로 강제 추방하는 것을 촉진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1960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열린 재판을 통해 전쟁범죄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고 1962년 6월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재판의 과정에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저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처리할 방법을 마련하라는 명령에 따라 그 방법을 제시하였을 뿐입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이 저에게 부과된 의무였으며, 저는 그 명령에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 제가 왜 유죄입니까?”

- 고등학교 『논술』(비상교육)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가]는	인간이	사울과	달리	존재가	본
질을	앞서	때론	인간을	그	본질과
목적으로	판단할	수	없	아	고
은	우연히	이	세상에	내	던
스	로	를	만	들	어
[나]의	아들	프	아이	하	만
죄	혐의	에	대	해	자
따르	는	것	이	있	으
통	실	히	따	랐	을
의	관	점	을	바	람
생	각	해	보	면	,
로	반	단	할	수	없
가	명	령	을	따	르
그	의	행	동	을	정
히	만	은	스	스	로
을	죽	인	것	이	라
다					

전체적으로 문항이 너무 길다. 2-3개의 문장으로 고쳐 쓸 것

동어반복으로-다른 표현으로-서술하면 좋음.  
 '인간은 주체적 선택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기에' 처럼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음.

전반적으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다. 마지막 문장의 경우는 2~3개의 문장으로 나누는 것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 '인간은 본질이나 목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라는 표현은 앞에 진술한 내용과 똑같은 표현이다. 논술을 떠나서 모든 글쓰기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씩 다른 단어나 표현을 통해서 글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첫 번째 내용을 '인간은 주체적 선택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기에'로 바꾸면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질이나 목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라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I 논술전형 바로 알기

II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III 부록

**예시 답안**

제시문 (가)는 본래부터 본질이 규정된 사물과 달리 인간은 그 본질이나 목적이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연필과 같은 사물은 그 본질로부터 쓰임이나 용도가 미리 정해져서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반면에 인간의 본질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인간의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제시문 (나)의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홀로코스트 실행을 자신의 선택에 의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제시문 (가)의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행동했다고 항변하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행위는 전적으로 아돌프 아이히만의 개인적 선택에 의해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 (453자)

**문항 3**

[나]의 '외부 효과' 개념을 토대로 [가]의 주장의 한계를 분석하시오.

**[가]** 사실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얼마나 그것에 기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개인은 오직 자신의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한다. 개인의 자본을 국내 산업의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느 산업 분야의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지에 관해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지역 상황에 근거하여 어떠한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 개인에게 그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려는 정치가는 불필요한 수고를 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려는 것이다.

- 애덤 스미스, 『국부론』

**[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의 원칙은 대가를 주고받는 데 있다. 그러나 어떤 경제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부 효과라고 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곧 해당 경제 활동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경제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배상을 하지 않는 외부 불경제로 나뉜다.

- 고등학교 『경제』(천재교육)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나]	는	시	장	에	서	이	두	어	지	는	경	제	활	등
이		타	인	에	게	의	도	하	지	않	은	혜	택	을	주
연	서	대	가	를	받	지	못	하	거	나	는	해	를	주	
면	서	비	롬	을	치	르	지	않	는	경	우	인	외	부	
호	과	에	대	해	설	명	하	고	있	다	,	[가]	는	개	인
이		자	신	의	이	익	을	최	대	한	으	로	증	진	시
려		노	력	할	때	,	'보	이	지	않	는	손	'에	의	해
사	회	의	이	익	을	효	과	적	으	로	증	진	한	다	고
말	하	며	이	에	개	입	하	는	정	치	가	는	불	필	요
한		수	고	를	할	번	만	아	니	라	권	력	을	남	
용	하	는	것	이	라	고	주	장	한	다	하	지	만	[나]	의
외	부	호	과	를	토	대	로	[가]	의	주	장	을	생	각	
해		본	다	면	자	신	의	이	익	을	추	구	하	는	개
인	의	행	동	이	의	도	하	지	않	은	결	과	를	가	
저	를	수	있	기	때	문	에	있	다	,	결	과	적	으	로
의		이	익	을	효	율	적	으	로	가	저	로	지	못	할
한	계	를	가	질	것	이	다	수	있	다	,	그	결	과	개

전체적으로 문장이 너무 길다. 짧게 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위 학생은 제시문의 핵심 내용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대신, 대체적으로 문장들이 너무 길다. 학생이 작성한 글은 총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의 분량이라면 4-5개의 문장으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문장을 짧게 써야 한다. 길게 쓰다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작성한 문장에서 사용한 단어나 개념은 최대한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두 번째 문장에서 사용한 '효과적으로'라는 표현은 마지막 문장에서 '효율적으로'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 예시 답안

제시문 (나)에서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이 누군가에게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 효과에는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외부 경제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가 있다. 외부 효과의 존재는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시장 실패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제시문 (가)는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에서 경제 참여자인 개인들이 각자에게 이기적인 행위를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증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개인들은 그 어떤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자신의 이익을 정확히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시문 (나)의 외부 효과의 개념을 통해서 제시문 (가)의 주장이 가진 한계를 분석해 보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입장에서 보면 제시문 (가)의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은 인간의 합리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터전으로만 볼 수 없다. 시장은 언제든지 비합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자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 즉 개인의 합리적 행동은 사회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613자)

# 06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 논술 고사 일정	전형 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시험 시간	문항 수	글자 수, 배점	주 출제 교과 및 과목 (출제 범위)
T1: 2025.11. 22. (토) T3: 2025. 11. 23. (일)	논술 100	국수영탐(1과목) 중 (본캠) 2개 합 4 이내 (LD, LT학부) 2개 합 3 이내 (글로벌) 1개 3 이내 (공통) 한국사 4 이내	90분	3문항	1번: 400자 내외, 280점 2번: 450자 내외, 320점 3번: 500자 내외, 400점	통합교과형으로 고교 교육과정 내

※ LD: Language & Diplomacy학부, LT: Language & Trade학부

## 1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 준비



### 가.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연도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025	T1 국어, 영어, 정치와 법,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미술 창작	포함, 제외, 제도, 접촉, 추상화, 인간 존엄성
	T3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한국 지리,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미술, 생명과학1	농산물 직거래, 전염, 직설 화법, 국민투표, 김수영, 참여시, 게르니카, 반전 회화, 공화파 병사의 죽음, 전쟁 기록 사진,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2024	T1 국어,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 영어II, 통합사회,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변화, 지속가능발전, 책임 윤리
	T3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영어II, 영어 독해와 작문, 통합사회,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미술	원칙의 적용, 원칙의 절대성과 가변성, 법률론, 낫설게 하기, 뉴딜(New Deal), 데페이즈망(Depaysement)
2023	T3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심화 국어, 역사, 통합사회, 사회·문화, 세계 지리, 생활과 윤리,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정체성, 단일 정체성, 다중 정체성
	T4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영어 등	이상 지향, 현실 지향, 현실적 이상주의, 과잉 금지의 원칙 등

## 나. 유형에 따른 학과 및 계열 분류표

연도	유형	학과 및 계열
2025	T1	[서울] 영어대학(통합모집), 서양어대학, 핵심외국어계열, 특수외국어(유럽지역)계열, 중국학대학, 중국학대학(통합모집), 자유전공학부(서울)
	T3	[서울]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특수외국어(인도·아세안지역)계열, 특수외국어(중동지역)계열, 일본학대학, 일본학대학(통합모집), 사범대학 [글로벌] 인문대학, 국가전략언어대학, 융합인재대학,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글로벌)
2024	T1	[서울]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중국학대학
	T3	[서울]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일본학대학, 사범대학 [글로벌] 인문대학,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Culture&Technology 융합대학, 융합인재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부
2023	T3	[서울]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중국학대학
	T4	[서울]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일본학대학, 사범대학 [글로벌] 인문계, 전 모집단위(경상대학 제외)

인문 논술은 크게 T1과 T3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날짜도 달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T1에는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특수외국어(유럽지역) 계열, 중국학대학, 자유전공(서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T3에는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특수외국어(인도, 아세안지역, 중동), 일본학대학, 사범대학, (글로벌) 인문대학, 국가전략언어대학, 융합인재대학, 자유전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5학년도부터 서울캠퍼스에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면서 T1 유형에 포함되었으니 잘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 또 아시아언어 중에서도 중국학대학은 다른 아시아언어와 다르게 T1 유형에 포함되어 있으니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다. 문항 유형 특성

### 문항 1

- ▶ 인문 논술은 크게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 본문에 제시되는 보기는 6~7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 1번 문제는 제시된 지문을 2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해 요약하는 방식임.
- ▶ 1번은 분류·요약형 문제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임.
- ▶ 1번은 제시문을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 1번 문제는 400자 내외로 적어야 하며, 배점은 280점임.

**문항 2**

- ▶ 2번은 비교·평가 또는 대조·평가형 문제임.
- ▶ 2번 문항의 하위 보기로 제시한 지문의 논지의 관점에서 본문의 서로 상반된 입장의 제시문 2개를 비교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함.
- ▶ T1과 T3에는 항상 영어 지문이 제시되므로 영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 영어 지문은 2번의 비교·평가형이나 3번의 적용·추론형 문제에 제시됨.
- ▶ 영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임.
- ▶ 영어 지문이 어렵지 않으므로 영어 해석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
- ▶ 2번 문제는 450자 내외로 적어야 하며 배점은 320점임.

**문항 3**

- ▶ 3번은 본문의 제시문을 분석하거나 적용하여 타당성이나 근거 등을 적용·추론하는 문제임.
- ▶ 3번 문항의 하위 보기 지문은 영어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음.
- ▶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해석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빠르게 읽고 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 3번은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질문 안에 출제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음.
- ▶ 지문으로 출제되는 내용은 인문, 역사, 철학, 사회, 과학,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
- ▶ 평소 시사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함.
- ▶ 3번 문제는 500자 내외로 적어야 하며 배점은 400점임.

**라. 한국외대 논술의 변화**

- 2024 논술고사까지는 논술 80+교과 20이었으나 2025 논술고사부터 논술 100으로 변경됨.
- 배점이 800점에서 1,000점으로 바뀌면서, 각 문항별 배점이 1번은 240점에서 280점으로, 2번은 240점에서 320점으로, 3번은 320점에서 400점으로 변경됨.
- 동점자 처리 기준의 최우선순위가 높은 배점 문항 성적순으로 변경됨.
- 글로벌캠퍼스에도 수능최저학력기준 신설(1개 영역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 또 하나 눈여겨볼 변화는 2024학년도부터 문제 2번이나 문제 3번의 하위 보기에 두 개의 지문이 추가되거나 이전 보다 하위 보기의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임.
- 2025학년도 문제 3번은 본문과 하위 보기뿐만 아니라 문제 2번의 하위 보기와도 연결해서 추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어 다소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임.

### 마. 출제 자료 및 도서 출처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5	T1	고등학교 정치와 법(천재교육), 고등학교 통합사회(동아출판), 고등학교 미술 창작(씨마스), 고등학교 경제(씨마스),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화학물질정보시스템』(환경부), 『포춘코리아』(포춘코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수용했지만...난민정책 부재에 불안 확산』(서울경제), 『천연기념물 '무태장어』(국가유산청), 『독이 될 수도, 복이 될 수도 있는 다양성』(한겨레), 『UN Chronicle 6호』(에딧더월드), 『당신들의 천국』(이청준)
	T3	고등학교 한국지리(천재교과서, 미래엔), 고등학교 생명과학 I (동아출판), 고등학교 정치와 법(지학사, 금성출판사, 미래엔), 고등학교 국어(창비), 고등학교 미술(씨마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 천재교과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천재교과서), 『[한동하의 웰빙의 역설] '감염'과 '전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헬스경향), 『곧대 될까 봐 묵언수행? 정중하게 직설하라』(한국일보), 『[미술] 피카소 '게르니카'...화면 가득한 공포와 연민』(동아일보), 『'카파이즘'을 목격하라』(한겨레), 『논어』(공자 저, 소준섭 옮김),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
2024	T1	중학교 국어 3-1(지학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천재교육, 지학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비상교육), 『의사 성과급: 수익에서 의료의 질로』(참여연대), 『음식이 '멸종'하고 있다』(한겨레), 『패스트패션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한국복식학회), 『탄소중립 대응 주요국 R&D 동향조사 및 분석』(녹색기술센터), 『순간의 빛을 영원에 담은 모네』(미래엔 아이세움), 『AI 위험에 대한 성명』(CAIS), 『지속가능발전기본법』(국무조정실)
	T3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비상),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법률론』(키케로), 『브레히트, 서사극, 낯설게 하기 수법』(이상일), 『지식의 미술관』(이주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브리태니커), 『생각의 지도』(리처드 E. 니스벳),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야마구치 슈), 『다시 읽는 서양철학사』(박해용·심옥숙)
2023	T3	고등학교 사회·문화(지학사, 두산), 고등학교 통합사회(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미래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회사원 페르소나만 기대하던 시대 지나 직원들의 다양한 정체성이 혁신의 근원』(동아 비즈니스 리뷰), 『차별과 혐오, 타향살이 아픔, 주소 불명 작품에 '주소'를 부여하다』(경향신문), 『양날의 칼로서의 영국 정체성』(영국연구)
	T4	고등학교 세계사(미래엔), 고등학교 문학(동아), 고등학교 정치와 법(비상), 『AI 곧 '인간 지능' 능가』(문화일보), 『동서양의 정치적 현실주의: 한비자와 마키아벨리』(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미스터 방』(채만식), 『모방과 창조』(브라이트), 『휴머니스트 오블리주』(부키), 『Idealism and Realism in Humanitarian Action』(Center for Humanitarian Dialogue)

2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출문제 (2024. 11. 24(토) 시행)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시문 (가)

농산물 직거래는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소비자와 거래할 때 중간 상인이 개입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형태를 말한다. 중간 상인의 유무가 직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택배나 운송 회사 등을 통한 거래 역시 중간 상인이 없다면 직거래에 포함된다. 경제 구조 및 유통 산업이 고도화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직거래가 일반적인 판매 형태였다. 지금도 도롯가나 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농업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한 장소 또는 시설이다. 직매장 인근의 농업인들이 농산물의 포장, 가격결정, 매장 내 진열, 재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의 직거래 유형이다.

-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 지리』 재구성

제시문 (나)

우리는 일상에서 “전염됐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여기서 ‘전염(傳染)’의 개념은 정확히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감염과 대비하여 전염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염은 특정 병원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전염은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이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아직 감염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병원체를 옮기는 것을 뜻한다. 가령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감기를 옮기거나 물, 공기 등을 통해 병원체를 옮기는 것이다. ‘전할 전(傳)’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더욱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전염이란 단어는 사람이 무리 지어 살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혼자서 무인도에 산다면 전염이 되거나 전염을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 1』 및 한동하, 「감염과 전염…」 재구성

제시문 (다)

최근 중·장년의 최대 공포는 ‘꼰대 취급’이다. 미움받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지라 ‘꼰대 되지 않는 법’을 안내하는 글은 늘 각광받는다. 명절을 앞두고 “조카에게 연봉 묻지 마세요”, “취업 여부 참견하지 마세요” 등의 대화법을 다룬 뉴스가 비중 있게 다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뜰이나 직언, 직설이 무례로 여겨져 온 동양 문화에서, 요즘처럼 ‘꼰대 척결’ 여론이 비등한 시절에 타인에게 관한 충고를 했다간 ‘꼰대’ 소리 듣기 십상이니 침묵은 꽤 편리한 안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황이 악화하는데도 ‘묵언수행’을 고집할 경우 되레 자신의 평판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도대체 말해도 난리, 안 해도 난리”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컨설팅기업 ‘인터렉티브’의 트레이너 앨런 파머는 정중하되 담백하게 말하는 화법, ‘린 토크(lean talk)’를 익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아시아인들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순간에도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예’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의 있으면서도 직설적인 화법이 가장 효과적인 대화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말을 뱅뱅 돌리거나 침묵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절망하고, 이 절망 때문에 공손한 태도까지 잃어버린 뒤 냉정하고 잔인한 말을 해버리고 만다”라고 지적한다.

- 김혜영, 「꼰대 될까 봐 묵언수행?…」 재구성

### 제시문 (라)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정치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대의 민주제에서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등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한 예로 영국의 경우 외교 정책을 내각에 맡기지 않고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했다. 2015년 총선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재집권을 위해 영국이 유럽 연합에 남을지, 탈퇴할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공약을 하였고, 선거에서 승리하자 2016년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탈퇴를 선택한 투표자는 51.9%, 잔류를 선택한 투표자는 48.1%였다. 캐머런 총리 자신은 영국이 유럽 연합에 남기를 원하였으나, 투표자의 과반이 탈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결국 영국은 유럽 공동체에 합류한 지 47년 만인 2020년 2월, 이 기구에서 탈퇴하였다.

- 고등학교 교과서, 『정치와 법』 재구성

### 제시문 (마)

김수영(1921~1968)은 시적 언어의 완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그 언어의 사회·역사적 의미에도 집중한 시인이었다. 그는 모더니즘 시에서 출발하여 현실 비판 의식과 저항 정신을 담은 참여시를 썼다. 그의 대표작 「눈」에서는 ‘눈’, ‘기침’ 등을 상징적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처럼 소박한 일상의 언어를 시에 가져오으로써 시의 새로움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는,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며, ‘기침’은 불순하고 더러운 것을 뱉어내는 정화(淨化) 행위를 상징한다. 김수영의 새로운 시적 언어는 현실을 깨닫게 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요청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김수영의 「눈」은 1950년대 한국의 부패한 정치 상황을 암시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통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등 재구성

### 제시문 (바)

〈게르니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스페인 게르니카를 폭격하는 참상을 그려낸 피카소의 작품으로서, 20세기에 제작된 미술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반전(反戰) 회화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그림은 과열된 전구, 말의 머리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황소와 두 팔을 벌린 여인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은 여러 상징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중앙부에는 창에 복부를 관통당한 채 고통스러워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스페인 공화국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그림 왼쪽에는 황소 한 마리가 있는데, 이는 압제자인 프랑코를 표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황소가 스페인의 상징이자 피카소의 자아를 대변한다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갱생과 회복을 추구하는 스페인의 불굴의 의지로도 읽힌다. 이 그림은 전쟁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전쟁 실사나 다큐멘터리와 달리 전쟁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담아냄으로써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주관적 해석을 낳았다.



- 고등학교 교과서, 『미술』 및 『생활과 윤리』 등 재구성

제시문 (사)

1936년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사진이 있다. 바로 로버트 카파(1913~1954)가 촬영한 <공화파 병사의 죽음>이다. 이 사진에는 돌격하기 위해 참호에서 뛰쳐나온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즉사하는 순간이 담겨 있다. 이 병사는 마치 순교자처럼 팔을 펴고 있으며, 약간 찡그린 듯하나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황량한 풀숲 위로 쓰러지고 있다. 줌렌즈 없이 표준렌즈로 촬영된 이 사진은 실존 인물이 죽어 가는 찰나를 직접 목격한 듯이 매우 생생하게 재현했는데, 이런 사실적이고도 직접적인 묘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생생한 표현으로 인해 관객은 전쟁의 잔혹함을 즉각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진은 전장에서의 극적인 순간을 포착한 현장성 덕분에 지난 세기 가장 뛰어난 전쟁 기록 사진으로 손꼽힌다.



- 노형석, 「'카파이즘'을 목격하라」 등 재구성

**문제 1**

(가)~(바)를 ‘직접’과 ‘간접’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80점)

**문제 2**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 측면에서 (바)와 (사)의 밑줄 친 작품의 공통점을 찾고, 아래 <보기>에 기초하여 두 작품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450자 내외, 320점)

**보기**

예술은 작가가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작가가 작품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과 관객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메시지의 표현 방식 측면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직접적 방식과 비유와 상징 등을 이용한 간접적 방식이 있다. 둘째, 표현 방식에 따라 메시지를 접한 관객의 반응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직접적 방식의 경우 관객들은 객관적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수용하는 반면, 간접적 방식의 경우 관객들은 작가의 메시지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상상한다.

**문제 3**

<보기 1>을 기초로 (마)의 김수영과 <보기 2>의 한강의 작품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공통된 이유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보기 1**

논어(論語)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은 그중 두 가지를 보여준다.

(1) 夫子至於是邦也 必聞其政 求之與 抑與之與 夫子溫良恭儉讓以得之 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  
(선생님(공자)께서는 어디를 가시든 그 나라의 정치를 들으셨는데,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선생님께 들려드린 것입니까? 선생님께서는 온화함, 선량함, 공경, 절약, 겸양으로써 그것을 얻은 것이니 선생님께서 그것을 구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구한 것과 다르겠지요.)

**풀이** 공자가 “어디를 가든 정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가 현실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자에 따르면, 정치는 모든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사회 공동의 사안이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라면 인간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생각을 밝힐 줄 알아야 한다.

(2) 子曰 君子不器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그릇에 갇히지 않는다.”)

**풀이** 공자가 말하는 ‘기(器)’는 사람의 능력 또는 생각을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릇에 갇히지 않는다’ 함은 그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 또는 생각의 한계를 확장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군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고함으로써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기 2

Han Kang, a South Korean novelist, has become the first Asian woman to wi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The Swedish Academy\* praised Han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invisible sets of rules and, in each of her works,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The academy also noted that “she has a unique awareness of the connections between body and soul, the living and the dead, and in her poetic and experimental style has become an innovator in contemporary prose.”

\* The Swedish Academy: 스웨덴 한림원

\*\* prose: 산문

## 3

##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출문제 분석



## 가. 문항 해설

## 문제 1

(가)~(바)를 '직접'과 '간접'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80점)

- 문제1은 (가)~(바)를 핵심어인 '직접'과 '간접'으로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이다.
- 문제1은 핵심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요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 (가), (다), (라)는 '직접'으로 분류하고 (나), (마), (바)는 '간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가)는 농산물 직거래의 장점을, (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면서도 정중하게 말하는 것을, (라)는 영국이 직접 민주 정치를 도입하여 국민투표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직접'으로 분류 가능하다. (나)는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전염에 대해서, (마)는 시를 통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바)는 피카소가 그림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간접'으로 분류 가능하다.

## 문제 2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 측면에서 (바)와 (사)의 밑줄 친 작품의 공통점을 찾고, 아래 <보기>에 기초하여 두 작품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450자 내외, 320점)

- 문제2는 <보기>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와 (사)의 공통점을 찾고, 두 작품의 차이점을 찾아 비교·평가하여 서술하는 문제이다.
- (바)와 (사)의 공통점은 문제의 내용에 기반해 찾도록 했으며, 두 작품이 담고 있는 공통된 메시지가 전쟁의 참상임을 파악하도록 했다.
- (바)와 (사)의 차이점은 <보기> 내용에 기초하여 서술하도록 했으므로 우선 <보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기>를 바탕으로 두 작품의 차이점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첫째, (바)는 여러 상징적 요소를 사용한 피카소의 그림을 보는 사람이 전쟁의 참상을 상상하도록 만든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는 참호에서 뛰쳐나온 병사가 총을 맞고 죽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줌으로써 스페인 내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둘째, 표현 방식에 따라 메시지를 접한 관객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바)는 관객들이 작가의 메시지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상상하는 방식이고, (사)는 관객들이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문제 3**

〈보기 1〉을 기초로 (마)의 김수영과 〈보기 2〉의 한강의 작품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공통된 이유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 〈보기 1〉의 논어의 핵심 덕목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김수영과 〈보기 2〉의 한강의 작품이 가치를 인정받는 공통된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 문제 3의 〈보기 2〉는 외국어 지문 이해 측정을 위해 영어 지문을 사용했다.
- 〈보기 1〉은 논어의 원문과 풀이를 모두 넣어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두 가지를 제시했으며, 이를 기초로 (마)의 김수영과 〈보기2〉의 한강의 작품의 공통점 두 개를 찾는 문제이다.
- 첫 번째 공통점은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의 김수영의 작품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을, 〈보기 2〉의 한강 작품에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두 번째 공통점은 기존의 틀을 깨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내용으로, (마)는 김수영이 시를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 정신을 담은 참여시라는 새로운 방식의 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보기 2〉에 나오는 한강은 시적이고도 실험적인 문체를 추구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문항마다 독립적인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두 개 이상의 지문을 기반으로 핵심어와 요지를 파악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연계해서 비교 및 적용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참고** **〈보기 2〉의 한국어 번역**

한강은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강렬한 시적 산문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한강은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관한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시적이고도 실험적인 문체를 통해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 나. 채점 기준

### 문제 1

채점 요소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가지 상반된 핵심어인 '직접'과 '간접'이 언급되어야 함.</li> <li>• 여섯 개의 제시문이 '직접'과 '간접'이라는 기준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li> <li>•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li> </ul>	280점

등급	채점 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 (가), (다), (라)를 '직접'으로, 제시문 (나), (마), (바)를 '간접'으로 분류하여 기술한 경우</li> <li>• 각 제시문의 요약에서 아래 핵심어를 포함하여 기술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중간자가 없는 직접 거래'</li> <li>- (나) '매개체를 통한 전염'</li> <li>- (다) '직설 화법'</li> <li>- (라) '국민 투표제'와 '직접 민주 정치 요소'</li> <li>- (마) '상징', '암시', '간접'</li> <li>- (바) '상징', '간접'</li> </ul> </li> <li>•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li> <li>-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li> <li>- 주어진 자수 ± 10% 이내로 작성됨.</li> </ul> </li> </ul> </li> </ul>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li> </ul>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li> <li>-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li> <li>- 문법 오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li> </ul> </li> </ul>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지만 위에서 제시한 핵심어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li> <li>-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li> <li>-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li> <li>-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li> <li>-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li> <li>- 주어진 자수 ± 10%를 벗어나고, ± 20% 이내로 작성됨.</li> </ul> </li> </ul>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li> </ul> </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직접'과 '간접'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과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li> </ul>

등급	채점 기준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li> <li>-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li> </ul> </li> </ul>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li> <li>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li> <li>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li> </ul>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li> <li>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li> </ul>

**문제 2**

채점 요소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와 (사)의 공통점으로 전쟁의 잔혹함이 언급되어야 함.</li> <li>(바)와 (사)의 차이점으로 두 가지가 언급되어야 함. 하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메시지에 대한 관객의 반응</li> <li>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해 (바)에서는 '간접'과 '상징'을, (사)에서는 '직접'과 '묘사'를 언급해야 함.</li> <li>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관련해 (바)에서는 '상상'과 '주관적 해석'을, (사)에서는 '객관적 인지'를 언급해야 함.</li> </ul>	320점

등급	채점 기준
A	<b>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1 : (바)와 (사)의 공통점으로, '메시지 측면에서 전쟁의 잔혹함'을 기술한 경우</li> <li>- 요건2 : 차이점에서 (바)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간접'과 '상징'으로 기술한 경우</li> <li>- 요건3 : 차이점에서 (사)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직접'과 '묘사'로 기술한 경우</li> <li>- 요건4 : 차이점에서 (바)의 관객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주관적 해석'으로 기술한 경우</li> <li>- 요건5 : 차이점에서 (사)의 관객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객관적 인지'로 기술한 경우</li> </ul> </li> <li>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li> <li>-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li> <li>-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li> </ul> </li> </ul>
	<b>A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li> </ul>
	<b>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li> </ul>
B	<b>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에서 제시한 요건 1,2,3,4,5 중 1개 항목 누락</li> <li>-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li> <li>-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li> <li>-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li> <li>-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li> <li>-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li> </ul> </li> </ul>

등급		채점 기준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li> <li>-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li> <li>-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 2개 항목 누락</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li> <li>-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 3개 항목 누락</li> <li>-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li> <li>-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li> </ul>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 4개 항목 누락</li> <li>•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li> <li>•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li> </ul>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li> <li>•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li> </ul>

문제 3

채점 요소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어에서 제시하는 사회구성원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을 언급해야 함. 하나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 사고'임.</li> <li>• 논어에서 제시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마)에서는 한국의 부패한 정치 상황과, &lt;보기 2&gt;에서는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다룬 것과 연결해야 함.</li> <li>• 논어에서 제시한 '창의적 사고'를 (마)에서는 '일상의 언어'를 시에 가져옴으로써 '시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과, &lt;보기 2&gt;에서는 '독특한 인식',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와 연결해야 함.</li> </ul>	400점

등급		채점 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li> <li>- 요건1 : &lt;보기 1&gt; 논어의 '공자는 어디를 가든 정치를 들었다'와 연계하여, 사회구성원이 가져야 할 덕목인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술한 경우</li> <li>- 요건2 : &lt;보기 1&gt; 논어의 '군자는 그릇에 감하지 않는다'와 연계하여, 사회구성원이 가져야 할 덕목인 '창의적 사고'를 기술한 경우</li> <li>- 요건3 :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계하여, (마)의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서술한 경우</li> <li>- 요건4 :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계하여, &lt;보기2&gt;의 역사적 트라우마, 보이지 않는 규칙, 인간 삶의 연약함을 서술한 경우</li> <li>- 요건5 : 창의적 사고와 연계하여, (마)의 '일상의 언어', '시의 새로움'을 서술한 경우</li> <li>- 요건6 : 창의적 사고와 연계하여, &lt;보기2&gt;의 '독특한 인식',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를 서술한 경우</li> </ul>

등급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li> <li>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게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li> <li>주어진 자수 ±10% 이내로 작성됨.</li> </ul> </li> </ul>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li> </ul>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li> </ul>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li> <li>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li> <li>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li> <li>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li> <li>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li> <li>주어진 자수 ±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li> </ul> </li> </ul>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li> </ul> </li> </ul>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면에서 B0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li> <li>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li> <li>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li> <li>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li> </ul> </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에서 두 가지가 누락된 경우</li> <li>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li> <li>주어진 자수 ±20%를 벗어나고, 250자 이상이 작성됨.</li> </ul> </li> </ul>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누락된 경우</li> <li>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li> <li>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li> <li>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li> </ul> </li> </ul>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li> <li>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li> </ul>

## 다. 예시 답안

### 문제 1

제시문을 ‘직접’과 ‘간접’이라는 두 핵심어로 분류하면 직접은 (가), (다), (라)이며, 간접은 (나), (마), (바)이다. 직접을 나타내는 (가)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 상인이 개입하지 않는 직접거래 형태인 농산물 직거래를 설명한다. (다)는 정중하고 담백하게 말하는 직설 화법을 소개하며, (라)는 영국이 외교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직접 민주 정치 요소인 국민투표를 적용한 사례이다. 한편, 간접을 나타내는 (나)는 병원체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 아닌, 매개체를 통해 병원체가 옮겨지는 전염에 관한 내용이다. (마)는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암시한 김수영의 「눈」을 설명한다. (바)는 황소와 말 등 상징적인 요소로 전쟁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담아낸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소개한다. (402자)

### 문제 2

(바)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사)는 카파의 〈공화파 병사의 죽음〉을 소개한다. 이들 작품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우선,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 측면에서 보면, 두 작품의 공통점은 전쟁의 참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작품은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과 관객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첫째, 메시지 표현 방식 측면에서 보면 (바)의 그림은 말, 황소와 같은 상징적 요소를 통해 전쟁의 잔혹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반면, (사)의 사진은 전장에서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즉사하는 순간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관객의 반응에 차이가 있다. (바)의 그림은 관객들이 상징적 요소로 표현된 메시지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반면, (사)의 사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전쟁의 잔혹함을 즉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한다. (445자)

### 문제 3

논어는 사회구성원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을 소개한다. 첫째, “공자는 어디를 가든 정치를 들었다”는 말은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군자는 그릇에 갇히지 않는다”는 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덕목에 기초해 김수영과 한강의 작품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공통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두 작가의 작품은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김수영의 작품은 당시 한국의 부패한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을 통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둘째, 두 작가 모두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성을 추구했다. 김수영은 소박한 일상의 언어를 시에 가져오는 것으로 시의 새로움을 모색했으며, 한강은 육체와 영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를 사용했다. (504자)

4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 준비 팁



I 논술전형 바로 알기

II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III 부록

가. 다양한 주제의 제시문에 대비하는 방법

- 한국외대의 논술은 통합논술을 지향하고 있어서 제시문의 형식과 분야가 다양하고, 제시문의 주제도 철학, 법학, 정치, 경제, 문화, 자연과학, 예술분야 등에 걸쳐 다양하게 제시된다.
- 출제진들이 제시문을 선정할 때 교과서와 EBS 교재 등을 활용하므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교과서와 EBS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주제의 지문이 출제되어 그 분야에 관심이 없다면 지문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과서와 EBS 교재 등에 나오는 다양한 주제의 글을 관심 있게 읽을 필요가 있다.
- 덧붙여 평소에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와 기사를 통해 다양한 이슈의 시사 용어 등을 알아두면 논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 제한된 시간 안에 글을 빠르게 읽고 파악하기

-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빠르게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 분류·요약형인 1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내용을 분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방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본문을 읽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 본문을 읽으면서 핵심 키워드와 핵심 문장을 파악한 후 밑줄을 쳐서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본문을 다시 읽어야 할 때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빠르게 훑어보면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다. 영어 지문에 대비하는 방법

- 영어지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어휘나 구문 수준에서 출제되므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독해가 가능하도록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해도 국문 제시문의 내용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므로 영어 실력이 우수하지 않아도 도전할 수 있다. 다만 영어 해석 능력이 부족해서 본문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면 추론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영어문장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 영어지문은 그 자체가 논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비교·평가하거나 추론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제시되는 수준이므로 영어 해석에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 따라서 대략적으로라도 오류 없이 해석 가능할 정도의 영어 수준은 갖추도록 영어 공부에 신경써야 한다.

## 라. 기출문제 풀면서 패턴 익히기

- 한국외대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출제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외대의 논술 문제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매년 논술의 출제 경향이 비슷하다.
-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예시 정답과 비교해 보면서 자신이 적은 답안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출문제는 한국외대 입학처의 자료실에 ‘논술가이드북’과 ‘선행학습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탑재된 파일 속에 포함되어 있다.
- 특히 매년 6~7월 정도에 제공하는 당해 연도 논술가이드북에는 예시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외대의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직접 풀어보기를 권장한다.

## 마. 체계적인 글쓰기 연습으로 논술 대비하기

-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력, 통합적인 사고력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논리적인 글쓰기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복적이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체계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대부분의 대학교의 논술전형은 시간 제한과 글자 수 제한이 있다. 한국외대 역시 모든 문항에 글자 수 제한이 있으므로 주어진 글자 수에서  $\pm 10\%$ 를 초과하지 않도록 반복 연습해야 한다.
- 시험장에서 배부하는 B4 사이즈의 원고지에 제시한 글자 수에 맞춰 써야 하므로, 평소에도 그만큼의 글자 수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누구나가 읽어도 문장이 매끄럽게 읽힐 수 있도록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수필이나 소설이 아니므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논술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읽는 사람도 쉽게 이해가 되므로 만연체 문장으로 서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논술과 같은 논리적인 글쓰기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먼저 내세우고 근거를 제시해 나가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두괄식이 독자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평소 글쓰기 연습을 할 때도 두괄식으로 써 보는 연습을 많이 하기를 권장한다.
- 논술은 무엇보다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 제시문을 읽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종이에 손으로 직접 써 보기를 권장한다. 머리로만 대충 내 생각을 정리해서 끝내버리면 실전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써 보면서 연습해야 한다.
- 연필, 샤프, 볼펜으로 작성해도 되나,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고 지우개만 사용 가능하다.

## 사.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에 대비하여 논술 기회 잡기

- 한국외대 논술전형은 수능최저가 있으므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수능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논술을 써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므로 오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서울 캠퍼스는 Language & Diplomacy 학부와 Language & Trade 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수능최저가 2합 4 이내, 한국사 4 이내이고, 글로벌 캠퍼스는 1개 3 이내, 한국사 4 이내이다. 서울 캠퍼스의 Language & Diplomacy 학부와 Language & Trade 학부는 2합 3 이내, 한국사 4 이내이다.
- 내신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내신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수능최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 논술전형은 어느 학교나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실질경쟁률은 그만큼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수능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논술 역량이 아무리 우수해도 수능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논술을 써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므로 수능최저를 맞추기 위해 수능 대비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다.

5

연습문제



문제 1

제시문을 읽고 대중문화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150자 내외로 요약 하시오.

대중문화는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 있지만,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긍정적 기능으로는 우선 과거 소수 특권층이 누리던 문화적 혜택을 다수가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있다. 또한, 대중문화는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오락과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새로운 지식, 정보, 가치, 문화 등을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문화를 혁신하거나 새로운 여가 문화나 놀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대중문화는 대중 매체를 통해 대량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이 쇠퇴하고 문화적 다양성이 악화할 수 있다. 또한, 대중문화는 문화 상품과 결합하여 상업적 성격을 띠기 쉽다. 이로 인해 선정적이거나 쾌락적인 문화가 생산, 유통되어 대중문화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때로는 오락 성에 치우쳐 사람들의 현실 도피를 유도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기도 한다. 특정 세력이 대중 매체의 소유나 통제를 독점하면 대중문화의 생산과 전파가 정보 왜곡과 여론 조작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대	중	문	화	는	①문	화	적	혜	택	은	다	수	가	누
질	수	있	게	하	고	지	식	과	정	보	여가-또는	등	은	글자수 초과로	생략 가능
제	공	하	여	②기	존	문	화	의	혁	신	과	③문	화	의	
학	산	을	가	능	게	한	다	반	면	이	는	대	중	매	
체	를	통	해	대	량	으	로	확	산	되	어	①개	인	의	100
독	창	성	을	익	게	하	고	오	락	성	미	치	우	쳐	②정
치	적	무	관	심	을	조	장	하	기	도	한	다			


- ③ 개성의 쇠퇴, 문화적 다양성 악화
- ④ 정보 왜곡, 여론 조작에 이용

대체로 제시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해진 글자 수 범위 내에서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 너무 짧게 요약해 버린 면이 있다.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도 ±10% 정도의 범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핵심어 중심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 기능의 하나인 새로운 문화의 확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라는 부분은 생략해도 내용 전달에 크게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런 문장을 생략하고 부정적 기능 중 누락된 부분인 대중문화의 질 저하, 개성의 쇠퇴, 문화적 다양성 약화, 정보 왜곡 및 여론 조작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언급해 주는 것이 좋다.

 **예시 답안**

대중문화는 문화적 혜택을 다수가 누릴 수 있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문화의 혁신과 놀이 문화의 확산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독창성과 개성의 쇠퇴, 문화적 다양성의 약화 및 상업화, 정치적 무관심 조장과 정보 왜곡 및 여론 조작 가능성 등의 부정적 기능도 가진다. (150자)

 **문제 2** 다음 글을 2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는 모두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에 비해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문화는 서로 다른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사회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 것이므로 각자 나름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태도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이해하므로 어떤 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와 의미, 기능 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문화 상대주의는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줄이고 공존을 하기 위하여 더욱 필요한 태도이다.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문화 다양성이 유지되고, 다양한 문화가 교류할 때 문화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관습과 제도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주어) →

가	문	화	상	대	주	의	는	특	정	문	화	에	편	견	은
지	는		태	도	와	달	리	각	자	나	름	의	고	유	
한		가	치	가	있	다	고	보	는	태	도	이	다	이	러
한		이	유	로	✓	본	화	변	상	의	발	생	의	이	유
의		미	슴	에		대	해	잘	이	해	할	수	있	다	.
다		문	화		시	대	로		나	아	가	고	있	는	현
문		화		상	대	주	의	는	다	양	한	문	화	의	공
가		능	게	하	고	,	문	화	다	양	성	은	유	지	할
있		다	.	그	러	나	✓	있	지만	.	(글자수-조정)	존	엄	성	은
관		습	과		제	도	까	지	인	정	하	는	것	은	아
															니
															다

200 태도로 (글자수 초과로 수정)

이때의 '공존'은 문화의 '공존'이 아님.

(+문화의 발전)

어떤의-생략으로-내용-불분명

있지만. (글자수-조정)

제시문의 주된 내용은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것이므로 글자 수가 넘칠 가능성이 있다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문화 상대주의가 문화 현상의 발생 이유와 의미 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 현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이 부분은 생략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태도가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공존하는 데 필요한 태도라는 핵심 주장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글자 수 안에서 요약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자.

### 예시 답안

문화상대주의는 문화 간에 우열이 없고 각자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는 우리 사회의 갈등 축소와 공존을 위해 더욱 필요한 태도이다. 이런 편견 없는 태도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 유지와 교류를 통한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문화상대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고통을 주는 나쁜 관습과 제도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05자)





제시문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차이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기능론은 일의 중요도의 차이에 따라 자원을 차등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차등 분배의 결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이므로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첫 문장에서는 갈등론과의 명확한 대비를 위해 기능론의 핵심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좋은 요약이 될 수 있다.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야 하므로 마지막 문장에서도 기득권층의 분배 기준에 대한 내용보다는 갈등론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 예시 답안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은 능력과 기여에 따라 희소자원을 차등 분배한 결과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이런 분배가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고 본다. 반면, 갈등론은 구성원의 역할 중요도에는 차이가 없고 중요도에 대한 서열화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이미 결정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희소자원을 분배하므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공정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217자)



## 4. 인문계열-통계자료 포함



교과 연계 대입 논술 가이드북

- 인문·상경 계열, 약술형 논술 중심으로 -

07 건국대학교

08 인하대학교

# 07 건국대학교

2026 논술 고사 일정	전형 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시험 시간	문항 수	글자 수, 배점	주 출제 교과 및 과목 (출제 범위)
2025. 11.15. (토)	논술 100	국수영탐(1과목) 중 2개 합 5 이내 한국사 5 이내	100분	2문항	1번: 401~600자, 40점 2번: 801~1000자, 60점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세계지리 문학

## 1 건국대학교 논술 준비



### 가.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연도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024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세계지리, 통합사회, 문학	인간, 갈등, 접점, 이해, 공존, 생명, 존중, 행복
2023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통합사회, 사회·문화	인간, 자연, 환경, 리듬, 조화, 존중, 공존, 행복
2022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통합사회, 사회·문화, 세계지리	선한 본성, 호모 에코노미쿠스, 공공선, 공정 무역

### 나. 문항 유형 특성

- 건국대학교 인문 논술은 두 문항이 출제됨.
- 1번 문항은 도표 해석, 2번 문항은 문학 제시문 관련임.
- 문항 예시

연도	문제 1 (도표 해석)	문제 2 (소설 분석)
2022	[가]와 [나]의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대]의 자료를 분석하십시오. (401~600자) [40점]	[가], [나]와 관련지어 [라]의 인물들에 대해 논평하십시오. (801~1,000자) [60점]
2023	[가]와 [나]를 참고하여 [대]의 도표를 분석하십시오. (401~600자) [40점]	[가]와 [나]의 관점을 반영하여 [라]의 인물 간 관계 양상을 논하십시오. (801~1,000자) [60점]
2024	[가]와 [나]를 참고하여 [대]의 도표를 분석하십시오. (401~600자) [40점]	[가]와 [나]의 시각에서 [라]에 대하여 논하십시오. (801~1,000자) [60점]

**문제 1**

- ▶ 도표 해석형 문항으로 도표나 통계 자료([다])를 제시하고, 이를 [가], [나] 제시문의 관점 또는 개념을 활용하여 해석하는 방식임.
- ▶ 답안 작성을 위해 [가], [나]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도표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제시문 간의 관계에 따라 나열형, 대립형, 융합형 등으로 구조화할 수 있음.
- ▶ 권장 답안 구성은 다음과 같음.

문단 1: [가], [나] 핵심 개념 요약 (100~150자)  
 문단 2: 도표 해석 및 제시문 적용 (300~350자)

**문제 2**

- ▶ 소설(서사) 분석형 문항으로 비교적 긴 소설 제시문([라])을 바탕으로 [가], [나]의 관점이나 개념을 적용하여 인물 분석, 관계 해석 등을 요구함.
- ▶ 답안 작성을 위해 소설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핵심 줄거리를 요약하는 능력이 필요함. 논제의 요구에 맞게 소설 구성과 인물 관계를 재정립하여 서술해야 하며, [가], [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라]의 인물을 평가하거나 해석해야 함.
- ▶ 권장 답안 구성은 다음과 같음.

문단 1: [가], [나] 핵심 관점 요약 (150~200자)  
 문단 2: [라] 줄거리 요약 (50~100자)  
 문단 3: [가]의 시각에서 [라]의 인물 해석 (250~300자)  
 문단 4: [나]의 시각에서 [라]의 인물 해석 (250~300자)

**다. 출제 자료 및 도서 출처**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4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세계지리, 통합사회, 문학 등의 교과서 내
2023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통합사회, 사회·문화 등의 교과서 내
2022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통합사회, 사회·문화, 세계지리 등의 교과서 내

※ 건국대학교 논술의 출제 자료는 모두 교과서에서 제시됨.

## 2

## 건국대학교 기출문제 (2023. 11. 18(토) 시행)



## 문제 1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 문제 2

[가]와 [나]의 시각에서 [라]에 대하여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 제시문 (가)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찹찹해서 심기가 훌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알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뜰에 생기가 돌 것이다.

-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 제시문 (나)

좋은 논쟁이란 ‘상호 부딪침’이 있는 논쟁을 뜻한다. 그러자면 논점이 팽팽하게 부딪쳐야 한다.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서 만나 마치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 자신의 논리로 상대와 맞서 싸워야 한다.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만남’과 ‘부딪침’에 있다.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서로 견주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유로 논쟁은 싸움 같지만 사실은 상호 이해의 장이요, 청중들에게는 즐거움과 교육의 장이다. 서로 부딪치는 지점을 논쟁 용어로는 ‘접점’이라고 하는데,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쯤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 듯 자신의 소리만 들고 살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동종 교배하듯 서로 동의하며 기존의 입장을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편향(집단 극화)이나 쓸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소수의 여론 주도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조하면서 기존의 의견과 입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 고등학교 『독서』

! 제시문 (다)

[도표 1]



[스위스]

스위스는 4개의 공용어와 방언이 사용되고 있으나, 지방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가 발달해 있어 갈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벨기에]

벨기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지역(플랑드르, 왈롱)으로 나뉘어 있는데, 산업과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해 두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고 언어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 고등학교 『세계지리』

[도표 2]

※ 주요 국가 행복 지수 순위

완전한 민주주의 (8.0 이상)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영국, 미국
미흡한 민주주의 (4.0~8.0 미만)	한국, 일본, 벨기에, 인도, 멕시코, 타이, 터키
권위주의 (4.0 미만)	베트남, 수단, 러시아, 중국, 북한

(이코노미스트, 2015)

[도표 3]

※ 주요 국가 행복 지수 순위

순위	국가	지수
1	덴마크	7.526
2	스위스	7.501
3	아이슬란드	7.498
4	노르웨이	7.413
5	핀란드	7.404
6	캐나다	7.339
7	네덜란드	7.334
8	뉴질랜드	7.313
9	호주	7.291
10	스웨덴	7.104
	...	
18	벨기에	6.929
53	일본	5.921
58	대한민국	5.835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 2016)

- 고등학교 『통합사회』

! 제시문 (라)

그 무렵 집에 드나들던 파출부가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왜 사모님 같은 분을 효부 표창에서 빠뜨리느냐 말예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다 효자 효녀 효부라고 신문에 나고 상금도 타던데.”

그 여자가 순진하게 분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의 완벽한 위선에 절망했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쫓긴 도둑이 살의를 품고 돌아서듯이 그 여자에게 돌아서서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오늘 우리 어머니 목욕을 좀 시키고 싶은데 아줌마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그러근요. 도와 드리고말고요.”

“목욕탕에 물 받으세요.”

나는 벌써부터 내 속에서 증오와 절망적인 쾌감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다. 아줌마 보는 앞에서 시어머님의 옷부터 벗기기 시작했다. 조금도 인정사정 두지 않고 거칠게 함부로 다루었다. 목욕 한번 시키려면 아이들까지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되어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가며 아무리 참을성 있고 부드럽게 다루다가도 종당엔 다소 폭력적으로 굴어야 겨우 그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엔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다루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그분도 내 살기등등한 태도에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반항을 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저항했지만 나 역시 거침없이 증오를 드러내니까 힘이 무력무력 솟았다. 옷 한 가지를 벗겨 낼 때마다 살갓을 벗겨 내는 것처럼 절절한 비명을 질렀다. 보다 못한 아줌마가 제발 그만해 두라고 애걸했다. 알지 못하면 가만있어요. 이 늙은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씨근대며 말했다. 그리고 아줌마도 내 일을 도울 것을 명령했다. 노인은 겁에 질려 목선 소리로 갓난아기처럼 울었다. 발가벗긴 노인을 반짝 들어다 탕 속에 집어넣고 다짜고짜 때를 밀기 시작했다.

“나 죽는다. 나 죽어. 저년이 나 죽인다.”

노인은 온 동네가 떠나가게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모질게 때를 밀었다.

“너무하세요. 그렇게 아프게 밀 게 뭐 있어요?”

아줌마가 노인 편을 들었다. 그녀는 이제 아무 도움도 안 됐다. 혼비백산한 얼굴로 구경만 했다.

“알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니까요. 아무리 살살 밀어도 죽는 시늉할 게 뻔해요.”

골치가 빠개질 듯이 멩하고 귀에서 잉잉 소리가 났다. 나는 남의 일처럼 내가 미쳐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골속에 아니 온몸에 가득 찬 건 증오뿐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자꾸 증오를 불어넣고 있었다. 마치 터뜨릴 작정하고 고무풍선을 불듯이. 자신이 고무풍선이 된 것처럼 파멸 직전의 고통과 절정의 쾌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불안간 아찔하면서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그런 중에도 나는 냉혹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래도 나를 효부라고 할 테냐고 묻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몸져누웠다. 파출부도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몸살에 신경 안정제의 후유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까지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안 꼴이 엉망이 되었다. 정신과 의사도 그런 귀뜸을 했지만, 시어머님을 한동안 어디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그분의 친정 조카들로부터였다.

※ **중간 부분 줄거리** : ‘나’의 남편은 시어머니가 지낼 수 있는 양로원과 정신 치료를 겸한 수용 기관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일요일마다 괜찮다는 수용 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실망하여 돌아온다. 어느 일요일,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정 쪽에서 추천해준 어느 암자를 찾아가는 길에 ‘나’도 동행한다. 부부는 암자로 향하는 시골길을 걷다가 한 구멍가게에 들어가 땀을 식힌다.

나는 주인을 찾아 가게 터 뒤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 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 바가지?”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다.

“그래요. 해산 바가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어 오는 걸 느꼈다.

내가 첫애를 났을 때 시어머니는 해산달을 짚어 보고 선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 바가지를 구해 오게 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국밥 지을 미역 쌀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의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 놓았다. 또 손수 장에 나가 보안 젓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 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쾅겼다.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 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 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원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쌀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때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忌)하는 삼칠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였다. 그분이 아직 살아 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함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있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릿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삼 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던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 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서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 고등학교 『문학』

## 3

## 건국대학교 기출문제 분석



## 가. 문항 해설

## 문제 1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 [가]는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꿈으로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가치와 긍정적 모습을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나]는 서로 의견이 갈리고 부딪치는 ‘접점’이 오히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상대에 대한 이해와 생산적 공존을 가능하게 함을 말하고 있다. [가]에 언급된 고정된 관점으로 사물을 평가하는 태도, [나]에 묘사된 자신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면서 ‘접점’을 싸움처럼 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편견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세상의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열린 눈’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 [도표 1]은 서로 대비되는 두 공동체를 보여준다. 네 개의 언어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는 [가]의 ‘열린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면서 경제적 불균형과 갈등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벨기에에는 고정된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상대와의 차이를 보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유형의 예시로 볼 수 있다.
- [도표 2]와 [도표 3]은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와 행복지수를 보여주는 통계로, 분석을 위해서는 [가]와 [나]의 논지를 대입시켜 상위권에 속하는 스위스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벨기에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의 관점에서 보면 벨기에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타자의 긍정적 면과 접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여 상호 갈등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지 못한 것 역시 공동체 구성원의 언어적 차이를 갈등 유발 요소로만 바라보는 고정된 관념의 산물일 수 있다. 또한, 이런 차이를 생산적인 논쟁, 즉 갈등 해소를 통한 상호 발전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채 동종 교배하듯 비슷한 집단끼리만 결속하려고 하는 태도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고 이는 전체 구성원의 낮은 행복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반면 스위스는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법한 상황에서도 서로의 차이와 상대가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상생 공존하기에, 높은 민주주의 수준과 행복지수를 성취했다고 할 수 있겠다.
- [가]와 [나]의 논지를 근거로 삼아 다언어 국가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와 벨기에 간에 행복지수와 민주주의 지표상 적잖은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답안 작성의 관건이 된다.

**문제 2**

[가]와 [나]의 시각에서 [라]에 대하여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 [문제 2]는 지문 [가], [나]의 시각으로부터 [라]에 나타난 상황과 인물의 변화를 논술할 것을 요구한다. [가]는 익숙하고 일상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사물을 거꾸로 보거나 시각을 바꾸는 시도를 통해서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깨고 사물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음을 말한다.
- [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논쟁의 장에서 '만남'과 '부딪침'을 경험하고 대치하는 가운데 '접점'을 발견함으로써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좋은 논쟁의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논한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가], [나]의 요지를 활용하여 [라]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나]의 관점을 반영해서 [라]의 인물과 상황의 변화 양상과 함의를 논하는 것이기에 개념 요약에 많은 분량을 할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지문은 박완서 작가의 소설「해산 바가지」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에서 치매가 심한 시어머니를 돌보다 지쳐서 수용 기관에 맡기려던 며느리 '나'는 우연히 시골 초가지붕 위에서 보름달처럼 둥글고 잘생긴 박덩이를 보고 해산 바가지를 떠올린다. '나'는 옛날 시어머니가 '나'의 해산 때 가장 잘생기고 정갈한 박을 골라 해산 바가지를 마련해서 그 해산 바가지로 미역과 쌀을 씻어 정성스레 음식을 해주던 기쁜 얼굴, 그리고 그 가운데 보여주었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돌이켜 깨닫는다. '나'는 경건함마저 느껴졌던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기억해내고, 더 이상 위선이 아닌 진심으로 시어머니가 임종할 때까지 돌본다.
- 수험생들은 [라]의 인물과 상황 변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나]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논쟁의 장에서 '만남'과 '부딪침'을 경험하지만 팽팽한 논쟁 가운데 서로 '접점'을 발견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며느리인 '나'는 치매에 걸려 아이처럼 행동하는 시어머니를 돌보다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고 증오심마저 느낀다. 폭력적인 '나'의 마음은 치매에 걸려 망령을 부리는 시어머니의 괴이한 행동을 포용하지 못하고 '나'와 시어머니가 서로 강하게 부딪치며 힘을 소모하는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시어머니를 수용 기관에 보내어 서로 만나지 않고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때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자신의 출산을 위해 준비했던 '해산 바가지'를 보면서 반성하게 된다. '해산 바가지'는 '나'와 시어머니가 존중과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던 아름다웠던 시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나'의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접점'이기도 하고 또한 '나'와 시어머니를 이어주는 '접점'이 되기도 한다.

## 나. 채점 기준

### 문제 1 배점: 40점

[문제 1]은 타자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설명하는 [가]와 [나]의 요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언어로 인해 경제적 권역과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 [다]의 스위스와 벨기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를 [도표 2] 민주주의 지수, [도표 3] 행복지수와 연결해 분석하는 것을 요구한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의 핵심 내용 이해와 [다]에 대한 적용	① [가]와 [나]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가]와 [나]의 논지는 유사하며 주장도 선명하다. 두 지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열린 태도와 닫힌 태도를 비교하면서 선입견을 벗어나 상대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관계를 증진 시킬 뿐 아니라 결국 이런 접점을 수용할 때 나의 발전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두 지문의 공통 주장과 근거를 잘 이해 하면서 이를 도표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가]와 [나]를 연결하면서 도표 분석에 적절하게 적용하였는가? [가]는 하나의 시선으로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고정관념’과, ‘열린 눈’, 즉 선입견을 탈피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창의적 태도, 그리고 [나]는 대립하는 상대와의 접점을 수용하면서 공존하는 개방성과, 집단편향에 사로잡혀 상대를 배척하는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논지를 [도표 1]의 두 공동체에 적용해서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표 2], [도표 3]에서 두 공동체의 주요 지표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를 [가]와 [나] 논지를 통해 분석하여야 한다.
	③ [가]와 [나]에 나오는 대립적 태도를 [도표 1]의 두 공동체에 적용하였는가? 스위스는 4개의 언어권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서 공존하는 모습이, [가]에서 열린 눈으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지방자치제를 발달시키는 태도와 연관된다. 반면 벨기에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산업과 소득의 차이로 인한 경제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상대와의 접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대립적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가]와 [나]의 논지를 [다]의 두 공동체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주의 수준이 한 공동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그 사회의 행복지수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면 좋은 답안일 수 있다.
[다] 도표의 내용 이해, 그리고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④ 언뜻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나 행복지수는 물질적 부나 정치적 안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조화와 협력 관계다. 특히 스위스나 벨기에처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경우 열린 눈과 수용적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가]와 [나]의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스위스와 벨기에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도표 2], [도표 3]에 제시된 민주주의 수준과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지수와도 연관될 수 있음을 잘 설명해야 한다.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지문 요지와 핵심 개념을 도표 내용 분석에 활용하면서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논리적인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5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
B+	9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은 충족하였으나 그중 한 사항이 다소 미흡
C	7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D	6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E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문제 2 배점: 60점

[문제 2]는 [가]와 [나]의 시각을 반영하여 [라]에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의 변화를 논평하는 문제이다.  
[문제 2] 답안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와 [나]에 대한 이해	① [가]와 [나]의 핵심 개념을 바르게 파악하였는가? [가]는 사물을 거꾸로 보았을 때 뜻밖에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각도를 달리해서 보았을 때 일상적인 인식과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논쟁의 장에서 '만남'과 '부딪침'을 경험할 때, 팽팽한 논쟁 가운데 서로 '접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상호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좋은 논쟁의 생산적이고 긍정적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② [라]의 의미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와 [나]의 연결 고리를 찾았는가? 지문 [가]와 [나]는 사람과 사물 사이의 '상호 부딪침'의 긍정적 효과와 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열린 눈'의 가능성을 주요한 논제로 삼는다. 두 지문은 일상적이고 고정된 틀을 고집하는 대신 '상호 부딪침'을 통해 상대방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점과 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벗어나 '거꾸로 보기'처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주도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즉, 부딪침을 통해 상대방과의 접점을 발견하고, 틀에 박힌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린 눈'으로 상대방이 가진 새로운 면을 찾음으로써 상호 이해와 갈등 해소를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	③ [라]에 나타난 사건과 인물의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라]의 소설은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포용하지 못하고 수용 기관에 맡기려던 며느리 '나'가 우연히 '해산 바가지'에 대한 기억을 매개체로 삼아 그 옛날 시어머니가 자신이 해산하고 아이들을 낳을 때 보여 주었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되돌아보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는 치매가 심한 시어머니를

I 논술전형 바로 알기

II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III 부록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p>돌보는 일에 지쳐서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 기관을 보러 갔다가 시골 마을 초가지붕 위의 박을 보고 시어머니가 자신의 출산을 위해 정성스럽게 ‘해산 바가지’를 준비해주었던 일을 기억해낸다.</p> <p>‘해산 바가지’는 ‘나’에 대한 시어머니의 존중과 예우를 상징하며, 두 사람의 경험을 이어주는 접점이 되고 동시에 ‘나’에게 ‘거꾸로 보기’를 할 수 있는 ‘열린 눈’을 찾아주는 매개가 된다. ‘나’는 경건함마저 느껴졌던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다시 감사하게 되었고, 다시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한다. ‘나’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위선을 바탕으로 행하는 효도가 아니라, 솔직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p>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한 [라]의 분석	<p>④ [가]와 [나]의 관점을 반영하여 [라]에 나타난 사건의 흐름과 인물의 심리 변화 양상을 논하였는가? [가]와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심리 변화와 사건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의 망령스런 행동과 거센 저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며 증오심을 느낀다. 이때의 ‘나’와 시어머니는 [나]에서 설명하듯 서로 대립하며 부딪치고 있지만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 듯 자신만의 소리를 듣고’ 있는 상태로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다. 심지어 ‘나’는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 기관을 찾아서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우연히 떠오른 해산 바가지의 기억은 ‘나’와 시어머니가 첫 생명을 준비하면서 공유했던 행복한 경험을 생각나게 했고, ‘나’가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다시 깨닫게 된 접점이 되었다. 즉, ‘해산 바가지’는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소통하며 공유했던 아름다웠던 시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로부터 ‘나’는 [가]의 문장에서 보듯 ‘거꾸로 보기’를 통해 선입견에서 벗어나 ‘열린 눈’으로 자신이 낳은 생명을 예우했던 시어머니의 인품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떠올리게 되었고 자신 역시 시어머니의 생명에 대해 예우해야 할 당위성을 깨닫는다. ‘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돌보았고 시어머니 역시 ‘나’를 잘 따르며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이 나타난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5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
B+	9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은 충족하였으나 그중 한 사항이 다소 미흡
C	7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D	6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E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 다. 예시 답안

### 문제 1

[가]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이나 사물의 새로운 가치와 긍정적 모습을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는 서로 의견이 달라 부딪치는 접점이 오히려 상대에 대한 이해와 생산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도표 1]은 네 개의 언어권으로 나뉘어 있으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발전하고 있는 스위스와, 언어가 다른 두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면서 경제적 불균형과 갈등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벨기에의 대비된 상황을 보여준다. [도표2]와 [도표 3]은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과 행복지수를 각각 제시하는데, 스위스는 이 두 지표에서 모두 최상위권인 반면 벨기에는 스위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와 [나]의 관점에서 벨기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타자의 긍정적인 면과 접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 상호 갈등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 수준이나 행복지수 등에서 스위스에 뒤처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스위스는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법한 상황에서도 서로의 차이와 상대가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아 상생 공존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행복지수를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 [598자]

### 문제 2

[가]는 같은 사물에 대해서도 각도를 달리하면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면모가 보인다고 말한다. [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만남과 부딪침을 통해서 접점을 발견하면, 상호 간 차이점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말한다. [가]와 [나]를 종합하면, 고정된 틀을 고집하는 대신 상호 부딪침을 통해 상대방과의 접점을 발견하고 선입견에서 벗어나 열린 눈으로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에서 며느리인 '나'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 기관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시골 초가지붕 위의 박을 보고서 시어머니가 해산을 앞둔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해산 바가지를 준비하고 그 해산 바가지로 미역과 쌀을 씻어 음식을 준비해주었던 일을 떠올린다. 나는 시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깨달음으로써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된다.

처음에 '나'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의 명령을 참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며 증오심을 느낀다. 이때의 '나'는 [나]에서 보듯이 시어머니와 서로 대립하며 부딪치지만 '자신만의 소리만 듣고' 있는 상태로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다. 심지어 '나'는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 기관을 찾아서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해산 바가지의 기억은 '나'와 시어머니가 첫 생명을 준비하면서 공유했던 행복한 경험을 생각나게 했다. 즉, 해산 바가지는 '나'에 대한 시어머니의 존중과 예우를 상징하며,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소통했던 경험의 접점이 되었고 동시에 '나'에게 열린 눈으로 생명을 예우했던 시어머니의 인품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발견하게 하는 매개가 되었다. 이로부터 '나'는 [가]의 문장에서 보듯 거꾸로 보기를 통해 자신 역시 시어머니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당위성을 깨닫는다. '나'는 더 이상 위선이 아닌, 솔직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시어머니 역시 '나'를 잘 따르다가 행복한 임종을 맞는다. [984자]

## 4

## 건국대학교 논술 준비 팁



### 가. 교과 활동을 통해 준비하기

- 건국대학교 인문논술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에서 출제되며, 특히 국어와 사회 교과서에 기반한 제시문과 도표가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건국대 논술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 1) 국어 교과

- 작품을 읽고 요약하기 연습: 문학 작품이나 설명문, 논설문 등의 다양한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는 연습이 중요하다. 특히 중심 문장과 논지를 파악하고,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문제 제시문의 논지 요약하기 연습: 건국대 논술에서는 제시문의 논리 전개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결하게 요약해 보는 훈련이 도움이 된다.

#### 2) 사회 교과

- 교과서 읽고 요약하기 연습: 사회·문화, 윤리, 정치와 법 등의 교과서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과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약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교과서 내 활동 문제나 보충 설명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리 노트를 만들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 도표, 그림, 제시된 자료 해석하기 연습: 사회 교과에서는 다양한 통계 자료, 그래프, 그림이 제시문으로 출제될 수 있다. 이를 정확히 읽고, 어떤 사실이나 추론이 가능한지 설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시각 자료를 반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좋다.

### 나. 해당연도 논술 가이드북을 활용한 모의논술 문항 연습

- 건국대학교에서 매년 발간하는 논술 가이드북에는 출제 방향과 예시 문항이 수록되어 있어 실제 논술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하기에 적합하다. 제시문 분석부터 자신만의 논리 전개까지 전체 논술 과정을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다. 과년도 기출문제를 활용한 논술 문항 연습

- 과거에 출제된 건국대 논술 기출문제를 분석해보고 직접 써보는 것은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출제 유형, 제시문 구성 방식, 도표의 해석 요구 등을 파악하면서 자주 나오는 주제나 형식을 익히면 논술의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 건국대학교 인문논술은 교과서 기반 사고력 평가에 초점을 둔 시험이다. 복잡한 배경지식을 외우기보다는,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이해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기출문제 풀이와 교과서 내용 중 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리를 병행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연습문제



※ 건국대 논술 문항은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연결된 형태로 제시됩니다. 같이 풀어야 합니다.



문항 1

제시문 [가], [나]를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가]

고자(告子)가 말하였다. “사람의 본성은 여울물과 같아서 동쪽을 터 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을 터 주면 서쪽으로 흐른다. 사람의 본성을 선이나 악으로 구분 지을 수 없음을 여울물에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자 맹자(孟子)가 말하였다. “물에 진실로 동서의 구분이 없지만 위아래의 구분도 없단 말인가? 사람의 본성이 날 때부터 착한 것은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 사람이란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없으며 물 또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법이 없다. 지금 물을 손으로 쳐서 이마 높이까지 튀어 오르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거스르게 하여 산 높은 곳에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일 뿐이니 사람이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중략)

정약용은 인간을 선택하고자 하면 선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하면 악할 수 있는 자유 의지, 즉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하늘은 인간에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주어, 선(善)을 하고자 하면 선을 할 수 있고, 악(惡)을 하고자 하면 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이리 저리 움직여서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자주지권은 자기에게 있다. 이것은 동물에게 정해진 마음이 있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 자기의 공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기의 죄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마음의 자주지권이며, 이른바 본성이 아니다.

- 정약용, 『맹자요의』

정약용은 자주지권을 바탕으로 도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성리학의 달리 덕을 인간의 선천적 본성으로 보지 않고, 일상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선을 따르기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어렵고, 악을 따르기란 언덕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쉽다.”라는 말로 일상에서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p.41,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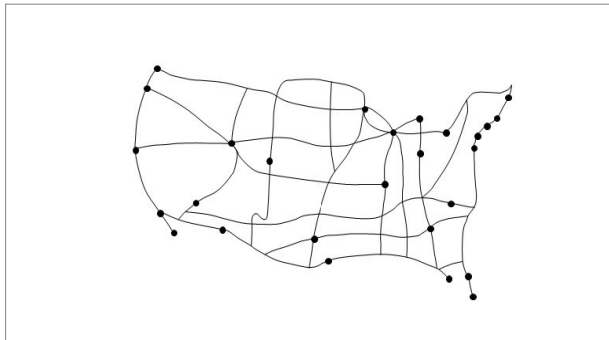
[나]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 공간인 인터넷을 비교한다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둘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둘을 한 가지 틀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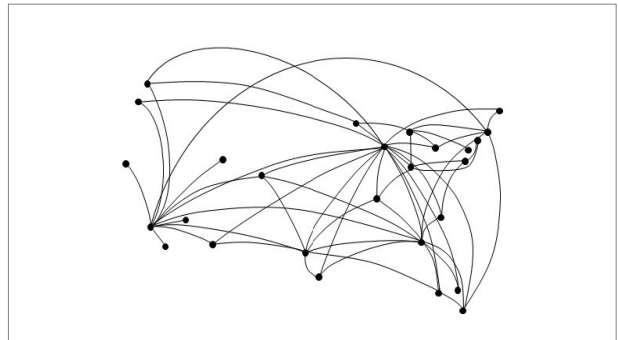
네트워크란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점이 되고 그 개인의 사회 관계가 선이 되어,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된다. 인터넷에서는 점이 컴퓨터이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기기를 연결하는 전자기파가 선이 되어, 결국 점과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된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점을 ‘노드(node)’라고 하고, 선을 ‘연결선’이라고 한다.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와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한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이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는 ‘허브(hub)’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한다. 척도가 없다는 것은, 평균 연결선 개수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과는 달리 항공망에서는 각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개수가 적은 노드부터 연결이 많은 허브까지, 분포가 넓어서 특정한 숫자(척도)를 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네트워크로 표현해 보면 많은 경우 복잡한 형태인 항공망 같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항공망처럼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될까? 논문을 쓸 때 연구자들은 유명하지 않은 논문보다는 유명한 논문을 인용하고 싶어 한다. 한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그 논문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인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논문에 연결선이 많아지는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누리 문서라든가 친구 관계에도 마찬가지이다.



▲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



▲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

- 고등학교 『독서』 (지학사, p.160~161)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가)	는	인간	의	본성	에	대	환	사	상	가
들	의	견	해	를	서	술	한	다	,		
막	설	을	극	장	하	며	,	인	간	의	본
영	향	를	받	아	형	성	의	는	것	으	로
맹	자	는	성	선	설	을	극	장	하	며	본
은	화	지	만	,	환	경	에	의	해	달	라
를	극	장	한	다	,	성	악	종	은	자	극
하	며	,	인	간	스	스	로	의	의	지	에
이	달	라	지	고	,	그	게	대	안	책	임
세	계	것	을	를		강	조	한	다	.	
(가)에서	(나)	는	사	회	와	인	터	넷	의	공	통
처럼	네	트	취	크	를	두	가	지	유	형	으
제시문의	그	두	가	지	유	형	중	허	브	를	지
핵심을	복	잡	한		‘	항	공	망	갈	은	네
밝힐 것	중	하	며	,	이	리	의	세	상	이	이
	네	트	취	크	를	지	니	고	있	을	를
											서
											술
											한
											다
											.

(가)에서  
처럼  
제시문의  
핵심을  
밝힐 것

(가)는 ~에 대한 글이다. 식의 요약을 먼저 하고 설명하는 것 좋음.

#2

두 가지 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음.

#1

#3

첫 번째 연습문제는 특별한 요구 사항 없이 제시문 (가), (나)를 요약하는 문제이므로,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은 제시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1 두 제시문의 요약에서는 각 제시문의 분량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분량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제시문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요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2 각 사상가의 입장은 비교적 잘 설명했으나, 표현이 다소 모호한 부분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글이 길어지지 않도록 각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추려 간결하게 정리하거나, ‘선과 악의 행위는 본성뿐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두 사상가의 관점을 요약하는 방식도 효과적이다.

#3 분량 조절에 실패한 결과로 [나] 제시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네트워크 유형으로 제시된 ‘고속도로망’과 ‘항공망’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은 항공망 네트워크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문장을 활용하면, 핵심 내용이 빠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시 답안**

(가)는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로, 고자는 사람의 본성을 선과 악으로 구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날 때부터 선하나 형세가 그를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약용은 본성보다는 의지가 선악을 결정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자주지권이라 하였다.

(나)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실제 세상과 가상 공간은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네트워크는 모양에 따라 연결되는 선의 수가 균일한 고속도로망 같은 형태와 허브에 선이 집중되는 항공망 같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를 복잡계 네트워크라 한다. (300자)

I 논술전형 바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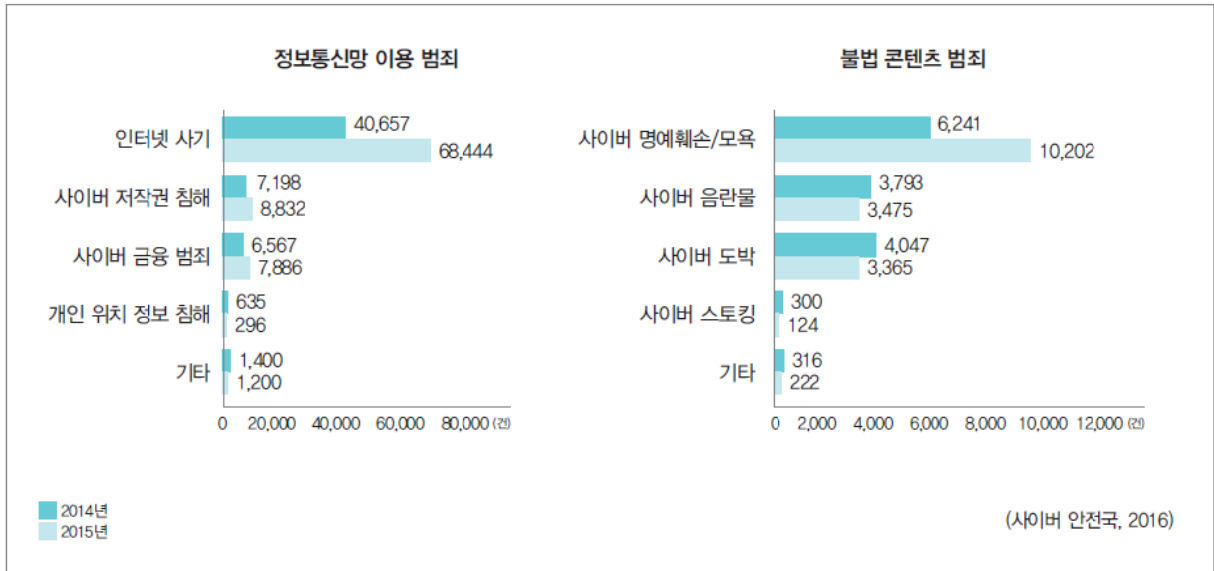
II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III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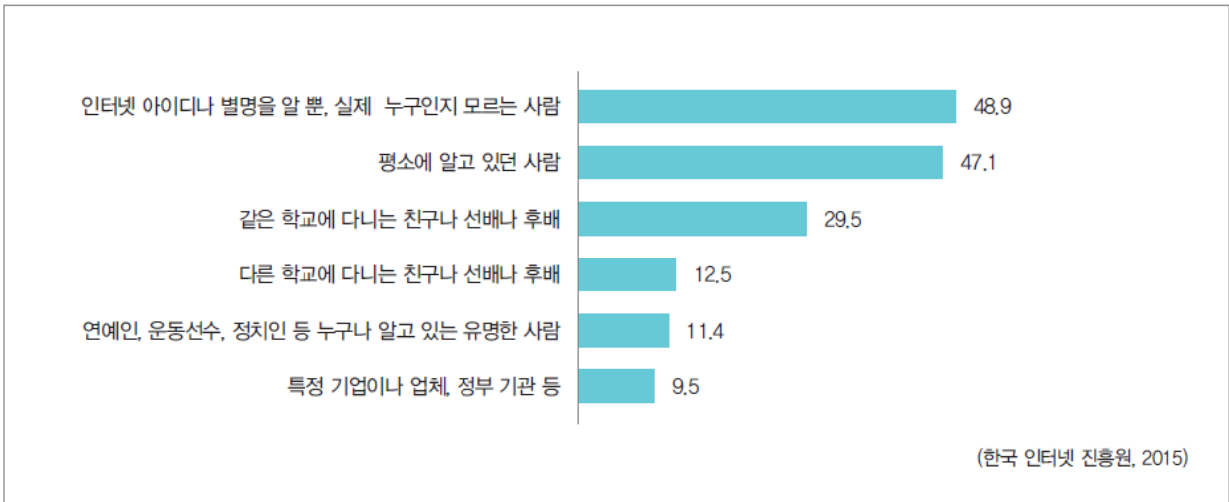
문제 2

위 1번 문제의 [가]와 [나]를 참조하여 아래 [다]의 도표를 분석하십시오. (401-600자)

[다]



[도표 1] 정보사회의 사이버 범죄



[도표 2] 학생의 사이버 폭력 가해 대상(중복응답(단위: %), 2015년)

- 고등학교 『통합사회』 (동아, 비상교육, p.87)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I 논술전형 바로 알기

II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III 부록

요구사항의 핵심이 도표 해석이기 때문에 도표 해석을 먼저하는 것이 좋다.

도표해석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생략 가능

이 문장을 (가) 제시문을 요약하는 글의 서두로 작성

주장+근거로 명확한 요약 할 것-명료하지 않음.

(가),(나)를 활용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가)에서 주장한 환경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1	(가)	)	에	서	는	사	람	의	본	성	에	대	하	여							
	각	각		성	무	선	악	설	,	성	선	설	자	주	지	권	을	주				
	장	하	는	사	상	가	들	이		나	온	다	.	이	들	은		모	두			
	사	람	이	주	변	환	경	에	따	라	선	해	질	수	도	,						
	악	해	질	수	도	있	음	을	인	정	한	다	.	(나)	에				100			
	서	는	사	회	가	인	터	넷	과	같	이	네	트	워	크	이						
	며	,	더	많	은	사	람	들	이	선	택	한	것	을	선							
	택	하	려	는	심	리	때	문	에	허	브	를	가	진	네							
	트	워	크	가	형	성	된	다	고	말	한	다	이	를	바	랑						
	으	로		#2	(다)	의	도	표	를	분	석	해	보	면	,	인	터		200			
	넷	네	트	워	크	를	통	해	일	어	나	는	범	위	가							
	증	가	하	고	있	으	며	,	인	터	넷	사	기	와	사	이	비					
	명	예	혜	손	/	모	욕	이	가	장	많	다	는	것	을	알						
	수	있	다	사	이	비	폭	력	가	해	대	상	은	인								
	터	넷	아	이	디	나	별	명	만	알	고	누	구	인	지				300			
	모	르	는	사	람	이	가	장	많	은	것	으	로	나	타							
	난	다	#3	다	수	의	선	택	을	따	르	려	는	경	향	때						
	문	에	남	들	의	반	응	에	따	라	누	구	인	지	도							
	모	르	는	사	람	에	게	사	이	비	폭	력	을	가	하	기						
	도	한	다	는	것	을	말	수	있	다	.	이	처	럼					400			
	사	회	는	네	트	워	크	를	이	극	고	,	개	인	들	은	노					
	드	가	되	어	서	로	상	호	작	용	한	다	.	또	한	,	도					
	표	에	나	타	난	사	이	비	범	위	를	저	지	를	사							
	람	들	은	분	래	악	한	인	격	을	가	진	것	이								
	마	니	라	주	변	환	경	에	영	향	을	반	앗	을	가	#4						
	능	성	이	코	다	.	(가)	에서	주	장	한	환	경	의	영	향	을	나	타	는	것	이다.

답을 작성한 학생은 제시문과 도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루어졌으나, 이해한 내용을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더 필요해 보인다.

#1 [가]와 [나]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은 비교적 충실하나, 이 문항의 핵심은 [다] 도표의 해석이다. 도표를 분석하면서 [가], [나] 제시문의 관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글의 전개 순서가 자연스럽지 않아 핵심 전달이 다소 약해졌다. 제시문의 요구사항에 따라 글의 구조를 명확히 구성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3 [가], [나] 제시문을 바탕으로 도표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평가 기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에 따르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세계는 전 세계를 통합하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강력한 허브로 볼 수 있고, [가]의 관점에서 도표를 해석하면, 익명화된 복잡한 사이버 네트워크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매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4 '가능성이 크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가] 제시문에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와 같이 명료하고 근거가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시 답안

[도표 1]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범죄 양상과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신종범죄의 급증 현상을, [도표 2]는 학생 상당수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은 물론 인터넷 상에서 만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에 따르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세상은 전 세계를 통할하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강력한 허브라 볼 수 있고, [가]의 관점에서 도표들을 보자면, 복잡하고 익명화된 사이버 네트워크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발현시키는 매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인터넷은 활발한 정보교환과 실시간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 확대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범죄를 확산시키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맹자가 말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게 되는' 형세, 혹은 정약용이 언급한 '악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사이버 세상이 제공한다는 것이며, 그 결과 사이버 세상은 사람들을 여러 범죄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로 만들 수도 있는 복합적 기능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 08 인하대학교

2026 논술 고사 일정	전형 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시험 시간	문항 수	글자 수, 배점	주 출제 교과 및 과목 (출제 범위)
2025. 11. 29. (토)	논술 70 교과 30	x	120분	2문항	1번: 1,000자(±100자), 60점 2번: 600자(±60자), 40점	국어과, 사회과 관련 과목

## 1 인하대학교 논술 준비



### 가.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연도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025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 국제 협약, 기본권, 공공재, 공동선, 공리주의, 생태주의, 자율과 규제
2024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경제	자유 의지, 책임, 자유주의, 규범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 기능주의적 책임, 윤리, 법
2023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경제, 세계사, 정치와 법, 문학	저출산, 인구문제, 가족, 결혼, 독신가구, 혼인가구, 조세, 출산장려, 출산지원, 공정성, 개인권리

### 나. 문항 유형 특성

- 인하대 인문계열 논술 고사는 2024학년도부터 문항 유형이 변경됨.
  - 2023학년도까지는 [문항 1]과 [문항 2]를 연계하여 출제되었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두 문항이 연계되지 않고 각각 독립된 논제로 구성됨.
  - 문항 1번의 경우 2023학년도까지는 논제의 개념과 쟁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서술 조건을 자세하게 나열하여 수험생이 조건에 부합하는 글을 썼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논제의 개념과 쟁점을 수험생이 제시문을 통해 파악하도록 하고, 주장에 대한 세부 조건을 명시하지 않음.
  - 문항 2번의 경우 2023학년도까지는 4개의 도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3개의 도표 자료를 제시함.

**문항 1**

- ▶ 문항 1번의 제시문은 5개의 소 제시문((가)~(마))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가)에서는 논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서로 다른 두가지 관점(방안)을 제시함.
- ▶ (나)~(마)는 각각 (가)의 두 가지 관점(방안) 중 하나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됨.
- ▶ 수험생은 (가)의 두 가지 관점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과 예상 반론,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작성해야 함. (나)~(마) 중 2개의 제시문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나머지 2개의 제시문은 예상 반론으로 활용됨. 따라서 (나)~(마) 제시문이 각각 (가)의 두 가지 관점 중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 채점 기준에 전체적인 글의 논리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정당화 - 예상반박 - 재반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문항 2**

- ▶ 문항 2번은 3개의 도표 자료((자료 1) ~ (자료 3))로 구성되어 있음.
- ▶ 문항 2번 또한 문항 1번과 같이 두 가지 관점(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도표 자료 해석 및 분석을 통해 작성해야 함.
- ▶ 도표는 두 관점을 모두 지지하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험생이 선택한 관점을 지지하는 도표 자료를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함.
- ▶ 도표 자료는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됨.
- ▶ 두 관점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도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였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다. 출제 자료 및 도서 출처**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5	교과서	고등학교 국어(미래엔, 천재교육, 비상),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미래엔, 천재교육), 고등학교 독서(미래엔, 비상, 천재교육, 좋은책신사고, 동아출판),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미래엔, 천재교육), 고등학교 문학(지학사, 미래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비상, 지학사, 금성출판사, 미래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미래엔, 씨마스, 비상, 교학사, 미래엔), 고등학교 통합사회(미래엔, 천재교육, 동아출판, 비상교육), 고등학교 정치와 법(비상, 미래엔), 고등학교 사회·문화(미래엔, 교학사), 고등학교 경제(씨마스, 지학사, 비상, 천재교육)
	교과서 외	『탄소 시장』(황석태), 『기후 시민』(지식채널e 제작팀), 『세계의 환경도시를 가다』(이노우네 토시히코 외), 『마스크 파노라마』(현재환 외)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4	교과서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창비, 미래엔, 천재교육), 고등학교 독서(미래엔, 천재교육),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미래엔, 천재교육),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미래엔, 비상교육, 교학사), 고등학교 통합사회(지학사, 비상교육, 천재교육), 고등학교 정치와 법(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고등학교 사회·문화(미래엔, 비상교육, 교학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 지학사, 비상교육), 고등학교 경제(씨마스, 지학사)
	교과서 외	『자유 의지와 결정론』(게리 왓슨), 『호모 데우스-미래의 역사』(유발 하라리)
2023	교과서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창비, 미래엔, 천재교육), 고등학교 독서(미래엔, 비상교육),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미래엔, 천재교육), 고등학교 문학(금성, 동아, 창비),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씨마스, 비상교육, 교학사), 고등학교 통합사회(지학사, 비상교육, 천재교육), 고등학교 정치와 법(지학사, 금성,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고등학교 세계사(천재교육, 비상교육, 미래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 지학사, 비상교육, 천재교과서), 고등학교 사회·문화(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학사), 고등학교 경제(미래엔, 씨마스, 지학사)
	교과서 외	『네 이웃의 식탁』(구병모), 『로마인 이야기』(시오노 나나미), 『곰브리치 세계사』(에른스트 곰브리치)

2

인하대학교 기출문제 (2024. 11. 30.(토), 2023. 12. 2.(토) 시행)

※ 본 자료집은 인하대학교 논술전형 기출문제 중 통계자료가 제시되는 2번 문항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되는 1번 문항의 기출 문제는 인하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5학년도 기출 문항 2번(2024. 11. 30.(토) 시행)

문항 2

<다음>의 밑줄 친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고른 뒤, 그것이 (자료 1)의 (가) 유형과 (나)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신이 고른 입장에 대해 (자료 2)를 활용하여 그 유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자료 3)을 활용하여 그 유형의 사람들을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60자,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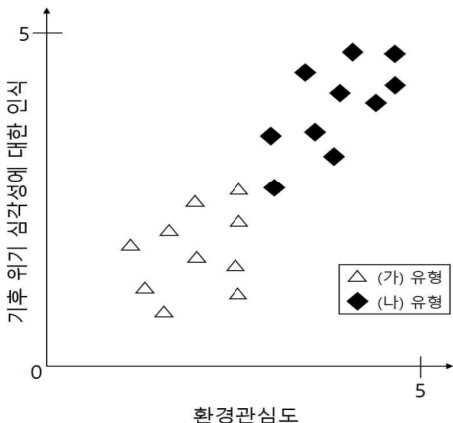
보기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 비관론자와 기후 위기 회의론자로 나뉜다. 기후 위기 비관론자는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기후 위기는 과도한 인간 행위로 유발된 것이라 여긴다. 이들은 과학기술로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기후 위기 회의론자는 환경과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기후 변화는 자연스러운 지구 활동의 일부라 여긴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피해는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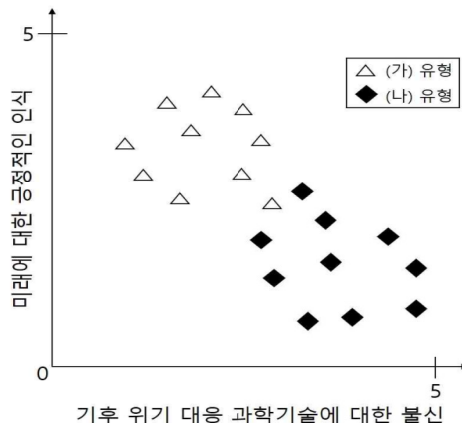
자료 1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두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환경관심도,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 및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5 (매우 높다) 부터 1(매우 낮다)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환경관심도와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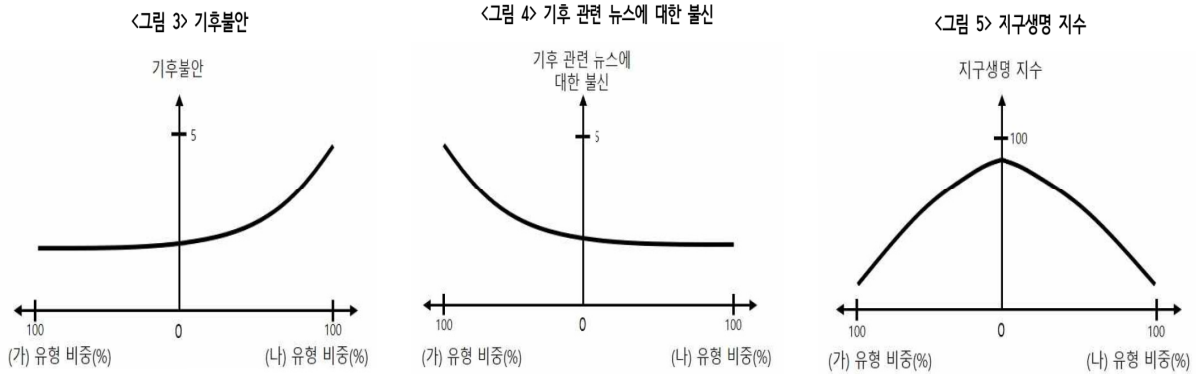


<그림 2>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자료 2

<그림 3>~<그림 5>는 (가) 유형과 (나) 유형의 비중이 각각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을 다음 지표의 변화로 예측한 것이다. 기후불안은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 또는 무력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은 보도 매체가 기후 위기를 과장한다고 여기는 불신 정도를 5(매우 그렇다)부터 1(전혀 그렇지 않다) 사이의 값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지구생명 지수는 1970년을 기준(100)으로 하여 생물 개체군의 평균 개체수를 수치화한 생물 다양성 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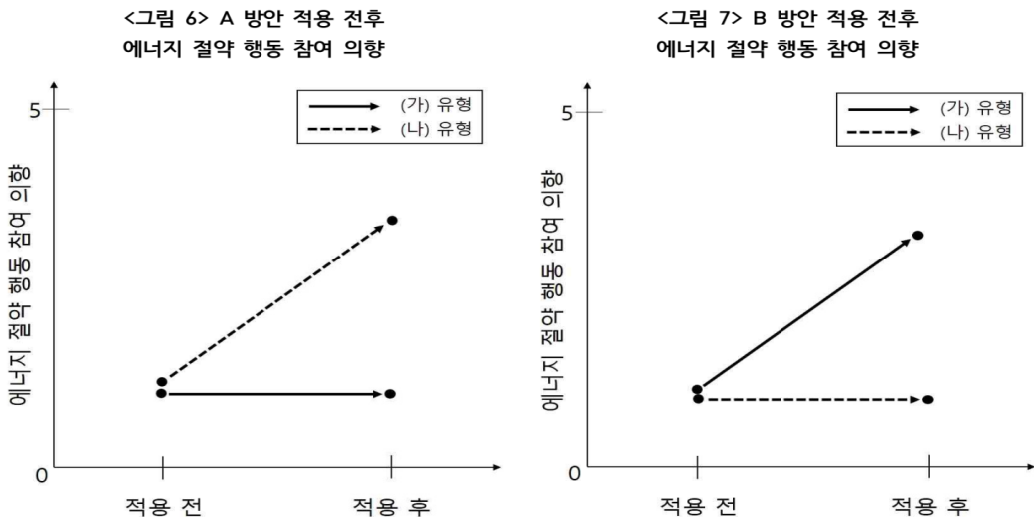


자료 3

기후 변화 대응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놓고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 A 방안: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적극 홍보
- B 방안: 인간 행위가 유발하는 기후 위기 현상을 적극 홍보

<그림 6>은 (가) 유형과 (나) 유형에 속한 사람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A 방안을 적용하기 전후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을, <그림 7>은 (가) 유형과 (나) 유형에 속한 사람 중 일부를 다시 무작위로 추출하여 B 방안을 적용하기 전후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을 5(적극 참여하겠다)부터 1(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사이의 값으로 측정하여 평균한 결과다.



## 나. 2024학년도 기출 문항 2번(2023. 12. 2.(토) 시행)

### 문항 2

여러분은 A국과 B국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향후 C국의 국가정책을 수립하려 한다.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모두 이용하여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의 이유와 선택한 모델의 정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서술하시오(자료에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서술한 문제점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하시오. (600자±60자, 40점)

###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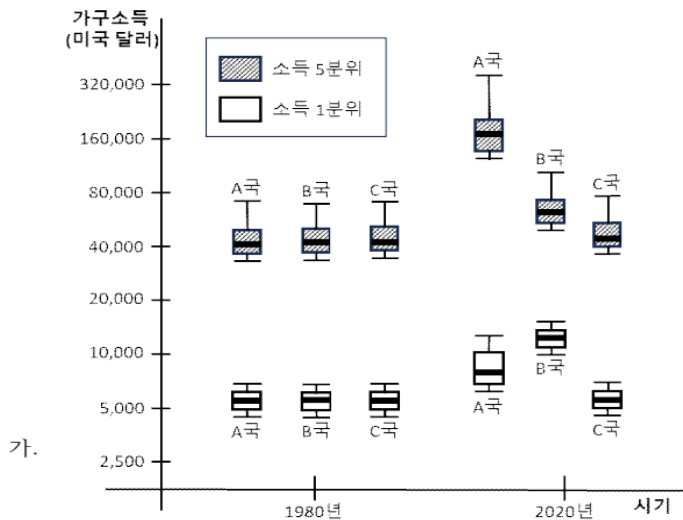
〈자료 1-1〉은 A, B, C 각국의 명목 1인당 국내총생산(GDP), 산업비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리 한 표이다. 산업 비중은 각 산업의 부가가치를 모든 산업의 부가가치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자료 1-2〉는 각국의 가구들을 5분위로 나누어 1분위(저소득층)와 5분위(고소득층)의 가구소득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자료 1-1〉 A, B, C국의 1인당 GDP, 산업 비중, 온실가스 배출량

	A국			B국			C국			
	1980년	2000년	2020년	1980년	2000년	2020년	1980년	2000년	2020년	
명목 1인당 GDP (미국 달러)	13,200	28,500	35,400	13,000	28,000	34,900	12,500	13,100	13,600	
산업 비중 (%)	IT 산업	10	18	20	10	11	11	5	6	6
	제조업 (IT 제외)	31	27	25	28	31	36	25	26	25
	기타 산업	59	55	55	62	58	53	70	68	69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tCO <sub>2</sub> )	520	620	770	512	754	1,062	568	570	575	

- \* IT 산업은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함.
- \*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모든 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1-2〉 A, B, C국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분포



- \* 네모 중간에 있는 굵은 선은 중위값을 의미하며, 네모의 높이는 상위 25%와 하위 25% 간의 소득 차이를 나타냄.

자료 2

〈자료 2-1〉은 소득수준과 소득격차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표이다. 2020년 60개 국가를 표본으로 하여, 소득격차와 명목 1인당 GDP에 따른 국가별 삶의 만족도를 분류했다. 명목 1인당 GDP는 25,000 달러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소득격차는 가구소득 5분위와 1분위의 중위값 차이 100,000 달러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삶의 만족도는 각국 국민 1,000명을 무작위로 택하여 '현재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계산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위 30개 국가는 'H', 삶의 만족도가 낮은 하위 30개 국가는 'L'로 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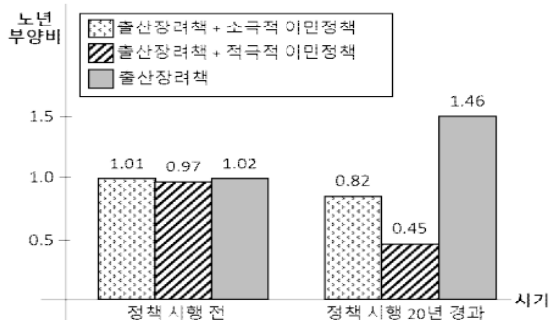
〈자료 2-1〉 명목 1인당 GDP 및 소득격차에 따른 삶의 만족도

		소득격차가 큰 국가		소득격차가 작은 국가	
		1인당 GDP가 높은 국가	1인당 GDP가 낮은 국가	1인당 GDP가 높은 국가	1인당 GDP가 낮은 국가
삶의 만족도	H	7	5	13	5
	L	8	10	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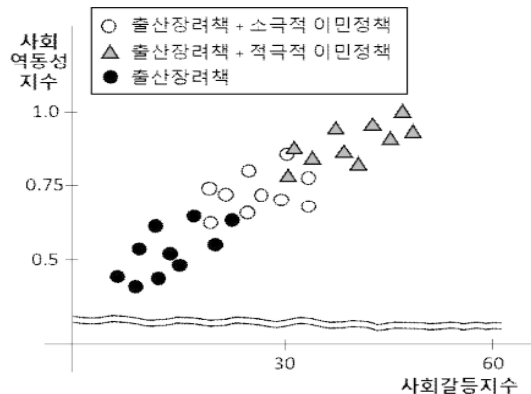
자료 3

각국이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1)출산장려책, (2)출산장려책 + 소극적 이민정책, (3)출산장려책 + 적극적 이민정책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A, B, C국은 현재 공통적으로 출산장려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B국은 소극적 이민정책을, A국은 적극적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상 세 가지 고령화 대응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30개 국가를 20년 간 추적 조사하였다. 〈자료 3-1〉은 각 정책을 추진한 국가 집단의 평균 노년부양비 변화를, 〈자료 3-2〉는 정책 시행 후 같은 국가 집단별 사회갈등지수와 사회역동성지수를 나타낸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 인구수로 계산한다. 사회갈등지수는 사회구성원이 사회 내 갈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0'(낮음)부터 '100'(높음) 사이의 값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사회역동성지수는 내·외부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0'(낮음)부터 '1'(높음)까지의 값으로 나타낸다.

〈자료 3-1〉 고령화 대응 정책에 따른 집단별 평균 노년부양비 변화



〈자료 3-2〉 고령화 대응 정책 시행 후 집단별 사회갈등지수와 사회역동성지수



\* 정책 시행 전 조사대상 국가들의 사회갈등지수와 사회역동성지수는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3

## 인하대학교 기출문제 분석



## 가. 문항 해설

## 2025 기출: 문항 2

〈다음〉의 밑줄 친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고른 뒤, 그것이 (자료 1)의 (가) 유형과 (나)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신이 고른 입장에 대해 (자료 2)를 활용하여 그 유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자료 3)을 활용하여 그 유형의 사람들을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60자, 40점)

## 다음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 비관론자와 기후 위기 회의론자로 나뉜다. 기후 위기 비관론자는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기후 위기는 과도한 인간 행위로 유발된 것이라 여긴다. 이들은 과학기술로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기후 위기 회의론자는 환경과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기후 변화는 자연스러운 지구 활동의 일부라 여긴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피해는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문항 2]는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두 부류인 기후 위기 비관론자와 기후 위기 회의론자 중 하나를 선택해 (자료 1)에서 제시된 (가) 유형과 (나) 유형 중 해당되는 유형을 구분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 (자료 1)의 (가) 유형은 환경관심도와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학 기술에 대한 불신이 높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낮으므로 기후 위기 비관론자를 지칭한다. (나) 유형은 환경관심도와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이 낮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으므로 기후 위기 회의론자를 지칭한다.
- (자료 2)의 〈그림 3〉에서는 (나) 유형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후불안 정도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가) 유형의 비중이 높아져도 기후불안 정도는 변함없이 낮은 값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 따르면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정도는 (나) 유형의 비중과는 관계없이 낮은 값을 유지하지만 (가) 유형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5〉에서 지구생명 지수는 (나) 유형의 비중과 (가) 유형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자료 1)과 (자료 2)를 종합하면,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는 기후불안 정도는 높아지지만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은 변함없이 낮고 지구생명 지수는 낮아지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는 기후불안 정도는 변함없이 낮지만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며 지구생명 지수는 낮아지는 특징을 가진다.

- (자료 3)의 <그림 6>에 따르면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적극 홍보하는 A 방안을 적용했을 경우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이 (나) 유형은 크게 증가했지만 (가) 유형은 변화가 없었다. 반면 <그림 7>에 따르면 인간 행위가 유발하는 기후 위기 현상을 적극 홍보하는 B 방안을 적용했을 경우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이 (나) 유형은 변화가 없었지만 (가) 유형은 크게 증가했다.
- (자료 1)과 (자료 3)을 종합하면,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 참여를 유도하려면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적극 홍보하는 A 방안을,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위가 유발하는 기후 위기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B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24 기출: 문항 2**

여러분은 A국과 B국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향후 C국의 국가정책을 수립하려 한다.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모두 이용하여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의 이유와 선택한 모델의 정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서술하시오(자료에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서술한 문제점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하시오. (600자±60자, 40점)

- <자료 1-1>에는 A, B, C 세 나라의 명목 1인당 GDP, 부가가치 기준 산업구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세 나라는 1980년에 세 가지 지표가 매우 비슷했으나, 2020년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1인당 GDP의 경우 2020년에 A국과 B국은 약 35,000달러로 1980년 대비 빠르게 증가했지만, C국은 여전히 13,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세 나라 모두 증가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B국>A국>C국 순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자료 1-2>에는 이들 세 나라의 분위별 소득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이 때, 소득격차에 대한 정의는 (자료 2)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자료를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1980년에 소득 격차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세 나라가 2020년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A국의 소득격차는 100,000달러 이상, B국과 C국의 소득격차는 100,000달러 이하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 (자료 2)에는 60개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 대해 1인당 GDP와 소득격차별로 삶의 만족도를 구분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큰 국가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은 7/15이며,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작은 국가는 이 확률이 13/15이다. A국은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큰 국가로 분류할 수 있고 B국은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작은 국가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B국이 A국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자료 3)에는 고령화 대응 정책에 따른 30개 국가의 노년부양비, 사회갈등지수, 사회역동성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출산 장려책과 적극적 이민정책을 추진한 A국의 경우 노년부양비는 줄어드나 사회갈등지수는 B국에 비해 높고, 사회 역동성지수 또한 B국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B국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론 가능하다.

- 위 세 자료를 종합했을 때, C국이 A국 모델을 선택했을 때는 B국 모델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노년 부양비가 작으며, 사회 역동성 지수는 높아질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C국이 B국 모델을 선택할 경우, A국 모델에 비해 소득 격차는 적고, 삶의 만족도는 높으며, 사회갈등지수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가 해당 국가 모델을 선택하는 이유가 된다. 선택된 모델에 해당하는 국가가 가진 약점이, C국이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 수험생이 한 가지 문제점을 택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소득 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것 등이 있다.

## 나. 채점 기준

 [2025 기출] 배점: 40점

평가 항목	채점 기준		배점
선택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위기 비관론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위기 회의론자</li> </ul>	
유형 선택의 근거			
유형 선택의 근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1]에서 (나) 유형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 유형은 &lt;그림 1&gt;에서 환경관심도 높고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높음(5점)</li> <li>(나) 유형은 &lt;그림 2&gt;에서 기후 위기 대응 과학 기술에 대한 불신 높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낮음(5점)</li> <li>※ (가) 유형을 선택하면 0점 부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1]에서 (가) 유형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유형은 &lt;그림 1&gt;에서 환경관심도 낮고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낮음(5점)</li> <li>(가) 유형은 &lt;그림 2&gt;에서 기후 위기 대응 과학 기술에 대한 불신 낮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높음(5점)</li> <li>※ (나) 유형을 선택하면 0점 부여</li> </ul> </li> </ul>	10점
선택한 유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의 특징			
그 사회 특징의 근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2]의 (나) 유형 분석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그림 3&gt;에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기후불안 정도는 증가(5점)</li> <li>&lt;그림 4&gt;에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과 관계없이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은 낮은 값 유지(5점)</li> <li>&lt;그림 5&gt;에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지구생명 지수는 감소(5점)</li> <li>※ (가) 유형으로 잘못 선택했지만, 오른쪽 답안과 같이 (가) 유형의 특징을 모두 옳게 설명하면 5점 감점하여 10점 부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2]의 (가) 유형 분석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그림 3&gt;에서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과 관계없이 기후불안 정도는 낮은 값 유지(5점)</li> <li>&lt;그림 4&gt;에서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은 증가(5점)</li> <li>&lt;그림 5&gt;에서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지구생명 지수는 감소(5점)</li> <li>※ (나) 유형으로 잘못 선택했지만, 왼쪽 답안과 같이 (나) 유형의 특징을 모두 옳게 설명하면 5점 감점하여 10점 부여</li> </ul> </li> </ul>	15점

평가 항목	채점 기준	배점
선택한 유형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참여 유도 방안의 근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3]의 A 방안 선택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홍보하는 A 방안 선택(5점)</li> <li>-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경우 A 방안에서는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이 높아졌으나 B 방안에서는 변화가 없음(5점)</li> <li>※ (가) 유형으로 잘못 선택하여 B 방안을 선택했지만, 오른쪽 답안과 같이 B 방안을 선택한 근거를 모두 옳게 설명하면 5점 감점하여 5점 부여</li> </ul> </li> <li>[자료 3]의 B 방안 선택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행위가 유발하는 기후 위기 현상을 홍보하는 B 방안 선택(5점)</li> <li>-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경우 B 방안에서는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이 높아졌으나 A 방안에서는 변화가 없음(5점)</li> <li>※ (나) 유형으로 잘못 선택하여 A 방안을 선택했지만, 왼쪽 답안과 같이 A 방안을 선택한 근거를 모두 옳게 설명하면 5점 감점하여 5점 부여</li> </ul> </li> </ul>	10점
글의 논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5점 이내에서 점수 부과)</li> </ul>	5점

**[2024 기출] 배점: 40점**

평가 항목	채점 기준	배점
주어진 세 자료의 해석		
(자료 1) ~ (자료 3)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1)의 분석(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자료 1-1&g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국: IT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B국보다 천천히 증가</li> <li>- B국: 제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A국보다 빠르게 증가</li> </ul> </li> <li>• &lt;자료 1-2&gt; 분석: A국의 소득격차가 B국보다 커짐</li> </ul> </li> <li>■ (자료 2)의 분석과 해석(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자료 2-1&gt; 분석: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큰 국가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7/15이고,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작은 국가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13/15임</li> <li>• 해석: B국이 A국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큼</li> </ul> </li> <li>■ (자료 3)의 분석과 해석(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자료 3-1&gt; 분석: 출산장려책+적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국가는 다른 정책을 취한 국가에 비해 노년 부양비가 낮아짐</li> <li>• &lt;자료 3-2&gt; 분석: 출산장려책+적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국가는 다른 정책을 취한 국가에 비해 사회갈등지수가 크고 사회역동성지수가 큼</li> <li>• 해석: 출산장려책+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A국에서는 정책 시행 후 B국에 비해 노년부양비는 하락하고, 사회역동성과 사회갈등은 클 가능성이 큼. B국을 선택 시, 반대의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큼</li> </ul> </li> </ul>	30점

I 논술전형 바로 알기

II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III 부록

평가 항목	채점 기준		배점
	종합 해석		10점
	A국 모델 선택	B국 모델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국 모델을 선택할 때, B국 모델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천천히 증가하고 노년부양비가 더 낮아지며, 사회역동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음</li> <li>A국 모델을 선택할 때, 소득격차가 커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낮고, 사회갈등이 높은 문제점 발생</li> <li>문제점 해결방안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소득 분배 정책을 실시</li> <li>-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사회갈등을 완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국 모델을 선택할 때, A국 모델에 비해 소득격차가 작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갈등이 낮음</li> <li>B국 모델을 선택할 때, A국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노년부양비가 더 높아지며, 사회 역동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li> <li>문제점 해결 방안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li> <li>- 정년연장,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활동 인구 부담 완화</li> </ul> </li> </ul>	

## 다. 예시 답안

### 2025 기출

#### 기후 위기 비관론자를 택한 경우

기후 위기 비관론자는 (자료 1)의 (나)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그림 1>의 (나) 유형 역시 환경관심도가 높고 기후 위기 심각성이 높으므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특징과 부합한다. 또한 기후 위기 비관론자는 과학기술로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환경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미래에 대한 인식도 비관적인데, 이는 <그림 2>의 (나) 유형에 나타난 특징과 일치한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비중이 높아질 때, 사회 전반의 기후불안 정도가 높아지지만, 사람들의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정도가 변함없이 낮게 유지되며, 지구생명 지수는 낮아진다. <그림 6>과 <그림 7>에 따르면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은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홍보하는 A 방안에서는 높아지지만, 인간 행위가 유발 요인이 되는 기후 위기 현상을 홍보하는 B 방안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후 위기 비관론자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A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 기후 위기 회의론자를 택한 경우

기후 위기 회의론자는 (자료 1)의 (가) 유형에 해당한다. (가) 유형은 <그림 1>에 따르면 환경관심도와 기후 위기 심각성이 낮으며, <그림 2>에 따르면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 정도가 낮고 미래 긍정 인식 정도는 높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 위기 회의론자가 가진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낮은 심각성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결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과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와도 상응한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 따르면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사회 전체의 기후불안 정도는 변함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겠지만, 사람들의 기후 관련 뉴스에 대한 불신 정도가 높아지며, 지구생명 지수가 하락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다. <그림 6>과 <그림 7>에 따르면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은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효과를 홍보하는 A 방안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인간 행위가 유발 요인이 되는 기후 위기 현상을 홍보하는 B 방안에서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후 위기 회의론자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B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 2024 기출

### A국 모델 선택

A국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자료 1)을 보면 A국은 IT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B국은 제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A국이 B국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천천히 증가한다. 또한, A국의 소득격차는 B국에 비해 더 커진다. (자료 2)에서 A국은 소득수준과 소득격차가 모두 높은 국가로, B국은 소득수준이 높지만 소득격차가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각국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은 각각 7/15와 13/15으로 B국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더 크다. (자료 3)을 보면 출산장려책+적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A국은 출산장려책+소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B국에 비해 향후 노년부양비가 낮아지고 사회역동성지수와 사회갈등지수 모두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A국 모델이 IT산업 중심의 친환경적 경제 발전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 역동성을 강화하면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다만, A국 모델은 B국에 비해 소득 격차가 더 크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더 낮으며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 중 중요한 문제점인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소득분배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B국 모델 선택

B국 모델이 바람직하다. 우선 <자료 1-1>에 의하면 A, B 두 국가의 명목 1인당 GDP는 비슷하게 높은 수준이지만, <자료 1-2>에 따르면 B국의 소득격차가 A국보다 적다. 또한 <자료 2-1>에 의하면,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적은 국가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13/15이지만, 1인당 GDP가 높고 소득격차가 큰 국가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7/15이므로, A국보다 B국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자료 3-2>에 의하면, 출산장려책+소극적 이민정책을 취한 경우가 다른 정책을 취한 경우보다 사회갈등지수가 낮으므로, B국이 A국보다 사회 갈등이 적을 것이다. 다만, <자료 1-1>을 보면 제조업 중심인 B국은 IT 중심인 A국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 또한 <자료 3-1>과 <자료 3-2>에서 보면, B국과 같이 출산장려책+소극적 이민정책을 취할 경우에는 A국 모델에 비해 노년부양비가 높고 사회역동성지수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B국 모델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빠른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등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인하대학교 논술 준비 팁



가. 교과 성적(30%)의 영향력 파악하기

● 인하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의 전형 방법은 논술 70% + 교과 30%로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형요소별 산출식과 학생부교과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두 표와 같다.

● 전형요소별 산출식

전형요소	산출식	최고점	최저점
논술(70%)	논술 반영 점수 × 4.5 + 기본점수 250	700	250
학생부 교과(30%)	학생부교과 반영 점수 × 2 + 기본점수 100	300	100

● 학생부교과 등급별 환산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10	9.6	9.5	9.5	9.4	9.4	7.2	3.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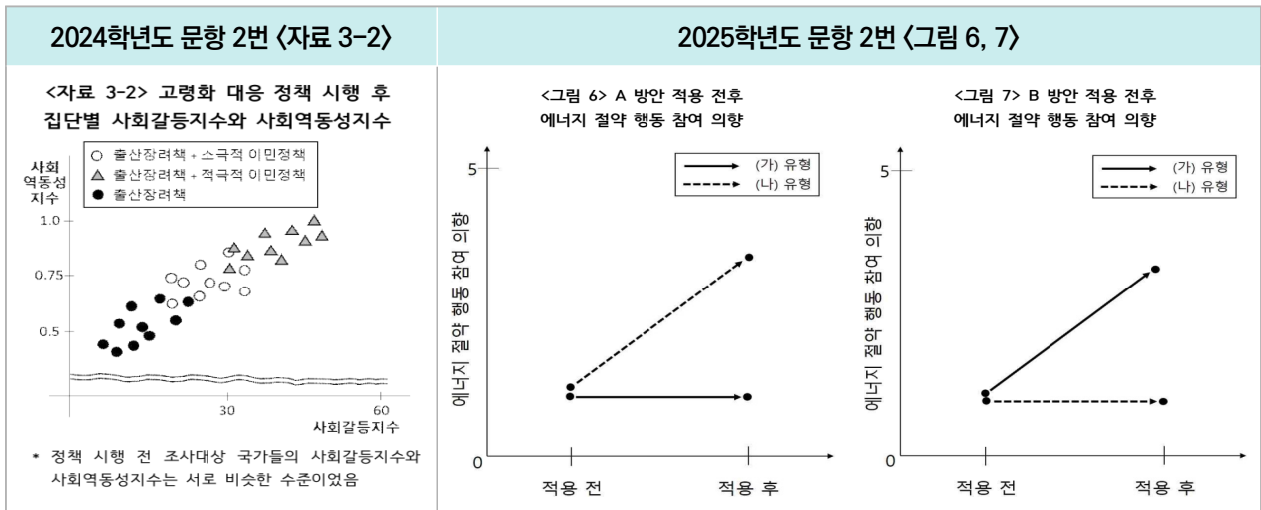
● 반영교과(국영수사)의 모든 교과성적이 아래와 같을 경우, 학생부 교과의 최종 환산점수(300점 만점)는 아래와 같다.

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300	292	290	290	288	288	244	172	100

● 인하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의 최종등록자 성적을 고려하면 인문계열 논술전형의 지원풀은 주로 3등급대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등급과 4등급은 환산 점수가 같고(290점), 5등급과 6등급의 환산점수가 3등급(4등급)과 2점 차이인 점을 고려하면 3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내신의 실질 영향력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산출식을 활용하여 계산했을 때, 학생부 환산점수 2점 차이는 논술 점수에서 0.4점 차이임). 따라서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교과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6등급까지는 내신의 영향력이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나. 도표의 X축, Y축 명칭과 그래프의 모양(추세)을 통해 현상 분석하기

- 제시문에 주어진 도표 자료는 교과 배경지식이 많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형식으로 주어진다. 예컨대, 2024학년도 문항 2번 <자료 3-2>에서 x축과 y축의 명칭과 수치만 분석할 수 있다면 출산장려책+적극적 이민정책을 실시했을 때가 다른 정책을 실시했을 때 보다 사회 역동성과 사회 갈등 정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2025학년도 문항 2번 <그림 6>과 <그림 7>에서도 A방안을 적용했을 경우 (나)유형은 (가)유형과 달리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이 높아졌음을, B방안을 적용했을 경우 (가)유형이 (나)유형과 달리 에너지 절약 행동 참여 의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계산이나 추론 과정 없이 간단한 도표 해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된다. 따라서 도표의 x축과 y축 명칭을 통해 분석해야 하는 변수를 이해하고, 그래프의 추세가 우상향하는지, 일정한지, 우하향하는지 등을 통해 변동 방향을 분석할 수 있다.



## 다.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 대비하기

- 인하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 2번 문항(도표 자료)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2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근거를 제시문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제시하는 형태가 출제된다. 따라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감점을 하진 않지만, 해당 모델을 지지하는 적절한 통계자료를 <자료>의 해석을 통해 올바르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글의 논리성과 설득력이 떨어져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도표 자료가 2가지 모델 중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해석하고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인하대학교는 매년 본 논술고사와 동일한 출제위원 구성으로 논술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모의고사 응시 및 해설 특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통합공지사항)과 논술가이드북(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전형책자 열람)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5

연습문제



문제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갑국은 (1) 적극적 출산장려책과 (2) 소극적 출산장려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적극적 출산장려책과 소극적 출산장려책 중 하나의 정책을 선택(자료에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하고, 그러한 선택의 이유와 선택한 모델의 정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서술하시오.

**(자료)** <자료1-1>은 각 정책을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30년 후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단, 정책 시행 전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60이며,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부양인구)\*100으로 계산한다. <자료 1-2>는 각 정책을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30년 후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 1-1> 갑국의 인구 구성 변화

구분	A+C/B	C/A
정책 시행 전(현재)	1	3/2
적극적 출산장려책(30년 후)	9/11	1/2
소극적 출산장려책(30년 후)	3/2	1/5

※ 단, A~C는 각각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1-2> 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구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정책 시행 전(현재)	42.6%
적극적 출산장려책	140.8%
소극적 출산장려책	82.9%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의 첨삭(소극적 출산장려책 실시)**

	나	는	갑	국	이	소	극	적	출	산	장	려	정	책	을	
실	행	해	야	한	다	고	생	각	한	다.	적	극	적	출	산	
장	려	정	책	을	실	시	할	시	①	유	소	년	인	구	비	는
대	폭	증	가	할	수	있	겠	지	만	부	양	인	구	의		
부	담	과	국	가	부	채	가	대	폭	상	승	하	게	된		100
다.	②	미	래	세	대	를	위	해	특	정	세	대	가	희		
생	하	는	것	은	바	람	직	하	지	알	으	므	로	부	양	
인	구	부	담	이	감	소	하	고	국	가	부	채	역	시		
소	폭	증	가	하	여	서	서	비	나	아	가	는	소	극	적	
출	산	장	려	정	책	이	추	진	되	었	으	면	한	다.	그	200
나	너	무	소	극	적	으	로	추	진	할	시	검	격	히		
늘	어	나	는	③	노	년	인	구	비	를	방	어	할	수	없	
세	될	수	도	있	다.											

- ① 주어진 자료와 식을 토대로 유소년·부양인구·노년인구비를 제시한다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더불어 30년 후 유소년 인구비는 감소한다.
- ② 미래의 국가 부채 증가는 미래 세대에게도 부담이 된다. 국가 부채에 대한 세대 부담 가중 측면보다는 국가 부채 증가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더욱 효과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 ③ 노년 인구비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서술하면 보다 논리적인 글이 될 수 있다.

**예시 답안(소극적 출산장려책 실시)**

소극적 출산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정책 시행 전 유소년 부양비는 60이므로, 부양 인구가 100명이면 유소년 인구는 60명이 되기 때문에 부양 인구나 유소년 인구비는 5:3(10:6)이다. 한편 A, B, C는 세대별 인구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A+B+C=100이고, 이를 식에 대입하면 A=20, B=50, C=30이 나온다. 부양 인구나 유소년 인구 비가 5:3이므로, B=부양 인구, C=유소년 인구, A=노년 인구로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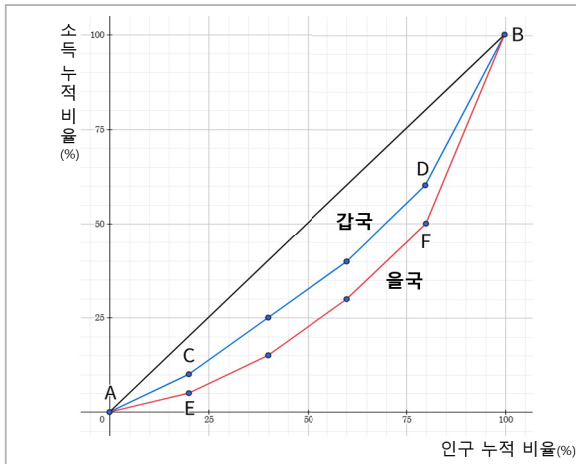
소극적 출산 장려책을 실시하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82.9%가 되어 현재보다 증가하지만, 적극적 출산 장려책을 실시했을 때 보다 증가폭이 둔화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다만, 30년 후 유소년 인구:부양 인구:노년 인구비가 10:40:50이 되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 2**

〈자료〉는 갑국과 을국의 로렌츠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과 을국 중 소득 불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는 어디인지 쓰고, 그 이유를 갑국, 을국 각각의 5분위 배율을 활용하여 작성하시오.

※ 5분위 배율: 상위 20%(5분위) 평균 소득 / 하위 20%(1분위) 평균 소득

**자료** 갑, 을국의 로렌츠 곡선



구분	인구누적비율(%)	소득누적비율(%)
A	0	0
B	100	100
C	20	10
D	80	60
E	20	5
F	80	50

**학생 답안 및 선생님의 첨삭(1)**

	갑국과	을국	중	을국의	소득	불평등	300
지수가	리	높다.	AB는	가장	이상적인		
소득	분배	곡선으로	소득이	완전	균등		
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대	이다.	갑국선의		
경우	AB에	더	근접하여	상위 20%	가	전	
체	소득의	40%를	하위	20%	가	소득의	
약	10%를	차지	하지만	을국선은	AB에서	400	
멀고	상위	20%	가	소득	50%를	하위	
10%	는	불과	5%만	을	차지	한다.	
총해	을국의	소득이	갑국에	비하여		양	
극화	된	형태로	분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00	

소득 누적 비율을 토대로 옳은 답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문제에서 5분위 배율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갑국과 을국 각각의 5분위 배율 값을 적었다면 보다 정확한 답안이 된다.

**학생 답안 및 선생님의 첨삭(2)**

점	C	D	가	포함된	곡선	이	갑	국	이	라고		300
가	경	할	때	을	국	의	소득	불	평	등	지	수
더	높	다	을	국	의	소득	누적	비	율	이	인	구
적	비	율	이	80	%	에	서	100	%	일	때	더
증	적	하	기	증	가	하	기	때	문	이	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평균 소득)/(1분위 평균 소득)으로 구할 수 있다. 5분위의 평균 소득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1분위 평균 소득에 따라 5분위 배율 값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문항에서는 1분위 평균 소득을 확인하여 5분위 배율 값을 구한 후,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예시 답안**

을국이 갑국에 비해 소득 불평등 지수가 더 높다. 갑국의 1분위 소득 누적 비율은 10%, 5분위 소득 누적 비율은 40%이므로, 갑국의 5분위 배율은 4이다. 을국의 1분위 소득 누적 비율은 5%, 5분위 소득 누적 비율은 50%이므로 을국의 5분위 배율은 10이다. 5분위 배율이 클수록 소득 5분위와 1분위 간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을국이 갑국에 비해 소득 불평등 지수가 더 높다.

**문제 3**

여러분은 A국과 B국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향후 C국의 국가정책을 수립하려 한다.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모두 이용하여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의 이유와 선택한 모델의 정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서술하시오 (자료에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서술한 문제점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하시오.

**(자료 1)** <자료 1-1>은 A, B, C 각국의 명목 1인당 국내총생산(GDP), IT 산업 비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리한 표이다. <자료 1-2>는 A, B, C 각국의 가구를 5분위로 나누어 인구 누적 비율에 따른 소득 누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 1-1> A, B, C국의 1인당 GDP, IT 산업 비중,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A국		B국		C국	
	1980년	2020년	1980년	2020년	1980년	2020년
명목 1인당 GDP(미국 달러)	13,200	35,000	12,900	35,100	13,000	14,000
IT 산업 비중(%)	24	16	21	40	23	24
온실가스 배출량(백만 tCO2)	500	1250	503	643	496	498

<자료 1-2> A, B, C국의 인구 누적 비율에 따른 소득 누적 비율

(단위: %)

인구 누적 비율	A국 소득 누적 비율		B국 소득 누적 비율		C국 소득 누적 비율	
	1980년	2020년	1980년	2020년	1980년	2020년
20	10	15	11	8	10	10
40	24	35	24	18	24	25
60	48	56	48	30	40	42
80	72	77	72	52	60	6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2)** <자료 2-1>은 A국과 B국의 국가별 사회 이동 가능성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자료 2-1> A, B국의 국가별 사회 이동 가능성 인지도 조사 결과

구분	A국		B국	
	1980년	2020년	1980년	2020년
세대 내 사회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	23.2%	28.7%	24.0%	21.7%
세대 간 사회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	36.5%	45.6%	35.2%	31.1%

**(자료 3)** 각국이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1) 출산장려책, (2) 출산장려책 + 소극적 이민정책, (3) 출산장려책 + 적극적 이민정책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B, C국은 현재 공통적으로 출산장려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A국은 소극적 이민정책을, B국은 적극적 이민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상 세 가지 고령화 대응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30개 국가를 20년간 추적 조사하였다. <자료 3-1>은 각 정책을 추진한 국가 집단의 평균 인구 구성 변화를, <자료 3-2>는 GDP 대비 국가 집단별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 손실 비율을 나타낸다.

<자료 3-1> 고령화 대응 정책에 따른 집단별 인구 구성 비율 변화(%)

구분	정책 시행 전		정책 시행 후	
	전체 인구 대비 0~14세 인구 비율(%)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	전체 인구 대비 0~14세 인구 비율(%)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
적극적 이민정책	30	50	20	60
소극적 이민정책	20	50	15	50
출산장려책	20	50	10	50

<자료 3-2> 집단별 GDP 대비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 손실 비율(%)

	정책 시행 전	정책 시행 후
출산장려책 + 적극적 이민정책	10.1%	22.6%
출산장려책 + 소극적 이민정책	9.8%	11.2%
출산장려책	10.2%	10.5%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의 첨삭(1) (A국 모델 선택)

	C국	은	A국	모델	을	선택	해야	한다.	
	IT	산업	비중	의	증가	는	곧	직업	전문
	성이	높음	을	의미	한다.	B국	의	경우	높
	은	IT	산업	비중	으로	인해		저속	연
	일자	리	노동	자의	비율	이	적	라.	그러
	문제	는	불평	등	한	소득	분	배	를
1	반	면	A국	산업	비중	은	저속	연	일자
	로	보	장	하	기	때	문	에	더
	분	배	가	가	능	하	다.	이	러
	2-1	에	서	도	나	라	나	는	데,
	사	회	이	증	가	능	성	을	높
	B	는	그	렇	지	아	냐.	이	러
	국	민	들	의	불	신	을	일	으
		초	래	하	다.	그	러	나	저
	산	업	방	식	은	환	경	오	년
	문	에	각	종	환	경	정	책	과
2	아	련	해	야	한	다.	포	한	경
	한	C	국	의	입	장	에	서	적
	을	실	시	할	시	손	실	이	러
	러	나	A	국	정	책	실	행	시
	감	소	가	일	어	나	는	데	이
	상	려	정	책	을	실	행	함	으
	있	다.							

- ① IT 산업 비중이 낮다고 해서 저속연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IT 산업 비중과 소득 분배의 상관 관계는 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 1-1>과 <자료 1-2>를 각각 해석해야 한다.
- ② 적극적 이민정책이 유발하는 손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회 갈등의 증가로 인한 사회 비용이 증가한다.'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I 논술전형 바로 알기

II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III 부록

###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의 첨삭(2) (A국 모델 선택)

	A	국	모	델	을	선	택	할	것	이	다.				
1	A	국	모	델	의	소	득	누	적	비	율	을	B	국	
	과	비	교	하	였	을	때	B	국	의	인	구	누	적	
	비	율	이	증	가	하	는	것	을	볼	수	있	다.	또	한
	계	증	가	하	는	것	을	볼	수	있	다.	또	한		
	질	단	별	G	D	P	대	비	사	회	갈	등	으	로	인
	한	경	제	손	실	비	율	변	동	정	도	가	B	국	
	보	다	A	국	이	더	낮	은	것	을	볼	수	있		
	다.														
	문	제	점	은	A	국	은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이
	7	5	0	증	가	하	고	B	국	은	1	4	0	정	도
	가	해	다.	또	한	I	T	산	업	비	중	증	가	율	이
	감	소	한	것	이	문	제	점	은	로	보	인	다.	이	러
	한	것	이	문	제	점	은	로	보	인	다.	이	러	한	
2	문	제	점	을	해	결	하	기	위	해	서	는	I	T	산
	업	비	중	을	높	여	야	한	다	고	생	각	한	다.	

- ① 해당 자료는 인구 누적 비율에 따라 소득 누적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국가 내 소득 격차를 나타낸다. 따라서 A국이 B국에 비해 사회 양극화 정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 ② A국은 B국에 비해 IT 산업 비중은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다는 점은 제시된 자료를 통해 이미 확인할 수 있다. IT 산업 비중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함께 제시한다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다.

### 예시 답안(A국 모델 선택)

A국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A국 모델을 선택하면 1980년 대비 2020년에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감소하여 사회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 또한 높아진다. 더불어 소극적 이민정책을 실시했을 경우 GDP 대비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 손실 비율이 비교적 낮게 증가한다. 반면 A국 모델을 실시했을 경우 IT 산업 비중이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극적 이민정책으로 인해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함께 육아 휴직 제도 확대 등의 출산 장려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예시 답안(B국 모델 선택)

B국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B국 모델을 선택하면 IT 산업 등 첨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A국 모델에 비해 적게 증가한다. 더불어 적극적 이민정책을 실시했을 경우 정책 시행 전과 비교하여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B국 모델을 실시했을 경우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사회 이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아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으며,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인해 사회 갈등이 심화되어 이로 인한 사회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진세 확대 등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다문화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5. 상경계열-수학 포함



교과 연계 대입 논술 가이드북

- 인문·상경 계열, 약술형 논술 중심으로 -

09 송실대학교

10 중앙대학교



# 09 송실대학교

2026 논술 고사 일정	전형 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시험 시간	문항 수	글자 수, 배점	주 출제 교과 및 과목 (출제 범위)
2025. 11. 15. (토)	논술 80 교과 20	국수영탐(1과목) 중 2개 합 5 이내	100분	2문항 (경제 1문항, 수학 1문항)	800 ± 80 50점	경제
					제한 없음 50점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 1 송실대학교(경상계열) 논술 준비



### 가. 연계 과목 / 핵심 용어 및 개념

연도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025	경제	자유무역, 국가 경제, 물가, 가격
	경제, 수학 I, 확률과 통계	등비수열, 비용-편익 분석, 고용 지표, 이항분포, 정규분포
2024	경제, 수학 I	재무계획, 환율의 결정 및 변동, 등차수열,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수학,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순열과 조합), 조건부확률, 통계적 추정
2023	경제, 수학	수요, 공급, 시장 균형,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잉여, 평행이동
	경제, 수학 I	금융,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 지수법칙, 등비수열

### 나. 문항 유형 특성

- 송실대 경상 계열 논술고사의 경우 3~4개의 제시문이 주어지고 2개의 대문항 아래에 2~3개의 소문항이 구성되어 출제됨.
- 제시문은 경제 과목에서 다루는 개념의 정의를 설명하는 제시문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학 개념의 정의에 관련된 제시문으로 구성됨.
- 답안 작성 시 그래프나 그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험생의 생각을 수식과 완결된 문장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함.
- 2024 대입 논술전형부터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제시문과 문항이 출제되고 있음. 이는 경상계열 모집단위(경제학과, 글로벌통상학과, 경영학부, 회계학과, 벤처중소기업학과, 금융학부)에서 통계학과 관련된 과목(통계학, 디지털과 통계, 경영수리와 통계, 시데이터사이언스와 경영, 금융수학, 보험론 등)을 이수해야 해야 하는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다루는 개념의 엄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함.

 문제 1

- ▶ [문항 1]과 [문항 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의 형태로 제시됨.
- ▶ 제시문은 경제 과목의 각 단원(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시장과 경제활동, 국가와 경제활동, 세계 시장과 교역, 경제생활과 금융)에서 배우는 주요 경제 개념의 의미를 소개하고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 경제와 관련된 제시문만 주어지는 경우에는 개념의 이해도와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의 의도임. 예컨대, 가상의 국제 문제 발생을 상정하고, 경제 과목에서 배운 개념을 토대로 무역 환경의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예측해 보게 하는 경우가 많음.
- ▶ 수학 관련 개념을 소개하는 제시문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수학, 수학I, 확률과 통계의 기초적인 지식과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 상황의 해석을 요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문제 2

- ▶ [문항 1]과 [문항 2] 아래에 각각 2~3개의 소문항이 주어짐. [문항 1]에서 경제적인 상황에서 수험생의 사고방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 [문항 2]에서는 '경우의 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제시하시오.', '확률을 풀이 과정과 함께 제시하시오.', '합리적인 선택을 제안하시오.' 등 수학적인 계산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음.
- ▶ 경제 현상의 규칙성을 수학I 과목 수열 단원의 수열의 일반항과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다루는 공식 등을 이용해서 간단히 계산한 뒤 경제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음.
- ▶ 2024 대입 논술 이후부터는 확률과 통계 과목 통계적 추정 단원의 문제와 확률분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이산확률분포와 연속확률분포의 확률, 평균, 표준편차 등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

- 두 문제는 제시문에서 주어진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문제 조건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음.
  - 평소 수학 교과 학습 시 정답에 이르는 연습만 했던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문항의 형태임.
  - 평소 경제 과목과 수학 교과의 학습 과정에서 상황 판단 능력을 키우고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사고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근거로써 수학 개념을 활용하는 연습을 한 학생에게 매우 유리한 문항의 형태임.

## 다. 출제 자료 및 도서 출처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5	[문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경제, 박형준 외 5인, 천재교육(2019), p.120~121, 144~146</li> <li>고등학교 경제, 허수미 외 6인, 지학사(2019), p. 114~115, 140~141</li> <li>고등학교 경제, 유종열 외 4인, 비상교육(2019), p.114~116, 139~140</li> <li>고등학교 경제, 김종호 외 4인, 씨마스(2019), p.123~126, 150~152</li> </ul>
	[문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경제, 허수미 외 6인, 지학사(2024), p. 21~22, 109~110</li> <li>고등학교 경제, 유종열 외 4인, 비상교육(2024), p.17~19, 108~109</li> <li>고등학교 경제, 김종호 외 4인, 씨마스(2024), p.19~20, 119</li> <li>고등학교 수학 I, 김원경 외 14인, 비상교육(2024), p.131~132</li> <li>고등학교 수학 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육(2024), p.11~12, 131~136</li> <li>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홍성복 외 10인, 지학사(2024), p.93~94, 107~109</li> <li>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류희찬 외 9인, 천재교과서(2024), p.93~94, 108~110</li> </ul>
2024	[문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경제, 허수미 외 6인, 지학사(2023), p.146~153, 192~201</li> <li>고등학교 경제, 김진영 외 4인, 미래엔(2023), p.156~156, 196~205</li> <li>고등학교 수학, 고성은 외 6인, 좋은책 신사고(2023), p.82~96</li> <li>고등학교 수학, 이준열 외 9인, 천재교육(2023), p.86~101</li> <li>고등학교 수학 I, 이준열 외 9인, 천재교육(2023), p.120~130, 142~145</li> <li>고등학교 수학 I, 김원경 외 14인, 비상교육(2023), p.117~126, 139~144</li> <li>고등학교 수학 I, 홍성복 외 9인, 지학사(2022), p.115~124, 137~147</li> </ul>
	[문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수학, 이준열 외 9인, 천재교육(2023), p.262~310</li> <li>고등학교 수학, 고성은 외 6인, 좋은책 신사고(2023), p.246~267</li> <li>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홍성복 외 10인, 지학사(2023), p10~41, 44~79, 82~131</li> <li>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류희찬 외 9인, 천재교육(2023), p8~39, 40~75, 113~131</li> <li>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박교식 외 19인, 동아출판(2022), p.8~27, 40~77, 112~137</li> <li>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권오남 외 14인, 교학사(2023), p.12~39, 44~77, 82~135</li> </ul>
2023	[문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경제, 김종호 외 4인, 씨마스(2022), p.50~79</li> <li>고등학교 경제, 유종열 외 4인, 비상교육(2022), p.50~77</li> <li>고등학교 경제, 허수미 외 6인, 지학사(2022), p.48~69</li> <li>고등학교 경제, 김진영 외 4인, 미래엔(2022), p.44~67</li> </ul>
	[문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경제, 박형준 외 5인, 천재교육(2022), p.16~18, 22~23, 41~43, 174~183, 186~189</li> <li>고등학교 수학, 김원경 외 14인, 비상교육(2022), p.76~81, 112~125, 140~155, 159~176</li> <li>고등학교 수학 I, 황선욱 외 8인, 미래엔(2022), p.11~65, 130~157</li> </ul>

2

송실대학교(경상계열) 논술 기출문제 (2024. 11. 26.(화) 시행)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참고하여 각 문항에 답하시오. (800 ± 80자, 50점)

제시문 (가)

- 자유무역은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첫째, ( ① ). 둘째,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면 기업은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기술 개발이나 지속적인 품질 관리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자유무역을 하면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되므로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넷째, 무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가 들어올 때 새로운 기술이 함께 들어오는 기술 이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자유무역의 한계도 있다. 첫째, ( ② ). 둘째,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셋째, 자유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이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들의 상황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

제시문 (나)

- 2021년 발생한 K국의 요소수 부족 현상은 K국 요소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발생하였다. K국은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요소의 98%를 C국에서 수입하였다. 과거에는 K국에 요소 생산기업이 있었지만, C국의 요소가 K국의 요소보다 훨씬 저렴해지자 K국 기업들은 K국 요소를 사용하는 대신 C국 요소를 수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하였다. K국 요소 생산기업들은 C국 요소 생산기업들에 대응할만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모두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C국의 갑작스러운 요소 수출 제한은 K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제시문 (다)

- C국의 2022년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로 치솟았다. 그 이유는 R국-U국간 전쟁이 전 세계 사료 공급망을 뒤흔들어 C국의 돼지고깃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U국의 곡물은 C국 돼지 사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U국의 곡물 수입이 어려워져 C국의 돼지 사료값이 대폭 상승하였다. C국은 세계 돼지고기가 소비의 40%,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국가로 돼지고기 가격은 C국 전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 제시문 (라)

- H반군이 글로벌 주요 물류 항로인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홍해가 막히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수에즈운하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양 지역간 물동량의 99%를 차지하는 국제해상운송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던 선박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희망봉을 돌아서 이동해야 하므로 비용이 커지고 운송 시간이 최대 14일 정도 늘어나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기업들은 H반군의 공격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주의사항: 제시문 [나], [다], [라]는 가상 상황을 설정한 것임>

**문항 1** 제시문 [가], [나]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점)

- (1-1) 제시문 [나]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유무역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 중 제시문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 ① )에 들어갈 내용을 기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 (1-2) 제시문 [나]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유무역의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중 제시문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 ② )에 들어갈 내용을 기술하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문항 2** 제시문 [다], [라]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2-1) 제시문 [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C국 곡물 수요가 불변이라면 C국의 곡물 가격 상승 원인을 C국 곡물 시장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설명하십시오.
- (2-2) 제시문 [라]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유럽발 수입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고, 제시한 가격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2-3) 제시문 [라]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고, 제시한 가격 변화가 우리나라 대유럽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참고하여 각 문항에 답하시오. (50점)

**제시문 (가)**

- 첫째항이  $a$ 이고 첫째항부터 차례로 곱하는 일정한 수가  $r(r \neq 0, 1)$ 인 수열의 일반항을  $a_n$ , 이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S_n$ 이라고 하면,  $a_n$ 과  $S_n$ 은 각각  $a_n = ar^{n-1}$ 과  $S_n = \frac{a(r^n - 1)}{r - 1}$ 로 계산된다.

**제시문 (나)**

- 모든 선택에는 선택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인 '편익' 뿐 아니라 선택의 대가인 '비용'도 존재한다. 선택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며,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된다. 명시적 비용은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지출이고 암묵적 비용은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대안의 편익-대안의 명시적 비용)이다.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한다. 선택의 문제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비용-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순편익이 가장 큰 선택안을 고르는 것이다. 이때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제시문 (다)**

- S국은 매년 조사를 통해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한다. 이러한 인구 통계 수치는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등의 고용 지표 산출을 위해 사용된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취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제시문 (라)**

-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일 때  $n$ 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 라고 정의하면, 이 확률변수  $X$ 는 이항분포  $B(n, p)$ 를 따르고 기댓값(평균)은  $E(X) = np$ ,  $V(X) = npq$ , 표준편차  $\sigma(X) = \sqrt{npq}$ 가 된다. 그리고  $n$ 이 충분히 크다면  $X$ 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np, npq)$ 를 따르게 된다.(단,  $q = 1 - p$ ).

<주의사항: 답안 작성 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반드시 서술하시오.>

**문항 1** 송실반도체는 증가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표 1>의 생산계획안 A, B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일일 생산량을 일정한 비율로 늘리려고 한다. 송실반도체는 납품 후 남은 제품을 재고로 보관하고 있으며 이때 재고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비용은 없다. 생산계획안 A와 B는 4일 동안 운영되고 중간에 멈출 수 없다. <표 1>의 총지출과 총편익은 각 생산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한 4일 동안의 총금액이며, <표 1>에 제시된 정보 이외에 제품 생산에 미치는 다른 요인은 없다. 제시문 [가], [나]를 바탕으로 <표 1>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표 1> 송실반도체의 생산계획안

생산계획안	첫날 생산량(개)	일일 생산량 증가율(%)	총지출(만원)	총편익(만원)
A	9,000	10	5,000	6,500
B	8,000	20	4,000	6,000

- (1-1) 생산계획안 A와 B의 일일 생산량이 처음으로 11,000개를 초과하는 날은 각 생산계획안의 몇 번째 날인지 구하시오.
- (1-2) 생산계획안 A와 B 각각의 4일간의 총생산량을 구하시오.
- (1-3) 송실반도체는 해외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4일 후 총 41,000개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송실반도체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안하시오.

**문항 2** <표 2>는 S국의 2021년~2023년 기간의 고용 지표 중, 고용률과 취업률 추이에 대한 정보이다. 제시문 [다], [라]를 바탕으로 <표 2>, <표 3>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표 2> S국의 고용률과 취업률 추이

고용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고용률	74%	72%	70%
취업률	75%	78%	80%

<표 3> 표준정규분포표

$z$	0.5	1.0	1.5	2.0
$P(0 \leq Z \leq z)$	0.19	0.34	0.43	0.48

- (2-1) 2021~2023년 동안 S국의 취업자 수가 일정하다고 할 때, 이 기간에 S국의 비경제 활동 인구 추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 (2-2) S국의 한 진로취업센터는 2024년 6월 대학교 4학년 1,6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들 중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1,264명 이상 1,312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단, 해당 취업 지원프로그램 참가자 개개인이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2024년 S국 취업률과 동일하고, 2024년 S국의 고용 지표는 2023년과 동일함).

3

송실대학교(경상계열) 논술 기출문제 분석(2025)



I 논술전형 바로 알기

II 대학별 논술고사 바로 알기

III 부록

가. 문항 해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참고하여 각 문항에 답하십시오.(800 ± 80자, 50점)

문항 1 제시문 [가], [나]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점)

(1-1) 제시문 [나]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유무역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 중 제시문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 ① )에 들어갈 내용을 기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1-2) 제시문 [나]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유무역의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중 제시문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 ② )에 들어갈 내용을 기술하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 [문항 1]은 자유무역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 (1-1) 문항과 (1-2) 문항은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고자 한 자유무역의 효과와 한계를 제시문 [나]의 사례를 통해 이해하여 수험생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1-1) 문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제시문 [나]를 통해 K국 기업은 K국 요소 생산기업의 요소 대신 C국 요소 생산 기업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소를 수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는 국가 간 무역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1-2) 문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제시문 [나]를 통해 자유무역에 의해 저렴한 C국의 요소가 K국 시장을 장악 하자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K국의 요소 생산 기업이 소멸하게 되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즉, K국 요소 생산기업의 소멸은 C국 요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유발하였으며, C국의 갑작스러운 요소 수출금지 조치로 K국이 심각한 경제 충격에 노출된 상황을 보여주는 제시문 [나]를 통해 자유무역의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문항 1]의 핵심 주제인 '자유무역'은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서 다루지는 내용으로써 이를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항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항 2** 제시문 [다], [라]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2-1) 제시문 [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C국 곡물 수요가 불변이라면 C국의 곡물 가격 상승 원인을 C국 곡물 시장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설명하시오.

(2-2) 제시문 [라]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유럽발 수입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고, 제시한 가격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2-3) 제시문 [라]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고, 제시한 가격 변화가 우리나라 대유럽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 [문항 2]는 제시문 [다]와 [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정세가 유발한 무역 환경의 변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험생이 파악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문항이다.
- (2-1) 문항은 수입 물량 감소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R국과 U국 간의 전쟁으로 인해 C국 돼지 사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U국의 곡물 수입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C국 시장의 사료 공급 감소로 이어져서 사료값 상승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C국 시장의 사료에 대한 수요곡선에는 변화가 없으나 공급곡선을 좌측(또는 위쪽)으로 이동시켜 가격(균형가격: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점에서의 가격)상승이 유발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2-2) 문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H반군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유럽 간 해상운송 우회 및 지연이 유발한 국제해상운송비 상승으로 유럽발 수입품 가격이 인상하게 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격 인상이 국내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답변을 작성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3) 문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H반군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높은 국제운송비가 유지되어 대유럽 수출 물품 가격을 인상하게 됨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답변을 작성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 [리]를 참고하여 각 문항에 답하시오. (50점)

**문항 1** 송실반도체는 증가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표 1>의 생산계획안 A, B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일일 생산량을 일정한 비율로 늘리려고 한다. 송실반도체는 납품 후 남은 제품을 재고로 보관하고 있으며 이때 재고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비용은 없다. 생산계획안 A와 B는 4일 동안 운영되고 중간에 멈출 수 없다. <표 1>의 총지출과 총편익은 각 생산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한 4일 동안의 총금액이며, <표 1>에 제시된 정보 이외에 제품 생산에 미치는 다른 요인은 없다. 제시문 [가], [나]를 바탕으로 <표 1>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표 1> 송실반도체의 생산계획안

생산계획안	첫날 생산량(개)	일일 생산량 증가율(%)	총지출(만원)	총편익(만원)
A	9,000	10	5,000	6,500
B	8,000	20	4,000	6,000

(1-1) 생산계획안 A와 B의 일일 생산량이 처음으로 11,000개를 초과하는 날은 각 생산계획안의 몇 번째 날인지 구하시오.

(1-2) 생산계획안 A와 B 각각의 4일간의 총생산량을 구하시오.

(1-3) 송실반도체는 해외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4일 후 총 41,000개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송실반도체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안하시오.

- [문항 1]은 제시문 [가]와 [나]에서 설명하는 등비수열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응시자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 (1-1) 문제와 (1-2) 문제는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통해 응시자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 등을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 (1-3) 문제의 경우 응시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비용, 편익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진행하여 응시자의 합리적 선택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근거를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해당 문항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시문 [나]의 내용에 언급된 여러 비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용 산출을 위한 간단한 사칙연산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응시자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항 2** <표 2>는 S국의 2021년~2023년 기간의 고용 지표 중, 고용률과 취업률 추이에 대한 정보이다. 제시문 [다], [라]를 바탕으로 <표 2>, <표 3>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표 2> S국의 고용률과 취업률 추이

고용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고용률	74%	72%	70%
취업률	75%	78%	80%

<표 3> 표준정규분포표

$z$	0.5	1.0	1.5	2.0
$P(0 \leq Z \leq z)$	0.19	0.34	0.43	0.48

(2-1) 2021~2023년 동안 S국의 취업자 수가 일정하다고 할 때, 이 기간에 S국의 비경제 활동 인구 추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2-2) S국의 한 진로취업센터는 2024년 6월 대학교 4학년 1,6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들 중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1,264명 이상 1,312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단, 해당 취업 지원프로그램 참가자 개개인이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2024년 S국 취업률과 동일하고, 2024년 S국의 고용 지표는 2023년과 동일함).

- [문항 2]는 제시문 [다]와 [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 지표와 이산확률분포의 대표적인 분포인 이항분포에 대한 응시자의 이해 정도를 판단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 (2-1) 문제의 경우 응시자가 제시문에 서술된 고용률, 취업률 개념을 바탕으로 개별 고용 지표의 분모를 유추하고 이를 <표 2>의 정보와 결합하여 비경제 활동 인구의 변화 추이를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 (2-2) 문제의 경우 응시자가 먼저 <표 2>로부터 2024년 S국 취업률 정보를 파악하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및 <표 3>의 표준정규분포표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제시문에 주어진 도표에서의 정보를 통해 수치의 변화와 확률 계산을 위해서는 계산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문제에 주어지지 않은 취업자수를 미지수로 표현하고 S국의 한 진로취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의 수를 확률변수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문제 풀이를 시작할 때 변수 설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미지수와 변수로 과감히 설정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 나. 채점 기준

### 문제 1 배점: 5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문항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기준 1: 자유무역을 통한 낮은 가격의 물품 수입으로 기업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적시</li> <li>평가 기준 2: K국 기업이 K국 기업 요소가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C국의 요소를 수입하였음을 설명</li> </ul>
문항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기준 3: 자유무역을 해외시장의 높은 의존도를 유발할 수 있음을 설명</li> <li>평가 기준 4: K국 요소 생산기업의 소멸이 보여주는 국내산업 재편이 C국 시장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를 유발하였음을 적시</li> </ul>
문항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기준 5: C국 시장의 곡물 수요곡선은 특별히 이동할 이유없이 고정됨을 적시</li> <li>평가 기준 6: 곡물 수입 감소로 공급곡선이 좌측(또는 위쪽)으로 이동함을 설명</li> </ul>
문항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기준 7: 우리나라-유럽간 국제운송비 인상은 유럽발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가져옴을 설명</li> <li>평가 기준 8: 유럽발 수입품의 가격 인상은 국내물가인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설명</li> </ul>
문항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기준 9: 우리나라-유럽간 국제운송비 인상은 우리나라 대 유럽 수출품의 가격인상을 가져옴을 설명</li> <li>평가 기준 10: 대유럽 수출품의 가격 인상은 유럽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물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유발하여 수출 부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li> </ul>

### 문제 2 배점: 5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문항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기준 1: 생산계획안 A와 B의 일반향을 올바르게 제시</li> <li>평가 기준 2: 생산계획안 A와 B의 일일생산량이 처음으로 11,000개를 초과하는 날을 정확하게 제시</li> </ul>
문항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기준 3: 생산계획안 A와 B의 총생산량을 계산하는 방법(등비수열의 합)을 올바르게 제시</li> <li>평가 기준 4: 생산계획안 A와 B의 총생산량을 정확하게 제시</li> </ul>
문항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기준 5: 비용-편익 분석을 올바르게 사용(1점)</li> <li>평가 기준 6: 합리적 선택이 생산계획안 A임을 정확하게 제시</li> </ul>
문항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기준 7: 주어진 고용 지표 공식을 올바르게 사용</li> <li>평가 기준 8: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남을 정확하게 제시</li> </ul>
문항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기준 9: 이항분포의 확률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확률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정황하게 계산하여 제시한 경우</li> <li>평가 기준 10: 해당 조건의 확률을 정확하게 제시</li> </ul>

## 다. 예시 답안

## 문제 1

## 문항 1

- (1-1) 자유무역을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상품을 쉽게 수입할 수 있어 생산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K국 기업이 자국의 요소 대신 저렴한 C국의 요소를 수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한 것으로부터 제시할 수 있다.
- (1-2) 자유무역에서 대외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특정 산업의 국내기업이 소멸하는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해당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높여 국내경제가 국제경제 상황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K국 요소기업의 소멸로 K국 산업이 재편되었으며, C국의 요소 수출금지 조치에 K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C국 시장에 심각한 의존도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제시할 수 있다.

## 문항 2

- (2-1) R국-U국간 전쟁은 U국 곡물의 수입을 어렵게 하였으며, 이는 C국 시장의 사료 공급 감소로 이어져 사료값 상승을 유발하였다. C국 곡물 수요는 불변이라 가정하였으므로, C국 시장의 사료에 대한 수요곡선은 변화가 없으나 공급곡선을 좌측(또는 위쪽)으로 이동시켜 가격 상승이 유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2) H반군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유럽 간 해상운송 우회 및 지연이 유발한 국제해상운송비 상승으로 유럽발 수입품 가격이 인상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국내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 (2-3) H반군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높은 국제운송비가 유지되어 대유럽 수출 물품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 문제 2

## 문항 1

- (1-1) 생산계획안 A의  $n$ 번째 날의 일일 생산량을  $a_n$ , 생산계획안 B의  $n$ 번째 날의 일일 생산량을  $b_n$ 이라 하면 생산계획안 A의 일반항  $a_n = 9000 \times 1.1^{n-1}$ , 생산계획안 B의 일반항  $b_n = 8000 \times 1.2^{n-1}$ 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계획안 A와 B 각각의 일일생산량을 계산해보면 4일 째 생산계획안 A의 일일생산량은  $a_4 = 9000 \times 1.1^3 = 9000 \times 1.331 = 11979$ 이고 3일째 생산계획안 B의 일일생산량은  $b_3 = 8000 \times 1.2^2 = 8000 \times 1.440 = 11520$ 이다. 따라서 생산계획안 A는 4일째에 일일생산량이 11,000개를 넘고 생산계획안 B는 3일째에 일일생산량이 11,000개를 넘는다.

(1-2) 생산계획안 A의 총생산량  $S_4 = \frac{9000 \times (1.1^4 - 1)}{1.1 - 1} = 41769$ 이고

생산계획안 B의 총생산량  $T_4 = \frac{8000 \times (1.2^4 - 1)}{1.2 - 1} = 42944$ 이다.

(1-3)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생산계획안을 선택하면 된다. 생산계획안 A의 순편익은 6,500만원에서 기회비용을 빼면 되므로 6,500만원에서 5,000만원과 2,000만원의 합을 빼면 -500만원이다. 생산계획안 B의 순편익은 6,000만원에서 기회비용을 빼면 되므로 6,000만원에서 4,000만원과 1,500만원의 합을 빼면 500만원이다. 따라서 순편익이 양수인 생산계획안 B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문항 2**

(2-1) <표 3>으로부터 S국의 2021년~2023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취업률은 상승하고 있다. 또한 (2-1) 문항에서 “2021년~2023년 S국의 취업자수는 일정하다.” 라는 정보를 종합하여 취업률 공식으로부터 취업률 상승을 위해서는 취업자 수가 일정할 때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률 공식으로부터 고용률 하락을 위해서는 취업자 수가 일정할 때 15세 이상의 인구는 증가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2021년~2023년 S국의 1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비경제 활동 인구는 반드시 증가하여야 한다.

(2-2) 2024년 6월 해당 취업 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개개인이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2023년 S국의 취업률과 같고 2024년 S국의 고용 지표는 2023년과 같아 80%, 즉 0.80이다. 따라서 S국 한 진로 취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의 확률분포 X는 이항분포 B(1600, 0.8)을 따른다. 따라서 확률분포 X의 평균  $E(X) = 1600 \times 0.8 = 1280$ , 분산  $V(X) = 1600 \times 0.8 \times 0.2 = 256$ , 표준편차  $\sigma(X) = 16$ 이다. 그리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에서 확률변수  $Z = \frac{X - 1280}{16}$ 은 정규분포 N(0, 1)을 따르므로 구하는 확률은

$$P(1264 \leq X \leq 1312) = P\left(\frac{1264 - 1280}{16} \leq Z \leq \frac{1312 - 1280}{16}\right) = P(-1 \leq Z \leq 2)$$

$$= P(0 \leq Z \leq 1) + P(0 \leq Z \leq 2) = 0.34 + 0.48 = 0.82$$

즉, 82%이다.

4

송실대학교(경상계열) 논술 준비 팁



가. 송실대학교 경상계열 논술 문항 출제 경향 알기

- 송실대학교 논술전형에서 경상계열 논술 문항은 경제 관련 제시문이 주로 출제가 된다.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학적 개념을 소개하는 제시문과 경제 현상에 대한 수학적 사고 방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된다. 그리고 경제 과목에서 다루는 개념에 기반을 둔 논술 문항과 함께 출제되는 형태이다. 2023~2025 대입 경상계열 논술 문항에서 출제된 경제 과목과 수학 과목의 단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제	수학		
		수학	수학 I	확률과 통계
2025대입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실업과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2024대입	세계 시장과 교역, 경제 생활과 금융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 순열과 조합	등차수열의 합	조건부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모평균의 추정
2023대입	시장과 경제활동, 경제 생활과 금융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평행이동	지수법칙, 로그함수의 그래프, 등비수열의 합	

나. 경제교과와 수학교과 간 개념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기

- 경제 과목에서 배운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항이라도, 수학 교과의 개념을 활용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지 호기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실제로 배운 수학 교과의 개념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또한, 1학년 시기에 배운 수학에 대한 복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수업 시간을 통해 각 교과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과 간 개념을 연결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한다. 학생 스스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만들어보고 이를 경제 과목이나 수학 교과의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수요와 공급곡선을 나타내는 함수의 그래프는 무엇일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데 필요한 수학 개념에는 무엇이 있을까?’ 등의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도구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는 식이다.

- 정량적인 계산 문제와 더불어 제시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수험생에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표현하도록 하는 논술 문항의 형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문항 해결의 열쇠가 된다. 평상시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읽고 글을 요약해 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연습을 한다면 논술 문항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다. 경상계열 논술 고사의 접근법 파악하기

- 위와 같은 질문 만들기과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상계열 논술 고사의 접근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5 대입 논술고사 [문제 2]의 [문항 1-1]에서 ‘일일 생산량을 일정한 비율로 늘리려고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를 읽고 수학 I 과목에서의 등비수열의 정의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문항 (1-2)에서 ‘4일간의 총생산량을 구하시오.’라는 조건을 보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항 (1-3)과 같은 형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항에 주어진 조건을 차분히 읽고 도표에 주어져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문제 2]의 [문항 2]의 경우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1,264명 이상 1,312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에서처럼 수학 교과 문제의 형태도 출제될 수 있다. 수학 I 과목과 수학 II 과목에서 배운 개념은 문항에 주어진 상황을 보고 개념을 떠올려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문항은 수학 문제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해결이 쉬울 수 있다.
- 평소 수학 문제 풀이에 있어서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는 연습을 충실히 한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덧붙여 실제로 상경계열 다수의 학과에서는 학부 입학 후 통계학에 대한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확률과 통계 과목에 대한 충실한 학습이 필요하다.

5

송실대학교(경상계열) 논술고사 대비 연습문제



문제 1

원화를 사용하는 갑국에서 거주 중인 A는 미국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다. 표는 A의 시기별 전기 대비 미국화 달러 표시 임금 변화율과 각 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전기 대비 임금 변화율을 나타낸다.

구분	t기	(t+1)기
달러화 표시 임금 변화율(%)	2	6
원화 환산 임금 변화율(%)	7	-2

- 1) t기와 비교하여 (t+1)기에 환율이 표와 같이 변동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국발 수입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고, 제시한 가격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시오.(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 t기와 비교하여 (t+1)기에 환율이 표와 같이 변동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고, 제시한 가격 변화가 우리나라 대미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시오.(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출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17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1-1) 원화가 환율이 낮아지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가격이 원화가 화폐, 즉 원화를 강요하고 내려간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자재나 부품등을 더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소비가 선행되어 넓어진다.

1-2)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 가격이 당년  
 기준으로 오르게 된다. 따라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한국 제품이 더 비싸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요 및량이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에서 수요가 감소해  
 적자가 될 수 있다.

1.  $t$ 기에 비교하여  $(t+1)$ 기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점을 제시된 자료의 통화별 환산 임금 변화율을 근거로 제시하면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
2.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미국발 수입품 가격 변화와 대미 수출품 가격 변화를 잘 설명하였다.

 예시 답안

$t$ 기에 비교하여  $(t+1)$ 기에 달러화 표시 임금은 증가하였지만, 원화 환산 임금은 감소하였다. 이는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 1)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표시한 미국발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원자재와 수입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2)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달러화로 표시한 대미 수출품 가격이 상승함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문제 2

[가] 일반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듯이 노동의 가격인 임금( $P$ )은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노동의 수요량( $Q_D$ )과 공급량( $Q_S$ )이 서로 같을 때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하며, 이때의 가격과 거래량을 각각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한편, A국의 노동 수요와 공급 곡선 함수는 아래와 같으며 A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설정하고자 한다. ( $Q_D(Q_S)$ 는 10만명 단위로 표시된 노동의 수요량(공급량)을,  $P$ 는 달러로 표시한 임금을 의미함)

$$Q_D = -P + 11.5$$

$$Q_S = P - 2.5$$

- 출처: 2024학년도 숭실대학교 논술고사 경상계열 제시문 [대]

[나] 정부는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금지하는 가격 하한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가격 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저 임금 제도를 들 수 있다. 최저 임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최저 임금 제도의 한계도 있다. ( ① )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분석하여 ( ① )에 들어갈 내용을 기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제시문 [가]에 제시된 A국의 임금과 노동량을 근거로 활용해야 함)

-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p.79)

###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노동수요공급곡선에 의한 시장의 최적임금과 노동의 수요량은 각각 7.4, 5로 계산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도입 시 시장은 1.5의 노동자만 고용하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10을 가정시 노동수요량인 7.5를 6만큼 초과하게 되어 그만큼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 총잉여의 감소를 불러일으켜 자중손실을 만들어낸다.

주어진 노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바탕으로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점과 사회적 잉여 감소를 불러 일으킨다는 점을 밝혀 잘 작성하였다.

### 예시 답안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 시장의 초과 공급을 발생시켜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주어진 노동 수요 곡선과 공급곡선을 토대로 계산하면 노동의 거래량은 45만명, 시장 임금은 7달러이다.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설정할 경우 노동의 수요량은 15만명, 공급량은 75만명이 되므로 60만명의 노동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문제 3**

A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이유로 A국과 교역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관세는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재화가 국경을 넘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A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국내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국내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목적과, 관세로 얻은 수입을 통해 A국의 국가 재원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반면 A국과 교역하는 많은 국가들은 A국의 관세 정책이 자유무역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 제시문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對) A국 수출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고, 제시한 가격 변화가 우리나라 대(對) A국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2025학년도 숭실대학교 논술고사 경상계열 문항 2번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 첨: 관세부과로 인해 기업은 관세금액 증가분의 일부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의 수출품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이는 A국과의 무역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환율에도 영향을 미쳐 환율하락을 야기하게 된다.  
관세부과가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학생이 작성한 답안과 같이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은 부과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출품 가격의 상승을 야기한다. 따라서 수출품 가격의 상승은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학생의 답변은 적절하다. 다만 관세 부과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고, 환율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환율 변동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다.

**예시 답안**

A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지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의 대(對) A국 수출품 가격은 상승한다.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감소한다.



## 문제 4

어떤 박테리아 수는 매 시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한다. 현재  $a$ 마리인 이 박테리아가 10시간 후에는 6만 마리, 20시간 후에는 9만 마리가 된다고 할 때,  $a$ 의 값을 구하시오.

- 고등학교 『수학 I』(좋은책신사고, p.153)



##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박테리아가 매 시간  $r$ 의 비율로 증가한다고 하자.

$$\text{문제 조건에 의해 } 60,000 = ar^{10} \dots \text{㉠}, \quad 90,000 = ar^{20} \dots \text{㉡}$$

$$\text{㉡} \div \text{㉠} \text{ 하면 } \frac{ar^{20}}{ar^{10}} = r^{10} = \frac{9}{6} = \frac{3}{2} \dots \text{㉢}$$

$$r = \sqrt[10]{\frac{3}{2}} \quad 60,000 = a \times \left(\frac{3}{2}\right)^{\frac{9}{10}}$$

학생의 풀이는 시간 개념을 잘못 적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할 때에는 ‘ $n$ 시간 후의 박테리아 수를  $a_n$ 이라고 하자’라고 쓰고 수식으로 표현하면  $n$ 에 숫자를 대입할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에서 10시간 후와 20시간 후의 박테리아 수를 제시했으므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의하여

$$a_{10} = a \times r^{10} = 60000 \dots \text{㉠}, \quad a_{20} = a \times r^{20} = 90000 \dots \text{㉡} \text{이다.}$$

$$\text{㉡} \div \text{㉠} \text{에서 } r^{10} = \frac{90000}{60000} = \frac{3}{2} \text{이므로 이를 ㉠에 대입하면}$$

$$a = 60000 \times \frac{2}{3} = 40000 \text{(마리)임을 알 수 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여 식의 특징을 고려하여 번끼리 나누는 사고를 한 점은 좋다.



## 예시 답안

박테리아 수가 매 시간  $r$ 의 비율로 증가한다고 하자.  $n$ 시간 후의 박테리아 수를  $a_n$ 이라고 하면 문제 조건에 의해

$$a_{10} = a \times r^{10} = 60000 \dots \text{㉠}, \quad a_{20} = a \times r^{20} = 90000 \dots \text{㉡} \text{이다.}$$

$$\text{㉡} \div \text{㉠} \text{에서 } r^{10} = \frac{90000}{60000} = \frac{3}{2} \text{이므로 이를 ㉠에 대입하면 } a = 60000 \times \frac{2}{3} = 40000 \text{(마리)}$$

**문제 5**

지연이네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가구 중에서 20%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한다. 이 단지에서 임의로 100가구를 택할 때, 이 중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이 10가구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단,  $Z$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P(0 \leq Z \leq 2.5) = 0.4938$ 로 계산한다.)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좋은책신사고, p.103)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X \sim B(100, 0.2)$  이므로  $E(X) = 100 \times 0.2 = 20$ ,  
 $V(X) = 100 \times 0.2 \times 0.8 = 16$  이다. 따라서  $np \geq 5$ ,  
 $n(1-p) \geq 5$ 를 만족하므로  $X$ 는 평균이 20, 분산이  
 16인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 따라서

$$P(X \geq 10) = P\left(Z \geq \frac{10-20}{4}\right) = 0.9938.$$

문제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의 수가 이항분포임을 잘 이해하였고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는 조건도 정확하게 기술하여 정답에 이른 점은 좋다. 다만, 계산을 위해 언급되어야 할 내용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의 수를 확률변수  $X$ 라 하자.’ 정도의 표현을 서술하고 ‘확률분포  $X$ 는 이항분포  $B(100, 0.2)$ 를 따른다’를 서술하면 채점자가 학생의 생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답안**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의 수를 확률변수  $X$ 라 하면 확률분포  $X$ 는 이항분포  $B(100, 0.2)$ 를 따른다. 이때,  $E(X) = 100 \times 0.2 = 20$ ,  $V(X) = 100 \times 0.2 \times 0.8 = 16$ 이다. 따라서  $np \geq 5$ ,  $n(1-p) \geq 5$ 를 만족하므로 확률변수  $X$ 는 평균이 20, 분산이 16(또는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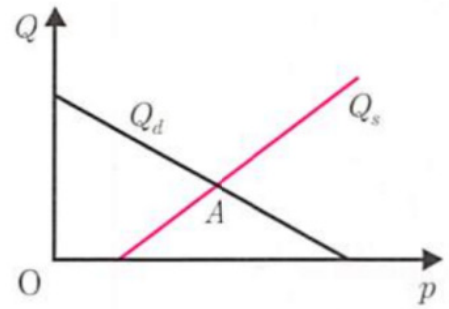
$$P(X \geq 10) = P\left(Z \geq \frac{10-20}{4}\right) = 0.9938$$

**문제 6**

그림은 어떤 상품의 수요와 공급함수이며  $p$ 를 가로축으로 놓은 그래프이다. 이 상품의 가격  $p$ 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을  $Q_d$ , 공급량을  $Q_s$ 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이들을 각각  $p$ 에 대한 일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Q_d = a - bp, \quad Q_s = -c + dp$$

여기서  $a, b, c, d$ 는 상수이다. 두 함수  $Q_d$ 와  $Q_s$ 의 그래프의 교점  $A$ 가 제 1사분면에 있을 때 시장 균형가격이 결정된다. 위의 모형에서 시장 균형가격이 결정되기 위한  $a, b, c, d$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 고등학교 『경제 수학』 (광주광역시교육청, p.134)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a + bp = -c + dp$$

$$(b - d)p = a - c \quad \text{이라. } b \neq d \text{ 이면 } p = \frac{a - c}{b - d}$$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점의 좌표가 각각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이라는 점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균형가격을 수식으로 표현은 했지만 결정 조건을 서술했다고 하기에는 풀이 과정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균형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서술, 균형 가격을 결정한 후 이때의 균형 수급량을 계산하는 과정, 상수  $a, b, c, d$ 의 경우의 수에 따라 균형 가격이 결정되기 위한  $a, b, c, d$ 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줄에 서술한 수식을 작성하기 이전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이 결정되므로’ 정도의 표현을 써주는 것이 좋다. 또한  $p = \frac{a - c}{b - d}$ 의 결과를  $Q_d = a - bp, Q_s = -c + dp$ 의 수식에 대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이 주어진 그래프에서 모두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조건 서술을 해야 한다.

$$Q_d = -a + b \times \frac{a - c}{b - d} = \frac{ad - bc}{b - d} > 0, \quad Q_s = -c + d \times \frac{a - c}{b - d} = \frac{ad - bc}{b - d} > 0$$

위 두 조건에서  $b$ 와  $d$ 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라는 점을 언급하고 이에 따라  $b < 0, d > 0$ 라는 점을 파악한다면  $ad - bc < 0$ 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모두 생략되어 있으므로 균형가격에 대한 부분만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예시 답안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이 결정되므로

$$-a + bp = -c + dp$$

$$(b-d)p = a-c$$

$b \neq d$ 이면  $p = \frac{a-c}{b-d}$  ..... ①이고, 이는 균형가격이 된다.

문제에 주어진 그래프에 따르면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은 모두 양수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균형가격을 의미하는

①을 문제에 주어진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함수식에 대입하면,

$$Q_d = -a + b \times \frac{a-c}{b-d} = \frac{ad-bc}{b-d} > 0, \quad Q_s = -c + d \times \frac{a-c}{b-d} = \frac{ad-bc}{b-d} > 0$$

임을 알 수 있다. 이때,  $b$ 와  $d$ 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이므로  $b < 0, d > 0$ 이다.

그러므로  $ad-bc < 0$ 이다.

# 10 중앙대학교

2026 논술 고사 일정	전형 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시험 시간	문항 수	글자 수, 배점	주 출제 교과 및 과목 (출제 범위)
2025. 11. 23. (일)	논술 70 교과 20 출결 10	국수영탐(1과목) 중 3개 합 6 이내 (영어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하여 1등급으로 간주)	120분	3문항	1번/2번: 550-570자, 40점	국어 및 사회 공통/일반선택 과목
					3번: 제한 없음, 20점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 1

### 중앙대학교(경영경제계열) 수리 논술 준비



※ 중앙대학교(경영경제계열) 논술은 본 자료집에서 통합 교과형 논술로 출제되는 1번과 2번 문항을 제외하고 수리 논술로 출제되는 3번 문항만 다루고 있습니다. 통합 교과형 논술로 출제되는 문항과 관련 정보는 중앙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가. 연계 과목 / 핵심 용어 및 개념

연도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025	확률과 통계	조건부확률, 연속확률변수, 확률분포
2024	확률과 통계	사건의 독립, 이항분포,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2023	확률과 통계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

#### 나. 문항 유형 특성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계열 모집단위(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부 광고홍보학, 국제물류학과, 경영학부 경영학, 경영학부 글로벌금융) 논술고사의 경우 언어논술 2문항과 수리논술 1문항이 출제되는데 수리논술의 경우 위의 『1. 연계 과목 / 핵심 용어 및 개념』에 나타난 것처럼 주로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출제됨.
- 논술 고사를 통해 학생들을 변별해야 하는 만큼 상황을 설명하는 장문의 제시문이 주어짐.

- 확률과 통계 과목의 경우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의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확률 단원과 통계 단원의 기초가 되는 경우의 수에서는 제시문이 3년 동안 출제되지 않고 있고, 확률 단원의 기본적인 개념 보다는 확률의 응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부확률, 사건의 독립과 종속, 독립 시행의 확률 등의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
- 상황 제시문 이후에 제시되는 문항의 경우 부분 문항 없이 단일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고, 확률변수의 기댓값  $E(X)$ ,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한 확률변수에 대한 확률 계산 문제  $P(a \leq X \leq b)$ , 사건  $A$ 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 가 일어날 확률인  $P(B|A)$ 을 구하는 문제 등 문제의 발문이 확률과 통계 과목의 학교 시험 또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문항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다. 출제 자료 및 도서 출처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률과 통계, 권오남 외, 교학사, 2023, p62-66, p82-88</li> <li>• 확률과 통계,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4, p62-62, p83-88</li> <li>• 확률과 통계, 고성은 외, 좋은책 신사고, 2020, p58-61, p79-83</li> </ul>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률과 통계, 권오남 외, 교학사, 2023, p67-68, p96-108</li> <li>• 확률과 통계,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22, p66-67, p98-109</li> <li>• 확률과 통계, 고성은 외, 좋은책 신사고, 2020, p63-64, p91-103</li> </ul>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률과 통계,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20, p80-92</li> <li>• 확률과 통계, 권오남 외, 교학사, 2020, p82-95</li> <li>• 확률과 통계, 고성은 외, 좋은책 신사고, 2020, p79-90</li> <li>• 확률과 통계, 황선욱 외, 미래엔, 2020, p79-91</li> </ul>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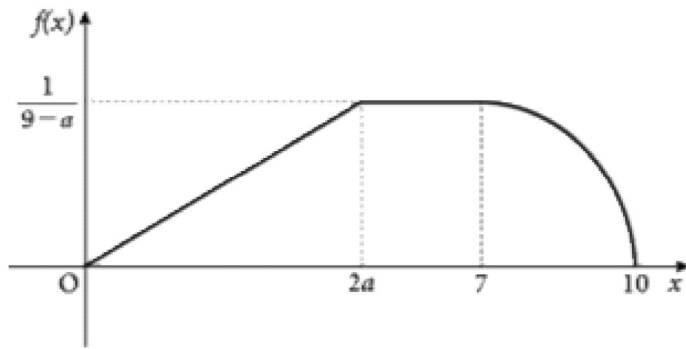
중앙대학교(경영경제계열) 수리논술 기출문제(2023~2025)



2025 대입 기출 (2024. 11. 23. (토) 시행)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풀이 과정 포함)

- 두 국가 M과 N에서 각각 48명과 42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스스로 진로를 결정한 정도가 진로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한 정도를 '진로자기결정성'이라 할 때, 진로자기결정성을 1(낮음), 2(보통), 3(높음)의 값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가 M의 학생 48명 중 진로자기결정성이 1이라고 답한 학생이 8명, 2라고 답변한 학생이 28명, 3이라고 답한 학생이 12명이다.
- 국가 N의 학생 42명 중 진로자기결정성이 1이라고 답한 학생이 12명, 2라고 답변한 학생이 21명, 3이라고 답한 학생이 9명이다.
- 한편, 연속확률변수인 진로 만족도  $X$ 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leq X \leq 10$ 이고, 진로자기결정성 값이  $a$ 일 때  $X$ 의 확률밀도함수  $f(x)$ 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 어떤 학생의 진로 만족도가 7 이상이면, '매우 만족'으로 간주한다.

문제 3

선발된 9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하여 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더니 '매우 만족' 이었다고 할 때, 이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2024 대입 기출 (2023. 11. 26. (일) 시행)**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한 음악 평론가는 새롭게 발표된 노래 한 곡을 듣고,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면 작곡가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한다. 새롭게 발표된 이 노래는 작곡가 A 아니면 작곡가 B가 작곡했고, 두 기준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 기준 1: 새로운 노래의 마지막 2개 소절 중 1개 소절 이상이 예전에 A가 작곡했던 노래의 소절과 유사하다.
- 기준 2: 새로운 노래의 후렴구 길이가 44초 이상 58초 이하이다.

각 기준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가정 1: 음악 평론가가 A가 작곡한 노래의 1개 소절에 대해 예전에 A가 작곡했던 노래의 1개 소절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확률은  $a$ 이다. 그리고 B가 작곡한 노래의 1개 소절에 대해 예전에 A가 작곡했던 노래의 1개 소절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확률은 0.2이다.
- 가정 2: A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는 정규분포  $N(50, 4^2)$ , B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는 정규분포  $N\left(58, \left(\frac{14}{3}\right)^2\right)$ 을 따른다.

**문제 3**

새로 발표된 노래가 실제 A가 작곡한 노래인 경우 음악 평론가가 이 노래를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할 확률은  $p$ 이고, 실제 B가 작곡한 노래인 경우 이 노래를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할 확률은  $q$ 라고 하자.

이때  $p$ 가  $q$ 의  $\frac{16}{5}$ 배 이상일 될  $a$ 의 최솟값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z$	$P(0 \leq Z \leq z)$
0.5	0.19
1.0	0.34
1.5	0.43
2.0	0.47
2.5	0.49
3.0	0.50

**2023 대입 기출 (2022. 11. 27.(일) 시행)**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계약자를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이름을 각각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명명하였다. 이 보험회사는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계약자의 사고 횟수에 따라 계약자가 속하는 그룹을 해마다 1월 1일에 재분류한다. 다음의 표는 올해 1년 동안 발생한 사고 횟수에 따라 각 그룹에 속했던 계약자들이 내년에 어느 그룹에 속하게 될지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저위험군에 속한 계약자의 사고 횟수가 한 번일 때 내년에 중위험군으로 재분류된다.

		사고 횟수 $X$ 에 따라 재분류될 내년의 계약자 그룹			
		$X=0$	$X=1$	$X=2$	$X \geq 3$
올해의 계약자 그룹	저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사고 횟수  $X$ 는 계약자 그룹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X$	0	1	2	3	4이상	합계
$P(X = x)$	0.1	0.2	0.3	0.2	0.2	1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그룹에 속한 계약자에 대한 연 보험료는 각각 40만원, 50만원, 60만원이다.

**문제 3**

올해 계약자 그룹의 재분류 후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그룹에 속한 계약자 수가 각각 200명, 300명, 100명이라고 하자. 보험회사가 내년에 계약자들로부터 받을 연 보험료 총액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단, 보험 계약자의 추가 및 해약은 없다고 가정한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3

중앙대학교(경영경제계열) 수리논술 기출문제 분석



가. 문항 해설

2025 대입 기출문제: 문제 3

선발된 9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하여 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더니 ‘매우 만족’ 이었 다고 할 때, 이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 2025 대입에서 출제된 문항 형식은 사건  $A$  가 일어났을 때 사건  $B$  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조건부확률의 정의를 사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 문제의 발문은 명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로 만족도의 조사 결과와 국가별 학생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시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해당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 연속확률변수  $X$  의 확률밀도함수가 ‘진로자기결정성’  $a$  의 값에 따라 변하며 그에 따른 ‘매우 만족’ 일 확률을  $a$  에 대한 함수로 나타냄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다.
- 제시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별 ‘매우 만족’ 일 확률을 구하고, 확률의 곱셈정리와 조건부확률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을 구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제시문에 문장 형식으로 주어진 정보를 적절한 분류 기준에 의해 도표로 나타내는 역량도 필요하다.

2024 대입 기출문제: 문제 3

새로 발표된 노래가 실제 A가 작곡한 노래인 경우 음악 평론가가 이 노래를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할 확률은  $p$ 이고, 실제 B가 작곡한 노래인 경우 이 노래를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할 확률은  $q$ 라고 하자. 이때  $p$ 가  $q$ 의  $\frac{16}{5}$  배 이상일 될  $a$ 의 최솟값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z$	$P(0 \leq Z \leq z)$
0.5	0.19
1.0	0.34
1.5	0.43
2.0	0.47
2.5	0.49
3.0	0.50

- 2024 대입에서 출제된 문항 형식도 사건  $A$  가 일어났을 때 사건  $B$  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조건부확률의 정의를 사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 제시문에서 주어진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확률을 계산한 후 독립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 이항분포에서의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과 정규분포에서의 표준정규분포표를 활용한 확률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2023 대입 기출문제: 문제 3**

올해 계약자 그룹의 재분류 후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그룹에 속한 계약자 수가 각각 200명, 300명, 100명이라고 하자. 보험회사가 내년에 계약자들로부터 받을 연 보험료 총액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단, 보험 계약자의 추가 및 해약은 없다고 가정한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3가지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 첫 번째, 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확률분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 두 번째, 내년의 계약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 수에 대한 기댓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 번째, 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보험료에 대한 기댓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채점 기준**

**2025 대입 기출문제: 2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문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자기결정성 점수가 <math>a</math>일 때 ‘매우 만족’일 확률을 정확히 구하면 +6점</li> <li>• <math>P(A \cap B)</math>, <math>P(A^c \cap B)</math>를 정확히 계산하면 각 +6점(총 +12점)</li> <li>• 답을 정확히 계산하면 +2점</li> </ul>

※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답이 틀리더라도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채점자는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1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4 대입 기출문제: 2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문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1을 충족하는 경우의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3점</li> <li>- B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3점</li> </ul> </li> <li>• 기준 2를 충족하는 경우의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3점</li> <li>- B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면 +3점</li> </ul> </li> <li>• <math>p</math>와 <math>q</math>를 정확히 계산하면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p</math>를 정확히 계산하면 +2점</li> <li>- <math>q</math>를 정확히 계산하면 +2점</li> </ul> </li> <li>• <math>a</math>의 최솟값을 정확히 계산하면 +4점</li> </ul>

2023 대입 기출문제: 2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문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확률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 +6점</li> <li>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명수의 기댓값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 +6점</li> <li>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보험료의 기댓값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 +5점</li> <li>내년의 연 보험료 총액의 기댓값 '33300(만원)'을 정확하게 계산한 경우: +3점</li> </ul>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 ~ 2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다. 예시 답안

2025 대입 기출문제

(1) 진로자기결정성의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자기결정성		1	2	3	합계
학생 수	국가 M	8	28	12	48
	국가 N	12	21	9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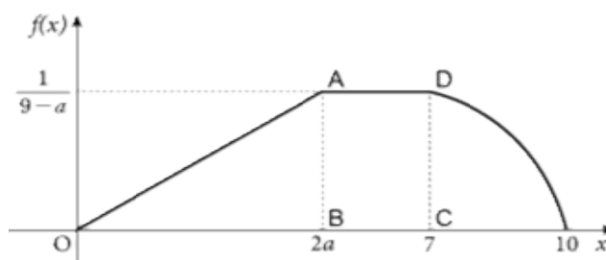
위의 표를 통해 국가별로 진로자기결정성의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자기결정성		1	2	3	합계
학생 비율	국가 M	$\frac{1}{6}$	$\frac{7}{12}$	$\frac{1}{4}$	1
	국가 N	$\frac{2}{7}$	$\frac{1}{2}$	$\frac{3}{14}$	1

(2) 진로자기결정성 값이  $a$ 일 때,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은 아래 그림에서  $7 \leq x \leq 10$ 에서의 그래프 아래 영역의 넓이와 같다. 이는 다시 말해 1에서 삼각형 OAB의 넓이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뺀 것과 같다.

삼각형 OAB의 넓이는  $\frac{a}{9-a}$ , 사각형 ABCD의 넓이는  $\frac{7-2a}{9-a}$ 이므로, A점수가  $a$ 일 때, '매우 만족'일

확률은  $1 - \frac{a}{9-a} - \frac{7-2a}{9-a} = \frac{2}{9-a}$ 이다.



(3) 임의로 한 학생을 선택하였을 때,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인 사건을  $A$ ,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사건을  $B$ 라 하자. 임의로 선택한 학생의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이었을 때, 그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일 확률은

$$P(A|B) = \frac{P(A \cap B)}{P(B)} \text{이다.}$$

(4)  $P(A \cap B)$ 는 어떤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이면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다. 확률의 곱셈법칙에 의해  $P(A \cap B) = P(A)P(B|A)$ 이다. 또한,  $P(A) = \frac{48}{90} = \frac{8}{15}$ 이다.

(5) (1), (2)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국가 M의 학생 중  $\frac{1}{6}$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10$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8} = \frac{1}{4}$ 이다.

- 국가 M의 학생 중  $\frac{7}{12}$ 는 진로자기결정성이  $a=20$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7}$ 이다.

- 국가 M의 학생 중  $\frac{1}{4}$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30$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6} = \frac{1}{3}$ 이다.

따라서  $P(B|A) = \left(\frac{1}{6} \times \frac{1}{4}\right) + \left(\frac{7}{12} \times \frac{2}{7}\right) + \left(\frac{1}{4} \times \frac{1}{3}\right) = \frac{7}{24}$ 이다. 이를 종합하면

$$P(A \cap B) = \frac{8}{15} \times \frac{7}{24} = \frac{7}{45} \text{이다.}$$

(6) (4), (5)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국가 N의 학생 중  $\frac{2}{7}$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10$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8} = \frac{1}{4}$ 이다.

- 국가 N의 학생 중  $\frac{1}{2}$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20$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7}$ 이다.

- 국가 N의 학생 중  $\frac{3}{14}$ 은 진로자기결정성이  $a=30$ 이므로 진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일 확률이  $\frac{2}{6} = \frac{1}{3}$ 이다.

따라서  $P(B|A^C) = \left(\frac{2}{7} \times \frac{1}{4}\right) + \left(\frac{1}{2} \times \frac{2}{7}\right) + \left(\frac{3}{14} \times \frac{1}{3}\right) = \frac{2}{7}$ 이다. 종합하면

$$P(A^C \cap B) = P(A^C)P(B|A^C) = \frac{7}{15} \times \frac{2}{7} = \frac{2}{15} \text{이다.}$$

(7) (5), (6)을 종합하면  $P(B) = P(A \cap B) + P(A^C \cap B) = \frac{7}{45} + \frac{2}{15} = \frac{13}{45}$ 이다.

(8) 최종적으로, 구하는 확률은 다음과 같다.

$$P(A|B) = \frac{P(A \cap B)}{P(B)} = \frac{\frac{7}{45}}{\frac{13}{45}} = \frac{7}{13}$$

**2024 대입 기출문제**

(1) 새로운 노래가 기준 1을 만족하여 음악 평론가가 A가 작곡한 노래의 1개 소절 이상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S_1$ 이라 하자. A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P_A$ , B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을  $P_B$ 라고 하면, 기준 1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다.

$$P_A(S_1) = 1 - (1 - a)^2, P_B(S_1) = 1 - (1 - 0.2)^2 = 0.36$$

(2) 새로운 노래가 기준 2를 만족하는 사건을  $S_2$ 라 하고,  $X_1$ 은 A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  $X_2$ 는 B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를 나타낸다고 하자.

$$P_A(S_2) = P(44 \leq X_1 \leq 58) = P\left(\frac{44-50}{4} \leq Z \leq \frac{58-50}{4}\right) = 0.43 + 0.47 = 0.9$$

$$P_B(S_2) = P(44 \leq X_2 \leq 58) = P\left(\frac{44-58}{14} \leq Z \leq 0\right) = 0.5$$

(3) 음악 평론가가 노래를 듣고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하는 사건을 S라고 하자. 이때 기준 1과 2는 서로 독립적 이므로 적용되므로  $p$ 와  $q$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 = P_A(S) = P_A(S_1 \cap S_2) = P_A(S_1)P_A(S_2) = \{1 - (1 - a)^2\} \times 0.9$$

$$q = P_B(S) = P_B(S_1 \cap S_2) = P_B(S_1)P_B(S_2) = 0.36 \times 0.5$$

$p$ 가  $q$ 의  $\frac{16}{5}$ 배 이상이 될  $a$ 의 최솟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 (1 - a)^2\} \times 0.9 \geq 0.18 \times \frac{15}{6} \Rightarrow (1 - a)^2 \leq \frac{9}{25} \quad \therefore -\frac{3}{5} \leq 1 - a \leq \frac{3}{5}, \frac{2}{5} \leq a \leq \frac{8}{5}$$

그런데  $a$ 는 확률이므로  $0 \leq a \leq 1$ 이므로  $\frac{2}{5} \leq a \leq 1$ 이다. 따라서  $a$ 의 최솟값은  $\frac{2}{5}$ 이다.

[별해] (2)에서  $S_1$ 에 대한 확률을 독립 시행의 확률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 \text{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 } P_A(S_1) = {}_2C_1 a(1 - a) + {}_2C_2 a^2(1 - a)^0 = 2a - a^2$$

$$B \text{가 작곡한 노래에 대한 판단 확률: } P_B(S_1) = {}_2C_1 (0.2)^1(0.8)^1 + {}_2C_2 (0.2)^2(0.8)^0 = 0.36$$

이때 기준 1과 2는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p$ 와  $q$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 = P_A(S) = P_A(S_1 \cap S_2) = P_A(S_1)P_A(S_2) = (2a - a^2) \times 0.9$$

$$q = P_B(S) = P_B(S_1 \cap S_2) = P_B(S_1)P_B(S_2) = 0.36 \times 0.5$$

$p$ 가  $q$ 의  $\frac{16}{5}$ 배 이상이 될  $a$ 의 최솟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a - a^2) \times 0.9 \geq 0.18 \times \frac{16}{5} \quad \therefore \frac{2}{5} \leq a \leq 1 (\because 0 \leq a \leq 1)$$

따라서  $a$ 의 최솟값은  $\frac{2}{5}$ 이다.

**2023 대입 기출문제**

▶ 올해의 각 계약자 그룹이 내년에 속하게 될 그룹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다.

〈표 1〉		내년의 계약자 그룹: 확률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올해의 계약자 그룹	저위험군	0.1	0.5 (= 0.2 + 0.3)	0.4 (= 0.2 + 0.2)
	중위험군	0.1	0.2	0.7 (= 1 - 0.3)
	고위험군	0	0.1	0.9 (= 1 - 0.1)

▶ 내년의 각 그룹 계약자 명수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표 2〉		내년의 계약자 그룹: 명수 기댓값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올해의 계약자 그룹	저위험군	20 (= 200 × 0.1)	100 (= 200 × 0.5)	80 (= 200 × 0.4)
	중위험군	30 (= 300 × 0.1)	60 (= 300 × 0.2)	210 (= 300 × 0.7)
	고위험군	0 (= 100 × 0)	10 (= 100 × 0.1)	90 (= 100 × 0.9)

▶ 내년의 각 그룹 계약자 명수 및 보험료 합계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표 3〉	내년의 계약자 그룹: 명수 및 보험료 합계의 기댓값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명수	50	170	380
보험료	2,000 (= 50 × 40)	8,500 (= 170 × 50)	22,800 (= 380 × 60)

따라서 내년의 연 보험료 총액의 기댓값은  $2000 + 8500 + 22800 = 33300$ (만원)이다.

4

중앙대학교(경영경제계열) 수리논술 준비 팁



가.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계열 논술 수리 문항 출제 경향 파악하기

- 최근 3개년(2025~2023) 동안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주로 출제됨을 알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단원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구분	확률	통계
2025 대입	조건부확률, 사건의 독립, 확률의 곱셈정리	이항분포, 확률밀도함수, 정규분포
2024 대입	확률의 곱셈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 표준정규분포
2023 대입	확률의 기본 성질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

나. 출제 경향과 교과에 따른 대비

- 확률과 통계 과목은 경우의 수, 확률, 통계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위의 출제 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경우의 수에서는 최근 3개년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경우의 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확률 계산과 이에 기반을 둔 확률분포표 분석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수학에서 다루는 순열과 조합,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중복순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중복조합 등의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익히고 다양한 경우의 수 단원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개념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 정확하게 문항 분석하기

- 2025 대입 논술고사에서는 ‘국가’와 ‘진로자기결정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주어졌고 2023 대입 논술고사에서는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주어졌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는 조건을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이나 기댓값을 계산하기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문항 해설이나 예시 답안과 같이 주어진 정보를 행과 열의 방향으로 배치하고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표에 나타내는 연습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어느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은 남학생이 76명, 여학생이 64명이다. 이 학교의 모든 3학년 학생은 수업량 유연화 교육 활동으로 활동 X와 활동 Y 중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하였고, 남학생 중 활동 X를 선택한 학생은 42명이었으며 여학생 중 활동 Y를 선택한 학생은 44명이었다. 이 학교의 3학년 학생 14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활동 X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출처: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수학영역 확률과 통계 p.49 2번 문항

이 문제의 경우는 ‘남학생’, ‘여학생’, ‘활동 X’, ‘활동 Y’의 4가지 변수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활동 X를 선택한 학생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사건일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문제 상황 분석을 위한 도표와 조건부확률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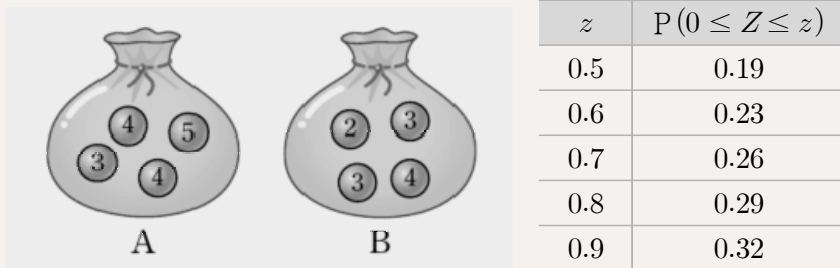
문제 상황을 분석한 도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명)

구분	활동 X	활동 Y	합계
남학생	42	34	76
여학생	20	44	64
합계	62	78	140

위의 도표를 통해 문제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고 이는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방법이다. 확률 단원에서 배우는 조건부확률과 독립시행의 확률의 경우 통계 단원의 이항분포와 서로 연계되는 개념인데 이와 같이 논술 문항으로 출제되는 문항의 특징은 서로 연계된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함께 활용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통계 단원의 문제를 해결할 때 확률 단원의 개념을 적용해야 해결 할 수 있는 문항을 자주 해결해 볼 필요가 있다.

주머니 A에는 3, 4, 4, 5가 하나씩 적혀 있는 4개의 공이 들어 있고, 주머니 B에는 2, 3,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4개의 공이 들어 있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x$ , 주머니 B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y$ 라 하고  $\sqrt{x^2 + y^2}$ 의 값을 구한 후, 꺼낸 공은 다시 각각의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880번 하였을 때,  $\sqrt{x^2 + y^2}$ 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횟수가 286 이상일 확률을 다음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출처: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수학영역 확률과 통계 p.81 2번 문항

이 문제의 경우  $\sqrt{x^2 + y^2}$ 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주머니 A와 B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숫자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야  $\sqrt{x^2 + y^2}$ 가 자연수가 될 확률을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의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 반복된 시행이라는 상황을 파악하여 독립시행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sqrt{x^2 + y^2}$ 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횟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점, 시행 횟수가 880회로 충분히 크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교과의 개념까지 사용해야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논술 문항에서 시행과 사건을 파악한 후 확률분포표를 구성해 가는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논술 고사에서의 문항을 해결하는 것이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학교에서의 문제 풀이 경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는 문제 풀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가지고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한다면 논술 문항의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5

중앙대학교(경영경제계열) 수리논술 문항 대비 연습문제



문제 1

어느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48%이고, 안경을 쓴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28%이다. 이 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학생일 때, 그 여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좋은책신사고, p.60)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P(A) = \frac{48}{100}, P(A \cap B) = \frac{28}{100} \text{ 이므로}$$

$$P(B|A) = \frac{P(A \cap B)}{P(A)} = \frac{\frac{28}{100}}{\frac{48}{100}} = \frac{28}{48} = \frac{7}{12}$$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답에 이른 점은 우수하다. 다만, 논술이라는 시험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위의 풀이의 경우 핵심적인 사고 과정이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은 좋은 부분이지만 문자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여 문자로 언급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파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즉, 사건 A와 사건 B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밝힌다면 학생의 풀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조건부확률의 정의를 작성하기 전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사건을 A, 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일 사건을 B라 하자.’ 정도로 서술하고 문제 풀이를 시작한다면 풀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비교적 단순한 상황에서의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것이므로 문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도표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학생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도표로 나타낸다면 복잡한 조건이 많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도표로 나타내는 보는 활동을 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해당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표를 나타내보도록 하겠다. (단, b는 안경을 쓴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안경을 씌(B)	안경을 쓰지 않음(B <sup>C</sup> )	합계
남학생(A <sup>C</sup> )	b - 28	80 - b	52
여학생(A)	28	20	48
합계	b	100 - b	100

위와 같은 표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조건부확률을 보다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

- 이 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일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P(A^c | B) = \frac{b-28}{b} \text{이다.}$$

- 이 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P(A | B^c) = \frac{20}{100-b} \text{이다.}$$



### 예시 답안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사건을  $A$ , 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일 사건을  $B$ 라 하자. 문제 조건에 의해  $P(A) = \frac{48}{100}$ ,  $P(A \cap B) = \frac{28}{100}$  이므로

$$P(B | A) = \frac{P(A \cap B)}{P(A)} = \frac{\frac{28}{100}}{\frac{48}{100}} = \frac{28}{48} = \frac{7}{12}$$

**문제 2**

실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 박동 수가 분당 60회 이하이면 서맥, 분당 100회 이상이면 빈맥이라고 한다. 어느 대학교의 건강 검진에서 학생들의 휴식기 심장 박동 수는 평균이 80회, 표준편차가 10회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조사 대상 대학생 600명 중에서 건강 검진 결과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 12명 미만일 확률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단,  $Z$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P(0 \leq Z \leq 2) = 0.48$ ,  $P(0 \leq Z \leq 2.5) = 0.49$ 로 계산한다.)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좋은책신사고, p.108)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학생들의 휴식기 심장 박동수를  $X$  라 하면, 문제 조건에 의해  $X \sim B(80, 10^2)$ 을 따른다.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 12명 미만일 확률은 심장 박동수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동일한 사건은 아님

$$P(X \leq 12) = P\left(Z \leq \frac{12 - 80}{10}\right) = P(Z \leq -6.8)$$

구할 수 없다. 서맥이나 빈맥으로 구별된 학생수에 대한 사건은 맞는지 확인 필요함

학생의 풀이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에 주어진 특정 정보만을 확인하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이다. 확률변수  $X$ 는 휴식기 심장 박동수라고 설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분포가 정규분포임을 잘 파악을 하여 초반 문제 풀이는 잘 이루어졌으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수가 12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식기 심장 박동수와 완전히 다른 확률변수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수를 우선  $X$ 와는 다른 확률변수  $Y$ 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장 박동수 60과 100이라는 숫자를 활용해야 한다. 확률변수  $X$ 가 심장 박동수를 의미하므로  $X \leq 60$ 인 사건과  $X \geq 100$ 인 사건이 필요하고, 이 사건의 확률이 서맥이나 빈맥으로 학생들이 분류되는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렇듯 확률변수 설정과 확률변수에 의한 사건의 묘사에 대한 힌트는 문제에 주어져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시 답안**

휴식기 심장 박동 수를  $X$ 라고 하면 확률변수  $X$ 는 정규분포  $N(80, 10^2)$ 을 따른다. 따라서 확률변수

$Z_X = \frac{X-80}{10}$ 은 표준정규분포  $N(0, 1)$ 을 따르므로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될 확률은

$$P(X \leq 60) + P(X \geq 100) = P(Z_X \leq -2) + P(Z_X \geq 2) = (0.5 - 0.48) \times 2 = 0.04 \text{ 이다.}$$

조사 대상 대학생 600명 중에서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수를  $Y$ 라고 하면 확률변수  $Y$ 는 이항분포  $B(600, 0.04)$ 를 따르므로  $E(Y) = 600 \times 0.04 = 24$ ,  $\sigma(Y) = \sqrt{600 \times 0.04 \times 0.96} = 4.8$ 이다. 이때, 600은 충분히 큰 수이므로 확률변수  $Y$ 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24, 4.8^2)$ 을 따른다. 따라서 확률변수

$Z_Y = \frac{Y-24}{4.8}$ 는 표준정규분포  $N(0, 1)$ 을 따르므로

$$P(Y < 12) = P(Z_Y \leq -2.5) = P(Z_Y \geq 0) - P(0 \leq Z_Y \leq 2.5) = 0.5 - 0.49 = 0.01$$

**문제 3**

다음은 A, B, C 세 나라 국민의 하루 여가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A	B	C
평균(분)	270	350	300
표준편차(분)	60	56	75

A 나라 국민의 하루 여가 시간을  $W$ 분, B 나라 국민의 하루 여가 시간을  $X$ 분, C 나라 국민의 하루 여가 시간을  $Y$ 분이라고 하자. 세 확률변수  $W, X, Y$ 가 모두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세 확률변수  $W, X, Y$ 를 각각 표준화하시오.
- (2) A, B, C 세 나라에서 하루 여가 시간이 420분인 사람에 대하여 각 나라별로 그 사람보다 여가 시간이 긴 사람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하시오.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좋은책신사고, p.105)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1) \frac{W-270}{60}, \frac{X-350}{56}, \frac{Y-300}{75}$$

$$(2) \text{ A나라: } P(W \geq 420) = P\left(\frac{W-270}{60} \geq \frac{420-270}{60}\right) = \frac{0.62}{100}$$

$$\text{ B나라: } P(X \geq 420) = P\left(\frac{X-350}{56} \geq \frac{420-350}{56}\right) = \frac{10.56}{100}$$

$$\text{ C나라: } P(Y \geq 420) = P\left(\frac{Y-300}{75} \geq \frac{420-300}{75}\right) = \frac{5.48}{100}$$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구한 점은 우수하다. 하지만 표준화를 하는 과정에서 표준정규분포를 뜻하는 확률변수를 적당한 기호로 표현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좀 더 정확한 답안이 되었을 것이다.  $\frac{W-270}{60}, \frac{X-350}{56}, \frac{Y-300}{75}$ 를 각각  $Z_W, Z_X, Z_Y$ 라 하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각각  $P(Z_W \geq 2.5), P(Z_X \geq 1.25), P(Z_Y \geq 1.6)$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데에도 편리하므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기호로 표현하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시 답안**

(1) 세 확률변수  $W, X, Y$ 를 표준화한 변수를 각각  $Z_W, Z_X, Z_Y$ 라 하면

$$Z_W = \frac{W-270}{60}, Z_X = \frac{X-350}{56}, Z_Y = \frac{Y-300}{75}$$

(2) 각 나라별로 여가 시간이 420시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각각  $P(W \geq 420), P(X \geq 420), P(Y \geq 420)$

이다. 이를 (1)에서 구한 표준화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P(Z_W \geq 2.5) = P(Z_W \geq 0) - P(0 \leq Z_W \leq 2.5) = 0.0062$$

$$P(Z_X \geq 1.25) = P(Z_X \geq 0) - P(0 \leq Z_X \leq 1.25) = 0.1056$$

$$P(Z_Y \geq 1.6) = P(Z_Y \geq 0) - P(0 \leq Z_Y \leq 1.6) = 0.0548$$

이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text{A나라 } 0.0062 \times 100 = 0.62(\%)$$

$$\text{B나라 } 0.1056 \times 100 = 10.56(\%)$$

$$\text{C나라 } 0.0548 \times 100 = 5.48(\%)$$

이다.

# 6. 약술형 논술



교과 연계 대입 논술 가이드북

- 인문 · 상경 계열, 약술형 논술 중심으로 -

11-1) 가천대학교(국어)

11-2) 가천대학교(수학)



# 11-1) 가천대학교(국어)

2026 논술 고사 일정	전형 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시험 시간	문항 수	글자 수, 배점	주 출제 교과 및 과목 (출제 범위)
2025. 11. 24. (일)	논술 100	국수영탐(1과목) 중 1개 영역 3 이내	80분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	각 문항 당 10점 총 150점	국어: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수학 I, 수학 II

※ 지원학과에 따라 추후 a형, b형으로 나누어 고사를 진행함.

## 1 가천대학교 국어 논술 준비



### 가. 연계 과목 / 핵심 용어 및 개념

연도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025 a형	독서	인문예술(최소 국가), 사회·문화(아웃 소싱, 형법상 과실과 처벌)
	문학	고전시가(낙은별곡), 현대소설(만세전)
	화법과 작문	정보를 전달하는 글
	언어와 매체	음운 변동
2025 b형	독서	인문예술(철학의 흐름), 사회·문화(국제 통화 기금 운영), 과학기술(군집의 상대 풍부도)
	문학	고전산문(옥루몽), 현대시(북어), 교술(그때 알았다라면 좋았을 것들)
	화법과 작문	자료를 활용한 발표
	언어와 매체	한글맞춤법+음운 변동
2024 a형	독서	인문예술(인식), 사회·문화(채권, 선거 방송 보도)
	문학	현대시(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초토의 시), 고전산문(여유당기), 현대소설(유예)
	화법과 작문	설득하는 글
	언어와 매체	음운 변동
2024 b형	독서	인문예술(진리), 과학기술(클라우드 컴퓨팅, 저울의 무게 측정)
	문학	고전시가(고산구곡가), 현대시(저 새), 고전산문(왜송설)
	화법과 작문	설득하는 글
	언어와 매체	음운 변동

연도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023 a형	독서	사회·문화(세력 균형 이론, 손해 보험)
	문학	현대소설(달밤), 현대시(구부러진 길), 교술(존재의 테이블)
	화법과 작문	면접
	언어와 매체	음운 변동
2023 b형	독서	인문예술(반고흐의 생, 상상력의 정의), 과학기술(이미지)
	문학	고전시가(제망매가), 현대시(유리창), 현대소설(타인의 방)
	언어와 매체	음운 변동

## 나. 문항 유형 특성

- 가천대학교 논술고사 국어 문제의 경우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 가천대학교 논술가이드북에서는 평소 학교 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학습에 성실히 임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항으로 논술고사가 출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고등학교 지필고사의 단답형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며, 대체적인 발문 형태는 ‘~에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임.
- 가천대학교 논술전형 출제 범위는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 기준으로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임. 2025학년도 기출에서는 인문계열 국어 9문제 중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 각각 1문제, 문학에서 3문제, 독서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음.
- 화법과 작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시문과 <보기>가 주어지고,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제시문 속 문장을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는 문제가 출제됨. 언어와 매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기>에 음운 변동의 종류가 주어지고, 단어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문제가 출제됨. 문학의 경우,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산문, 극·수필 등 다양한 제시문이 출제되며, 대체적으로 설의적 표현, 의인화, 이미지 등 문학 개념이 드러난 부분이나 <보기>에 주어진 내용을 제시문 속에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는 문제가 출제됨. 독서의 경우,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제시문이 출제되며, 대체적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분석한 <보기>의 빈칸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는 문제가 출제됨.

## 다. 출제 자료 및 도서 출처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5 a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교과서: 금성(류수열), 천재(정호웅)</li> <li>• 독서 교과서: 천재(박영목), 신사고(서혁), 동아(고형진), 지학사(이삼형)</li> <li>• 문학 교과서: 창비(최원식), 동아(김창원), 비상(한철우), 금성(류수열)</li> </ul>
2025 b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교과서: 창비(최원식), 비상(박인수), 지학사(이삼형)</li> <li>• 독서 교과서: 비상(한철우), 지학사(이삼형), 동아(고형진), 천재(박영목), 신사고(서혁)</li> <li>• 문학 교과서: 신사고(이승원), 천재(김동환), 지학사(정재찬), 금성(류수열), 비상(한철우), 창비(최원식)</li> <li>• 화작 교과서: 창비(이도영)</li> </ul>
2024 a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교과서: 미래엔(신유식)</li> <li>• 독서 교과서: 지학사(이삼형), 미래엔(방민호)</li> <li>• 문학 교과서: 창비(최원식), 천재(정호웅), 비상(한철우), 천재(정재찬)</li> <li>• 연매 교과서: 미래엔(방민호)</li> <li>• 화작 교과서: 창비(이도영)</li> </ul>
2024 b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교과서: 지학사(이삼형), 미래엔(신유식)</li> <li>• 독서 교과서: 비상(한철우), 미래엔(방민호)</li> <li>• 문학 교과서: 창비(최원식), 미래엔(방민호), 천재(정재찬)</li> <li>• 연매 교과서: 미래엔(방민호)</li> <li>• 화작 교과서: 창비(이도영)</li> </ul>
2023 a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교과서: 미래엔(신유식), 지학사(이삼형), 창비(최원식)</li> <li>• 독서 교과서: 비상(한철우), 지학사(이삼형), 미래엔(방민호)</li> <li>• 문학 교과서: 창비(최원식), 천재(정호웅), 해냄(조정래)</li> <li>• 화작 교과서: 창비(이도영)</li> </ul>
2023 b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교과서: 동아(고형진), 미래엔(신유식), 지학사(이삼형)</li> <li>• 독서 교과서: 비상(한철우), 미래엔(방민호), 지학사(이삼형)</li> <li>• 문학 교과서: 창비(최원식), 천재(정호웅), 지학사(정재찬)</li> <li>• 화작 교과서: 창비(이도영)</li> </ul>

2

가천대학교(국어영역) 기출문제 (2024.11.25.(월) 오전 시행)



※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구독 경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써서 교지에 실으려고 함.

**학생의 초고**

감염병 대유행의 장기화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집'이 되면서, 많은 소비 트렌드가 그 영향을 받았다. 집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구독 경제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구독 경제란 소비자가 단발적인 구매 대신 일정 금액을 내고 업체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만 받는 방식의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신문, 잡지 구독 서비스부터 최근 급부상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유통업계의 정기 배송 서비스 등이 구독 경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부상한 20~30대의 젊은 세대가 있다. 이들은 하나의 아이템을 '소유'하기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아이템을 '경험'하는 것을 선호한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구독 경제는 가성비 높은 경험의 확장과 개인화된 취향에 기반을 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독 경제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 구독 경제의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다. 여러 분야에서 구독 경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구독 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구독 서비스 이용자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구독 경제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소비 방식으로 인식되면서 급성장하고 있으나 구독 경제에 숨어 있는 그림자 또한 존재한다. 우선 가격 장벽이 낮은 것이 소비자의 무분별한 구독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구독 경제를 펼치는 기업이 독점적 시장을 확보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여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지금은 구독 경제가 이른바 '가성비 좋은 소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독 경제에 대한 반대 평가가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구독 경제의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제 1**

〈보기〉는 초고 작성을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 ① 구독 경제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가 핵심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구독 경제의 확산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중,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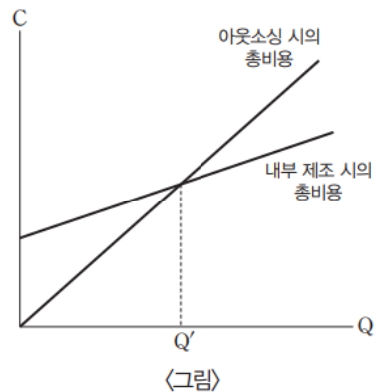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 내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웃소싱에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산업 중요도를 분석해야 한다. 핵심 역량이란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을 의미한다. 산업 중요도는 아웃소싱을 시행하려는 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를 의미한다. 만약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면서 산업 중요도가 높다면 기업은 해당 분야를 자체적으로 수행 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기업의 핵심 역량이지만 산업 중요도가 낮다면 해당 분야를 분사\*시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핵심 역량은 아니지만 산업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아웃소싱은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니면서 산업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 시행하게 된다. 아웃소싱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용이다. 이는 내부 제조와 아웃소싱 중 어느 쪽이 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가 발생한다. 고정비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변동비는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이다.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의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공급자 탐색 비용, 계약 비용, 구매 비용 등이 지출된다. 기업이 1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의 비용을 C,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량을 Q라고 할 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변동비에 제품의 수량을 곱한 것과 고정비의 합만큼 총비용이 발생한다.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의 1개당 구매 가격 P에 수량 Q를 곱한 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림>은 기업이 제품을 내부에서 제조할 때와 아웃소싱을 맡길 때의 비용의 차이를 보여 준다. 내부 제조 시의 총비용 그래프가 아웃소싱 시의 총비용 그래프보다 더 위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제품을 직접 제조할 때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아웃소싱 시행 여부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의 제품 수량인 Q'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량이 Q'보다 적을 경우 아웃소싱이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내부 제조가 유리하다.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산비를 낮추려는 경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하게 된다. OEM은 주문자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정하고, 아웃소싱을 받은 외주 업체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완성하여 납품하는 형태이다. 외주 업체는 주문자의 요구 사항에 따른 뿐, 독자적인 권리나 제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갖지 못하며 완성된 제품은 실제 생산한 외주 업체가 아닌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시장에 출시된다. OEM을 활용하면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 마케팅 등에만 집중할 수 있고 생산 관련 시설에는 투자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타국의 기업에 OEM을 맡기는 경우 직접 외국으로 진출할 때 발생하는 공장 설립 비용, 물류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주 업체는 다른 절차를 신경 쓰지 않고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지속적인 경험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문자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주

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고 OEM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들만의 사업을 키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주 업체의 경험이 축적되고 제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아웃소싱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다 정하지 않고 큰 범위 내에서 개괄적인 지침을 정해 주면 외주 업체가 이에 따라 상세 설계를 완성하고 필요하다면 주문자가 지시한 설계나 규격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이라고 한다. ODM은 OEM에 비해 외주 업체의 생산 관련 권한과 자유도가 높고, 외주 업체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라 제품에 대한 지적 재산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제품은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된다.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대한 모든 지침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외주 업체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외주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외주 업체로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외주 업체는 생산 과정의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여 OEM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대신 외주 업체는 OEM에 비해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외주 업체와 차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 분사: 본사에서 갈리어 그 아래에 속하여 있는 하부 기관이나 사업체

**문제 2**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실시한 탐구활동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보기**

- 제시문의 〈그림〉에서 A가 B보다 더 위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아웃소싱 시와 달리 내부 제조 시에는 ( ① ) .
- 제품의 내부 제조 시 다른 비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고정비만 줄어든다면, 제시문의 〈그림〉에서 Q의 위치는 ( ② ) 이동하게 된다.

**조건**

- ①은 '~기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②는 '-(으)로'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 ①은 12자 이내로, ②는 6자 이내로 작성할 것.(단,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글자 수에서 제외함.)

①: \_\_\_\_\_                      ②: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철학자 노직은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 등 개인의 권리는 국가 권력 등이 위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을 지닌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직은 ㉠자연 상태에서 최소 국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여 가장 정당한 국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노직은 국가가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강제력은 부당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뜻한다.

자연 상태에 놓인 개인들은 권리 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호 협회'를 결성하고 협동을 통해 서로를 보호한다. 하지만 협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적 보호 협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협회에 대가를 지불하고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협회는 회원과 사적으로 계약된 상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만을 보호한다. 상업적 보호 협회들이 여러 개 생겨나면 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일정 지역 안에서 보호를 지배적으로 행사하는 '지배적 보호 협회'가 형성될 수 있다. 이 협회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협회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에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협회는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한 협회가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 조직을 성립함으로써 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데, 노직은 이를 '극소 국가'라 하였다. 극소 국가는 권력의 독점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지만 극소 국가의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에서 제외하므로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수준에는 여전히 못한다.

노직은 극소 국가가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지역 내 개인들을 흡수하여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최소 국가'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최소 국가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독립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보호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노직은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은 국가, 그러나 최소의 보호 능력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은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보았다.

**문제 3**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의 일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강제력의 독점 여부	보호 서비스 공급 대상의 범위
보호 협회	비독점	보호 협회 가입자
( ① )	독점	지역 내 거주자 중 보호 서비스 비용 지불자
( ② )	독점	지역 내 모든 거주자

①: \_\_\_\_\_                      ②: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5)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위법성과 유책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구성 요건이란,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함을 알고도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현한 경우를 ‘고의’라고 하고,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해칠 것임을 몰랐더라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보복 운전의 목적으로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추돌 사고를 낸 경우라면 ㉠에 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운전자가 수면 부족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우는 ㉡에 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도적인 규범 불복종에 해당하는 고의에 비해서 과실은 불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되,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라고 명시한 형법 제14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14조는 과실의 개념 요소로 ‘주의를 게을리’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부주의, 즉 주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법익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이른다. 달리 말하면, 행위자가 ㉢을/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과실범의 본질은 주의 의무위반에 있다. 따라서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그 행위와 관련된 주의 의무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로 교통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세부 항목 중 제4호로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명시하였다. 즉 규정에 명시된 장소에서 주행 중인 모든 운전자는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가 도로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감속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과실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법문에서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밝혔으나, 그 수준과 정도에 대해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 주의 의무의 표준에 대한 견해로 객관설과 주관설, 절충설 등이 있다. 객관설은 사회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 의무 위반의 유무를 판단하려는 견해로, ‘평균인 표준설’이라고도 한다. 이는 주의 의무의 척도가 추상적·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과실 유무와 과실의 경중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구체적인 사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는다. 단, 의료나 운전 등과 같이 전문화된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동일한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는다. 반면, 주관설은 행위자 개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는 견해로 ‘행위자 표준설’이라고도 한다. 귀책의 근거가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있으므로, 주의 의무의 척도로 행위자 개개인의 주의력을 표준으로 하는 구체적 과실을 상정한다. 이는 법 규범이 개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음을 전제한다. 한편, 절충설은 주의 의무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삼되 주의 능력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견해로 ‘이중 표준설’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평균인 표준설을 따르는 것이 통설이다.

평균인 표준설은 법 규범의 선도적·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영역에서

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정형화·표준화되어 적용되도록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 구성원에게 일상에서 남다른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도록 강요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교통, 의료, 건설, 공장, 원자력 발전 등은 현대의 복잡한 산업 사회에서 유용성이 있는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지만, 항상 일정한 위험을 수반한다. 여기에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적용한다면, 예견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중단하거나 시설을 제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 전체가 정체될 수 있다.

그래서 과실의 주의 의무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바로 ‘허용된 위험’이다. 행위자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비록 그 행위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 교통법이나 의료법에는 위험의 발생 빈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기준을 명문화한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구성 요건의 배제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전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이나 의료 행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명문화된 기준에 따라 행위자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했다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법익을 침해했더라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법익: 형법에서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

\* 고의범: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과실범: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

**문제 4**

문맥상 제시문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고의, 과실, 주의 의무

㉠: \_\_\_\_\_      ㉡: \_\_\_\_\_      ㉢: \_\_\_\_\_      ㉣: \_\_\_\_\_

**문제 5**

<보기2>는 제시문을 읽고 <보기1>의 사례를 이해한 것이다. <보기2>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1

의사인 '갑'에게 수술을 받던 중에 환자 '을'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평소 고혈압을 앓던 '을'이 지속적으로 먹던 아스피린을 수술을 앞두고도 복용한 것이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고를 막아 지혈을 방해하는 약물로 과다 출혈이 우려되는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환자에게 일정 기간 복용 중단을 지시해야 하는 약물 중 하나이다.

보기 2

〈보기1〉에서 '갑'의 과실 유무와 과실의 경중에 대한 판단 기준과 결과는 제시문의 ㉠에 대해 어떤 견해를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갑'의 과실 유무와 과실의 경중을 판단할 때 ( ① )의 관점에서는 '갑' 개인의 주의력을 표준으로 삼는다. 반면 ( ② )의 관점에서는 의료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의력을 표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 ③ )의 관점에서는 '갑'의 과실 책임 인정 여부에 '갑'이 '을'에게 수술 전 일정 기간 아스피린의 복용 중단을 지시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요소이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문제 6

〈보기1〉은 수업 시간의 대화 내용이다. 〈보기1〉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2〉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1

선생님: 지금까지 음운 변동의 종류를 살펴봤어요. 이제부터는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발음할 때, 각각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 나는 요즘 채소를 자주 ㉠ 먹는다.
- 휴일이라 공원에 ㉡ 가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다.
- 아이가 울고불고 ㉢ 난리가 났다.
- 안개가 ㉣ 걷히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다.

학생1: ㉠은 비음화가 일어난 예에 해당해요.

학생2: ㉡에서는 ( ① )이/가 일어났어요.

학생3: ㉢에서는 ( ② )이/가 일어난 예로 볼 수 있어요.

학생4: ㉣에서는 거센소리되기과 ( ③ )이/가 일어났어요.

선생님: 네, 맞아요. 모두 실제 예에서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잘 찾았어요.

보기 2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두음 법칙, 모음 탈락, 거센소리되기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헌사한 조화옹이 산천을 빚어낼 때  
 낙은암(樂隱岩) 깊은 골을 날 위하여 삼겨시니  
 산봉우리도 빼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  
 어와 주인옹이 명리(名利)에 뜻이 없어  
 진세를 하직하고 암혈에 깃들이니  
 내 생애 담백한들 분수이니 상관하라

(중략)

옥류폭(玉流瀑) 노한 물살 돌을 박차 떨어지니  
 합포의 명월주를 옥반에 굴리는 듯  
 은고리 수정령을 난간에 걸었는 듯  
 티끌 묻은 긴 갓끈을 탁영호(濯纓湖)에 씻어 내니  
 귀 씻던 옛 할아버지\* 자네 혼자 높을쓰냐  
 반곡천(盤谷川) 긴긴 굽이 초당을 돌렸으니  
 드넓은 저 강물아 세상으로 가지 마라  
 연사\*에 막대 짚어 무릉계(武陵溪) 내려가니  
 양안의 나는 도화(桃花) 붉은 안개 자욱하다  
 물 위에 뜬 꽃을 손으로 건진 뜻은  
 춘광을 누설하여 세간에 전할세라  
 단구(丹丘)를 넘어 들어 자연뢰(紫煙瀨) 지나가니  
 향로봉 남은 안개 햇빛에 비치었다  
 구변담(鷗邊潭) 고인 물이 거울처럼 맑구나  
 속세 잊은 저 백구(白鷗)야 너와 나와 벗이 되어  
 물가에 노닐면서 세상을 잊자구나  
 청학동(靑鶴洞) 좁은 길로 선부연(仙釜淵) 찾아가니  
 반고씨 적 생긴 가마 제작도 공교하다  
 형산에 만든 솔을 뉘라셔 옮겨 왔나  
 석간에 걸린 폭포 상하연에 떨어지니  
 공연한 벼락 소리 대낮에 들리는고  
 계산\*에 취한 흥이 해 지는 줄 잊었는데  
 쌍계암(雙溪庵) 먼 북소리 갈 길을 재촉하네  
 통소에 봄을 담아 유교(柳橋)로 돌아드니

서산(西山)의 상쾌한 기운 사의당\*에 이어졌네  
 어와 우리 형님 환정\*이 전혀 없어  
 공명을 사양하고 삼죽와\*로 돌아오니  
 재앙의 남은 물결 신변에 미칠쏘냐  
 긴 베개 높이 베고 두 노인이 나란히 누워  
 슬하의 모든 자손 차례로 늘어서니  
 먹으나 못 먹으나 이 아니 즐거운가  
 아마도 수석에 소요하여 남은 세월 마치리라  
 - 남도진, 「낙은별곡」

\* 귀 씻던 옛 할아버: 중국 요임금 시절의 은사인 허유.  
 \* 연사: 안개가 낀 모래사장 또는 물가.  
 \* 계산: 시내와 산.

\* 사의당: 남도진의 형인 남도규의 서재 당호(堂號).  
 \* 환정: 벼슬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 삼죽와: 남도진의 형인 남도규의 서재 당호.

문제 7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행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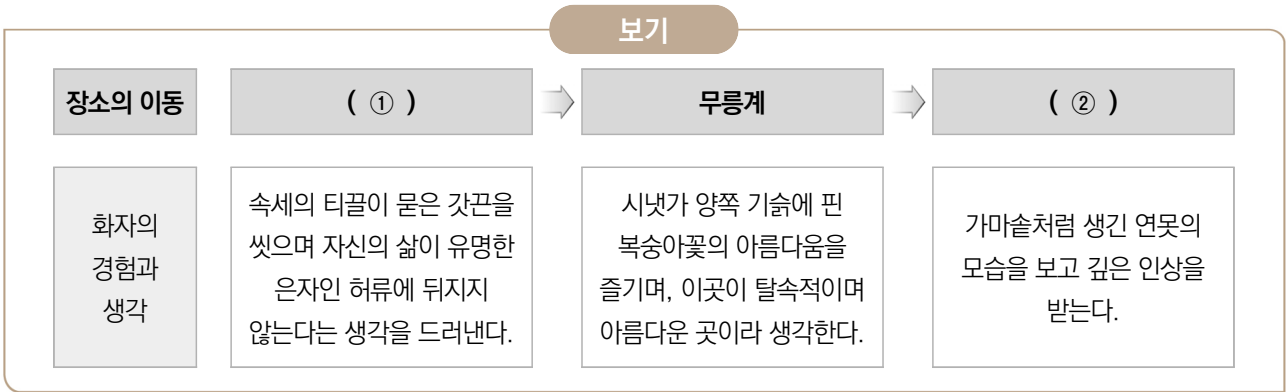
보기

18세기 강호 가사인 낙은별곡에서는 이전 강호가사에 흔히 나타나는, 자연물에 도덕적 이상을 투영하거나 벼슬에 미련을 보이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 이 작품의 작가는 한양을 벗어나 한양에서 가까운 한적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골라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화자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그곳에서의 소박한 생활에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삶이라고 하며, 이를 수용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또한 작품에는 세속적 명리에 뜻을 두지 않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는 삶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가문의 화목 추구라는 가치를 형의 가족과 자기 가족이 모여 사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연을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가족의 행복과 가문의 화목 등 현실적 가치를 지향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화자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 ①: ㉠에 해당하는 행-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에 해당하는 행-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문제 8**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한 것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①: \_\_\_\_\_                      ②: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든 것이 순조로이 해결되어 가고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하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반년 간의 쓰라린 체험이 오늘의 신생을 위한 커다란 준비 시기이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내 생애에 있어서도, 다만 젊은 한때의 유희 기분만에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뒷날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이렇게 섭섭한 일도 없고, 당신은 또 자기를 모욕하였다고 노하실지도 모르나, 언제까지 그런 기쁨과 행복에 잠겨 있도록 이 몸을 안온하고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나도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책임을 느끼고, 또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할 때가 닥쳐오는가 싶습니다. …… 지금 내 주위는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생활력을 잃은 백의(白衣)의 백성과, 백주에 횡행하는 이매망량(魑魅魍魎)\*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 어찌 ‘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고 용기와 희망을 돋우어 주는 것은 없으니, 이러다가는 이 악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이외다. 그러나 그것은 장미꽃 송이 속에 파묻히어 향기에 도취한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대기에서 절연된 무덤 속에서 화석(化石) 되어 가는 구더기의 몸부림치는 질식입니다. 우선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

소학교 선생님이 사벨(환도)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외다. 고민하고 오뇌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성(內省)하는 고민이요 오뇌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도 숨이 죽어 엎디어 있는 거세된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증이 나는 법입낸다. 혹은 연민의 정이 있을지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하는 길은 못 됩니다. …… 이제 구주의 천지는 그 참혹한 살육의 피비린내가 걷히고 휴전 조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신생(新生)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학교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 칼을 떼어 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

우리 문학의 도(徒)는 자유롭게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우리의 교유,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의, 그리고 당신의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 나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

나는 형님이 떠날 제 초상에 쓰고 남은 것이라고, 동경 갈 노자와 함께 책값이며 용돈으로 내놓고 간 삼백 원 속에서 백 원을 이 편지와 함께 부쳐 주었다. 흑시는 다른 의미나 있는 줄로 오해할 것이 성가시기도 하나, 동경에서 떠날 제 선사받은 것도 있으려니와, 정자의 새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한마디 쓰고, 다소 부조가 될까 하여 보낸 것이다. 실상은 동경 가는 길에 들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였기 때문에, 아주 이것으로 마감을 하여 버리고, 나도 이 기회에 가뜰한 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 염상섭, 「만세전」

\* 이매망량: 온갖 도깨비. 산천, 목석의 정령에서 생겨난다고 함.

**문제 9**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과 ②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내면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는 중편 소설로, 작품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3·1 운동 직전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의 ‘나’는 동경에서 서울로 향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침탈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 백성의 모습을 목격하고 민족이 처한 현실을 희망이 없는 ‘공동묘지’로 규정한다.

‘나’는 이러한 조선의 현실에 크나큰 절망감을 느낀다. 이 소설에서는 ‘나’가 느끼는 절망감과 고통이 다양한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중 ( ① )에서는 ‘나’가 느끼는 고통이 ‘숨막힘’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서는 긍정적 상황의 ‘숨막힘’과 부정적 상황의 ‘숨막힘’을 대조하며 ‘나’가 느끼는 절망감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나’의 고통과 절망감은 자신 역시 식민 지배를 받는 무기력한 민족의 일원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 ② )에서는 무력을 의미하는 환유적 소재를 통해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의 폭압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성찰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기력한 태도로 살아가는 조선 민중과 자신에 대한 자조적 인식이 편지 수신자를 향한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①: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②: 첫 어절: \_\_\_\_\_, 마지막 어절: \_\_\_\_\_

3

가천대학교(국어영역) 기출문제 분석



가. 문항 해설

문항	문항 해설
[문제 1]	① 둘째 문단의 문장 ‘전통적인 신문, 잡지 구독 서비스부터 최근 급부상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유통업계의 정기 배송 서비스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에서 구독 경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예시를 통해 독자는 앞 문장에서 설명한 구독 경제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② 넷째 문단의 문장 ‘우선 가격 장벽이 낮은 것이 소비자의 무분별한 구독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에서 구독 경제의 확산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중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문제 2]	① 내부 제조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선의 처음 출발점이 아웃소싱을 나타내는 선보다 위에서 출발하는 것은, 제시문에 따르면 내부 제조 시에는 아웃소싱에서와 달리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제품의 내부 제조 시 다른 비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고정비만 줄어들면 <그림>에서 ‘내부 제조 시의 총비용(A)’ 그래프는 아래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Q’는 그래프 상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문제 3]	제시문에서는 노직의 최소국가론이 나타난다. 노직에 의하면 국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강제력의 독점’과 ‘보호서비스의 제공’이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행태가 최소국가이다. 노직에 의하면 국가는 초기의 자연발생적인 형태인 ‘보호협회’에서 ‘상업적 보호협회’와 ‘지배적 보호협회’ 그리고 ‘극소국가’와 ‘최소국가’로 나아간다. <보기>는 이 중에서 보호협회와 극소국가, 최소국가가 각각 이 국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는가를 정리해 놓고 있다. 극소국가 이전의 협회들은 아직 ‘강제력의 독점’을 이루지 못하며, 극소국가와 최소국가만이 강제력의 독점을 갖춘다. 그러나 극소국가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만을 보호하는데 반해, 최소국가는 영토 내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 4]	㉠ 자동차 운전자가 보복 운전의 목적으로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추돌사고를 낸 것은 자신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함을 알고도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현한 ‘고의’에 해당한다. ㉡ 운전자가 수면 부족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우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해칠 것임을 몰랐더라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과실’에 해당한다. ㉢ 제시문의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실범이 성립하는 요건은 행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주의 의무’이다. ㉣ 운전자가 도로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운전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해칠 것임을 몰랐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고의’이다.
[문제 5]	① 제시문의 3문단에 의하면 주관설(또는 행위자 표준설)에서는 행위자 개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보기1>에서 ‘갑’의 과실 유무와 경중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갑’ 개인의 과실 주의력을 표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설(행위자 표준설)의 관점이다. ② 제시문의 3문단에 의하면 객관설(또는 평균인 표준설)에서는 사회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단, 의료나 운전 등과 같이 전문화된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동일한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는다고 했다. 따라서 <보기1>에서 의사인 ‘갑’의 과실 유무와 과실의 경중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의료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의력을 표준으로 삼는 것은 객관설(평균의 표준설)의 관점이다.

문항	문항 해설
	<p>③ 제시문의 4문단에 의하면 ‘허용된 위험’ 이론에서는 행위자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비록 그 행위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허용된 위험’ 이론에서는 &lt;보기1&gt;에서 ‘갑’의 과실 유무와 과실의 경중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갑’이 ‘을’에게 수술 전 일정 기간 아스피린의 복용 중단을 지시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p>
[문제 6]	<p>① ‘가서’는 동사 어간 ‘가-’에 어미 ‘-아서’가 결합한 것인데, [가서]로 발음된다. 이때 어간과 어미의 결합 과정에 모음 ‘ㅏ’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p> <p>② ‘난리’는 [날리]로 발음되는데, 이때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p> <p>③ ‘걸히다’는 [거치다]로 발음되는데, 이때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와, ‘ㅌ’이 ‘ㅣ’ 앞에서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p>
[문제 7]	<p>① “내 생애 담백한들 분수이니 상관하랴”를 살펴보면, ‘분수이니’에서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삶이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상관하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전체적으로 소박한 생활에 불만을 가지기 보다는 이를 수용하려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p> <p>② “아마도 수석에 소요하여 남은 세월 마치리라”의 ‘남은 세월’과 ‘~마치리라’ 등을 통해 여생을 이와 같은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다짐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문제 8]	<p>① “티끌 묻은 긴 갓끈을 탁영호(濯纓湖)에 씻어 내니/ 귀 씻던 옛 할아버지네 혼자 높을소냐”에서 해당 장소가 ‘탁영호’임을 확인할 수 있다.</p> <p>② “청학동(靑鶴洞) 좁은 길로 선부연(仙釜淵) 찾아가니/반고씨 적 생긴 가마 제작도 공교하다/형산에 만든 솔을 뉘러서 옮겨 왔나”에서 해당 장소가 ‘선부연’임을 확인할 수 있다.</p>
[문제 9]	<p>① 첫째 문단의 문장 ‘그러나 그것은 장미꽃 송이 속에 파묻히어 향기에 도취한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대기에서 절연된 무덤 속에서 화석(化石) 되어 가는 구더기의 몸부림치는 질식입니다.’에서 ‘나’가 느끼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나’가 느끼는 고통이 ‘숨막힘’과 같은 ‘질식’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것이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구더기의 몸부림 치는 질식’으로 표현되는 것에서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의 ‘질식’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p>② 둘째 문단의 문장 ‘그러나 스스로 내성(內省)하는 고민이요 오늬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도 숨이 죽어 엎디어 있는 거세된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에서 조선과 조선 민중에 한 일본의 폭압성이 환유적 소재 ‘발길’과 ‘채찍’에 의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 성찰로 나아가지 못한 채 무기력한 태도로 살아가는 조선 민중과 ‘나’ 자신에 대한 자조적 인식도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 나. 채점 기준

문항	채점 기준
[문제 1]	① 전통적인, 있다 [5점] ② 우선, 있다 [5점]
[문제 2]	① 고정비가 있기/발생하기/존재하기/생기기 때문이다 등 [5점] ② 왼쪽 (방향)으로, 왼편 (방향)으로, 원점 (방향)으로, 좌측 (방향)으로 등 [5점]
[문제 3]	① 극소 국가 [5점] ② 최소 국가 [5점]
[문제 4]	㉠ 고의, ㉡ 과실, ㉢ 주의 의무 [각 2점] ㉣ 고의 [5점]
[문제 5]	① '주관설' 또는 '행위자 표준설' [4점] ② '객관설' 또는 '평균인 표준설', ③ '허용된 위험' [각 3점]
[문제 6]	① 모음 탈락 [5점] ② 유음화 [2점] ③ 구개음화 [3점]
[문제 7]	① 내, 상관하랴 [7점] ② 아마도, 마치리라 [3점]
[문제 8]	① 탁영호 [5점] ② 선부연 [5점]
[문제 9]	① 그러나, 질식입니다 [4점] ② 그러나, 느끼시나요(?) [6점]

4

가천대학교(국어영역) 논술 준비 팁



가. 가천대학교 논술 출제 경향 파악하기

- 가천대학교 논술전형의 경우 전형방식이 2023학년도에는 논술 60+학생부교과 40, 2024학년도에는 논술 80+학생부교과 20,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는 논술 100으로 변경됐다. 또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률은 2023학년도 20.89:1, 2024학년도 31.24:1, 2025학년도 38.68:1로 매년 크게 상승하였다.
- 2025학년도 대입 논술고사부터는 기존에 출제되던 형태인 단순히 글의 빈칸을 채워 넣는 문항에서 탈피하여, 한 문장 단위로 정답을 기술하거나, 보기에서 본문에 들어갈 말을 채워 넣는 등의 문제도 출제되었다. 또한 기존에 EBS 연계 교재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문을 일부 변형한 제시문을 활용한 문제도 출제되었다. 이에 수험생이 체감하는 문항의 난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 지원자들은 가천대학교 논술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천대학교가 제공하는 논술 가이드북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출제 경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답이 명확히 정해진 논술 문제이기에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정확히 정답을 찾는 연습과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푸는 연습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가천대는 매해 6~7월 경에 모의논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의논술 문제 역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 교과 수업 및 EBS 연계 교재 우선하기

- 가천대학교는 학교 수업과 정기 지필고사의 교과 서술·논술형을 바탕으로 논술을 출제하여 학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 완화를 논술의 출제 방향으로 잡고 있다. 출제 범위와 내용 모두 고등학교 교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에 학교 수업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 수험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EBS 연계 교재에서 논술 문항의 제시문이 발췌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특강 문학과 독서, 수능완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충실히 풀기 위해 문학과 독서 지문의 주제어를 반복하여 정리해봐야 한다.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의 경우, 미선택자는 EBS 연계 교재를 모두 풀어볼 필요는 없으나, 교과 수업에서 다루는 부분에 충실하여 제시문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언어와 매체의 경우도 미선택자는 EBS 연계 교재를 모두 풀어보는 것은 무리이나, 교과 수업에서 배운 음운 변동은 반드시 복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5

연습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 입을 그리워해 우니나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며 거짓인 줄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시리이다  
 녀이라도 입과 한곳으로 가고 싶어라 아으  
 우기던 이 누구였습니까  
 과(過)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우리들의 말이랍니다  
 슬프도다 아으  
 임이 나를 하마 잊으셨나이까  
 아아 입아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소서

- 정서, 「정과정곡」

\* 이숫하요이다: 비슷합니다

\* 잔월효성: 새벽녘의 달과 별

※ 2026학년도 EBS 수능특강(문학)의 본문을 활용함.

문제 1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이 작품은 고려 시대의 문인 정서가 유배지에서 지은 고려 속요이다. 정서는 인종과 동서 사이로, 인종의 총애를 받으며 벼슬 생활을 하다가, 인종이 죽고 의종이 즉위하자 참소를 입어 부산과 거제에서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했다. 유배를 떠날 때 의종이 곧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자신의 심정을 담아 지은 노래가 이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화자의 다양한 정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자연물 ( ① )을/를 통해 자신의 슬픔과 왕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행 ( ② )에서는 물음의 방식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을 참소하던 자들에 대한 비난과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①: \_\_\_\_\_

②: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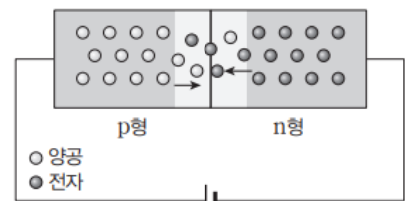
기체 등의 절연체를 사이에 낀 두 전극에 높은 전압을 가하였을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방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형광등은 방전 현상에 의해 발생한 빛을 이용하는 방전등에 속한다. 형광등은 양 끝에 필라멘트가 있는 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리관 안에는 수은 증기와 불활성 기체 등이 들어 있다. 필라멘트에 전압을 걸면 전자들이 방출되는데, 이 전자들이 수은 증기와 충돌한다. 이 충돌로 수은 증기에서 빛 에너지가 자외선의 형태로 방출되는데, 자외선이 유리관에 도포된 형광 물질과 만나면 형광 물질에서 가시광선이 방출된다. 도포된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방출되는 가시광선의 색이 달라진다.

형광등에서 발생한 빛이 깜빡이지 않고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류의 세기 변화가 적어야 하는데, 가정에 공급되는 교류 전류는 전류의 세기가 계속하여 변화한다. 이 때문에 형광등에는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장치인 안정기가 있다. 형광등의 개발 초기에는 안정기에 코일이 들어있었는데, 코일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코일 내에서는 전류의 세기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저항이 발생하여 전류의 세기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도록 만든다. 코일은 떨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후 코일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 회로를 활용하는 전자식 안정기가 개발되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안정기를 활용함으로써 세기의 변화가 적은 전류를 형광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형광등은 수은의 위험성과 전력 효율 등의 문제로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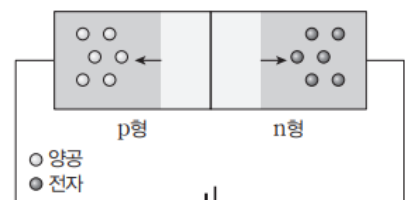
LED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광 반도체 소자이다. 일반적으로 LED 전등은 형광등에 비해 적은 전력으로도 빛을 낼 수 있고 수명이 더 길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형광등을 대체하고 있다. LED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결합하여 만든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고, p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이동한 뒤에 남은 구멍인 양공이 많다. 전자는 (-) 전하를 띠고, 양공은 (+) 전하를 띤다. 전류는 (+)극에서 (-)극으로 흐르고, 전자는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는데, <그림 1>과 같이 (+)극과 (-)극을 각각 p형과 n형 반도체에 연결하면 p형 반도체의 양공은 (+)극의 영향을 받고, n형 반도체의 전자는 (-)극의 영향을 받아 각각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만나 결합하며 전류가 계속하여 흐르는데, 전자와 양공이 서로 결합하며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된다. 이때 결합 전후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것이 LED 전등의 작동 원리이다.

한편 ㉠ LED 전등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사용하여 빛을 낸다. 하지만 전등에 공급되는 교류 전류는 (+)극과 (-)극이 교대하며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따라서 p-n 접합 다이오드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그림 1>과 <그림 2>의 형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하지만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으로 인해 (+)극과 (-)극이 각각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연결될 때만 전류가 흐르는데, <그림 2>처럼 (+)극과 (-)극이 각각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연결되면, n형 반도체의 전자가 (+)극으로 끌려가고 p형 반도체의 양공은 (-)극에서 나온 전자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만나지 못하게 되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류가 공급되더라도 LED 전등에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

※ 2026학년도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독서)의 본문을 활용함.



<그림 1>



<그림 2>

문제 2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형광등에서 빛이 발생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④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형광등의 유리관 양 끝에 있는 ( ① )에 전압을 걸.



전자들이 방출되어 유리관 내에 있는 ( ② )와/과 충돌함.



빛 에너지가 ( ③ )의 형태로 방출됨.



( ③ )이/가 유리관에 도포된 ( ④ )와/과 만남



( ④ )에서 가시광선이 방출됨.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 11-2) 가천대학교(수학)

2026 논술 고사 일정	전형 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시험 시간	문항 수	글자 수, 배점	주 출제 교과 및 과목 (출제 범위)
2025. 11. 24. (월)	논술 100	국수영탐(1과목) 중 1개 영역 3 이내	80분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	각 문항 당 10점 총 150점	국어: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수학 I, 수학 II

## 1

## 가천대학교(인문계열) 수학 논술 준비



### 가. 연계 과목 / 핵심 용어 및 개념

연도	연계 과목	핵심 용어 및 개념	
2025	수학 I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로그의 성질, 지수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용
		수열	등차수열의 합,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수학 II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함수의 연속, 함수의 극한
		다항함수의 미분법	미분가능성과 연속성, 함수의 극대와 극소
		다항함수의 적분법	적분과 미분의 관계, 도형의 넓이
2024	수학 I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로그의 밑 변환, 로그부등식
		삼각함수	여러 가지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수열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합
	수학 II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함수의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함수의 증가와 감소, 방정식과 부등식, 속도와 가속도
		다항함수의 적분법	정적분의 계산, 적분과 미분의 관계
2023	수학 I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법칙, 로그의 밑 변환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관계, 삼각함수의 활용
		수열	등비수열의 합,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 II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함수의 극한의 성질, 함수의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함수의 극대와 극소, 함수의 최대와 최소
		다항함수의 적분법	부정적분, 정적분의 계산

## 나. 문항 유형 특성

- 가천대학교 논술고사 수학 문제의 경우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 가천대학교 논술가이드북에서는 평소 학교 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학습에 성실히 임한 학생이라면 논술고사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없이도 대비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형 및 단답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과 달리 약술형 논술의 특성 상 정답과 정답에 이르기 위한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됨. 발문 형태는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십시오.'임.
- 2025 대입 논술고사부터는 2024 대입까지 출제되는 형태인 풀이 과정을 완성하는 문항(빈칸에 알맞은 수식이나 숫자를 기재하는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수험생이 체감하는 문항의 난도가 조금 더 높아짐.

## 다. 출제 자료 및 도서 출처

연도	출제 자료 및 도서
2025	수학 I 교과서: 천재교과서(류희찬), 동아출판(박교식), 교학사(권오남), 천재교육(이준열) 등 수학 II 교과서: 금성출판사(배종숙), 천재교육(이준열), 지학사(홍성복), 비상교육(김원경) 등
2024	수학 I 교과서: 미래엔(황선욱), 천재교육(이준열) 수학 II 교과서: 미래엔(황선욱), 천재교육(이준열)
2023	수학 I 교과서: 미래엔(황선욱), 천재교육(이준열) 수학 II 교과서: 미래엔(황선욱), 천재교육(이준열)

※ 교과서의 쪽수는 '가천대학교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참고

2

2025 대입 가천대학교 인문계열(수학 영역) 논술고사 기출문제 

※ 가천대 논술 고사 문항은 논술전형 경쟁률과 응시 인원을 고려하여 문항을 분배하여 시행되며 2025 대입에서는 총 A, B 2세트, 각 6문항씩 총 12문항을 출제하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대입 기출(2024. 11. 25. 시행)

 문제 1

1이 아닌 두 양수  $a, b(a \neq b)$ 가  $\log_a b - \log_b a = 0$ 을 만족시킬 때,  $9a + 25b$ 의 최솟값을  $m$ 이라 하고, 이때의  $a$ 의 값을  $\alpha$ 라 하자.  $m$ 과  $\alph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문제 2

첫째항이 2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이  $S_n$ 일 때,  $13S_n > \sum_{k=1}^6 (a_k)^3$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문제 3

양의 실수  $t$ 에 대하여 함수  $y = t - |2x|$ 의 그래프와 함수  $y = x^2$ 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t)$ 라 할 때,  $\lim_{t \rightarrow \infty} \frac{\sqrt{t} S(t)}{t^2}$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문제 4

실수  $t$ 에 대하여 직선  $y = t$ 가 곡선  $y = |x^2 - 2x| + x$ 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 라 하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g(t)$ 에 대하여 함수  $f(t)g(t)$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f(1) + g(1)$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문제 5**

최고차항의 계수가  $-\frac{1}{2}$ 이고  $x=8$ 에서 최댓값을 갖는 이차함수  $f(x)$ 에 대하여 함수  $g(x)$ 를

$$g(x) = \begin{cases} f(x) & (x \leq a) \\ \left| f(x+1) - f(x) - \frac{7}{2} \right| & (x > a) \end{cases} \text{라 하자.}$$

함수  $g(x)$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할 때,  $f(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 는 상수이다.)

**문제 6**

함수  $f(x) = 2\sin^2\left(\frac{3}{2}\pi - x\right) - 2\cos\left(\frac{\pi}{2} - x\right) + 5$ 의 최댓값이  $\alpha$ 이고 최솟값이  $\beta$ 일 때,  $\alpha\bet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문제 7**

정의역이  $\left\{x \mid \log_5 \frac{1}{3} \leq x \leq 2\right\}$ 인 함수  $y = 25^x - 3 \times 5^{x+2} + 10$ 이  $x = \alpha$ 에서 최댓값  $M$ 을 갖고  $x = \beta$ 에서 최솟값  $m$ 을 가질 때,  $\alpha, \beta, M, m$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문제 8**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 \sum_{k=1}^{45} \frac{\sqrt{x+k+45} + \sqrt{x+k}}{x\sqrt{x}}$ 에 대하여  $g(x)$ 는  $\lim_{x \rightarrow \infty} f(x)g(x) = 2025$ 를 만족시키는 이차함수이다. 방정식  $g(x) = 0$ 의 서로 다른 두 실근  $\alpha, \beta$ 가  $\alpha + \beta = 25, \alpha\beta = 5$ 를 만족시킬 때,  $g(x)$ 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문제 9**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 에 대하여 모든  $f(1)$ 의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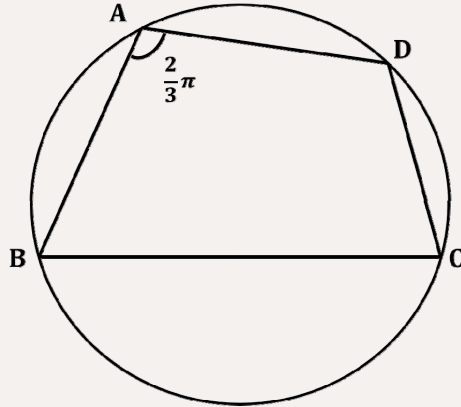
$$\text{모든 실수 } x \text{에 대하여 } f(x) = 5x^4 + x^2 \int_{-1}^1 f(t)dt - \left| \int_0^1 f(t)dt \right| \text{이다.}$$

**문제 10**

첫째항이 1이고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sum_{k=1}^{21} \frac{a_{k+1} - a_k}{\sqrt{a_{k+1}} + \sqrt{a_k}}$ 의 값이 50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공차들의 집합을  $A$ 라 하자. 집합  $A$ 의 모든 원소의 개수를  $\alpha$ , 모든 원소의 합을  $\beta$ 라 할 때,  $\alpha$ 와  $\bet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문제 11**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overline{AD} = \overline{CD} = 3$ ,  $\overline{BC} = 8$ ,  $\angle BAD = \frac{2}{3}\pi$ 일 때,  $\sin(\angle ADC)$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문제 12**

$f(x) = \begin{cases} ax+b & (x \leq -1) \\ x^2 - 2x + 2 & (-1 < x < 3) \\ x^3 - 3x^2 + cx + d & (x \geq 3) \end{cases}$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할 때,

함수  $g(x) = ax^3 + (b+t)x^2 + cx + d$ 가 극값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t$ 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2025 대입 가천대학교(수학영역) 논술고사 해설



가. 문항 해설

문제 1

1이 아닌 두 양수  $a, b(a \neq b)$ 가  $\log_a b - \log_b a = 0$ 을 만족시킬 때,  $9a + 25b$ 의 최솟값을  $m$ 이라 하고, 이때의  $a$ 의 값을  $\alpha$ 라 하자.  $m$ 과  $\alph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log_a b - \log_b a = 0$$

$$\frac{\log b}{\log a} - \frac{\log a}{\log b} = 0$$

양변에  $\log a \log b$ 를 곱하면

$$(\log b)^2 - (\log a)^2 = 0$$

$$(\log b + \log a)(\log b - \log a) = 0$$

$$a \neq b \text{이므로 } \log b + \log a = 0 \quad \therefore \log ab = 0, ab = 1$$

$a, b$ 가 1이 아닌 양수이므로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

$$9a + 25b \geq 2\sqrt{9a \times 25b} = 30 \text{ (단, 등호는 } 9a = 25b \text{일 때 성립)}$$

$$\therefore 9a + 25b \text{의 최솟값 } m = 30 \text{이고 이때의 } a \text{값인 } \alpha = \frac{5}{3} \text{이다.}$$

문제 2

첫째항이 2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이  $S_n$ 일 때,

$13S_n > \sum_{k=1}^6 (a_k)^3$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첫째항이 2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_n\}$ 은  $a_n = 2 + (n-1) \times 3 = 3n - 1$ 이므로,

$$\sum_{k=1}^6 (a_k)^3 = \sum_{k=1}^6 (3k-1)^3 = \sum_{k=1}^6 (27k^3 - 27k^2 + 9k - 1) = 9633 \text{이다.}$$

따라서  $13S_n > 9633$ 에서  $S_n > 741$ 이고

$$S_n = \frac{n\{4 + 3(n-1)\}}{2} = \frac{n(3n+1)}{2} \text{이므로 } \frac{n(3n+1)}{2} > 741 \text{이다.}$$

$S_{22} = 7370$ 이고  $S_{23} = 8050$ 이므로  $13S_n > \sum_{k=1}^6 (a_k)^3$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의 최솟값은 23이다.

**문제 3**

양의 실수  $t$ 에 대하여 함수  $y = t - |2x|$ 의 그래프와 함수  $y = x^2$ 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t)$ 라 할 때,  $\lim_{t \rightarrow \infty} \frac{\sqrt{t} S(t)}{t^2}$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제 1사분면에서 두 함수  $|2x| + y = t$ 와  $y = x^2$ 의 교점의  $x$ 좌표는  $x^2 + 2x - t = 0$ 에서  $x = -1 + \sqrt{1+t}$ 이다. 따라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S(t) &= 2 \int_0^{-1+\sqrt{1+t}} (t - 2x - x^2) dx = 2 \left[ tx - x^2 - \frac{x^3}{3} \right]_0^{-1+\sqrt{1+t}} \\ &= 2t(\sqrt{1+t} - 1) - 2(\sqrt{1+t} - 1)^2 - \frac{2}{3}(\sqrt{1+t} - 1)^3 \end{aligned}$$

이다. 따라서

$$\lim_{t \rightarrow \infty} \frac{\sqrt{t} S(t)}{t^2} = \lim_{t \rightarrow \infty} \frac{2t(\sqrt{1+t} - 1) - 2(\sqrt{1+t} - 1)^2 - \frac{2}{3}(\sqrt{1+t} - 1)^3}{t^{3/2}} = \frac{4}{3}$$

**문제 4**

실수  $t$ 에 대하여 직선  $y = t$ 가 곡선  $y = |x^2 - 2x| + x$ 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 라 하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g(t)$ 에 대하여 함수  $f(t)g(t)$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f(1) + g(1)$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x^2 - 2x| + x = \begin{cases} x^2 - x & (x \leq 0) \\ -x^2 + 3x & (0 < x \leq 2) \\ x^2 - x & (x > 2) \end{cases} \text{이고 } y = -x^2 + 3x = -\left(x - \frac{3}{2}\right)^2 + \frac{9}{4} \text{ 이므로 함수}$$

$y = |x^2 - 2x| + x$ 의  $x = \frac{3}{2}$ 에서의 함수값은  $\frac{9}{4}$ 이다.

$$\text{따라서 함수 } f(t) = \begin{cases} 0 & (t < 0) \\ 1 & (t = 0) \\ 2 & (0 < t < 2) \\ 3 & (t = 2) \\ 4 & (2 < t < \frac{9}{4}) \\ 3 & (t = \frac{9}{4}) \\ 2 & (t > \frac{9}{4}) \end{cases} \text{이다.}$$

함수  $f(t)$ 는  $t \neq 0, t \neq 2, t \neq \frac{9}{4}$ 인 실수  $t$ 에서 연속이고  $g(t)$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f(t)g(t)$ 는  $t = 0, t = 2, t = \frac{9}{4}$ 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t = 0 \text{일 때 } f(0)g(0) = g(0), \lim_{t \rightarrow 0^+} f(t)g(t) = 2g(0), \lim_{t \rightarrow 0^-} f(t)g(t) = 0 \text{이므로 } g(0) = 0$$

$$\text{마찬가지로 } t = 2, t = \frac{9}{4} \text{일 때를 계산하면 } g(2) = 0, g\left(\frac{9}{4}\right) = 0 \text{이다.}$$

$g(t)$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이므로  $g(t) = t(t-2)\left(t - \frac{9}{4}\right)$ 이다.

$$\text{따라서 } f(1) + g(1) = 2 + 1 \times (-1) \times \left(-\frac{5}{4}\right) = \frac{13}{4}$$

**문제 5**

최고차항의 계수가  $-\frac{1}{2}$ 이고  $x = 8$ 에서 최댓값을 갖는 이차함수  $f(x)$ 에 대하여 함수  $g(x)$ 를

$$g(x) = \begin{cases} f(x) & (x \leq a) \\ \left| f(x+1) - f(x) - \frac{7}{2} \right| & (x > a) \end{cases} \text{라 하자.}$$

함수  $g(x)$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할 때,  $f(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 는 상수이다.)

이차함수  $f(x)$ 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frac{1}{2}$ 이고  $x = 8$ 에서 최댓값을 가지므로  $f(x) = -\frac{1}{2}x^2 + 8x + c$ 라 놓을 수 있다. ( $c$ 는 상수)

$$f(x+1) - f(x) = -\frac{1}{2}(x+1)^2 + 8(x+1) + c - \left(-\frac{1}{2}x^2 + 8x + c\right) = -x + \frac{15}{2}$$

$$\text{이므로 } \left| f(x+1) - f(x) - \frac{7}{2} \right| = \left| -x + \frac{15}{2} - \frac{7}{2} \right| = |-x + 4|. \text{ 따라서,}$$

$$g(x) = \begin{cases} -\frac{1}{2}x^2 + 8x + c & (x \leq a) \\ |x - 4| & (x > a) \end{cases}$$

만일,  $a < 4$ 이면  $\lim_{x \rightarrow 4^-} \frac{g(x) - g(4)}{x - 4} = -1, \lim_{x \rightarrow 4^+} \frac{g(x) - g(4)}{x - 4} = 1$ 이므로  $g(x)$ 는  $x = 4$ 에서 미분 불가능하고,

이는 가정에 모순된다.

$$a \geq 4 \text{일 때, } g(x) \text{가 } x = a \text{에서 연속이므로 } g(a) = -\frac{1}{2}a^2 + 8a + c = \lim_{x \rightarrow a^+} g(x) = a - 4$$



$\lim_{x \rightarrow a^-} \frac{g(x) - g(a)}{x - a} = -a + 8$ ,  $\lim_{x \rightarrow a^+} \frac{g(x) - g(a)}{x - a} = 10$ 이므로  $g(x)$ 가  $x = a$ 에서 미분가능하려면  $a = 7$ . 따라서  $f(a) = f(7) = g(7) = 3$

### 문제 6

함수  $f(x) = 2\sin^2\left(\frac{3}{2}\pi - x\right) - 2\cos\left(\frac{\pi}{2} - x\right) + 5$ 의 최댓값이  $\alpha$ 이고 최솟값이  $\beta$ 일 때,  $\alpha\bet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f(x) = 2(-\cos x)^2 - 2\sin x + 5 = 2(1 - \sin^2 x) - 2\sin x + 5 = -2\left(\sin x + \frac{1}{2}\right)^2 + \frac{15}{2}$$

$\sin x = t$ 라 놓으면  $-1 \leq t \leq 1$ 이다.

$$f(t) = -2\left(t + \frac{1}{2}\right)^2 + \frac{15}{2}$$

최댓값:  $t = -\frac{1}{2}$ 일 때,  $\alpha = \frac{15}{2}$

최솟값:  $t = 1$ 일 때,  $\beta = 3 \therefore \alpha\beta = \frac{15}{2} \times 3 = \frac{45}{2}$

### 문제 7

정의역이  $\left\{x \mid \log_5 \frac{1}{3} \leq x \leq 2\right\}$ 인 함수  $y = 25^x - 3 \times 5^{x+2} + 10$ 이  $x = \alpha$ 에서 최댓값  $M$ 을 갖고  $x = \beta$ 에서 최솟값  $m$ 을 가질 때,  $\alpha, \beta, M, m$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y = (5^x)^2 - 75 \times 5^x + 10$$

$5^x = A$ 라 하자. ( $A > 0$ )

$$y = A^2 - 75A + 10 = \left(A - \frac{75}{2}\right)^2 - \frac{5585}{4}$$

이때,  $\frac{1}{3} \leq A \leq 25$

$A = \frac{1}{3}$ 일 때, 즉  $x = \alpha = \log_5 \frac{1}{3}$ 에서 최댓값  $M = -\frac{134}{9}$

$A = 25$ 일 때, 즉  $x = \beta = 2$ 에서 최솟값  $m = -1240$

**문제 8**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 \sum_{k=1}^{45} \frac{\sqrt{x+k+45} + \sqrt{x+k}}{x\sqrt{x}}$ 에 대하여  $g(x)$ 는  $\lim_{x \rightarrow \infty} f(x)g(x) = 2025$ 를 만족시키는 이차함수이다. 방정식  $g(x) = 0$ 의 서로 다른 두 실근  $\alpha, \beta$ 가  $\alpha + \beta = 25, \alpha\beta = 5$ 를 만족시킬 때,  $g(x)$ 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f(x) = \sum_{k=1}^{45} \frac{\sqrt{x+k+45} - \sqrt{x+k}}{x\sqrt{x}} = \sum_{k=1}^{45} \frac{45}{x\sqrt{x}(\sqrt{x+k+45} + \sqrt{x+k})}$$

$$= \sum_{k=1}^{45} \frac{1}{x\sqrt{x}} \left( \frac{45}{\sqrt{x+k+45} + \sqrt{x+k}} \right)$$

이므로  $g(x) = ax^2 + bx + c$ 라 놓으면

$$\lim_{x \rightarrow \infty} f(x)g(x) = \lim_{x \rightarrow \infty} \frac{ax^2 + bx + c}{x} \left( \sum_{k=1}^{45} \frac{45\sqrt{x}}{\sqrt{x+k+45} + \sqrt{x+k}} \right) = \frac{2025}{2}a$$

따라서  $a = 2$ . 또한,  $\alpha, \beta$ 가 방정식  $g(x) = 0$ 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alpha + \beta = -\frac{b}{2} = 25, \alpha\beta = \frac{c}{2} = 5 \text{ 이고 } b = -50, c = 10 \text{ 이다.}$$

$$\text{따라서 } g(x) = 2x^2 - 50x + 10 = 2\left(x - \frac{25}{2}\right)^2 - \frac{605}{2} \text{ 이므로 최솟값은 } g\left(\frac{25}{2}\right) = -\frac{605}{2} \text{ 이다.}$$

**문제 9**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 에 대하여 모든  $f(1)$ 의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text{모든 실수 } x \text{에 대하여 } f(x) = 5x^4 + x^2 \int_{-1}^1 f(t)dt - \left| \int_0^1 f(t)dt \right| \text{ 이다.}$$

다항함수  $f(x)$ 는  $f(-x) = f(x)$ 이므로  $y$ 축 대칭이고  $\int_0^1 f(t)dt = a$  ( $a$ 는 상수)라 하면  $\int_{-1}^1 f(t)dt = 2a$ 이다.

따라서  $f(x) = 5x^4 + 2ax^2 - |a|$ 로 나타내어지며

$$a = \int_0^1 (5t^4 + 2at^2 - |a|)dt = \left[ t^5 + \frac{2}{3}at^3 - |a|t \right]_0^1 = 1 + \frac{2a}{3} - |a| \text{ 를 만족한다.}$$

(1)  $a \geq 0$ 인 경우,  $a = \frac{3}{4}$  이고  $f(x) = 5x^4 + \frac{3}{2}x^2 - \frac{3}{4}$  이므로  $f(1) = \frac{23}{4}$  이다.

(2)  $a < 0$ 인 경우,  $a = -\frac{3}{2}$  이고  $f(x) = 5x^4 - 3x^2 - \frac{3}{2}$  이므로  $f(1) = \frac{1}{2}$  이다.

따라서 모든  $f(1)$ 의 값의 합은  $\frac{25}{4}$  이다.

**문제 10**

첫째항이 1이고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sum_{k=1}^{21} \frac{a_{k+1} - a_k}{\sqrt{a_{k+1}} + \sqrt{a_k}}$ 의 값이 50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공차들의 집합을  $A$ 라 하자. 집합  $A$ 의 모든 원소의 개수를  $\alpha$ , 모든 원소의 합을  $\beta$ 라 할 때,  $\alpha$ 와  $\bet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sum_{k=1}^{21} \frac{a_{k+1} - a_k}{\sqrt{a_{k+1}} + \sqrt{a_k}} = \sum_{k=1}^{21} (\sqrt{a_{k+1}} - \sqrt{a_k}) = \sqrt{a_{22}} - \sqrt{a_1} = \sqrt{a_{22}} - 1$$

따라서 50이하의 자연수  $m$ 에 대하여  $\sqrt{a_{22}} - 1 = m$ ,  $a_{22} = (m+1)^2 = m^2 + 2m + 1$

공차를  $d$ 라 하면,  $a_{22} = a_1 + 21d = 1 + 21d$ 이다. 따라서

$$1 + 21d = m^2 + 2m + 1, \text{ 즉, } 21d = m^2 + 2m = m(m+2), d = \frac{m(m+2)}{21}$$

즉, 집합  $A = \left\{ d \mid d = \frac{m(m+2)}{21} \text{인 자연수, } m = 1, 2, 3, \dots, 50 \right\}$ 이다.

공차  $d = \frac{m(m+2)}{21}$ 가 자연수인 경우는  $m = 7, 12, 19, 21, 28, 33, 40, 42, 49$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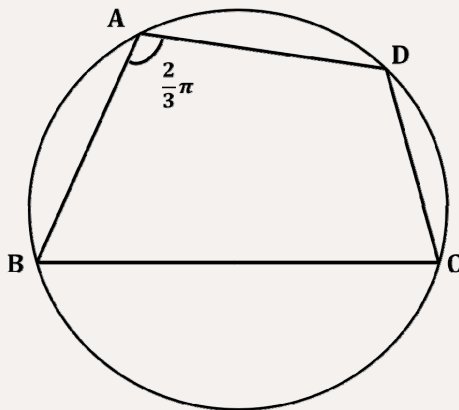
( $m$ 이 21의 배수인 경우:  $m = 21, 42$ ;  $m+2$ 가 21의 배수인 경우:  $m = 19, 46$ )

( $m$ 이 7의 배수인 경우:  $m = 7, 28, 49$ ;  $m+2$ 가 7의 배수인 경우:  $m = 2, 33$ )

따라서  $A = \{3, 8, 19, 23, 40, 55, 80, 88, 119\}$ 이므로  $\alpha = 9, \beta = 435$

**문제 11**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overline{AD} = \overline{CD} = 3$ ,  $\overline{BC} = 8$ ,  $\angle BAD = \frac{2}{3}\pi$ 일 때,  $\sin(\angle ADC)$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 □ABCD가 원에 내접하므로  $\angle DCB = \pi - \angle BAD = \pi - \frac{2}{3}\pi = \frac{\pi}{3}$

2) △BCD에서  $\overline{BD}^2 = 3^2 + 8^2 - 2 \times 3 \times 8 \times \cos \frac{\pi}{3} = 49 \therefore \overline{BD}^2 = 49 \dots\dots ①$

3) △ABD에서  $\overline{BD}^2 = \overline{AB}^2 + 3^2 - 2 \times \overline{AB} \times 3 \times \cos \frac{2}{3}\pi = \overline{AB}^2 + 3\overline{AB} + 9 \dots\dots ②$

①과 ②에 의해,  $49 = \overline{AB}^2 + 3\overline{AB} + 9, (\overline{AB} + 8)(\overline{AB} - 5) = 0, \overline{AB} > 0$ 이므로  $\overline{AB} = 5$

4) □ABCD = △BAD + △BCD =  $\frac{1}{2} \times 5 \times 3 \times \sin \frac{2}{3}\pi + \frac{1}{2} \times 3 \times 8 \times \sin \frac{\pi}{3} = \frac{39}{4} \sqrt{3} \dots\dots ③$

5)  $\angle ADC = \theta, \angle ABC = \pi - \theta$ 라 하자.

□ABCD = △ABC + △ADC =  $\frac{1}{2} \times 5 \times 8 \times \sin(\pi - \theta) + \frac{1}{2} \times 3 \times 3 \times \sin \theta = \frac{49}{2} \sin \theta \dots\dots ④$

③과 ④에 의해,  $\frac{39}{4} \sqrt{3} = \frac{49}{2} \sin \theta \therefore \sin(\angle ADC) = \frac{39}{98} \sqrt{3}$

**문제 12**

$$f(x) = \begin{cases} ax+b & (x \leq -1) \\ x^2 - 2x + 2 & (-1 < x < 3) \\ x^3 - 3x^2 + cx + d & (x \geq 3) \end{cases}$$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할 때,

함수  $g(x) = ax^3 + (b+t)x^2 + cx + d$ 가 극값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t$ 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f(x)$ 는  $x = -1$ 과  $x = 3$ 에서 연속이고, 미분가능하다. 따라서

$-a + b = \lim_{x \rightarrow -1^-} f(x) = \lim_{x \rightarrow -1^+} f(x) = 5$ 이고,

$a = \lim_{x \rightarrow -1^-} \frac{f(x) - f(-1)}{x + 1} = \lim_{x \rightarrow -1^+} \frac{f(x) - f(-1)}{x + 1} = -4$ 이므로,  $a = -4, b = 10$ 이다.

또한  $5 = \lim_{x \rightarrow 3^-} f(x) = \lim_{x \rightarrow 3^+} f(x) = 3c + d$ 이고,

$4 = \lim_{x \rightarrow 3^-} \frac{f(x) - f(3)}{x - 3} = \lim_{x \rightarrow 3^+} \frac{f(x) - f(3)}{x - 3} = 9 + c$ 이므로,  $c = -5, d = 20$ 이다.

$g'(x) = 3ax^2 + 2(b+t)x + c = -12x^2 + 2(t+1)x - 5$ 이므로,  $g(x)$ 가 극값을 가지려면

$(t+1)^2 - 60 > 0$ 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t$ 의 범위는  $t < -1 - 2\sqrt{15}$  또는  $t > -1 + 2\sqrt{15}$ 이다.

## 나. 채점 기준

문항	채점 기준
[문제 1]	$ab = 1$ [3점], $m = 30$ [4점], $\alpha = \frac{5}{3}$ [3점]
[문제 2]	$a_n = 3n - 1$ [1.5점], $\sum_{k=1}^6 (a_k)^3 = 9633$ [3.5점], $S_n = \frac{n(3n+1)}{2}$ [1.5점], $n = 23$ [3.5점]
[문제 3]	$x = -1 + \sqrt{1+t}$ [2점], $S(t) = 2t(\sqrt{1+t}-1) - 2(\sqrt{1+t}-1)^2 - \frac{2}{3}(\sqrt{1+t}-1)^3$ [5점], $\lim_{t \rightarrow \infty} \frac{\sqrt{t} S(t)}{t^2} = \frac{4}{3}$ [3점]
[문제 4]	$f(t) = \begin{cases} 0 & (t < 0) \\ 1 & (t = 0) \\ 2 & (0 < t < 2) \\ 3 & (t = 2) \\ 4 & \left(2 < t < \frac{9}{4}\right) \end{cases}$ $(f(t) \text{의 그래프})$ [4.5점], $g(t) = t(t-2)\left(t - \frac{9}{4}\right)$ [4.5점], $\begin{cases} 3 & \left(t = \frac{9}{4}\right) \\ 2 & \left(t > \frac{9}{4}\right) \end{cases}$ $f(1) + g(1) = \frac{13}{4}$ [1점]
[문제 5]	$f(x) = -\frac{1}{2}x^2 + 8x + c$ (또는 $f(x) = -\frac{1}{2}(x-8)^2 + c$ 또는 $f(x)$ 의 일차항의 계수는 8) [1.5점], $g(x) = \begin{cases} -\frac{1}{2}x^2 + 8x + c & (x \leq a) \\  x-4  & (x > a) \end{cases}$ [2점], $a = 7$ [2.5점], $f(a) (= g(7)) = 3$ [4점]
[문제 6]	$f(x) = -2\sin^2 x - 2\sin x + 7$ [3점], $\alpha = \frac{15}{2}$ [3점], $\beta = 3$ [3점], $\alpha\beta = \frac{45}{2}$ [1점]
[문제 7]	$\alpha = \log_5 \frac{1}{3}$ [2점], $M = -\frac{134}{9}$ [3점], $\beta = 2$ [2점], $m = -1240$ [3점]
[문제 8]	$\lim_{x \rightarrow \infty} f(x)g(x) = \frac{2025}{2}a$ ( $a$ 는 $g(x)$ 의 이차항의 계수) [4.5점], $g(x) = 2x^2 - 50x + 10$ [3.5점], $g\left(\frac{25}{2}\right) = -\frac{605}{2}$ [2점]

문항	채점 기준
[문제 9]	$f(x) = 5x^4 + 2ax^2 -  a $ ( $a$ 는 상수)[2점], $f(1) = \frac{23}{4}$ [3.5점], $f(1) = \frac{1}{2}$ [3.5점], $\frac{25}{4}$ [1점]
[문제 10]	$\sum_{k=1}^{21} \frac{a_{k+1} - a_k}{\sqrt{a_{k+1}} + \sqrt{a_k}} = \sqrt{a_{22}} - 1$ [2점], $a_{22} = a_1 + 21d = 1 + 21d$ ( $d$ 는 공차)[1점], $\alpha = 9$ [2.5점], $\beta = 435$ [4.5점]
[문제 11]	$\angle DCB = \frac{\pi}{3}$ [2점], $\overline{AB} = 5$ [3점], $\sin(\angle ADC) = \frac{39}{98}\sqrt{3}$ [5점]
[문제 12]	$a = -4$ , $b = 1$ [4점], $c = -5$ [4점], $t < -1 - 2\sqrt{15}$ 또는 $t > -1 + 2\sqrt{15}$ (또는 $(-\infty, -1 - 2\sqrt{15}) \cup (-1 + 2\sqrt{15}, \infty)$ )[2점]

4

가천대학교(수학영역) 논술 준비 팁



가. 가천대학교 수학영역 논술 문항 출제 경향 파악하기

- 가천대학교 논술전형의 경우 계열별로 출제되는 수학 영역의 문제 수가 다르고 문항의 수준도 다르게 출제된다. 출제 범위는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 기준으로 수학 I과 수학 II에서 출제된다. 2개년간(2025 대입~2024 대입) 인문 계열 기준으로 수학 I, 수학 II 과목에서 출제된 단원과 문항 수준(문항수준의 경우 5단계[하-중하-중-중상-상])으로 구분하였고, 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임을 참고할 것은 다음과 같다.

수학 I 과목 출제 단원

2025 대입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단원	수준	단원	수준	단원	수준
인문A	로그의 성질	중상	삼각함수의 그래프	중	등차수열의 합	중상
인문B	지수함수의 그래프	중	삼각함수의 활용	중상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상

2024 대입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단원	수준	단원	수준	단원	수준
인문A	로그부등식	중	삼각함수의 그래프	중상	등차수열의 일반항	중
인문B	로그의 밑 변환	중상	삼각함수의 성질	중	등비수열의 합	중

수학 II 과목 출제 단원

2025 대입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단원	수준	단원	수준	단원	수준
인문A	함수의 연속	중상	미분가능성과 연속성	중상	도형의 넓이	중상
인문B	함수의 극한	상	미분가능성과 연속성	중상	적분과 미분의 관계	중상

2024 대입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단원	수준	단원	수준	단원	수준
인문A			함수의 증가와 감소	중상	정적분의 계산	중상
			방정식과 부등식	중상		
인문B	함수의 연속	중상	속도와 가속도	중상	적분과 미분의 관계	중상

## 나. 논술전형 전형 방식 변화에 따른 문항 난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비

- 가천대학교 논술전형의 경우 난도 면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가천대학교 논술전형의 전형방식은 2023 대입부터 2025 대입까지 '논술 60 + 교과 40 → 논술 80 + 교과 20 → 논술 100으로 변경되면서 논술 고사의 반영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률이 20.89(2023) → 31.24(2024) → 38.68(2025)으로 변화하여 논술고사 문항의 변별력 확보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천대학교 논술고사 수학 문항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쉬운 문항을 반복적으로 해결하는 연습과 더불어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수능모의평가에서 출제되는 4점 문항 수준의 문항에 대해서도 일정 시간을 확보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 다. 수학 I 및 수학 II 학습 내용에 따른 준비 사항 파악하기

- 수학 I과 수학 II 과목별 출제 난도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수학 II 과목의 난도가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수학 과목의 난도와도 관련이 있다. 다항함수의 미분법과 적분법을 중심으로 변수 변화에 따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수학 II 과목의 학습 목표임을 고려할 때, 문제의 난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수능 출제 난도나 실제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도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제 단원 측면에서는 각 단원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고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획적인 문제 풀이가 필요하다. 특히 수학 II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는 난이도가 더 높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삼차함수와 사차함수의 그래프, 다항함수의 적분법에서 적분과 미분의 관계, 적분의 활용(넓이, 속도와 거리) 단원에 속한 다양한 문제 해결 경험이 필수적이다.

## 라. 모의논술 문항 풀이를 통한 올해의 출제 경향성을 파악하기

- 2026 대입에서도 전년도와 동일한 전형방식을 운영하므로 자연스럽게 논술고사의 출제 난도는 2025 대입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학생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학습 전략과 문제 해결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모의논술 문항 풀이를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모의논술 출제 단원이 실제 논술 출제 단원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난도 또한 다소 쉽게 출제되지만 그 해의 출제 경향이나 출제 단원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천대학교 논술전형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응시하여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마. EBS 연계 교재와 교과서 연습문제 풀이를 통해 논술 고사 대비하기

- 가천대학교 논술고사에서는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된다. 교과서 수준의 비교적 수월한 문항도 출제되지만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해결이 되는 난도가 비교적 높은 문항도 출제된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비슷하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선택형 또는 단답형으로 출제됨에 비해 가천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 풀이과정을 작성해야 하는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되므로 이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2024 대입 논술고사까지는 풀이과정 중 빈칸을 채우는 형태의 단답형 문항도 출제되었지만 2025 대입 논술고사부터는 이러한 단답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수험생의 체감 난도도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평상시 자신의 풀이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해 보는 경험이 많은 수험생이 유리할 수 있다.

함수

$$f(x) = \begin{cases} ax+b & (x \leq -1) \\ x^2-2x+2 & (-1 < x < 3) \\ x^3-3x^2+cx+d & (x \geq 3) \end{cases}$$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할 때, 함수  $g(x) = ax^3 + (b+t)x^2 + cx + d$ 가 극값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t$ 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 출처: 가천대학교 2025 대입 논술고사 기출 문제

함수  $f(x) = \begin{cases} ax^2+bx & (x \geq 1) \\ x^3-x+3 & (x < 1) \end{cases}$ 이 모든 실수  $x$ 에서 미분가능할 때, 상수  $a, b$ 의 값을 구하시오.

- 출처: 신사고 고등학교 수학 II p. 70 11번 문항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f(x)$ 에 대하여 함수

$$g(x) = \begin{cases} f(x)+2x & (x < -1) \\ -f(x)-x^2+a & (-1 \leq x < 2) \\ f(x)+2x+b & (x \geq 2) \end{cases}$$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다.  $f(2) = 6$ 일 때,  $g(1) + g(3)$ 의 값을 구하시오.(단,  $a, b$ 는 상수이다.)

- 출처: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수학영역 수학 II p.40 3번 문항

-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되는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는 대학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다. 수능 연계 교재의 충실한 풀이를 통해서 교과형 논술전형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험생들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문제 유형은 자주 접할 수 있고 단순히 답만을 찾고자 하지 않고 명확한 수학적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풀이를 써보는 연습을 한다면 약술형 논술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함수  $f(x) = \frac{ax+2}{x-b}$ 와 양의 실수  $t$ 에 대하여  $x$ 에 대한 방정식  $|f(x)| = t$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 라 하고,  $x$ 에 대한 방정식  $|f(x)| = -tx$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 라 할 때, 두 함수  $g(t), h(t)$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가) 함수  $g(t)$ 는  $t = b$ 에서만 불연속이다.
- (나) 함수  $h(t)$ 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f(3) + h(3) = \frac{2}{3}$ 일 때,  $f(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 b$ 는 상수이고,  $ab \neq -20$ 이다.)

- 출처: 가천대학교 2024 대입 논술고사 기출 문제

실수  $t$ 에 대하여 곡선  $y = x^2 - 2x + 2$ 와 직선  $y = -2tx + 1$ 의 교점의 개수를  $f(t)$ 라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lim_{t \rightarrow 0^-} f(t) = 2$
- ㄴ.  $m \geq 10$ 이면 직선  $y = mt$ 와 함수  $y = f(t)$ 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 ㄷ. 함수  $(t^2 - 2t)f(t)$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 출처: EBS 2025학년도 수능특강 수학영역 수학 II p.27 6번 문항

- 위 논술 문항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목에서 다루는 유리함수의 그래프 단원의 개념과 2학년 수학 II 과목에서 다루는 함수의 연속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또한, 함수의 그래프를 변수에 따라 좌표평면의 어느 위치에 그려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으므로 학생 입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참고문항으로 수능특강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의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목에서 다루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개념과 함수  $f(t)$ 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의 적절한 위치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술 출제 문항과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난도가 다소 높게 출제되는 문항의 경우 두 개 이상의 교과와 개념이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문제 풀이 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을 충실히 하고 필요한 개념이나 풀이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가천대학교(수학 영역) 논술고사 대비 연습문제



문항 1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부등식  $\cos^2 x + 3\sin x - a < 0$ 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출처: 고등학교 수학 I, 고성은 외 6명, 좋은책 신사고, 2020, p. 90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begin{aligned} \cos^2 x &= 1 - \sin^2 x \\ 1 - \sin^2 x + 3\sin x - a &= -\sin^2 x + 3\sin x + 1 - a < 0 \\ \therefore \sin^2 x - 3\sin x + a - 1 &> 0 \\ \sin x = t &\text{로 치환하면 } t^2 - 3t + (a-1) > 0 \text{ 이다.} \\ \text{따라서 } D = 9 - 4(a-1) < 0 &\text{ 이므로 } a > \frac{13}{4} \\ \rightarrow y = \sin x \text{의 치역을 고려하지 않음} \end{aligned}$$

삼각함수의 관계 중  $\sin^2 x + \cos^2 x = 1$ 임을 이용하여 주어진 부등식을 잘 변형하였고  $\sin x$ 가 반복된다는 점을 파악하여 치환을 잘 하였다. 삼각함수 단원 이전에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다만,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치환한 문자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인지가 잘 되지 않아서 답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교과 수업을 통해서 배웠겠지만  $y = \sin x$ 와  $y = \cos x$ 의 경우 치역이  $\{y \mid -1 \leq y \leq 1\}$ 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텐데 그 부분을 이 문제 풀이에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약점이라고 생각된다. 치환을 했을 경우 문제 형태의 변화도 생각해보아야 하지만 문제 구성 요소의 변화에 대해서도 늘 신중히 고민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예시 답안

$\cos^2 x + 3\sin x - a < 0$ 에서  $(1 - \sin^2 x) + 3\sin x - a < 0$ 이므로  $\sin^2 x - 3\sin x + a - 1 > 0$ 이다.  
 $\sin x = t$ 로 놓으면  $-1 \leq \sin x \leq 1$ 에서  $-1 \leq t \leq 1$ 이고 주어진 부등식은  
 $t^2 - 3t + a - 1 > 0$ 이다.  $f(t) = t^2 - 3t + a - 1$ 이라고 하면  $f(t) = \left(t - \frac{3}{2}\right)^2 + a - \frac{13}{4}$ 이다.  
 $-1 \leq t \leq 1$ 일 때,  $f(t) > 0$ 이어야 하므로  $f(1) > 0$ 이어야 한다. 즉,  $1 - 3 + a - 1 > 0$ 이므로  $a > 3$

**문항 2**

점 (0, 3)에서 곡선  $y = x^3 - 6x + 1$ 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출처: 고등학교 수학 II, 고성은 외 6명, 좋은책 신사고, 2020, p. 101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y' = 3x^2 - 6$  에서  $x=0$  일때,  $y' = -6$  <sup>곡선위의 접아름</sup> 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6이고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므로  $y-3 = -6x \therefore y = -6x + 3$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파악한 점은  
 좋았음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다만, 미분계수의 정확한 정의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이 잘못된 풀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과서에 나오는 미분계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문제 풀이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0, 3)의 경우 문제에 주어진 삼차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풀이는  $f'(a)$ 가  $y = f(x)$ 의 그래프 위의 점  $(a, f(a))$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에 맞지 않다. 선불리 계산부터 하기보다는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수학 개념이나 공식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된다. 삼차함수의 그래프가 (0, 3)을 지나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는 점을 문제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의 좌표를  $(t, f(t))$ 라 두고  $(t, f(t))$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뒤 그 접선이 (0, 3)을 지난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시 답안**

$f(x) = x^3 - 6x + 1$ 이라고 하면  $f'(x) = 3x^2 - 6$ 이다. 접점의 좌표를  $(a, a^3 - 6a + 1)$ 이라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y - (a^3 - 6a + 1) = (3a^2 - 6)(x - a)$ 이고  $y = (3a^2 - 6)x - 2a^3 + 1 \dots\dots \textcircled{1}$   
 접선  $\textcircled{1}$ 이 점 (0, 3)을 지나므로  $3 = -2a^3 + 1, a^3 + 1 = 0, a = -1$ 이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textcircled{1}$ 에서  $y = -3x + 3$

**문항 3**

함수  $f(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 3x^2 + \int_0^2 (2x-1)f(t)dt$ 일 때,  $f(x)$ 를 구하시오.

출처: 고등학교 수학 II, 고성은 외 6명, 좋은책 신사고, 2020, p. 127

**학생 예시 답안 및 선생님 첨삭**

$\int_0^2 (2x-1)f(t)dt = C$  ( $C$ 는 상수) ... ①라 하면  
 ↗ 어떤 변수에 대한 적분? ↘ 번호를 매긴 점 우수  
 ↙ 활용가능  
 $f(x) = 3x^2 + C$  이다. 이를 ①에 대입하면  
 $C = \int_0^2 (2x-1)(3t^2 + C)dt = (2x-1) [t^3 + Ct]_0^2$   
 $= (2x-1)(8 + 2C)$   
 이 식은 왜 이 위치인지?  
 상수  $C$ 가 문자  $x$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함수  $f(x)$ 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적분의 아래 끝과 위끝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정적분의 값이 상수가 된다는 점은 잘 파악하였다. 다만, 위 주어진 문제의 경우 정적분의 대상이 되는 함수에  $(2x-1)$ 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는 바와 같이 변수  $t$ 에 대한 정적분 이므로 정적분을 계산할 때  $(2x-1)$ 은 상수로 취급해야 올바른 계산이 된다. 학생이 구한  $f(x)$ 의 결과를 ①식에 대입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2x-1)$ 을 정적분의 왼쪽에 표기한 것으로 보았을 때 상수로 인지했음을 알 수 있지만 처음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함수나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변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산해야 한다.

**예시 답안**

$f(x) = 3x^2 + (2x-1) \int_0^2 f(t)dt$ 에서  $\int_0^2 f(t)dt = C$  ( $C$ 는 상수)..... ①라 하자. 따라서  
 $f(x) = 3x^2 + C(2x-1) = 3x^2 + 2Cx - C$  ..... ②  
 이다. ②을 ①에 대입하면  $C = \int_0^2 (3t^2 + 2Ct - C)dt = [t^3 - Ct^2 - Ct]_0^2 = 8 + 2C$ 이므로  $C = -8$ 이다.  
 그러므로  $f(x) = 3x^2 - 16x + 8$



Part

# III



## 부 록





## 교과 연계 대입 논술 가이드북

- 인문·상경 계열, 약술형 논술 중심으로 -

**01** 논술에 도움이 되는 작문 지침

**02** 텍스트를 반성적으로 읽기 위한 평가 요소

# 01 논술에 도움이 되는 작문 지침

논술은 글쓰기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작문 지침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할 내용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 ● 글의 통일성과 일관성

- 글은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통일성 있게 일관되어야 한다. 또한 글을 쓰는 목적이나 대상에 대한 관점도 일관되어야 한다.

## ● 문장 간, 문단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

- 정확한 접속어의 선택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접속어 없이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접속어를 쓰게 되면 글이 산만해지고 독자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 ● 필수적인 내용이나 문장 성분

- 작성한 글이 필수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 대안을 찾는 글을 쓰는 경우, 문제 상황과 원인, 대안이 필수적인 내용 요소이므로 이것들이 모두 담겨 있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필수 문장 성분들을 모두 갖추어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거나 의미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어법에 맞는 문장 사용

- 올바른 문장은 정확한 의사 전달과 신뢰성 확보의 시작점이 된다. 따라서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기 위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에서 글을 쓸 때 실수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 ● 문장 성분 호응 관계 오류

-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소중하다'를 '소중하다는 것이다.'로 바꿈.
- 철수가 친구를 도와준 것은 결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결코'를 '정말' 혹은 '매우'로 바꿈.

● 중복된 내용이나 표현

- 이 소설은 우리의 민족정신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 작품이다.
- 가을 햇살을 받으며 나는 집까지 도보로 걸었다.  
→ ‘탈것을 타지 않고 걸어감.’이라는 의미의 ‘도보’와 ‘걸었다’가 의미 중복이므로 ‘도보로’를 삭제함.

● 불필요한 피동 표현

-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중의적 표현

- 예쁜 영희의 동생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 ‘예쁜’이 수식하는 대상이 영희인지 영희의 동생인지 불분명함. 예를 들어, 영희의 동생이 예쁘다면 ‘영희의 예쁜 동생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라고 써야 하고, 영희가 예쁘다면 ‘예쁜 영희의, 동생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됨.

● 한자어나 영어의 남용, 번역 투 문장

- 이런 풍조는 심각한 문제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 일으키고 있다. (한자어 남용 자제)
- 나는 이번 여름에 가족들과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보냈다. (번역 투 문장 수정)

글을 고치고 다듬을 때는 일반적으로 전체 내용을 살펴본 후 구성, 문단, 문장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이나 불필요한 내용은 빼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보충해야 하며, 때로는 논리성을 높이기 위해 글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문맥에 맞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문장을 지나치게 길게 써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출처: 『논술』 교과서(비상교육)

# 02

## 텍스트를 반성적으로 읽기 위한 평가 요소

논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반성적으로 읽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반성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평가하며 읽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지침으로 ‘평가 요소’가 있다. 평가 요소는 필수 평가 요소와 일반 평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평가 요소	평가 질문
필수 평가 요소	분명함	개념이나 문장이 중의적이지 않고, 뚜렷한가?
	명료함	개념이나 진술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였는가?
	정확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모두 참인가?
	적절성	글이 현안과 잘 관련되어 있는가?
일반 평가 요소	충분성	현안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고려하였는가?
	논리성	주장이 근거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되었는가?
	다각성	논의 내용이 폭넓은가?
	심층성	논의 내용이 깊이가 있는가?
	독창성	관점이나 근거가 참신한가?

※ 2022 개정 고등학교 논술 교육과정 내 (3) 평가하는 글쓰기 성취기준 해설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1

### 필수 평가 요소



#### 가. 분명함

분명함은 텍스트에 사용된 개념이나 진술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즉 표현이 중의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나는 눈이 좋다.”라고 말하면 시력이 좋다는 뜻인지, 겨울에 내리는 눈이 좋다 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단어나 문장을 썼을 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분명함의 기준에 어긋난 것이다. 예를 들면, “어제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라는 문장도 ‘나와 철수가 함께 영희를 만났는지’, 아니면, ‘내가 혼자서 철수와 영희를 만났는지’ 등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분명함의 기준에 어긋난다.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썩어가고 있다.”와 같은 진술도 분명하지 못한 문장이다. 교육 제도 자체가 개악이 되고 있다는 것인지, 교육 제도의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참고로, ‘분명하지 않은’ 진술은 ‘애매한’ 진술이라고 부른다.

## 나. 명료함

명료함은 모호함의 반대 개념으로, 명료하다는 것은 어떤 진술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명료함은 개념이나 진술의 의미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개념이나 진술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이번 중간고사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을 안 사줄 거야.”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몇 점이 떨어졌을 때 스마트폰을 안 사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나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과체중이 많아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라는 진술에는 과체중의 정도가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모호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다. 정확성

정확성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실제로 참인지 또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거가 거짓이거나 이성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근거로부터 도출된 주장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을 발견한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봐 학생, 그렇게 졸면 대학 못 가!” 이때 주장은 ‘너는 대학 못 간다.’이고, 근거는 ‘너는 수업 시간에 졸았다.’이다. 이때 이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근거가 정확한지이다. 즉, 수업 시간에 졸은 것이 사실인가이다. 만약에 해당 학생이 “선생님, 저 졸지 않았는데요?”라고 반문하면 학생이 졸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논증이 되기 어렵다. 논술에서 자신의 주장을 타당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근거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최근에 자주 활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 얻은 근거 자료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들이 믿을만한 정보인지를 또 다른 포털 사이트나 책, 논문 등에서 검증해야만 한다.

## 라. 적절성

적절성은 텍스트에 담겨 있는 논의가 현안, 즉 텍스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만약 텍스트의 내용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무관하다면 그 텍스트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적절성은 논점 이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생활과 윤리 수행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을 보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따지며 말한다. “선생님, 저는 생활과 윤리 수행평가 준비를 위해 어제 밤을 꼬박 샐는데 너무 억울해요.” 이때 수행평가 점수는 해당 과목에 대한 투자 시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행평가 과제물이 채점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학생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 일반 평가 요소



## 가. 충분성

충분성은 현안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을 텍스트의 목적과 요구에 맞도록 철저히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사고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적절히 모두 다 고려했다면 충분성의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때 충분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너무 적은 증거나 편향된 증거를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폭력 게임을 많이 한다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이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폭력 게임 제작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한다고 가정하자. 여기에서 학교폭력의 횡수와 폭력 게임의 참여 횡수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현재의 자료만을 가지고 인과관계까지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만약 국회의원이 이 통계자료를 자신의 입법 근거 자료로 활용하려면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한 후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 나. 논리성

논리성이란 주장과 근거들이 체계적으로 엮여 근거로부터 주장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교과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의 학업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말했다고 가정하자. 여기에서 주장은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이고, 근거는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의 학업 집중력을 떨어뜨린다.’이다. 우선 앞에서 서술한 ‘정확성’의 요소에 의해 근거가 정확한지 따져야 한다. 다음으로, 여러 통계자료에 의해서 근거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으로, ‘논리성’의 요소에 의해 해당 발언을 점검해봐야 한다. 즉, 근거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금지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를 스마트폰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교과서에 소개된 이론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수업에서 학술 논문이나 뉴스 자료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다. 설사 스마트폰이 학업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의 장점도 많다. 공부할 때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부할 때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해당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다. 다각성

다각성이란 현안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즉, 사고가 편협하지 않고 폭넓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교수님이 수시모집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학생,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단순히 원인을 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입시교육이나 경쟁 시스템을 말할 것이다. 이때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 등 다양한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답변을 한다면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이 논술을 할 때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각성을 높이는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해결책을 복지부 차원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외교나 국방 차원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복지부 차원에서 출산 장려비를 증액시키자는 대안이 나왔을 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때 외교부 차원에서 동북 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이끌어 내는 외교 전략을 잘 펼치면 남북 대결 상태가 완화되어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 절감된 예산으로 출산 장려비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 라. 심층성

심층성이란 현안이 논의되는 사회적 맥락이나 이론적 배경 등을 고려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논의를 심도 있게 한다는 것은 쟁점이나 문젯거리를 피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표피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 그 안의 복합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읽어내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학교 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라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수준의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 폭력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심지어 의학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깊게 다루어질 때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현대 사회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심층적 차원의 탐구가 절실하다.

## 마. 독창성

독창성이란 문제 상황을 독특한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가 참신한가에 대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특정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융합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시도가 독창성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것을 낫설게 보고 질문을 하는 태도는 독창성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된다.

예를 들면,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책의 내용을 근거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여러분이 만약 『어린왕자』라는 책을 감동 깊게 읽었다고 하자.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때도 『어린왕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학교 폭력 문제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때도 『어린왕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은 매우 독창적인 전략으로 실제 논술 시험에서 큰 효과를 본 방법으로 대학 갈 때만이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대학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글쓰기를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김영정, 정상준 (2005). 비판적 사고의 9요소와 9기준. 대한토목학회지, 35(11), p.217-225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센(SEN)진학

# 교과 연계 대입 논술 가이드북

- 인문 · 상경 계열, 약술형 논술 중심으로 -

**총괄** 심지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

**기획** 양소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연구** 윤태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이은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어수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임재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권이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집필** 전명재 경북고등학교 교감  
강방식 동북고등학교 교사  
김병욱 대원여자고등학교 교사  
김현정 마포고등학교 교사  
나진정 경북여자고등학교 교사  
윤태수 선덕고등학교 교사  
이은주 광남고등학교 교사  
정태영 한가람고등학교 교사  
홍태숙 경인고등학교 교사

**검토** 박희숙 은평고등학교 교감  
강정모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이종은 삼각산고등학교 교사  
황소인 해누리중학교 교사



**발행인**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발행일** : 2025년 7월 7일

**발행처**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우:04636)

전화: 02-311-1355 FAX: 02-311-1364

<https://jinhak.sen.go.kr>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이 자료는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과	연계	대입
	논술	가이드북	

- 인문·상경계열, 약술형 논술 중심으로



**센(SEN)진학 나침판**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https://ipsi.sen.go.kr>



SEOUL CAREER GUIDANCE CENTER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https://jinhak.sen.go.kr>

